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呂珠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研究

2010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曹喜昌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研究

金呂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0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曹喜昌

論文概要

蘇齋 盧守愼(1515-1590)은 文運이 흥기하던 16세기 목릉성세를 살았던 인물이다. 시인이며 철학자로 기림을 받았으며 관직 또한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높은 명망과 빼어난 관운을 지녔던 것으로 보이는 그의 삶도 세밀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파란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30대 초반에 귀양길에 올라 22년간 진도 配所에서 辛苦를 겪었고,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解配되어 본격적 宦路에 나섰던 인물인 것이다. 늦게 시작한 관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최고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宣祖의 각별한 신임이 1차적 요인이었겠지만, 謫居를 통하여 얻은 老獯한 처신 또한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蘇齋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문학과 陽明學者로서의 위상을 함께 살펴야 한다. 소재는 謫居期の 좌절과 울분을 초극하고 승화하여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애썼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학문에 침잠하였다. 그 결과 나름의 학설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신봉하던 주자철학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明의 羅欽順 사상을 수용하면서 그 틀을 잡아나갔다. 그는 유배지에서 『夙興夜寐箴解』 및 『人心道心辨』, 『執中說』 등을 저술하고 退溪 李滉, 河西 金麟厚, 一齋 李恒 등과 논변하였다. 이 논문들은 朱子學과는 이질적인 心性論과 工夫論을 제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대와 후대의 사류들로부터 異端에 몰든 학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그의 철학은 당시 주류인 주자 학통을 가진 퇴계중심의 사류들과, 奇大升·李恒 등의 반론에 부딪쳤지만 그의 신념은 더욱 굳어져 조선 기 철학의 새로운 좌표라고 할 수 있는 이기일원론의 학설을 세우게 된다. 理氣一元論은 조선의 氣哲學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체계화 되면서 퇴계의 理氣二元論과 함께 조선철학사에 竝立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 소재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재는 정암의 『困知記』를 수용하여 體用說을

자신의 說로 삼고, ‘도심은 性·인심은 情이며, 도심과 인심이 모두 用’이라는 기존 논리에 반대하고 ‘도심은 體이고 인심은 用’이라고 주장하였다. 心은 하나인데 둘로 말한 것은 動과 靜에 의하여 나누어지며, 體와 用에 의하여 분별된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欲望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본성이니 재단하여 道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다만 中絶·不中絶에 따라 善惡이 구별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欲望의 긍정은 그의 문학에 그대로 수용되어 당시 엄숙주의와 절제된 宋詩風에 변혁을 일으키고 해동강서시파의 詩作理論에서 한걸음 더 진보하여, 당시의 시풍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가 살던 선조조에는 宋詩, 특히 江西詩派를 배우려는 시적 지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道學詩가 활발하게 창작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宋詩의 散文性, 技巧主義에 반발하여, 音樂性과 抒情性, 形象性을 회복하기 위한 詩的 지향으로 唐詩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소재는 이 시기에 활동하면서 해동강서시파의 일군으로서 황정견·진사도를 섭렵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적거지에서는 杜甫를 공부하여, 그의 시를 탐독하였으니 2천여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고 한다. 그 결과 허균으로부터 두보의 조선적 再現이라는 찬사까지 받게 되었으며, 白光勳·崔慶昌 등과 맺은 사우관계를 통해 三唐派 출현의 가교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蘇齋 소재가 學宋의 시적 지향을 받아들이면서 唐詩를 섭렵해 나가는 과정의 향도적 역할을 자임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소재의 시의 특징은 수사적 기교와 표현 수법에 있어서 重義法과 反復法, 對話體 등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명·인명·관직명·철학용어·간지 등의 고유명사를 시어로 적극 활용하였고, 俚語와 接續詞도 적절히 배치시켜 탁월한 시적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진보적인 과격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詩를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勝景自適과 脫俗 指向, 思親과 戀君에의 衷情, 挫折과 超克의 情懷, 學問의 沈潛과 成就, 寫實的 自然景物 描寫로 요약된다. 소재의 시는 그 시풍이 대체로 ‘萬鈞之勢를 지니고 있

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蘇齋詩의 웅장하고[雄拔], 깊은[淵宏] 맛을 집약하는 평가라 하겠다.

소재는 적거지에서 22년간의 신고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척박하고 불우한 환경을 새로운 삶으로 승화시켜, 문학과 철학을 정립시키는 불후한 업적을 남겼다. 그가 남긴 1,449수의 시 중에 유배지에서 창작된 시가 1,023首에 달하니 그의 시 창작의 대부분은 유배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유배의 좌절을 초극하여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승화시켜 왕성한 창작력과 비장함으로 격조 높은 작품세계를 이루어 낸 것이다.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통해 그가 湖陰 鄭士龍·芝川 黃廷彥과 함께 湖蘇芝로 명칭되고, ‘館閣三傑’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것이 결코 虛名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조선중기 관인 문학을 최고조로 올려놓았다는 평가 역시 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蘇齋, 宋詩, 江西詩派, 館閣文人, 海東江西詩派, 唐詩, 陽明學.

目 次

論文概要

I. 序論	1
1. 研究의 目的	1
2. 既存研究의 現況과 研究方法	4
II. 蘇齋詩의 形成背景	8
1. 生涯 및 交遊關係	8
1) 生涯	8
2) 交遊關係	15
2. 時代的 背景	24
1) 政治·社會的 背景 - 士禍와 政爭으로 얼룩진 시대	24
2) 文學的 背景 - 宋詩風의 퇴조와 唐詩風의 擡頭	30
III. 思想的 背景과 文學意識	43
1. 思想的 背景	43
1) 思想의 形成過程	43
2) 脫朱子學으로부터 佛·道·陸王學의 影響	52
2. 文學意識	57
1) 詩意識의 變遷과 思想과의 융화	57
2) 以我觀物的 形象意識	65

IV. 詩世界	71
1. 蘇齋詩의 形式的 特徵	71
2. 變俗作雅의 창작 方法	73
1) 詩語의 확장	75
2) 句法의 파악	88
3) 典故의 효용	92
4) 意境의 안배	99
3. 詩世界의 特徵	104
1) 勝景自適과 脫俗 指向	105
2) 思親과 戀君에의 衷情	110
(1) 家族間의 情懷	110
(2) 戀君之情	129
3) 挫折과 超克의 情懷	135
4) 學問의 沈潛과 成就	150
5) 寫實的 自然景物 描寫	155
V. 文學史的 意義	171
1. 諸家의 評	171
2. 文學史的 意義	176
VI. 結論	181
參考文獻	
ABSTRACT	

I. 序論

1. 研究의 目的

조선 초의 시문학은 世宗 이래 崇文政策에 힘입어 전례 없이 성황을 이루었고 成宗朝 詞章派와 士林派간의 대립은 한때 文弱을 겪기도 하였으나 후일 穆陵盛世 豊雄高華의 개화를 가져왔다. 16세기 초.중반은 唐詩風의 확산과 강서시풍이 크게 진작되던 시기였다¹⁾.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金守溫, 徐居正, 崔岄, 許筠 등의 八文章家와, 申欽, 李廷龜, 張維, 李植의 四大家가 있으며, 唐宋시풍의 전환기적 시기로서 海東 江西詩派가 활동하였다.

蘇齋 盧守愼(1515~1590)은 明宗, 宣祖대에 활동한 대시인이요 철학자로서 정사룡, 황정욱과 함께 '湖蘇芝'라 병칭되듯 독자적인 시풍으로 개성을 발휘하였던 인물이다.²⁾

思想的으로는 청년시절의 환로기에 道學政治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巳士禍의 政治的 外變으로 22년 동안 진도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나 유배의 불운을 학문으로 극복하고 整菴 羅欽順의 학설을 수용하여 체계화시켰다. 羅整菴 사상을 수용하여 『夙興夜寐箴解』³⁾와 「童蒙須知」⁴⁾, 「人心道心辨」⁵⁾, 「執中說」⁶⁾, 「大學章句」⁷⁾ 등 철학논문을 발표하였고,

1) 申緯가 朝鮮의 江西詩派를 최초 언급하였고 김태준은 朴閔, 李荇, 鄭士龍, 盧守愼, 成侃, 申光漢, 黃廷或 등을 海東 江西詩派로 분류하고 있다.(『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叢語學會.)

2)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조선어문학회, 126~144쪽.

3) 『內集』, 「懼塞錄」, 37세(1551)에 陣茂卿의 『夙興夜寐箴』을 註解함.

4) 위 책, 「養正錄」, 41세(1555)에 「字訓」과 함께 두 조카에게 주기 위해 註解함.

5) 위 책, 「懼塞錄」, 45세(1559)에 羅整菴의 『困知記』에 영향을 받아 '道心未發' '人心已發說 定立.

6) 위 책, 「懼塞錄」, 48세(1562)에 修養論으로 지음.

7) 69세(1583)에 宋·明의 유학자와 權近, 李彦迪의 大學說을 모아 찬집. 제자 康復誠은 「年譜」에서 「改正大學」으로 命名하고 이를 '대학의 錯簡을 개정한 宋과 明의 유학자들의 大學 說을 모은 책'이라고

그로 인해 주자 성리학자들의 攻擊을 받기도 하였으나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고 理氣一元論의 신념하에 ‘以我觀物的 外物認識’을 견지하여 인간의 욕망은 선악을 겸하고 있다는 주자철학과 퇴계유파들의 반론을 극복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고식적이고 정형화된 주자사상에 대담한 변혁을 시도하였다.

文學的으로는 2천여 회나 論語와 杜詩를 섭렵하여 神韻을 얻었고 多才한 필법으로 과격적이며 詩法을 超脫한 傑出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당시 진부한 詩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의 시는 好惡가 분명하되 許筠⁸⁾, 洪萬宗⁹⁾, 金昌協¹⁰⁾ 등의 절찬을 받아 당대 최고시인으로 호칭되었다. 호남 유배지에서 杜甫에 沈潛했던 소재는 두보의 詩法을 얻었고 白光勳, 崔慶昌과 오랫동안 師友關係를 맺고 그들의 시풍에도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學唐의 앞뒤를 잇고 三唐 詩人에게 큰 영향을 미친 소재에 대한 연구는 朝鮮 中期 시풍변화의 맥을 살피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解配 후에는 ‘湖蘇芝’로 지칭되었고 조선후기 ‘官人文學’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서 ‘館閣三傑’로 칭송되었다¹¹⁾. 소재의 五律은 文字의 推敲와 情調의 婉絶하기가 老杜의 경지에 이르러 특히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소재는 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思想家였을 뿐만 아니라 宣祖朝 詩壇의 영수이기도 하였다. 宣祖 때에는 宋詩, 특히 江西詩派를 배우려는 詩的指向이 계속되는 가운데 道學詩가 활발하게 창작되는 시기였으며 한편으로는 宋詩의 散文性, 技巧主義, 지나친 이상주의에 반발하여, 唐詩를 배워 詩의 抒情性, 音樂性, 形象性

설명하였다.

- 8) 許筠, 『鶴山樵談』, (『許筠全書』 357쪽). 조선 4대문장가로 金宗直, 南袞, 金淨, 盧守愼을 들었다.
- 9) 洪萬宗, 『小華詩評』, "我東自崔孤雲以後, 歷高麗至我朝 其間數千載爲文章者, 不啻數百家, 而大家, 則僅十餘人(下略)" 朝鮮朝 인물로 徐居正, 金宗直, 金時習, 成侃, 朴聞, 李荇, 鄭士龍, 盧守愼, 黃廷彧, 崔笠, 張維 등을 들었다.
- 10) 金昌協, 『農巖集』, 「雜識」(34-11), "其沈鬱. 老健. 莽宕. 悲壯. 深得老杜氣力. 後來學杜者莫能及. 蓋其功力深至, 得於憂患者爲多" (『韓國詩話總編』 4, 607쪽).
- 11) 임형택, 『李朝時代의 士大夫文學』(『韓國文學史의 視覺』, 創作과 批評社, 1984; 趙東一, 『韓國文學通史』 2, 知識産業社, 1994; 沈慶昊, 「朝鮮前期 士大夫의 漢文文學과 文學」, 『韓國思想大系』 4, 精神文化研究院) 등이 이 연구의 대표적 예이다.

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李達, 白光勳, 崔慶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였다.¹²⁾ 소재의 시는 22년간 유배지에서 창작된 것이 대부분으로, 1,579首의 詩 중에서 1,023首가 유배지에서 남긴 것이다. 그의 시를 분석해보면 내용에 따라 勝景自適과 脫俗 指向, 思親과 戀君에의 衷情, 挫折과 超克의 情懷, 學問의 沈潛과 成就, 寫實的 自然景物 描寫로 요약할 수가 있다.

蘇齋 盧守愼에 대한 評價를 살펴보면, 南龍翼은 그를 鄭士龍, 黃廷彧과 더불어 館閣三傑¹³⁾이라 하였고, 許筠은 “그의 五律은 정사룡의 七言과 함께 千年의 絶調¹⁴⁾”라 하였으며, 金昌協은 대가로 칭하는 세 사람 중에서 蘇齋가 風格과 宏放한 면에서 두 사람을 압도한다고 하였다.¹⁵⁾ 특히 농암은 詩評을 통하여 소재 시의 격조는 杜甫의 풍격을 체득한 후에 얻어진 결과로 그의 시가 보여준 功力은 深遠하고 至極한 것으로, 괴롭고 고단한 상황에서 얻은 바가 많았다고 評하여 그에 대한 高評이 20여 년간 辛苦의 유배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평하였다. 소재는 중국 江西詩派의 영향을 받아 난해하고 기교적인 시를 쓴 湖陰 鄭士龍, 芝川 黃廷彧과 함께 館閣三傑로 일컬어지면서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시인이다.

소재에 대한 연구는 金台俊¹⁶⁾과 趙潤濟¹⁷⁾ 등이 국학에 대한 서적에서 간접적 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나 근래에 들어와 그의 생애와 文學的 背景의 연구가 다소 진척되고 文學的인 면과 哲學的인 면으로 연구가 세분되고 있는 것은 진전된 성과이다. 그동안의 소재를 논한 연구 성과를 보면 철학과 문학, 시의 형식과 주제의식이 분리되어 다루어졌고 철학논문은 소재 일생의 시기별 사상변화를 통하여 양명학 체계로 정립되어가

12) 安炳學, 『三唐派 詩世界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88.

13) 南龍翼, 『壺谷詩話』, “評者謂, 鄭湖陰. 盧蘇齋. 黃芝川. 館閣三傑. 金梅月. 南秋江. 宋龜峰. 山林三傑.”

14) 許筠, 『惺叟詩話』, “盧蘇齋. 黃芝川. 近代大家. 俱工近體. 盧之五律. 黃之七律. 俱千年絶調.”

15) 金昌協, 『農巖集』 卷34, 「雜識」 外篇, “世稱湖蘇芝, 然三家詩實不同, 湖陰組織鍛鍊, 頗似西崑, 而風格不如蘇. 芝川矯建奇崛, 出自黃陳, 而宏放不及蘇, 蘇齋其最優乎.”

16) 金台俊, 『韓國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李秉岐, 『漢文學全史』, 新구문화사, 1957.

17)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究堂, 1981.

는 순환적 역사과정을 간과하였으며 기존의 철학사 논의에 의거하여 철학적 내용이 뚜렷하게 제시된 산문시 중심의 哲理詩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소재는 이천여 회가 넘게 杜甫詩를 읽어 唐詩의 지평을 열었던 선구적인 인물이면서도 江西詩派가 추구하는 ‘性情美學’과 ‘以我觀物的’ 시상을 전개하여 陳師道, 黃庭堅을 함께 涉獵한 시인이다. 그러나 소재 연구에서 그의 시격과 시풍이 海東강서시파이면서 唐詩風을 겸한 작가로 조망하여 연구한 실적이 일천하다¹⁸⁾. 이는 대개의 경우 소재가 진도 유배 시 두보에 침잠한 지독한 讀杜家였으며 나중 삼당파 시인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杜詩를 전수한 배경에서 그의 宋詩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湖蘇芝’ 3인의 작품 성향과, 소재의 영향을 받았던 백광훈·최경창·이달 등의 三唐派 시인들에게 끼친 문학적 영향에 대하여 그의 공과와 문학사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위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蘇齋 盧守愼의 문학과 사상을 함께 아우르며 이를 토대로 소재의 시세계를 분석하고 그의 經綸과 思想을 深度 있게 천착하여 이를 토대로 그의 詩文學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既存研究의 現況과 研究方法

소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詩文學과 思想研究(陽明學, 心學)로 구분되어 발표되어 왔다. 문학에 대해서는 1913년에 김태준이 발표한 『朝鮮漢文學史』에서 사인문장계열의 작품을 논하면서 경학계열의 퇴계와 소재의 작품도 상당한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문학사에 편입시키고 있으며 崔海鍾은 『槿域漢文學史』에서 노소재를 朴淳과 함께 조선초 도학문장의 거장으로 간주하

18) 李鍾默,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이종묵은 소재를 海東강서시파 一羣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詩作法과 소재시의 特質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다만 哲學과의 연관이 배제되어있다.

였다. 趙潤濟는 『한국문학사』에서 도학과와 사장파의 분립을 논하면서 經學에 대한 造詣가 깊고 老杜의 경지에 逼하였다고 소재를 언급하였고, 李秉岐는 『國文學全史』에서 館閣三傑의 한사람으로 파악하였다. 李家源은 『韓國漢文學史』에서 「鶴山樵談」, 『芝峯類說」, 『農巖集」, 「惺叟詩話」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성리학적 견지에서 소재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언급은 소재문학의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연구의 객체적 주변인물로 소개되는 한정성을 노정한 것이었다.

소재 연구는 최초로 서수용의 「蘇齋 盧守愼 詩研究」¹⁹⁾가 있으나 주로 소재의 학문과 詩語의 묘사에 중점을 두었고 유배기의 시에 한정하여 그의 시풍을 挫折과 超克으로 조망하였다. 이밖에 조동일의 『韓國文學通史』²⁰⁾에서 蘇齋의 館閣文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1989년 慶北大學校 退溪學研究所에서 소재의 사상, 문학, 정치적 활동을 究명한 발표가 있었는데 문학을 맡은 金光淳은 현행문집과 소재 宗家에 있는 典籍들을 통독하고 소재의 생애를 4기로 나누어 소재의 시를 형식, 주제별로 구분하고 현행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68題 78首의 시들을 게재, 후진의 연구 자료로 제시하였다.²¹⁾ 이 연구의 뒤를 이어 채용복은 소재의 사상을 자세히 考究하고 사상과 문학의 관련성을 시도하였으며 ‘挫折’, ‘挫折과 超克’, ‘超世境界의 志向’을 소재시의 주제적인 특성으로 구분하였다²²⁾. 그 후 李承和는 「蘇齋 盧守愼의 漢詩研究」²³⁾를 통하여 주로 유배기의 시를 중심으로 내면세계의 情懷를 상황과 대상에 따라 분류하였다. 신태영은 소재시의 주된 情調를 ‘悲哀’, ‘葛藤’, ‘挫折’로 구분하였고 소재시의 형상의식을 ‘以我觀物的 景物認識’과 ‘變俗作雅의 表現技法’이 주된 형식적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²⁴⁾. 근자에 辛香林은 「盧守愼 詩에

19) 徐守鏞, 「蘇齋 盧守愼 詩研究」, 成均館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20) 趙東一, 『韓國文學通史』 2, 知識産業社, 1983.

21) 金光淳, 「蘇齋 盧守愼 研究」, 『韓國의 哲學』 17集,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89.

22) 蔡龍福, 「蘇齋 盧守愼 詩의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92.

23) 李承和, 「蘇齋 盧守愼의 漢詩研究」, 檀國大 大學院 碩士論文, 1992.

24) 申太榮, 「盧蘇齋의 詩研究」, 成均館大 碩士論文, 1997.

나타난 思想研究」²⁵⁾를 통하여 소재의 학문이 朱子學에서 心性論과 修養論을 수용한 陽明學으로의 轉變되었음을 究明하여 소재를 양명학자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소재시가 3번의 변천을 거쳐 「遊山錄」 저작기를 제1기 乙巳土禍 이후 탄수 李延慶의 부음과 동서 강유선의 장살 소식을 전해들은 35세까지를 제2기로, 이후부터 「人心道心辨」을 저술한 45세까지의 유배기를 제3기로, 「人心道心辨」, 「執中說」을 저술한 유배 후기와 노년기를 제4기로 구분하여 前 연구자들의 연구범위를 확대 세분하고 사상의 변천을 구명한 것은 진일보한 연구 성과이다.

소재는 자신의 저작을 비교적 잘 보관하고 있었으며 문집 발행은 소재 사후 10년째인 1602년에 그의 從子 盧大河가 초고를 정리하고 목판본으로 인쇄하였다. 초간본은 현재 국립 중앙도서관(한46-가 990)에 완질로 소장되어 있으며 목판으로 초간하여 俗離山에 수장된 판본이 1652년에 소실되자 重刊은 1624년에 牧使 康復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康復誠은 저자와 同門이자 同壻인 舟川 康惟善의 아들이다. 그는 星州 牧使로 부임하자 鑄字로 문집을 印行하였다. 그 후 1652년 증손 峻命이 개편한 定稿本을 1665년 준명의 弟 軍수 景命이 봉화에서 목판으로 강행한 3刊本으로 분량은 原集 10卷, 年譜, 行狀, 內集 2券 合 8冊으로 총 676板이다.²⁶⁾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선택적으로 수렴하고 소재의 유고인 『蘇齋先生文集』(이하는 『蘇齋集』이라 한다) 「天地人」 三冊과 「內集」 一冊, 「附錄」 一冊, 「續集」 一冊, 宗家所藏의 「遺稿」 七冊(『政廳日記』 二冊, 『呈辭手錄』 一冊, 『文集本草』 一冊, 『蘇齋集』 二冊, 『無表題筆寫』 一冊)을 研究 대상으로 하여 소재의 문학세계가 한국 漢文學史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바르게 점검하고자 하며 나아가 본고에서 의도한 연구의 여러 한계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25) 辛香林, 「盧守愼 詩에 나타난 思想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2005.

26) 『蘇齋先生文集』(『蘇齋集』), 凡例, 144쪽.

먼저 II장에서는 生涯 및 交遊關係를 살펴 소재의 출생으로부터 전 생애에 걸쳐 조망하고자한다. 유배기를 중심으로 하여 修學期와 出仕期를 제1기로 하고 유배기를 제2기로 하며 해배 후 재사환기를 제3기로 하여 그의 「年譜」와 「行狀」, <神道碑>를 중심으로 하여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그의 학문적 성장을 지켜준 이연경, 이언적 등의 師承關係와 생애동안 그의 주변에서 삶의 역정에 등장한 학문적, 문학적 지우들을 살피고자한다. 또한 시대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을 통하여 16C초의 정치상황과 문학적 사조에 대하여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 변천되는 시대적 배경과 當時의 詩人群을 相見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소재의 사상적 배경과 문학의식을 살펴보고자한다. 소재는 주자학에 학문의 근원을 두면서도 정암 나흠순사상을 수용하고 양명학을 정립한 사상가이다. 소재문학의 입체적 조망을 위하여 철학사상의 파악은 선행요건에 속한다. 소재의 사상체계를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으로 구분하고 그의 저작인 『夙興夜寐箴解』와 『執中說』, 『人心道心辨』, 『大學章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詩意識과의 함수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본논문의 핵심인 IV장의 시세계에서는 해동강서시파의 일원으로서 소재시의 형상과 특질에 대한 분석 및 소재 사상과 시풍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피고자한다. 소재 시의 특징인 人欲을 긍정적인 理氣一元論에 근거하여 작시상의 典範的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體用的 논리인 動靜에 의하여 움직이는 감각적이면서도 경험적 요소가 표출되는 작시방법을 확인하고자한다. 다음으로는 시의 樣態에 따른 情調 양상을 살피고자한다. V장에서는 소재에 대한 諸家들의 평을 통하여 문학사적 의의와 지금까지의 연구를 대입하여 소재문학의 문학사적 비중과 그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蘇齋詩의 形成 背景

1. 生涯 및 交遊關係

1) 生涯

蘇齋 盧守愼(1515~1590)은 字는 寡悔, 號는 蘇齋(蘇齋), 伊齋, 暗室, 茹芝老人이다. 본관은 光山으로 1515년(중종10) 서울의 남부 樂善坊에서 태어났다. 先祖는 唐代에 九兄弟가 東來하여 新羅에서 벼슬하였으며 七代祖 때에 尙州로 옮겨 살았다.²⁷⁾

소재는 高麗 監門衛 大護軍 愼의 12世孫으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尙州 化寧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광주 盧氏가 상주와 인연을 맺게 되기는 4세嵩이 상주 金善致의 따님에게 장가들면서였다. 증조 敬長은 敦寧府 參奉으로서 吏曹判書에 증직되었고, 祖父인 珩는 豐儲倉 守로서 議政府 左贊成에 증직되었다. 그리고 부친 鴻은 活人署 別提²⁸⁾로서 領議政에 증직되는 영예를 얻었다.

그의 학문은 당대 성리학계의 巨儒인 潭水 李延慶(1484~1548)의 사위가 되어 『小學』 등 심성수양의 학문을 배우면서 크게 성장된다. 그의 學統은 다음과 같다.²⁹⁾

鄭夢周 ⇒ 吉再 ⇒ 金叔滋 ⇒ 金宗直 ⇒ 金宏弼 ⇒ 趙光祖

李延慶 ⇒ 盧守愼, 沈鍵, 康惟善, 郭再祐, 趙晟, 崔永慶, 李之函, 朴枝華,
閔純, 尹鼎叔, (徐敬德)

27) 『蘇齋集』, <光州盧氏 世系>, 372쪽.

28) 부친 鴻은 아들의 후원으로 할인서 별제가가 되는데 이는 서울의 환자를 치료하며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명목으로 설치한 관청으로 從6品 품계이다.

29) 『典故大方』 (강효석). 『東儒師友錄』 (朴世采). 『盧守愼의心學』 (鳳山書院誌, 黃求夏). 『蘇齋盧守愼研究, 政治』, (문경현) 참조

盧守愼 ⇒ 白光勳, 盧大河, 沈喜壽, 康復誠, 羅士慄, 文益世, 惟政, 蘇澳,
 金弘度, 朴贊學, 李沘, 金千鎰, 邊士貞, 許澂, 宋彥愼, 朴而章,
 徐友諒, 閔誠

한미한 벼슬로 자식에게 기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그의 조부 珩는 남달리 영특한 손자를 통하여 가문의 公明을 기대하였고 조부의 願望이 소재에게 잠재되어 靑雲의 꿈을 안게 된다. 그는 나면서부터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옷을 입을 만 할 때부터 의젓함이 어른 같았다³⁰⁾. 어릴 때부터 총명 박학하여 문장을 짓는데 경술 방면에 더욱 造詣가 깊었다.³¹⁾ 특히 詩賦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는데 6세에 入學하여 때로 사람들이 듣고 놀랄만한 시를 지었다.³²⁾

此筆出於君	이 붓을 그대께서 주셨으니
爲君能成文	그대를 위해 글을 지으리
未知何以報	어떻게 보답 할지 알지 못하나
他日登靑雲	훗날 청운의 길에 오르리라. ³³⁾

6세의 어린 나이에 즉석에서 시를 지어 靑雲의 뜻을 펼치고 있으니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 소재에 대한 조부의 기대는 자못 큰 것이어서 그가 조부의 기일에 지은 시에서 “나에게 종사의 중함을 말씀하셨고, 이름이 세상에 일찍 드러나자 자품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³⁴⁾라고 하였음을 볼

30) 『蘇齋集』, 「行狀」 104, “生而粹美 自能勝衣 屹然如成人.”

31) 『蘇齋集』, 「附錄」, 「神道碑銘」, 146쪽, “聰明博學, 爲文章尤深於經術.”

32) 「行狀」 104, “六歲始讀書, 往往賦詩, 有驚人語.”

33) 『蘇齋集』, 「附錄」, 「年譜」, 1쪽.

34) 『蘇齋集』 卷2, 182, 「祖考詳日書懷」, “謂我宗祀重, 謂我資稟好.”

때 그에게 거는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총명이 過人하여 13세가 되자 詩賦를 능숙하게 지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³⁵⁾ 그가 13세 때에 친구들과 동호에 나갔다가 마침 기녀들과 유흥을 즐기던 호당³⁶⁾ 학사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호당학사가 기녀를 보내어 소재 일행을 데려오라고 하자 즉석에서 다음의 시를 짓고 초청을 거절하였다.

誰遣紅裙訪兒呼	누가 기생을 보내 나를 부르는가
我曹非是取歡娛	우리는 이런 것 즐기러 온 게 아니오
扁舟短棹歸來晚	조각 배 노 저어 돌아갈 길 늦었는데
勝水佳山世外圖	勝水佳山이 세상 밖 그림일세. ³⁷⁾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고 자연을 통해 심성을 수양하려는 그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17세에 當世의 名儒인 李延慶(1484~1548)의 사위가 되어 그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20세에 생원과 진사 兩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첫닭이 울면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밤늦도록 책을 읽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동료들조차 그의 상투머리를 본적이 없었다.³⁸⁾ 이처럼 그의 성균관에서의 修學生活은 성실과 근면으로 일관되어 다른 동료들에게 龜鑑이 되었다. 25세(1539) 되던 해 4월 18일에 서울을 떠나 6월 11일까지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이 때 別試가 있다는 家信을 접했으나 금강산의 유람에 뜻을 두어 미련없이 여행을 마치게 된다. 別試는 공고기간이 10일 남짓으로 정기 시보다 경쟁이 덜할 뿐 아니라 수도권의 명문자제들이 많이 응시하였으며 급제하면 자격이 똑같았기 때문에 당시 집안의 願望도 지대하여 소재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미련없이 50여일 간의 여행을 마치고

35) 『蘇齋集』, 「年譜」, 康復誠, “先生十三世, 自幼聰穎絕倫, 至是能作詩賦, 有人心險於山川賦.”

36) 漢江邊 東湖의 讀書堂.

37) 『蘇齋集』, 「附錄」, 「年譜」, 2쪽.

38) 『蘇齋集』, 「附錄」, 3쪽, “鷄鳴冠帶而坐讀書 不輟至夜分內寢同處之士 未嘗有見其髻者.”

돌아왔다. 이 때 지은 「己亥 遊山錄」 71首는 이미 老蒼한 詩才가 배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세(1540)에는 成均館 館事 慕齋 金安國이 太學에 들어와 「時習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선비들을 시험하고는 인재가 없음을 한탄하다가 소재가 지은 「時習箴」을 보고 크게 칭찬한 바 있으며 선조 원년에 經筵官이던 許燁의 註解에 의하여 임금께 올려지게 되었다.³⁹⁾ 27세(1541)에는 회재 이언적을 만나 <心經附註>에 대하여 질문하고 存心에 대하여 물었는데 여기에 물건이 있는데 “꼭 쥐면 깨지고 쥐지 않으면 도망간다[握則破, 不握則亡].”라고 하자 그는 “이는 버리지도 말고 잊지도 말라[是亡助之異名也]는 말씀이군요.”라고 금방 깨닫고 救放心에 힘썼다.

29세(1543)되던 癸卯年에는 初試, 會試, 殿試, 文科 삼장에 모두 장원급제하여, 정6품인 成均館 典籍에 배명되어 宦路가 시작되었다.⁴⁰⁾ 兵曹佐郎을 거치고 30세(1543) 봄에는 世子侍講院司書에 제수되어 1월부터 8월까지 205일 동안 書筵에 入侍하여 『書傳』, 『資治通鑑綱目』, 『史記』, 『近思錄』 등을 시강하면서 孝悌와 賢邪의 辨別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引喩하여 세자의 君德涵養에 심혈을 기울여 進言하되 誠敬의 說과 學問의 要旨가 아님이 없었고 邪僻을 버리고 실천에 힘쓰라는 方向에 주력하였다.

그 해 8월에 병조좌랑에 재수되고 9월에는 鴻文館 수찬이 되어서 호당에 선발되고 11월에는 사가독서의 은혜를 입어 李滉, 鄭惟吉, 柳喜春, 閔箕, 朴承任, 金麟厚, 李元祿 등 후대의 名儒들과 교류하였다. 31세(1545)에 仁宗이 즉위하자 1월 司諫院 正言이 되고 그때 奸人으로 지목되던 李芑가 우의정이 되자 동료와 함께 논박하여 遞職시켰다. 이는 李芑의 장인이 臧吏(횡령)의 죄를 범한 연유에서였다.

39) 『蘇齋集』 卷7, 「時習箴」, 1쪽, “夫所謂學者精一之也. 然必以時習之於心, 則心與理相涵, 無枯燥生澀之病, 而所知者益精, 必以時習之於身, 則身與事相安, 無危殆杌隉之患, 而所行者益一.”

40) 拜命: 及第하면 9品에 筮仕하나 壯元及第者는 初任을 6品 벼슬을 주었다.

이후 仁宗이 8개월 만에 승하하고 明宗이 즉위하자 尹元衡과 李芑가 獄事를 일으켜 乙巳年(1545) 九月에 파직되었다.⁴¹⁾ 이 시기는 李延慶의 訓導와 李滉 등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던 때였으나 乙巳土禍에 연루되어 그만 좌절하고 만다. 이 때 윤원형의 小尹 黨인 尹春年이 회유하려하자 틈을 주지 않고 대의와 명분을 좇았다. 9월에 파직되어 장인이 있는 충주로 내려갔다가 32세(1546)에 조부 贊成公이 京第에서 별세하자 1년간 服을 입고 33(1547)세에 順天으로 定配되었다가 그 해 9월에 珍島로 移配되었다. 38세(1552)에는 그곳에서 茅屋을 지어 蘇齋⁴²⁾라 현판을 걸고 이를 號로 삼았다. 7세((1551)에는 진도에서 『夙興夜寐箴』을 주해하고 퇴계의 논변에 답하였다. 퇴계는 “사도가 동방에서 없어지지 않는한 이 道는 후세에 전해질것”이라고 극찬하고 일부 미진부분을 지적하자 이를 수용하여 개정하였다. 을묘년(1555)에는 家訓과 童蒙須知를 註解하였고, 당시 珍島의 風習이 처음 혼례가 없었으며, 인가에 처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媒子를 通하지 않고 정혼도 없이 보쌈형식의 무력으로 강탈해가는 弊習이 있음을 알고 이를 계도하여 우매한 풍습이 근절되었다.⁴³⁾ 45세(1559)에는 「人心道心辨」을 지었는데 이는 書筵 侍講 때의 人心道心에 대한 견해를 나흠순의 『困知記』를 읽고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4~5년 동안 퇴계 추종자들과 李恒, 奇大升 등 선후배로부터 공박이 있었으나 수차례의 論辯을 통하여 오히려 철학적 사유가 크게 진작되고 퇴계의 二元論에 대한 견해가 확연히 갈라지게 되었다. 또한 48세(1562)에는 「執中說」을 지어 ‘執’을 字言과 義訓의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 持, 守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41) 『明宗實錄』, 「20年 11月 18日 辛亥日條」.

42) 소제 노수신의 호는 蘇와 蘇 두 가지로 錯綜되어 쓰여 지고 있다. 『蘇齋集 附錄』 「年譜」에는 “營茅三間取一爲齋 輒扁曰蘇 蓋本朱子所謂我讀我書 如病得蘇云爾”라 하여 蘇를 썼으며 후손들도 이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鵝溪 李山海가 撰한 祖父 珩의 신도비나 朴承任이 撰한 부친 鴻의 신도비에도 蘇로 쓰고 있음을 볼 때 어느 것이건 무방하다 할 것이나 本稿는 일반적 사류를 좇아 蘇로 쓰기로 하였다.

43) 『燃藜室記述』, <長貧居士胡撰> : 진도의 혼례를 정착시킨 것은 소제의 教化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肅宗 때 珍島 유림들이 鳳巖祠를 지어 소제의 학덕을 기리고 있다.

51세(1565) 겨울에는 괴산에 量移되고 2년 후 53세(1567) 되던 해 明宗이 승하하고 宣祖가 즉위하자 10월에 同臚 李浚慶의 “을사죄인을 소방하고 거두어 쓰시라”는 啓辭에 따라 즉일로 소환, 20여년의 유배생활을 마치게 된다. 珍島 19년을 지내는 시기는 소재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인간의 한계상황을 느끼게 하는 극한적 상황이었음에도 經史를 연구하고 학문을 크게 성숙시켜 다수의 철학논문과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허균, 김창협 등으로부터 절찬을 받았다. 전 생애에서 남긴 1,579首의 시문 중 1,023首가 이 流配期에 남긴 시이다.

해배 후 홍문관 교리에 제수되었으며 이 때 부친 병환을 이유로 귀향하고자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허되고 대신 휴가를 얻었다. 54세(1568)에 다시 어버이 봉양을 위하여 사직을 청하자 부모봉양을 겸하도록 특별히 청주목사를 제수하였다가 출발도 하기 전에 忠淸監司로 超擢하였다. 이에 10월 상경하여 사은하는 글을 올려 임금의 뜻을 세우는 것이 정치의 근본임을 進達하면서 「夙興夜寐箴解」도 함께 올리자 “내가 전에 韓胤明으로부터 공부할 때 들은바 있는데 오늘 보게 되었다. 마땅히 勉勵하겠소.” 하였다. 이 해 겨울 부친상을 당하여 선영에 장례를 모셨는데 喪心과 治喪으로 병이 위독하다는 감사 鄭惟吉의 상소가 있자 內醫를 보내어 진료토록 하였다. 이에 병중인데도 소를 올려 사례하면서 여섯 조목의 箴言을 올렸다.⁴⁴⁾

58세(1572)에는 1월에 동지중추부사를 비롯하여 이조참판 겸 동지성균관사, 대사헌, 이조판서, 양관대제학에 계속 재수되자 다시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59세(1573)에 우의정에 제수되자 자신을 재상으로 超擢함은 국가의 名器(관직)에 누가 된다고 극구 사양하였으나 선조가 不允批答을 내려 “경은 匡輔의 직임에 합당하여 반드시 국가의 治平을 이룰 것이니 안심하고 초탁이라 걱정하지 말고 취직하라”는 명을 받았다. 64세(1578)에는 領相 權

44) 「蘇齋先生集解題」, <箴規語六條>, “務討訓解而不務求義理, 無察政事而不務立治道, 務攬權柄而不務合於人心, 務循前例而不務斷以古義, 務悅諂諛而不務正直, 務善才藝而不務重器識.”

輒이 죽자 11월에 左議政으로 승진되었다. 이때 병을 이유로 아홉 차례의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왕은 手敎를 내려 윤택하지 않았다.⁴⁵⁾

69세(1583)에는 부모의 祔廟를 위해 귀향하려하자 內醫로 하여금 약을 들고 護行토록 했고 服을 벗자 그 이튿날로 좌의정에 재수하였다. 이 해에 어진 인재를 추천토록 하여, 金宇顥, 李潑, 金弘敏, 尹先覺, 白惟讓, 金晬, 鄭汝立 등을 추천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화근이 되었다.

71세(1585)에 几杖을 하사받고 20여 회에 달하는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불허되고 오히려 5월에는 領議政에 제수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報告를 하였으나 不允批答을 받았다. 74세(1588)에 비로소 領議政에서 체직되고 領中樞府事に 제수되었다⁴⁶⁾. 그러나 76세(1591) 10월에 鄭汝立을 誤薦한 죄로 파직되었다. 엄한 성지가 있어 기다리던 중 선조의 진노가 있어 “전일 내가 대신에게 인재를 추천하라 했더니 盧某가 정여립을 추천하였다. 내가 평생토록 盧相을 우대하였는데 이는 나라의 흥망에 관계된 일이고 大義는 지극히 엄한 것이다.” 하였다. 이에 대간에서 소재의 削黜을 청하였으나 선조가 “이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고하여 중지되었다. 그의 삶은 시인이자 철학자이며 정치의 정점에까지 오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여러 질곡을 거쳐 오면서도 항상 바름에 근거하였고 지극한 孝와 忠君愛民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부인 李氏를 먼저 보내고 4월7일에 寓舍에서 서거하니 참으로 극과 극을 오간 일생이었다. 自銘으로 墓表를 삼았는데 그 一句에 이르되 “小事에 흐리어 혹 죄가 되었으나 大義가 분명하니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다.”⁴⁷⁾ 고

45) 『燃藜實記述』 卷18, “宣祖朝故事本末 宣祖朝相臣 盧守愼：卿山川間氣 星斗文章 學傳伊洛之脈 道爲儒林之宗 黃閣十年 隱然有喬岳之功 九鼎之勢 以予之不穀 致今日得免於顛沛者 是誰之使然耶 石在瘴海 天其或者 動心增益 出爲大用 逮予叨承爰立台輔 是天以卿授予也 方切仰成之際 未見求退之章 以予涼薄 賢相棄予 而忸怩若無所容 卿以予爲不足爲乎 如以爲有過也 明以誨之 予將安意以承 卿不可退有後言.”

46) 「年譜」에 判中樞府事로 되어있는데, 정1품 우의정에서 정1품의 관중추부사로 체직된 것은 맞지만 정1품인 영의정에서 관중추부사의 품계이동은 품격에 맞지 않다. 領中樞府事が 맞다.

47) 『蘇齋集』, 「附錄」, <行狀> 405. “小事糊塗惑終累 大意分明信無愧.”.

하였는데 이 말이 그의 삶에 대한 가장 객관적 평가이다. 그 후 광해군 庚戌 2년(1610)에 宣祖 묘정에의 祔廟가 부결되었으나, 광해군 8년(1616)에 道南書院에 入享된 것을 필두로 광해군 동년에 忠州의 八峰書院, 同王 14년에 槐山의 花巖書院, 현종 5년에 尙州의 鳳山書院, 숙종 2년에 珍島의 鳳巖祠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文簡이다. 그 諡法에 이르기를 ‘道德博聞曰文 正直無私曰簡’이라하였다.

2) 交遊關係

소재의 삶에서 그를 성장시킨 스승은 灘叟 李延慶과 晦齋 李彦迪이다. 소재의 「年譜」에는 유년기의 수학이 家學인지 누구에게 배웠는지의 기록이 없다. 「行狀」에는 17세에 탄수 문하에 들어 학문의 방도를 들었고 날마다 小學을 암송하여 수용의 터전으로 삼았다고 한다.⁴⁸⁾ 탄수는 조광조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그의 도학정치를 지지하였던⁴⁹⁾ 인물로 조선전기 대표적 명문가인 慶州李門 출신이다⁵⁰⁾. 나중에 領議政에 오른 李俊慶이 탄수의 從弟가 되며 선조 元年 “을사죄인을 소방하여 쓰시라”고 상소하여 蘇齋 등이 해배의 은혜를 입도록 한 장본인이다. 소재는 그의 교훈을 받아 棟梁之材로 성장하게 되며 17세에 동갑인 탄수 장녀와 혼인하여 그의 사위가 된다. 그는 모든 글에서 詩題는 ‘聘君先生’으로 詩에는 ‘龍灘’으로 표현하였다.

48) 『蘇齋集』, 「附錄」, <行狀> 398, “十七歲登灘叟李先生之門 得聞爲學之方. 日誦小學 以爲受用之地.”

49) 『典故大方』 卷3, 「文人錄」에 보면 탄수의 학통을 金宏弼, 趙光祖, 李延慶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趙光祖와 탄수는 사제관계에 있지 않고 그의 政治路線에 동참했을 뿐이다. 나이는 정암이 6년 위이지만 小科 급제는 탄수가 3년 빠르다. 1년 연하인 花潭도 탄수의 제자로 보기가 어렵다. 화담은 한미한 武班의 집에서 태어나 그의 獨力으로 성장하였음을 볼 때 師承에 이른 사람은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50) 1504년(연산군 10) 甲子土禍 때 조부 이세좌가 極北에 유배될 때 여러 아들이 나뉘어 귀양 가게 되었는데 이연경이 홀로 險難을 무릅쓰고 조부를 모시고 따라갔다. 1518년 放還된 뒤 재행을 겪은 인물이라 하여 冤死人 자손으로 천거되어 선릉참봉, 조지서사지, 공조좌랑이 되었다. 이듬해 현량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지평이 되고 곧 홍문관 교리로 승진하였다. 교리로서 경연에 참여하였을 때 재상을 선출하는 문제가 논의되자 조광조를 천거하였다. 趙光祖 일파의引力으로 급제 전에 이미 청요직에 진출하는 혜택을 입었다. 현량과에 급제하고 조광조의 道學政治에 동참하였다가 정암이 몰락하자 파직되어 축출될 뻔 했으나 중종이 <竄人錄>에서 지위 귀양을 면한 적이 있다. 그 후 出仕를 단념한 후 彈琴臺 아래 築室한 후 학문에만 몰두한 巨儒였다.

다음은 그의 만년에 龍灘에서 탄수에 대한 추억이 담긴 시이다.

雨後江山故宅涼 비개인 강산과 옛집은 서늘한데
東風吹盡野花香 봄바람에 들꽃향기 가득하다
龍灘老弟商顏客 용탄의 늙은 제자는 상안의 손이로니
前浦維舟兩鬢霜 강가에 매인 배에는 백발 객만 있구나.⁵¹⁾

소재는 평생 동안 유배시절 타계한 탄수에 대한 사위와 제자의 도리를 못 했음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 그가 修學하던 琴臺 옛집에 이르러 강가에 매어있는 나룻배를 보면서 청춘은 덧없이 흘러가고 백발이 된 老弟子가 옛날을 회상하는 모습이 숙연하면서도 처연하다.

소재의 또 다른 스승은 회재 이언적을 들 수 있다. 晦齋는 명종 즉위시 靖亂功臣이 되었지만, 乙巳士禍로 파직되고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강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소재와의 인연은 1532년 서울에 와있는 회재에게 편지를 폐백으로 드리고 찾아가 존심의 요체를 묻는 것으로 출발한다. 그의 <勿忘勿助>의 교훈은 소재 학문의 근간과 삶의 지침이 되었다.⁵²⁾ 소재는 회재를 통하여 수양법을 깨치게 되었고⁵³⁾, 회재가 주는 存心の 답이 바로 “勿忘勿助”의 異名임을 알아차리고 더욱 求放心에 힘쓰게 된다. 이는 孟子의 이른바 “잊어버리는 이는 지심을 매지 않는 것이요, 조장하는 이는 곡식 싹을 뽑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蘇齋는 이를 좌우명으로 삼아 학

51) 『蘇齋集』 卷6, 273, <泊龍灘>.

52) 上揭, “二十七歲 聞晦齋李先生入洛. 以書爲贄而禮焉 仍請存心之要 晦齋指其掌而視之曰 有物於此 握則破 不握則亡 先生曰 是忘助之異名也. 一言妙戒 益用力於收斂之方.”

53) 『蘇齋集』 卷7, 291, 「附錄」, <晦齋先生集序>, “予嘗在辛丑年間, 以書爲贄而禮焉, 望儼即溫, 親承警欬, 窺窺有方寸之學, 遂將程氏附註書, 叩疑不已, 仍請存心之要, 久之, 先生指掌曰有物於此, 握則破, 不握則亡, 退而省乎心, 粗覺其爲忘助之異名, 而尤喜其親切而有味也. 既而 先師灘叟先生與先生論喜怒哀樂未發, 爲予道其詳, 予又竊自歎曰 此子貢所以不可得而聞, 嗚呼已矣. 自予入海 先生出塞 歲才七周而塞訖至海 追悔悼惜 每中夜潛然至恨冥 頑獨久於世也.”

54) 『孟子』, 「公孫丑」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宋人 有閔其苗之不長而握之者芒芒然歸謂其人曰 今日 病矣 予助苗長矣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天下之不助苗長者寡矣以爲無益而舍之者

문에 전념했다. 또한 회재를 통하여 未發의 철학을 접하고 이를 통해 소재 사상이 理氣一元論으로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그의 나이 27세이니 學問이 확립될 시기이다. 蘇齋는 이 시기에 이미 存心養性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그 후 當代의 석학 晦齋로부터 程·朱의 바른 修養論을 傳受받은 듯하다.

退溪와는 사가독서를 통하여 인연을 맺었으며 유배 시에는 『夙興夜寐箴』과 「人心道心辨」을 통하여 학설을 토론하였고 일부 그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한다. 반면 理氣二元論者인 퇴계에게 理氣一元論의 주장을 끝내 관철하여 奇大升, 李恒, 李珥 등으로부터 동조 내지는 긍정을 얻은바 있다. 같은 영남 학자로 퇴계의 학문을 늘 흠모하였고 소재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喪禮에 대하여 제일 먼저 상의한 사람이 퇴계였다. 退溪는 玉堂에 있을 때 만나 道義를 논하며 존송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鄭經世에 의하면 비록 소재가 퇴계에 대해 제자의 예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후학들이 존송함에 있어 계급이 없을 수 없다고 하면서 소재를 제자의 반열에 둬야 어떨까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⁵⁵⁾ 그는 퇴계에게 「夙興夜寐箴解」에 관하여 서신으로 수차례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명종18년(1558년) 퇴계는 ‘格物致知’의 지론으로서 소재의 「夙興夜寐箴解」를 보고 “斯道(儒學)가 우리 동방에 亡하지 않는다면 이 註解가 반드시 후대에 전하여질 것이다.”라고 讚賞하였다.⁵⁶⁾ 퇴계는 왕복서신을 통하여 질정하면서 程朱의 學問 態度를 예로 들면서 “옛날 程선생이 『周易』의 傳이 이미 이루어짐이 오래였어도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진보되기를 기다렸다”⁵⁷⁾고 자중과 인내하기를 충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학문을 토론했던 李恒, 奇大升, 李珥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학문이 완숙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不耘苗者也 助之長者掘苗者也 非徒無益而又害之。”

55) 鄭經世, 『愚伏先生文集』 卷13, <答道南山長>, “以淺見言之 蘇齋於退溪 雖不執弟子之禮 後學之尊仰 不可無階級 朱子之待西山常以老友 而實紀群書 皆書於弟子之列 恐當以此例處之 如何如何.”

56) 『蘇齋集』 卷8, 「文集附錄」, <行狀>, “斯道不亡於吾東 卽此解 必傳於後世.”

57) 『蘇齋集』, 「草創錄」 二, 板十二後, “奇伊齋書: 昔程先生易傳既成久而不傳曰 尙冀有少進. 施樓底.”

소재가 관직을 통하여 학문을 토론하며 평생 동안 友誼를 견지한 벗으로는 유배지를 찾아 격려하고 「夙興夜寐箴解」를 퇴계와 함께 토론한 河西 金仁厚가 있다. 송시열이撰한 신도비에는 “우리나라 많은 인물 중에는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겸한 탁월한 이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고 이 셋 중 한 두가지가 뛰어났는데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도와 河西선생을 중생하여 이 세가지를 다 갖추게 하였다.⁵⁸⁾”고 하였다. 하서는 소재와 같이 讀書堂에서 사가독서를 한 친구로 각별한 사이였다. 유배중인 순천을 방문하여 위로하기도 하였으며 진도 流配時에도 자주 서신을 교환하였다. 『夙興夜寐箴』에 대한 퇴계, 소재와 더불어 서신을 통한 학문토론은 소재와의 더욱 끈끈한 연을 이어주었다⁵⁹⁾. 『蘇齋集』에 수록된 詩만 <酬寄河西>를 비롯하여 35수가 보인다.⁶⁰⁾

眉巖 柳希春(1513~ 1577), 餅山 金鸞祥은 소재와 같은 시기 20여 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 다 유배의 질곡과 역경을 겪어 서로를 위로하고 연민의 정이 교통한 사이였다. 미암은 1544년(중종39년)에 퇴계, 하서, 소재등과 함께 사가독서하면서 인연을 맺은 후 같은 시기에 유배되고 22년 후 함께 복권된다. 복권 후 경연에서 “학문을 토론할 때는 經典이라 해도 깊이 사색하여 기존 업적보다 능가함이 있다면 수정도 가능하다.”는 소재의 견해와 “經典의 전통은 지켜야 된다.”는 眉巖과는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재는 “문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훈고는 이미 뜻을 알았으면 문자는 잊어도 된다.”는 주장임에 반하여 眉巖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글이므로 經訓뿐 만아니라 전주도 잊어서는 안되고 제가의 註는 생략해도 朱子の 註는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⁶¹⁾

58) 사후 110년이 되어 1662년 朴世采에 의하여 行狀이 지어졌고 송시열이 神道碑銘을 撰하였으며 墓表의 글은 영의정 金壽恒이 지었고 현종3년(1662) 筆巖書院의 賜額이 내려졌다. 묘비의 글씨는 李緯가 썼다. 仁宗의 휘일에는 痛哭壇에 올라 인종을 애곡하였다. 그의 제자 정철은 “年年七月日 痛哭萬山中”이라고 스승의 인종에 대한 연군의 정을 추모하였다.

59) 『蘇齋集』, 內集, 上篇, <三子(蘇齋, 退溪, 河西)論, 夙興夜寐箴解往復錄>.

60) 『蘇齋集』 卷2, 193, <次韻河西>; 卷4, 225, <酬寄河西> 4수.; 卷4, 225, <附河西寄詩> 9수.; 卷4, 231, <聞河西亡>; 卷4, 231, <哭河西>.

餅山 金鸞祥(1507~1570)은 眉巖 유희춘과 함께 소재와는 절친한 사이로 소재와 같이 20여 년간 유배생활의 始終을 같이 했다. 병산은 南海와 丹陽에서 유배생활을 하였고, 미암은 濟州에 유배되었다가 함경도 鐘城에 안치되고 이후에 충청도 은진에서 유배생활을 마쳤다. 소재는 방면 후 재상으로 관직에 있었으나 두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방면(1567년 10월)된지 몇 년 만에 죽었다.

다음은 초당 許燁과의 因緣이다. 초당은 恥齋 洪仁祐와 더불어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한 친구로서 해배 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양명학에 대하여 사상적 견해가 상당부분 공유되고 主氣論을 지지하는 학문적 경향에 따라 草堂에게 조선 학문의 道인 유가의 도통을 육상산과 왕양명의 心學이 이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게 된다. 소재와 草堂家와의 인연을 살펴보면 초당 외에도 그의 아들 許箴⁶²⁾, 許筠⁶³⁾에게 詩가 『蘇齋集』에 수록되어 있고 교산 許筠은 소재를 조선 제일의 作家群으로 詩評하고⁶⁴⁾ 있으며 초당이 卒한 후 1585년 소재의 71세에는 초당의 「神道碑銘」을 撰⁶⁵⁾하였다.

소재의 文學史的 측면에서 관계되는 가장 중심 인물로는 三唐派들이다.

노수신은 유배기간 백광훈의 수차례에 걸친 방문과 서신을 통한 詩緣을 맺은바 있다. 옥봉 백광훈의 청년시절 스승은 노수신으로 22세에 학문적 인연으로 당시 진도에 귀양 와 있던 노수신을 만나 학문과 唐詩를 배우고 나중에는 나이를 잊은 친분관계로 발전 재능과 학문을 존경하는 사이가 되었다. 훗날 노수신이 해배되어 재상이 되고 명나라 사신을 만나러갈 때 제술관으로 동행하였다.⁶⁶⁾ 소재가 44세(1558)가 되던 때에 명성을 듣고 있던 백

61) 『宣祖實錄』 7月 30日 癸卯日條, “希春曰: ‘諸家之註, 不足聖賢之意, 略之猶可, 至如朱子四書三經註, 妙得聖人之心, 豈可輕乎’, 守愼曰: ‘雖善註, 亦不足觀也.’”

62) 『蘇齋集』, <許太史箴家吟示諸人>.

63) 『蘇齋集』 卷6, 281, <許翰林筠家吟示諸人>.

64) 許筠, 『國朝詩刪』, 「惺叟詩話」.

65) 「撰許草堂神道碑銘」, 1585(宣祖18), 9월.

66) 玉峯은 36세(1572, 선조5년)에 명나라 사신 韓世能和 陳三模가 왔을 때 옥봉의 文才를 잘 알고 있었던 소재의 청에 의하여 제술관이 되었다. 소재를 대신하여 一律을 지어 바치는데 第二聯에 이르기를 “성

광훈은 진도로 찾아와 수학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나이도 잊은 忘年之交를 맺고 있다.

十月初三日	시월 초삼일이라
朋來自遠方	벗이 먼 곳으로부터 왔구나
神交久名聞	정신의 사귄은 오래전 명성을 들은듯하고
義合可年忘	의리가 합쳐지니 나이도 잊은듯하네
語笑專更倒	남김없이 웃고 얘기하느라 여념이 없고
形骸任醉僵	몸뚱아리는 취하여 쓰러지는구나
此生聊爾耳	이 생애에 애오라지 그대하나 뿐이니
後會更何當	뒤에 만난다한들 다시 무엇으로 감당하리. ⁶⁷⁾

위 시는 12년째 유배생활로 사람이 그리워진 상황에서 戊午年 10월에 지은 시이다. 初句에는 날짜를 기록하였고 다음 句에는 논어의 ‘自遠方來’를 인용하였다. 頸聯은 22년의 나이차가 있을지라도 詩友로서 의기투합하여 나이도 잊어버리고 있다. 20년이 넘는 年下지만 시우로서 그대만한 사람이 없음을 밝히면서 오직 그대만이 나와 의 격조가 통할 뿐이니 차후 만나도 이러한 즐거움은 없으리라고 시를 끝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만난 두 사람은 師弟之間으로 발전하여 광훈의 시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두보를 터득한 소재의 唐詩에 대한 식견은 자연스럽게 백광훈에게 전수되어 三唐派 출현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고죽 최경창과 소재와의 인연은 당시 杜甫에 침잠되어 있었던 소재의 珍島 적소를 내방하면서 문학적으로 의기투합하여 깊은 詩緣을 맺고 있음을

위의 나는 갈가마귀 모두 돌아가려하는데, 자리 주위에 흐르는 물 무정하게 흘러가네[城上飛鴉歸慾盡, 席邊流水去無情]라 하였다. 수신이 ‘歸’字를 ‘啼’字로 고쳐 사신에게 보이자 사신이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이 시를 지은이는 ‘啼’字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며 수신이 ‘歸’로 고쳐 다시 보이자 사신이 기뻐하고 감탄하였다. (崔洛遠, 『玉峯 白光勳의 漢詩研究』, 檀國大 碩士論文, 1986.)

67) 『蘇齋集』 卷4, 229, <白生光勳至夜吟, 十月>.

알 수 있다. 그는 후일 소재의 시평을 통하여 俚語나 俗語를 적절히 구사하여 대가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고 말하였다.⁶⁸⁾

다음 詩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재를 찾아가 만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瘡癘三秋忍	학질은 가을 내내 계속되는데
風塵一月開	풍진이 한 달이나 이어졌네.
賢人酒冷冽	현인의 술은 차고도 사나운데
正字意胚胎	정자의 생각이 빌미가 되는구나.
破戒緣生興	禁酒를 破하니 생기가 일어나고
忘言爲死灰	말은 잊어 불 꺼진 재가 되었네.
催頹老癡漢	엎어지고 넘어지는 병든 노인이련만
非子復誰哀	그대가 아니면 다시 누가 슬퍼하리오. ⁶⁹⁾

소재는 이 당시 심한 학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술을 들고 찾아온 최경창과 반가운 마음으로 금주하라는 의원의 명도 어기고 취하도록 마셨다. 首聯은 자신의 병세를 묘사하고 있다. 취해서 운신도 못할 처지지만 모처럼 찾아온 詩友가 반가워 마시고 있는 것이다. 尾聯에서는 최경창에 주는 각별한 애정을 담아 “그대가 아니면 이 노인을 누가 슬퍼하겠는가.” 하고 신뢰와 애정을 표출하고 있다.

두보를 法했던 蘇齋의 명성과, 불우한 처지였으나 詩才가 우뚝한 이달(1539~1612)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李達은 비록 소재와 師承의 연을 갖지 못하였으나 당시 학문적으로나 시문에서 唐詩의 고수였던 蘇齋를 흠모하게 되었고 소재 또한 비범함과 인간적으로 고뇌에 얽힌 이달의 文才

68) 許筠, 『惺叟詩話』, “崔孤竹輩嘗曰: 我國地名, 不及中原 故作詩不得使地名, 每爲限. 及見蘇齋詩. 有路盡平邱驛, 江深判事亭 上下句, 皆使俚語, 而句法穩著, 及知大家手者異於他人也”

69) 『蘇齋集』 卷4, 224, <崔正字慶昌携酒相看>.

를 대하고 정신적 교합이 어우러져 나이를 초월한 詩友關係를 맺게 된다.

遠岫轉佳氣	멀리 산에선 고운 기운 내려오고
長灣收日華	긴 물굽이엔 햇빛이 스미네
親朋眼中一	안중에는 오직 절친한 벗이 있고
芳草席邊多	자리에는 방초가 흐드러졌네
文會詩無敵	시로는 대적할 이 없고
淸談酒不賒	청담 즐기며 마시는 술도 가까이 있네
如何憂患仕	어찌하여 걱정 많은 벼슬살이를 생각할까
終日在風波	종일동안 풍파 가운데 있을 뿐인데. ⁷⁰⁾

소재를 찾아온 이달과 햇빛 비치는 물굽이에서 술을 마시며 시를 논하고 있다. 또한 손곡의 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소재는 뛰어난 시재를 가졌으면서도 서열의 신분으로 등용되지 못한 이달의 불우한 처지를 애석하게 여기고 그의 시재가 대적할 이 없다고 격려하고 있다. 나아가 비단 환로에 나설 수 없는 신분이지만 실상 벼슬길은 근심과 풍파의 연속으로 부질없음을 언급하며 위로하고 있다. 『蘇齋集』에서 손곡의 행각을 기록한 부분이나 詩가 <興原舟中 贈李達> 단 1편에 그치고 있고 그가 소재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백광훈 등을 통하여 唐詩의 권위자인 소재를 찾거나 소재시를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黃廷彥은 湖蘇芝 中年下로써 소재의 음덕을 수차 입은바 있고 후일 소재가 72세 때 十靑亭을 지어 축하연을 열 때 동석하여 축시를 쓰는 등 우호적인 관계였다. 또한 재야에 있었던 大谷 成運과 四耐 安慶昌과의 인간적 교류가 이채롭다.

70) 『蘇齋集』 卷6, 280, <興原舟中, 贈李達>.

成運은 1497년(연산군3년)에 나고 1579년(선조12년)에 죽은 선비였다. 소재는 괴산으로 이배되어 다소간 행동이 자유로워지자 당시 학덕이 고명한 大谷 成運을 찾게 된다. 大谷은 소재보다 무려 18년 연장자였지만 선비의 지조를 지키며 속리산에 은거한 그의 학문과 인품을 사모하여 報恩에 있는 그를 찾았고 그 후에도 오래도록 교유하였다. 『蘇齋集』에 4편(71)의 詩가 보인다. 환로에 복귀한 후에도 그와의 교유가 있었고 선조12년(1579년) 7월에는 경연에서 曹植, 李恒과 함께 제선생의 특장을 들어 褒典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⁷²⁾

安慶昌은 유배 후 다시 환로에 들어서 친하게 교류한 자이다. 『典故大方』과 『星湖僊說』에 보면 晦齋의 문인으로 보고 있지만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소재와 안경창이 晦齋와의 사승관계에 있었으므로 그와 친밀한 관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여겨진다. 四耐는 굶주림, 곤궁함, 추위, 더위를 견딘다는 뜻이다. 안경창은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며 평생 벼슬하지 않고 개성에 머물면서 회재, 퇴계, 우계, 율곡, 남명, 소재, 지천, 허성 등의 문하에 출입했던 奇人으로 소재는 만년에 그와 긴밀하게 교유하고 있었다.⁷³⁾

또한 소재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20대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여러 승려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불교에 침잠하게 된다. 惟政, 선수 등을 제자로 둔 것도 특이하며 性眞이라는 승려와는 오랫동안의 연을 이어 무려 5회에 걸쳐 시를 주고 있고 특이한 것은 성리학자인 退溪와 河西의 운을 빌려 시를 쓰고 있음이다.⁷⁴⁾

71) 『蘇齋集』 卷5, 247, <贈大谷處士>; 卷5, 250, <復次大谷車韻> 二首; 卷5, 255, <訪大谷飲>; 卷5, 255, <次大谷韻醉草>.

72) 「行狀」, “時禮官議成運贈爵 先生曰 曹植成運李恒 同是賢者 而人品則不同 曹植 志氣凌厲 識見超邁 雖聖賢之書 亦不屑意故微有病處 成運 溫雅簡默 超然不嬰世故 常謙讓自守 爲一世完人.(後略)”

73) 許筠, 「惺所覆韻稿」 卷24, 「說部」, “松都有安慶昌者, 自號四耐, 以耐寒暑飢飽故云然. 自少棄家, 有山水間, 七十貌不衰. 蘇齋相黃芝川及亡兄俱善之.”

74) 『蘇齋集』 卷4, 231, <性眞軸中韻>, 河西次韻; 卷5, 273, <退溪韻贈性眞> 2首 外 <次性眞軸中韻> 3首 (卷4, 231); <性眞軸中復次韻酬梁, 應鼎>(卷4, 233); <性眞軸中次李韻>(卷4, 241) 등이 있다.

2. 時代的 背景

문학은 사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하나의 문학작품의 존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작품이 생성되어질 수 있었던 社會的 背景으로 시선을 옮기게 한다. 문학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의 이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문학작품이 外部狀況에 의해 반드시 因果的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작품들의 기원, 형식 및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사회적 現狀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사회적 현상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 및 작용 또한 지대하여, 작자가 세계를 구축하고 소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작용하기 때문이다.⁷⁵⁾

따라서 문학연구에 있어서 한 작가 개인이 살았던 정치·사회적 배경, 가계, 성장 과정과 交遊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것들이 작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의 문학에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政治社會的 背景 - 士禍와 政爭으로 얼룩진 시대

조선은 건국 이후 太宗朝에 이르러 통치체제의 골격을 갖추었고, 世宗代에 이르러 더욱 큰 발전을 보게 되었다. 1436년(世宗 18년)에 議政府의 書司權이 다시 부활되고, 六曹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기본 조직은 그대로 보존되었으며, 集賢殿을 중심으로 유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조선왕조의 체제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世祖가 端宗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議政府의 書司權을 폐지하고 六曹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였으며, 건국 초부터 항상 문제시되어 왔던 군사제도개혁에 착수하여 五衛體制를 확립하였으며, 과전법을 폐지하고

75) 앨런 스윈지우드 저, 鄭惠善 譯, 『文學社會學』, 한길사, 1984, 101쪽 참조.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國朝寶鑑』·『八道地理誌』·『東國通鑑』을 편찬하였으며, 刊經都監을 두어 많은 佛經을 국문으로 번역하였을 뿐 아니라, 『經國大典』 편찬에 착수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나섰다.

성종은 集賢殿을 부활하여 弘文館으로 고치고 유학의 경전을 講論하고, 역사·지리·문학·예학에 관한 서적을 편찬케 하였다. 또한 과거를 통해 관직에 들어 온 年少氣銳한 젊은 新進士類를 우대하여 이들을 經筵官에 임명하여 儒學의 경전을 강론하며 儒家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통치이념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5세기 중반에 이르면 조선사회는 체제가 안정되어 보다 정비되고 발전된 제도 하에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고 전통문화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세조를 도와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이들 훈구파들은 대응세력이 없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여 그 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며 귀족화, 관료화 되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 광범위한 토지와 수많은 노비를 占取하였다. 이들은 사치풍조와 함께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 받으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여⁷⁶⁾ 成宗代에 이르면 과전법 체제가 붕괴되어 훈구파의 대토지 점유와 工役의 과중으로 인하여 양인·농민층이 급속히 몰락하여 사노비로 전락하던가 아니면 逃散·遊離하는 추세였다. 조선조의 존립 기반인 양인·농민층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국가는 재정적·군사적으로 허약해 가고 있었다. 연산군의 통치는 국가의 기강을 파탄시켰을 뿐 아니라 모순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⁷⁷⁾

권력과 富를 소유한 소위 勳舊와 權貴가 기성세력의 중심을 이루며 권위를 누리자, 사대부의 고유 규범에 의거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사대부의 고유 규범을 지탱하면서 公論을 펼 수 있었던 세력은 대개 在野 사

76) 金泰永, 『朝鮮前期土地制度史研究』, 지식산업사, 1983, 179쪽.

77) 林煥澤, 「조선 전기 문인의 유형과 方外人 文學」,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96, 247쪽 참조.

대부로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다.

김종직은 세조 때 이미 출사하여 신진사류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성종의 후광으로 신진사류들이 과거를 통해 속속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節義와 실천 유학적 성격이 강했으며,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문장(詩文)을 익혀 문학적 자질이 뛰어났다.

신진사류들은 주로 김종직의 문하에서 공부한 세력으로, 이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節義를 지킨 吉再의 제자의 후손들로 15세기에 이르면 경제적 몰락과 함께 先代보다 節義에 대한 신념이 약화하여 出仕하기에 이른다. 비록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지니지 못했지만, 훈구파에 비해 정신적, 도덕적 우위를 견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小學의 교육을 중시하는 實踐 儒學的 성격을 강하게 띠었고, 郎官職에 올라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훈구세력과 맞섰다.

思想面에서도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은 經學을 장려하는 역대 왕들의 정책으로 科擧에 講經과 製述을 겸하도록 하였으며, 서적의 수입과 刊布를 통하여 성리학은 더욱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비록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성리학을 표방했지만, 성리학적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15세기가 다 지나가도록 대체로 정책적 차원에 머물렀을 뿐, 사회 저변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동안 정권에서 소외되어 지방에서 학문과 操行을 닦고 있던 처사형 문인학자들은 성리학적 생활규범을 일상화하면서 내적인 수양보다는 현실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소재가 활동한 16세기는 조선왕조의 제반 모순이 노정되어 권력과 체제에 대한 분열양상이 봉당형태로 발전되고 수차례의 사화를 겪게 되었다. 反正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난마와 같은 연산군의 悖政을 수습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靖國 3大臣인 박원중, 성희안, 유순정의 위세에 눌려 개혁을 못하다

가 그들이 죽고 난 후 조광조를 기용하여 개혁을 시도하려하였으나 趙光祖의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반대파의 저항이 격렬했을 뿐 아니라 종종 또한 개혁의 의지를 수용할 군주가 되지 못하여 결국 己卯士禍를 초래하였다.

1554년 인종의 왕위계승으로 大尹 일파가 정권을 잡자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李彦迪, 金安國 등 사림파를 일부 기용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때 奸人으로 지목되던 李芑가 우의정이 되자 소재는 동료들과 함께 논박하여 遞職시켰는데 이것이 유배의 빌미를 제공 한 사건이었다.

중망을 업고 즉위한 인종은 부친상에 대한 지나친 哀毀로 건강을 해쳐 8개월 만에 승하하자 異腹 동생인 景元대군이 12세의 어린나이에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명종은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8년 동안 모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아야 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으로 왕권을 대신하게 되자 조정의 대세는 윤원형 일파에게 돌아갔다. 정권을 잡은 소윤 일파는 1545년 인종의 외척인 尹任 등 大尹 一派를 몰아내고 乙巳士禍를 일으켜 인종의 외척인 尹任을 비롯하여 左議政 柳灌, 吏曹判書 柳仁淑 및 李輝, 羅淑, 李中悅, 李文樞, 盧守愼 등이 모두 처단되거나 귀양보냈다.⁷⁸⁾ 小尹 一派는 다시 ‘良材驛 壁書 事件’⁷⁹⁾을 일으켜 乙巳士禍 때 겨우 살아남았던 士類들을 뿌리 뽑으려 하였다. 이로 인해 宋麟壽, 李若水, 林亨秀 등은 賜死되고, 李彦迪, 鄭磁 등은 極邊安置, 盧守愼과 鄭燾, 柳希春, 金鸞祥은 絶島安置 등의 중형을 받게 되었다. 소재는 仁宗과 가까웠고 李芑를 공박한 바 있었으므로 무사할 수 없었지만 마침 明宗 元年 1월 2일 祖父喪을 당하여 유배가 보류되었다가 이듬해 服을 벗자 순천으로 유배가 결정되었다. 이때의 상황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8) 『大東野乘』, 「乙巳傳聞錄」卷12. 東阜 李浚慶의 조카인 李中悅의 아들이 편찬하였으며 이 당시 죽거나 처단된 인사 76명을 기록하고 있다.

79) 良才驛壁書事件은 정인과의 告變으로 顯出되었으나 소윤파의 自作입이 밝혀졌고 顛末은 다음과 같다. 『明宗實錄』卷六十二年 九月條, “女主執政于上 奸臣李芑等 弄權於下 國之將亡 可立而待 豈不寒心哉 (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李芑 등이 아래에서 정권을 마음대로 하니, 나라가 망하려는 것은 서서도 기다릴 수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小尹一派는 이 사건을 自作하여 乙巳士禍에서 잔존했던 士類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소재는 魁科로 급제한 후 淸要職을 두루 역임 하였는데 품성이 영특하고 명민하며 학문에 힘써 規矩로써 몸을 단속하였으므로 布衣 때부터 큰 名望이 있었다. 그의 議論은 한결 같이 올곧음에 근거하였으므로 時俗에서 매우 꺼리는 바가 되었으며 이때에 이르러 黜斥되니 識者들이 애석히 여겼다. 이미 司諫院 正言으로 있을 때에 李芑를 탄핵 한 바 있는 소재는 小尹 一派에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게 되어 賜死된 다른 士類들과 같이 死籍에 올랐으나 간신히 絶島 安置의 減刑을 받았다. 이조정랑 때의 동료인 陳復昌과, 동년 급제자인 尹春年 등의 救命운동에 힘입어 賜死를 면하였다.⁸⁰⁾

그러나 소재는 그 후 집권층이었던 小尹 一派의 끈질긴 억압과 견제를 받아 21년 동안 配所에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후에도 그에 대한 명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기에 결국 解配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東臯 李浚慶의 상소로 풀려나게 되고 鴻文館 교리에 제수되어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윤원형 일파를 견제하기 위해 영입한 명종의 비 인순왕후 심씨의 외숙인 이량 역시 청렴한 인물은 아니었다. 명종이 자신을 신임하자 그는 이감, 신사헌, 권신, 윤백헌 등과 결당하여 세력을 기르고 정치를 농단하기 시작했다. 한 때는 자기 편인 김명운을 재상으로 삼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우의정 이준경의 사직을 간언하기도 했다. 게다가 축재에도 열을 올려 그의 집 앞은 항상 시장처럼 사람들이 들끓었다고 한다. 명종은 그를 한 때 평안도 관찰사로 내쫓기도 했지만 윤원형의 극심한 권력 독점을 염려한 나머지

80) 『大東野乘』 57卷. 『國譯大東野乘』 62卷,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83. 어릴 때 친구인 윤춘년이 미리 화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려 했으나 늘 이웃에 사는 李民德을 불러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尹春年이 후일 이를 아쉬워하자 이 소문을 접한 소재는 “내가 만일 윤춘년의 말대로 했다면 반드시 그 무리들이 나를 죽였을 것이고 순순히 따랐다면 내 평생을 그르쳤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562년 다시 이조참판에 제수하여 중앙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자 이량은 한층 더 세도를 부리기 시작했고 예조, 공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가 된 뒤에 그의 권력 남용은 극에 달했다. 이량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자 사림 세력들은 그를 탄핵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오히려 기대승, 허엽, 윤근수 등의 사림 세력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음모가 그의 조카 심의겸에게 발각되어 사화를 획책했다는 죄목으로 삭탈관직 되었다.⁸¹⁾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워 임꺽정의 등장으로 인한 내우와 을묘왜변이 발생하여 이에 종종 때 임시로 설치된 비변사를 상설기구화 하여 외침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문정왕후 죽자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것은 승려 보우와 윤원형 일파였다. 승려 보우는 유림들의 탄핵을 받아 병조판서에서 밀려나고, 다시 승직을 박탈당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죽었으며, 윤원형 역시 그의 애첩 정난정과 함께 강음에 유배되었다가 자살하였다. 문정왕후와 윤원형 일파가 사라지자 명종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선정을 펴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자 조정은 안정되고 사회도 점차 질서를 되찾아갔다. 하지만 명종은 그동안 너무 국정에 시달린 탓인지 병을 얻고 말아 문정왕후가 죽은 2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이 때 명종의 나이 불과 34세밖에 되지 않았다.

문정왕후는 명종을 대신해 섭정을 펼칠 때에는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으며, 수렴청정에서 손을 뗀 뒤에도 명종의 정사 운

81) 『한국의 역사』, 李梁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거(公擧). 孝寧大君 補의 5대손으로, 아버지는 현령 對이다. 명종비 仁順王后 沈氏의 외삼촌이다. 鄭士龍의 문인이다. 1552년(명종 7)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주서가 되고, 1555년 賜暇讀書를 했다. 이어 예조정랑·수찬·교리·지평 등을 지냈다. **명종**이 어머니인 文定王后와 외삼촌인 尹元衡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중용하여 1559년 도승지·대사간·예조참판·동지중추부사·이조참판 등을 지냈다. 1561년 문정왕후의 미움을 받아 평안도관찰사로 나갔으나, 왕의 특명으로 1562년 공조참판 겸 홍문관제학이 되었다. 이어 예조판서·우참찬·공조판서를 거쳐 1563년 이조판서가 되었고, 아들 廷賓은 이조전랑이 되었다. 명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李戡, 愼思獻, 尹百源 등과 당을 만들어 횡령을 일삼으며 정치를 농단했다. 사림들이 비판을 하자 이감·權信 등과 더불어 士禍를 일으켜 奇大升, 許曄, 尹斗壽 등 사림을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사림들과 친교가 있던 沈義謙이 이 일을 명종에게 밀고해 보령에 유배되었다. 이어 강계로 옮겨지고 유배지에서 죽었다. 당시 윤원형·沈通源과 더불어 三凶 이라고 불렸다.

영에 지나친 간섭을 해 조정을 뒤흔들어놓기도 했다. 그녀는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폐지되었던 승과, 도첩제 등을 다시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승려 보우를 총애하여 병조판서 직에 제수하여 대신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명종은 그녀의 이런 지나친 정권욕에 불만을 품고 한때 을사사화 때 죽은 선비들을 신원하고 신진 사림 세력들을 등용시켜 외척 세력을 견제하려 했으나 번번이 그녀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소재가 재상으로 있을 당시는 자연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민생이 피폐한 상태에서 재정이 고갈되고 정부의 무능과 관리들의 탐욕으로 민생이 극도로 혼란하였다. 그 위에 조정 관료와 재야 士林 간에 지역적 학문적 연고로 서인 동인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東, 西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소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西人에게는 견제를 받았고 東人으로부터는 同派로 예우를 받지 못하였다. 高談峻論만이 횡횡한 세대에서 소재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 재상에 오른 후에도 유배의 辛難을 거친 소재의 처신은 보다 노숙하여졌고 그의 行路는 大體를 쉽게 허물지 않는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여 특별히 정치적 色彩를 노출시키지 않는 平易한 노선을 견지하였다.

2) 文學的 背景 - 宋詩風의 퇴조와 唐詩風의 擡頭

조선 건국이념인 성리학은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는 사대부들은 문학이 개인의 감정을 流露하는 도구라기보다는 德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문학의 효용론을 강조하는 문학관을 견지하고 있지만 훈구파와 신진사류의 문학관은 그들이 지향하고자하는 방향과 의도에 따라 차이를 드러낸다. 즉 훈구파들의 문학은 王化를 찬양하거나 외교의 수단 등 기능적인 측면에 중심을 둔 반면, 신진사류들은 유학이 추구하는 문학의 본래의 기능인 德의 발현과 성정의 순화에 초점을 두었다.

문학에 있어서도 훈구파들은 과거의 중심 과목인 詞章學에 몰두하였으며,

문학의 내용도 기상이 넘치고 富贍한 시풍을 중시하였다. 이들의 文學은 대체로 국가의 위엄을 드러내고, 사신을 접대하는 것에 의의를 둔 다분히 실용적인 것이었다.⁸²⁾ 즉 이들은 원론적으로 문장(詩)을 '餘事'와 '餘技'라 여기고 있지만, 문장을 통해 조정의 制誥典策을 담당하고 자기 시대의 성쇠를 반영하며 나아가 外交의 수단으로 연마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반면 성종조 이후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김종직을 위시한 신진사류들의 文學觀은 실천 유학적 관점에서 유교적 수양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즉 신진사류들은 훈구문인과 달리 溫柔敦厚한 덕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詩)이며, 내적인 자기 수양을 힘쓰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학(詩)이므로 수사적 기능을 힘써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또한 이들의 문학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修己'의 관점에서 심성의 수양을 드러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일정한 평가와 비판을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학의 근본이념이 修己治人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따르려는 결과였다.

훈구파(詞章派)나 신진사류들은 기본적으로 유학이라는 같은 학문적 바탕을 가진 학자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방향이나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가 뚜렷했을 뿐 궁극적인 목표는 같았으므로 性情醇化와 風教에 근본을 둔 詩歌의 敎化的 효용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宋儒의 학문과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우리 先代 儒學者들의 견해는 詩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社會 風教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이는 效用論的 측면에서 詩文을 政治와 敎化的 수단으로 보고, 이를 통하여 經國濟世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실 참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을 文學이라고 본 것이다.

82) 김풍기, 『朝鮮前期 文學論研究』, 81쪽 참조. 太學社, 1996.

宋代 성리학은 '修己'를 통해 궁극적으로 '治人'으로 나아가 세상에 경륜을 펴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唐代의 시인들은 문학에 전념한 반면 宋代의 문인들은 정치적 생활을 더욱 중요시했다. 宋代의 문인 가운데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蘇軾이었다. 蘇軾은 杜甫의 시를 시의 典範으로 삼고, 盛唐의 대시인들의 장점을 체득하였으며, 歐陽修처럼 문학의 복고를 주장하였고, 厭世避世로 달리지 않았다.⁸³⁾ 이는 儒學을 기반으로 하는 宋代 사회의 분위기와 일치하였으며, 蘇軾의 시풍은 黃庭堅·陳師道 등에 의해 계승되어 江西詩派를 형성하였다.

宋代의 性理學者들은 古風(詩經)의 시정신을 尊崇하고 지나친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배격하고 서술적이거나 산문적인 표현으로 보다 쉽게 일상사의 이야기를 읊어 여유롭고 豪放한 氣風을 지녔지만 江西詩派의 등장으로 시의 修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소재가 살다간 16C는 朝鮮 詩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中宗시절 이후 조선왕조는 계속 번영을 누렸으면서도 기존의 집권세력인 勳舊派와 新進士類인 士林派 간의 대립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士禍가 일어났다. 勳舊派 또는 詞章派는 詞章을 주로삼고 현실정치와 經濟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맞서 신진 사류들은 인간사회의 근원이라고 상징된 道에 바탕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다시 虛飾에 찬 文風을 바꾸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묘사화를 일으킨 南袞 등 훈구파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16C 중엽에 이르러서는 詞章論이 후퇴하고 도학의 승리로 종결되어 문학은 도학에 아주 밀착하게 되었다. 문학관에 있어서 趙光祖는 마음을 굳게 지니고 잘 다스려야 하며 먼저 수양으로 몸을 닦은 후 나중 문학이 이를 따라야 된다고 先修養 後文學論을 제창하였다.⁸⁴⁾ 그는 小學을 존중하여 이로써 학문의 근본을 삼고 학문 義理의 究明에 몰두하였으며 과거의 文, 즉

83) 車相軾, 『新編中國文學史』, 文理社, 1977, 573쪽 참조.

84)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究堂, 1987, 184쪽.

詞章學은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의 힘은 움직일 수 없는 세력이 되어 『小學』과 『近思錄』을 팔도에 印頒하고 諸種問題를 提出하여 理學興起와 민풍개선을 위해 크게 진력하는 등 멀리 중국 三代의 治를 재현코자 하였다. 이에 이전 학문을 답습하거나 詞章을 존중시하던 구학과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사장은 “不可蔑視”라 외치고 일어났는데 그 중 南袞은 “우리나라는 한갓 사대부 뿐 만아니라 交隣에 이르러서도 詞華는 중하니 가히 勸勵치 않을 수 없다.”⁸⁵⁾라 하여 사화가 절대 부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여 조광조 일파를 論拔 하였다.

요사이 과거의 문 때문에 학문을 폐하고 正學을 해한다고 하나 과거의 학문은 3대 이하 폐할 수 없었다. 만약 인물을 취하는데 3대의 鄉舉 里選과 같이 덕행 효제로써 선발의 기준을 삼는다면 可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부득이 과거로써 사람을 취하는 수밖에 없는데 비록 과거로써 취사를 한다하더라도 역시 현자가 나와 마침내 군자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저 宋의 程子나 朱子 같은 이가 다 과거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다 詞章을 하는 자는 어찌 다 浮華하고 經學을 하는 자는 浮華하지않는가? (中略) 詞章이나 經術의 當한 바는 다 같으니 가히 偏僻되이 폐할 수는 없다.⁸⁶⁾

이 여파로 문학계는 완전히 도학과와 사장파로 양분하게 되었고 그 분립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장파와 도학파의 분립양상은 철학과와 문학파의 분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바 당시 문학과 철학이 확연히 구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광조 일파의 도학사상이 대두되어 문학과 철학이 분리되었는데 여기에는 중국문예의 유입에 의하여 더욱 자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道學派와

85) 『中宗實錄』, 中宗12年 正月 乙未 參照, “我國非徒事大 至交隣 詞華爲重 不可勸礪之也.”

86) 『中宗實錄』, 中宗12年 8月 癸酉 參照, “今者以科舉之文爲 廢學而害正學云 然科舉之學 三代以下所不得廢也 若取士如鄉舉里選 以德行孝悌爲本則可矣 不然則 不得已以科舉取之矣 雖科舉取士 而亦有賢者出焉 終爲君子大人如宋之程子朱子皆由科目出者也 且爲詞章者 豈盡浮華 治經學者 亦豈盡不浮華者哉. (中略) 詞章經術所當如一不可爲廢也.”

詞章派의 분립은 한갓 신구 세력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자연적 현상으로 조선의 文學은 자체의 가치를 인식하여 철학과 분리 독립하고 동시에 對峙的으로 존재한 철학의 감시 하에 발전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이로부터 文學은 엄격한 비평을 받게 된 것도 필연의 추세라 할 것이다.⁸⁷⁾

李彦迪(1491~1553)은 사림파의 시를 옹호하고 마음의 갈등을 깨쳐 자연과 화합하는 그윽한 풍치를 본으로 문학과 도학이 모두 중하다고 보았다. 또한 퇴계 이황(1501~1570)은 文學과 道學이 모두 소중하며, “조광조가 도학에 치우쳐 문학을 소홀히 하였고 김종직은 문학을 중시하려 했다가 도학이 소홀했다.”고 비판하고, 시는 末枝이지만 性情에 근본을 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문학을 옹호하였듯이, 훈구파는 과거중심인 사장학에 몰두하고 사림파는 修己中心의 심신수양에 중점을 두었으나 훈구파나 사림파 모두가 性情醇化와 風敎에 근본을 둔 시문의 교화적 효용은 부정하지 않았다.

한편 李珣는 이러한 사장학과 도학의 관계를 ‘以道爲文’⁸⁸⁾이란 개념으로 나타내어 문학은 학문과 수양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李滉은 역시 문학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곧 載道로서 ‘道文一致’의 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詩가 성정에서 우러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문인들 사이에도 변함없는 견해였다. 하지만 道學派와 詞章派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도 없지 않았다. 南孝濫 등의 사장파가 ‘시를 지음으로써 성정 도야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87) 趙潤濟, 『韓國文學史』, 186-188쪽.

88) 以道爲文은 고려 말 조선조 초 학자들은 사장 위주의 문학을 반대하고, 내용면에서는 道 내지 倫理道德을 담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유학을 기반으로 불교를 배척하면서 문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했다. 조선조 전기에는 ‘官僚的 文學의 세계’가 가장 발달하였는데 이 문학은 사장중심으로 흐르기 쉬웠다. 道를 담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표면적으로 거부하지 못했지만 사장으로 흐르게 되면서 자연히 도에서 멀어져 도덕주의적 전제 자체가 의미를 잃었다. 이에 율곡은 ‘以道爲文’을 내세우게 된다. “道가 나타난 것은 文이라 하나, 도는 文의 본이요 文은 도의 말이다.” 도로써 文을 이룬다는 이도위 文은 文과 도가 분리되어질 수 없다. 文이 도를 나타낸다고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덕행과 학문에 의한 내적인 자기 성취에 의해서 자연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내세운 데 반해 鄭汝昌 등의 도학 파들은 시보다는 성정 도야를 주목적으로 삼아야 되며, 詩라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南九萬은 “시가 교화를 위한 것이라는 뜻은 본래 溫柔敦厚한 시 정신으로 성정을 다스려서 風化를 이루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여 세상의 도리를 평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⁸⁹⁾라고 하였으며, 洪萬宗은 “시는 風教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지 사물이나 경색을 읊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였다.⁹⁰⁾ 결국 이러한 추세 속에 鮮初부터 宣祖~光海 이전의 시까지는 대체로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宋의 詩風이 존중되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시문학은 南宋의 성리학을 두루 익혀 宋詩가 주조였었다. 許筠은 “우리나라의 시는 黃·蘇를 위주로 한다.”⁹¹⁾라고 하였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조선 초기부터 中, 明宗까지는 高麗 詩風의 연장으로 宋詩 文學을 따랐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文風은 고려 중기 이후 유행한 宋詩風이 계속되었다.

성리학을 사유의 기반으로 하는 신흥사대부 문인들은 기본적으로 宋代의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宋代의 문인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직을 비롯한 仕宦의 길에 들어 선 신진사류들의 문학도 기본적으로 송시풍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어, 자연스럽게 蘇軾의 詩를 典範으로 삼아 작시하였으며, 이미 권귀화된 훈구관료들의 틈에서 관직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문창작에 노력하였다.

조선 초·중기의 詩는 中宗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 李荇, 朴祥, 申光漢, 金淨, 鄭士龍 등의 대시인과 이어서 宣祖 연간에는 盧守愼, 黃廷彥, 崔慶昌, 白光勳, 李達 등의 걸출한 시인들을 배출하였다. 우리 詩는 고려 이후로 4, 5차례의 변천을 거치며 蘇軾을 위주로 한 宋詩風의 연장선상에 있다가 黃庭堅과 陳師道를 배우게 되고 다시 변하여 唐詩를 배우게 되었다.

89) 이종호, 『朝鮮의 文人이 걸어온 길』, 한길사, 2004, 95쪽.

90) 洪萬宗, 『詩話叢林』, 『洪萬宗全集』下, 太學社, 1980, 610쪽.

91) 許筠, 『許筠全集』, 『鶴山樵談』,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345쪽, “本朝詩學 以蘇黃爲主”

조선 전기에 唐詩風을 구사하려는 시인들이 다소 등장되지만⁹²⁾ 詩史의 주요 흐름은 蘇軾과 黃庭堅, 또는 황정견과 陳師道의 추종이었다. 황정견과 진사도를 배웠던 일군의 인물로는 朴閔, 李荇, 朴祥, 鄭士龍, 盧守愼, 黃廷彧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당시대의 대표시인이며 조선 문단의 기림을 받는 인물들이다. 이들 시인들은 문학사적으로 구분하여 官人 또는 館閣文人⁹³⁾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황정견과 진사도를 배운 문인 중 朴祥을 제외한 모두가 大提學을 역임한 경력자이면서도 그들의 宦路는 거듭되는 탄핵과 유배로 인하여 실의와 좌절의 연속이었음에 비추어 이전시대 徐巨正으로 대표되는 館閣文人과는 뚜렷이 구분된다⁹⁴⁾.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들에 대해서는 진사도와 황정견을 대표로하는 강서시파의 영향 하에서 접근되는 것이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조선 成宗조에서부터 宣祖조에는 海東江西詩派라 이름만한 시인그룹이 태동되는바 朴閔, 李荇, 朴祥, 鄭士龍, 盧守愼, 黃廷彧 등이다.⁹⁵⁾

江西詩派란 의미는 중국 宋代 시단의 한 流波로 가장 宋詩的 특질을 구현한 황정견, 진사도 이하 一群을 이르는 것이다. 그들은 唐詩 正統을 거부하고 奇想奇句를 숭상하여 신펡을 일으켰다. 그들이 詩社 등의 結社體가 아니면서도 黃·陳을 배운 것으로 강서시파를 구분하였듯이 해동강서시파의 구분 또한 이를 준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다.

92) 鄭以吾, 李靑, 羅湜, 申光漢, 金淨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93) 조동일, 『韓國文學通史』 2, 359~361쪽. 大閣 또는 館閣은 문학을 관장하는 弘文館, 藝文館, 成均館의 총칭이다. 이곳에서는 나라의 공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글을 담당하고 과거 시험의 문체의 기를 정하고 文學하는 기풍을 바로잡는 일을 담당했다. 大提學이 이를 총괄하여 文衡이라 지칭하였다. 館閣文學의 범위는 조정에서 하는 공식적인 문학 창작까지를 말하며, 官人文學은 관인집단이 사사로이 하는 문학행위까지를 총칭하는 말이다. 官人文學은 士林文學과는 사회적인 성격이나 사상적인 기반에서 대칭되는 개념으로 관인문학은 문학의 裝飾的인 기능을 중요시하고 격식에 잘 맞게 다듬어진 표현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사림문학은 자기성찰을 하는 思想이나 興趣를 소중히 여기고 時調나 가사창작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94) 임형택,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沈慶昊, 「朝鮮前期 士大夫의 漢文文學과 國文文學」, 『한국사상대계』 4, 精神文化研究院.;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4.; 이우성, 「李朝士大夫의 기본성격」, 『민족문화연구의 방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이성무, 『조선초기양반연구』, 일조각, 1980.; 김성인, 「한국관각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9.; 김성, 『麗末鮮初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길진숙, 『조선전기 시가 예술론의 형성과 전개』, 소명출판사, 2002. 등이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95) 李鐘默,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중국의 江西詩派라는 명칭이 呂本中の 「江西詩派社宗派圖」에서 출발한 것으로⁹⁶⁾ 어떠한 결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呂本中이 유사한 경향의 시풍을 가진 자들을 모아 강서시파라는 하나의 流派를 규정하였듯이 海東江西詩派 역시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유사한 시풍을 견지한 일군의 시인들을 가리키는바 海東강서시파는 黃庭堅, 陳師道, 陳與義 등의 개별 작가들의 시풍이나 창작 방법론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

우리 詩가 成宗에서 宣祖 연간에 이르는 시기는 황정견과 진사도의 영향권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작가군을 지칭함이 옳을 듯하다. 海東강서시파라는 명칭의 사용과 대상에 대한 언급은 申緯의 <論詩絕句>에서부터이다.

學副眞才一代論	학문의 높은 재주 시대에 논하면
容齋正覺入禪門	용재가 바르게 깨달아 선문에 들었도다
海東亦有江西派	해동에도 또한 강서파가 있으니
老樹春陰挹翠軒	늙은 나무 봄 그늘을 읊은 읍취헌이라. ⁹⁷⁾

申緯는 여기에서 읍취헌 朴闇만을 海東강서시파라고 하고 있다. 李荇은 佛家에 비유하여 정통임을 말한 것이며 위 그룹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의 견해로 보건대 조선에서 강서시파의 추종 인물로 朴闇 등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海東江西詩派라는 항목을 설정했던 사람은 金台俊이다. 그는 海東강서시파에 朴闇, 李荇, 鄭士龍, 盧守愼, 黃庭彧, 朴祥,

96) 중국에서 江西詩派研究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남송의 呂本中에 의한 <江西詩社宗派圖>를 작성하여 江西詩派의 대상을 어느 정도 확정하였다. 여기에 들어 있는 시인들을 강서시파로 볼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呂本中の 江西詩派大系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呂本中은 <江西詩派宗派圖>를 지어 황정견을 으뜸으로 삼고 진사도를 그 아래에 두고 자신을 그 뒤에 두는 등 25명의 인물을 江西詩派로 배치하였다. 詩에는 活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7) 『警修堂全藁』卷48, <論詩絕句>.

成倪, 申光漢 등을 지칭하였다.

조선조의 詩體는 4~5번 이상 변했다. 조선 초에는 고려시대의 여풍을 이어 순전히 소식을 배웠다. 成宗 연간에 이르러 이행이 대성하였고 그 중간에 예장으로 참여하니 읍취현의 재주였다. 또 변하여 황정견과 진사도를 오로지 배웠으니 정사룡, 노수신, 황정욱이 힘차게 나란히하였다. 또 변하여 唐詩의 정도로 돌아갔는데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이 가장 뛰어난 자였다.⁹⁸⁾

이로 미루어 朴閔, 李荇, 朴祥, 鄭士龍, 盧守愼, 黃庭彧 등이 황정견과 진사도를 배웠음이 확인되므로 海東江西詩派라 지칭함에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또한 허균은 『國朝詩刪』에 노수신의 <送盧子平赴東來>에 대해 ‘換杜之胎’와 ‘自出機杼’라고 평한 것으로 보아, 노수신은 黃庭堅을 수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換杜之胎’는 杜甫의 시를 바탕으로 하여 황정견이 이른바 ‘換骨脫胎’를 이루었다는 말이며 ‘自出機杼’는 황정견에 대한 후대의 評語이므로 허균이 시평한대로 노수신이 황정견처럼 일가를 이루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 소재는 스스로 <復次蘇彥謙重惠韻>에서 늘 籟瑗의 예순 살 변화⁹⁹⁾를 좋아하여 이를 추구하였고 공부는 神奇를 추종하였는데 이 神奇는 강서시파의 특징적인 이론이다.

해동강서시파는 漢詩 作法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강서시파를 배워 높은 수준의 한시를 제작해 내었다. 해동강서시파는 강서시파의 특질인 拗體를 수용하여 强健한 미감을 거두고 있으며, 奇字의 운용을 특질로 하는 江西詩를 배워 述語를 단련하고 助字와 僻字 등 특이한 글자를 시어로 구사하였다. 특히 강서시파의 “以俗爲雅” 이론을 계승하여 속담이나 비속한 표현

98) 『西浦漫筆』, 619쪽, “本朝詩體不啻四五變 國初承勝國之緒, 純學東坡, 以迄於宣靖, 惟容齋稱大成焉. 中間參以豫章, 則翠軒之才. 實三百年一人. 又變而專工黃陳, 則湖蘇芝鼎足雄峙. 又變而反正於唐, 則崔白李其粹然者也.”

99) 居白玉은 魏나라 현인으로 孔子의 정신적 후원자였다. 사상과 태도가 예순 살까지 변했는데 日進月步하여 정지하지 않고 六十에서 五十九의 非를 깨달았다 한다.

을 시어로 활용하였고, 경전이나 성리학적 개념어를 시어로 선택하여 奇拔하고 雄麗한 의경을 확보하였으며,¹⁰⁰⁾ 이전까지 금기시되던 지명이나 인명, 관명 등을 수용하여 주체적인 시의 창작을 이루어낸 것이다.

노수신의 시는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아 기이하면서도 웅장한 미감을 주는 詩作과 唐詩의 웅장하고 풍격이 드러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20여 년간 진도에 유배된 시기를 杜甫에 침잠하여 깊이 이해하고 배워서 결국 강서시파의 유형과 같아진 것이 소재 시의 특징이다. 해동강서시파는 唐詩風을 겸하고 있음을 소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시대상황과 시류에 따라 宋詩를 배우고 이 바탕위에 唐詩를 접목한 것이다. 그 뒤를 이은 崔慶昌, 白光勳, 李達 등 三唐派에 의하여 唐詩가 새로운 詩流로 지평을 열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文風에 있어서도 宋詩風의 영향으로 慕蘇의 文風이 여전하였지만, 성리학이 점점 정착화 됨에 따라 杜甫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學杜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慕蘇의 文風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훈구파들은 慕蘇의 문풍을 견지하였으며, 신진사류들 사이에서는 慕杜의 조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신진사류들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주체적 역할을 한 관각문인들의 후예들보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실천 유학적 이상을 가졌으며, 관각문인들과의 비교 우위에서 杜甫의 시를 애송하며 시의 典範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¹⁰¹⁾ 시의 내용에 있어서도 詞章派들은 다분히 외향적이고 실용적인 문학으로 富贍한 것을 존송하였으나, 신진사류들은 이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시의 본질에 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¹⁰²⁾ 學詩의

100) 性理學的 概念語를 시어로 구사하여 사실이나 景物을 묘사하는 것도 해동강서시파의 독특한 작법이 었다. 특히 이의 경향이 가장 강한 사람은 黃廷或이었으며 芝川은 기묘한 경치를 묘사할 때 성리학적 용어를 구사하여 추상화된 심상을 구사한 반면(<次興德培風軒韻> 頸聯 참조) 소재는 철학적 개념어를 시어로 구사하여 사물의 원리와 현상을 對偶로 병치시켜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였다(卷5, 247, <彈琴臺用訥齋韻> 頸聯; 卷6, 275, <遞右相>; 卷6, 273, <孝陵端午祭>. 참조)

101)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文學』, 보고사, 2004.

102) 梅溪는 <善山養素樓記>(卷4, 331쪽)에서 孔子의 ‘繪事後素’를 들어 본질에 힘써 덕을 기르기를 주장하였다. 물론 이 記文은 정치론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정치와 문학이 서로 관련이 있는 만큼 문학에

典範을 蘇軾에 두고 있으면서도 慕杜의 조짐이 커지기 시작했다.¹⁰³⁾

송의 시풍은 性理學의 사상적 배경 아래에서 시의 美意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사상의 기교와는 상관없는 자구마다 의리를 명백히 함에 집착하는 一字一句 상의 彫琢에만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¹⁰⁴⁾ 점차 관념적이고 기교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宋詩風은 시가 주는 자연스런 감동과는 멀어지고 인간의 순수한 情感이나 생활에서의 절실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았다. 이로 인해 점차 唐詩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杜詩를 비롯한 唐詩의 印刊이 꾸준히 이루어져 당시풍으로의 변천에 일조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고려말기에 盛唐의 대표 시인인 杜甫詩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는데 채몽필의 『杜工部草堂詩箋』¹⁰⁵⁾의 복간을 보았고, 두시를 내용별로 분류한 『纂註分類杜詩』가 목판본까지 무려 7종이 나와 讀杜의 성황을 자아내었고 『虞註杜律』(杜工部律詩演義)¹⁰⁶⁾는 20종이 나와 당시 四書에 다음가는 필수서가 되었다.¹⁰⁷⁾

세종25년(1443) 4월초에는 두시의 주석을 위해 내외의 주 두서를 사들이라는 명령까지 있었고, 성종은 杜詩의 주석을 위해 국내의 杜詩 學者를 총 동원하여 마침내 『杜詩諺解』¹⁰⁸⁾를 刊行한 사실로도 익히 짐작되는 당시의 풍조였다.

연산조의 많은 문인들은 사화로 인해 정치적 좌절을 겪고 유배를 당하여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03) 許筠이 지은 『國朝詩刪』은 조선초 鄭道傳에서 자신의 친구인 權躡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唐詩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 뽑은 35명 시인의 시 888수를 선집한 책이다. 이 책에 실린 성종조 문인 가운데 훈구파 문인은 徐居正(13수), 成俔(7수) 등이 있고, 신진사류는 金宗直(27수)을 비롯하여,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曹偉(3수), 兪好仁(2수), 申從濩(2수), 姜渾(5수), 鄭希良(6수), 曹伸(1수), 鄭汝昌(1수), 李龜(1수) 등이다.

104) 全鑿大, 『韓國古典詩學史』, 275쪽.

105) 『纂註分類杜詩』: 杜甫의 시를 主題別로 분류하고 역대 諸家의 註를 모아 編纂한 책이다. 1445년(세종25) 주석서를 구입하여 集賢殿에서 참고하여 종합하라는 왕명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目錄 25권 습 21책이다.

106) 『虞註杜律杜甫』의 七言 律詩를 원나라 학자 虞集이 주를 붙이고 청주목사 권지가 발행한 책이다. 이 책의 글씨는 괴산군수 박병덕이 썼고 교정은 이경방이 보았다.

107) 李丙疇, 『杜甫』, 民音社, 1993, 7쪽.

108) 『杜詩諺解』는 原題 『分類杜工部詩諺解』로 成宗12년(1481), 25권 19책으로 初刊되었다.

불우한 삶을 살다 생을 마치기도 하였다. 杜詩가 사장을 위한 필수적 전범으로서 시인에게 수용되기도 하였지만, 사화기 관료로서 사장의 역할과 활용이 불가능했던 문인들에게는 두보가 겪은 인생경험과 不遇를 體化하면서 杜詩의 ‘憂國衷情’과 ‘不遇’ 등을 근거로 성정의 미학으로 삼아 본받으려 했고, 士禍期를 겪으면서 杜詩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체화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⁰⁹⁾ 이후 종종 때 일어난 己卯土禍에 연루된 金淨 등 기묘명현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불우와 우국충정의 심회를 토로하는 수단으로 더욱 杜詩를 애용하여 學杜의 분위기가 심화되었다. 成宗朝 때에 시작된 學唐은 宣祖 때에 이르러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으며 소재는 유배기에 杜甫에 沈潛하여 두시의 특성과 神韻을 얻어 삼당과의 架橋的 역할을 행한 인물이었다. 조선 초기에 당시풍을 구사하는 시인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¹¹⁰⁾ 선조 때에는 이미 唐詩風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주도적인 인물이 盧蘇齋와 黃芝川 및 三唐詩人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시는 고려의 李益齋를 마루를 삼아 조선조의 선조와 인조 년간에 작자가 잇달아 가장 성하여 李五峯(好閔), 車五山(天輅), 白玉峯, 許夫人(蘭雪軒), 權石洲(韞), 金淸陰(尙憲), 鄭東溟(斗卿)의 여러 작가가 대개 모두 풍성하고 웅장하고 고고하고 화려의 자취를 주로하고 영조 이하부터는 풍기가 일변해 李用休, 李家煥 父子와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李書九의 무리가 혹은 이상하고 야릇함을 주로삼고, 혹은 날카롭고 새로움을 주로 하니 그 일대의 오르내림의 자취가 옛날에 견주면 바로 성당과 만당의 풍조와 같다 하겠다.¹¹¹⁾

109) 이재숙, 「容齋 李苻의 詩文學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43-44쪽.

110) 鄭以吾, 羅湜, 李胄, 申光漢, 金淨등이 이 部類에 속한다.

111) 『申緯紫霞詩集』, 卷一. 2, (『韓國漢詩의 譯解』), 156쪽, 李炳疇, 2000. 이화문화출판사 : 吾東之詩以高麗李益齋爲宗, 而本朝宣. 仁之間 繼而作者 最盛. 有李五峯. 車五山. 白玉峯. 許夫人. 權石洲. 金淸陰. 鄭東溟諸家. 大抵皆主豐雄高華之趣. 自英廟以下 則風氣一變 如 李惠寔. 錦岱父子. 李炯庵. 柳冷齋.

中宗朝 때 이행, 박은 등이 강서시과를 배워 조선 第一大家의 칭송을 받았는데, 이틈에 唐詩의 시풍을 숭상한 존재들이 자주 나와 시단이 크게 갖추어지고 穆陵盛世에 이르러 騷壇의 習尙이 唐詩 쪽으로 굳어지고 이후 조선조의 詩業은 사실상 이에서 더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선조 때에는 이미 唐詩風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주도적인 인물로 盧蘇齋와 黃芝川 및 三唐詩人을 거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의 전환함에 있어 蘇齋는 큰 비중의 인물이었다. 成宗朝 때 시작된 學唐은 宣祖 때에 이르러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는데 유배기에 杜甫에 沈潛되어있던 소재는 杜甫의 詩法을 얻었고, 白光勳, 崔慶昌과 오랫동안 師友關係를 맺으며 그들의 시풍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학당의 앞뒤를 잇고 삼당시인에게 큰 영향을 준 蘇齋의 研究는 조선조 시풍의 변화를 조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朴楚亭. 李薑山之倫. 或主奇猶 或主尖新, 其一代升降之跡, 方之古則猶盛晚唐焉..

Ⅲ. 思想的 背景과 文學意識

1. 思想的 背景

1) 思想의 形成過程

소재 노수신(1515~1590)은 명종~선조대에 활동한 시인이자 정치가·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활동한 16세기는 사회와 당쟁의 연속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으며, 그는 己卯土禍로 얼룩진 시대적 餘震이 잔재된 불안한 시기에 道學政治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나,¹¹²⁾ 그 뜻을 펼치기 전에 乙巳土禍를 당하여 22년의 謫居 생활을 하는 비운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소재의 학문과 사상의 연원을 고찰해보면 그는 당연히 성리학의 뿌리에서 시작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7세에 탄수문하에 들어가 小學을 중심으로 하는 爲己之學을 연마하고, 그는 당시 灘叟를 방문한 회재와의 학문적 토론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喜怒哀樂의 未發之性’에 대하여 들은 후,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¹¹³⁾ 그는 처음으로 들은 ‘체용’ 논리에 대하여 “공자의 高弟인 子貢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깊이 감동하고 있는 바, 그 당시 회재사상의 일부가 소재에 전이되면서 소재는 기존의 성리학이 갖는 의미들에 대하여

112) 도학이라는 말은 선진유학 즉 공맹유학이 북송과 남송을 거쳐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낳게 되면서 등장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도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보이는 곳은 『대학』으로 그곳에서는 『시경』 「기옥」 편의 시를 인용하여 “如切如磋者 道學也”라고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도학’은 ‘학문을 말하다’라는 의미에 불과하며, 새로운 학문 영역과 체제로서의 ‘도학’은 『宋史』 「道學傳」이라 할 수 있다. 단언하면, 도학은 기존의 공맹유학 성격으로부터 탈피하여 만물의 본성이 갖는 존재성과 이치, 그리고 그러한 이치를 갖고 있기에 마땅히 행해야할 당위성 등의 도덕법칙을 연구하는 학문 일반을 일컫는다. 도학이 정치성을 띠며, 최고의 이상적인 지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조선 유자들의 최고의 이상향이었다.

11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蘇齋集』 卷7, 291, 「附錄」, <晦齋先生集序>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以下 본고와 관련된 문장을 기재한다. “予嘗在辛丑年間, 以書爲贄而禮焉, 望儼卽溫, 親承警效, 窺有方寸之學, 遂將程氏附註書, 叩疑不已, 仍請存心之要, 久之, 先生指掌曰有物於此, 握則破, 不握則亡, 退而省乎心, 粗覺其爲忘助之異名, 而尤喜其親切而有味也. 既而 先師灘叟先生與先生論喜怒哀樂未發, 爲予道其詳, 予又竊自歎曰 此子貢所以不可得而聞, 嗚呼已矣. 自予入海 先生出塞 歲才七周而塞計至海 追悔悼惜 每中夜潛然至恨冥 頑獨久於世也.”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전초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소재는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면서도 당시 학문에 뜻을 두는 위기지학을 연마하기보다는 出仕에만 급급해하는 선비들의 작태를 비판하면서 관료사회의 타락과 俗學에 대한 깊은 혐오를 갖게 된다. 25세에 금강산을 등정하여 읊은 「遊山錄」에서 “내가 希求하는 말이 책에 있으나 견인해줄 선배가 없어 후배의 성취가 더디구나.” 하고 자탄하고 있음에서 우리는 그의 현세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식과 경세에 대한 염려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¹¹⁴⁾ 그가 추구하는 ‘聖人之學’은 금강산 기행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에 접근하게 되는 시점이다. 卑俗한 현실을 털어내고 천척이나 되는 깊은 굴속에 홀로 거처하며 온 생을 던져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수양에 정진하려는 노 선사들의 맑고 고요한 정신 경계에 접근하는 과정이었다. 선사들을 통하여 허물어가는 육체의 번뇌와 한계를 超克하고 결국 추구하는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의 旅程에의 심취는 여행도중 접수한 別試가 있다는 家信에 대해서도 아랑곳없이 전 旅程을 완주하였고, 결국 「己亥遊山錄」이라는 걸출한 청년기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이 시기 그의 사상적 유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자연경물과 함께 禪師들과의 대화에서 얻어지는 감동을 각인하는 것이었다. 금강산의 빼어난 물상을 통하여 浩然한 기운을 호흡하게 되었고 그의 시운은 호장하고 노건, 웅장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 시기 그의 사상은 육체적 욕망을 극복하고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면 부처나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었다. 이 時期 그는 佛敎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추게 된다.¹¹⁵⁾

성균관 유생시절의 學友는 恥齋 洪仁祐(1515~1554), 草堂 許燁, 舟川 康惟

114) 『蘇齋集』 卷1, 147, <次板遣悶>, “嗚呼噫嘻我知之, 萬古悠悠我所思. 簡策有言前輩遠, 淵源無授後生遲.”

115) 이 시기 소재 노수신은 인간이 육체적 욕망을 극복하고 본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부처’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소재에 대한 후대의 연구에서, 그를 ‘불가’ 또는 ‘양명학적 특징’을 접한 儒者로 평가하게 되는 근거들이 산재되어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見性成佛’은 佛家의 요체이며, 맹자가 말한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는 ‘人皆爲堯舜’의 사상은 양명학에서 더더욱 꽃을 피운 학설이기 때문이다.

善 등으로 대부분 心學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고, 치제는 훗날 소재 유배 시 「夙興夜寐箴解」로 하서·퇴계와 3자 토론을 할 무렵 「延平問答錄」을 읽고 소회를 편지로 부쳐 “心法이 모두喜怒哀樂이 발하기 이전의 기상에 힘을 쓰는 것이었으니, 이른바 천하의 큰 근본을 세우는 일이었다.”¹¹⁶⁾고 하였다.¹¹⁷⁾ 草堂 또한 그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중국의 道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오라.”는 주문에서 보듯이¹¹⁸⁾ 心學에 조예가 있는 자들이었다. 또한 탄수의 영향은 물론 陰涯 李紆에게 학문을 묻기도 하는 등 그의 師友가 대부분 심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는 20대 전반 무렵 ‘象山學’에도 관심을 가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소재는 회재를 만나 ‘勿妄’, ‘勿組長’의 교훈을 얻은 후 이것의 실천 덕목은 ‘主敬涵養’에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함양하고 성찰하는 ‘存德性’工夫에 주목하였다.¹¹⁹⁾ 20대 후반에 들어선 소재의 학문은 이미 3壯元으로 환로에 입성하고 또한 博聞多識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衆望이 퇴계를 앞섰을 정도였다고까지 전하기도 한다.¹²⁰⁾ 그리하여 환로에 들어서서는 격물치지를 강조하여 敬과 格物致知가 병진되는 공부 방법을 강구하였고, 30세에 세자시강원 사서에 배명된 후에는 특히 이를 추구하고 실행하였

116) 洪仁祐, 『恥齋遺稿』 卷1, 「與盧寡悔書」, 25쪽, “(前略)故龜山豫章延平考亭相授心法皆用力於喜怒哀樂未發 前氣象所謂立天下之大本.(後略)”

117) “회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하기 이전[喜怒哀樂之未發]”이라 하면, 곧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의미한다. 중용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이 아직 발하기 이전은 ‘性’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외부 사물·사건과 접하여 길로 드러난 형국을 ‘情[감정]’이라 한다. 소재가 ‘未發’의 공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南宋의 象山 陸九淵이 주장했던 ‘先立乎其大者’의 중요성과 일맥 일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소재가 상산학에도 일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곧 이에 근거하는 말이다.

118) 『蘇齋集』 卷6, 275, <送人赴京>.

119) ‘존덕성’ 공부 역시 중용 26장에서 언급되는 대목으로, 주자학과 상산학, 또는 주자학과 양명학을 경계 짓는 중요한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尊德性而道問學이나 아니면 道問學而尊德性이나 하는 논의는工夫의 先後 관계를 논하는 부분으로서, 일찍이 ‘아호사’라는 사찰에서 주희와 육구연 형제가 논쟁했던 것이다. ‘존덕성’과 ‘도문학’은 사람이 내면적인 덕성의 수양과 외면적인 학문의 연마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인간의 이상적인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 명제를 뜻한다. 원래 이 두 가지는 도덕 인격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유학의 이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논제였다. 소재 노수신이 ‘존덕성’의 공부방법론에 관심을 더 보였다는 것은 곧 상산학이나 양명학 쪽에 비중을 더 두었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20) 李植, 『澤堂集』 別集 卷15, 「示兒代筆」, “蘇齋自少厲志苦學, 祖述靜菴 聲名高於退溪.”; 『선조수정실록』, 선조22년 4월 壬辰, “其學初甚精博 儒林之望, 先於李滉.”

다.121) 또한 20대초에 접했던 象山學은 당시의 시류와 공부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유학의 道統이 주자학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명종 원년 을사사화는 그가 지향하고자 했던 모든 꿈을 송두리채 앗아가고, 황량한 현실은 그가 부딪치는 현실적 괴리에서 사상적 변천을 추구하게 하였다. 소재는 을사사화 직후 주희의 ‘主知主義的 工夫論’에 회의하게 되었고, 어떠한 명분에도 이해되지 않는 을사변란은 그의 생을 좌절과 혼란으로 내몰았으며, 그가 지향했던 주희의 格物致知論에 입각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서서히 회의를 접하게 되는 순간에 이르게 된다.122) 따라서 이 시기 소재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희의 핵심 이론인 ‘마음(心)은 天理를 운용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믿었던 지각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왕양명의 ‘천리가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외부의 사물에서 天理를 인식하는 格物致知를 회의, 10여 년 동안 주희의 道問學 工夫에 매여 시간을 낭비하였음을 후회하면서 “傳注에 마음을 빼겨 象山을 저버렸기에 10년간의 이야기가 부질없게 되었다.”고까지 자탄하기도 했다.123) 이로부터 마음안의 天理를 보전하는 主敬涵養을 공부의 근본으로 중시하게 되었고, 象山學과 陽明學에 침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그의 나이 37세(1551) 되던 해, 陳栢의 『夙興夜寐箴』을 註解하여 하서와 퇴계 간에 서신으로 토론하고 脫稿하는 과정에 드러나 있다.

121) 「晴窓手錄」에 그의 格物致知 학설이 지향하는 바가 일관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以下는 관련 원문을 기재한 것이다. 內集 上篇, 「闕逢執徐書筵講義, 晴窓手錄」, 甲申, 329쪽, “此敬之一字, 眞聖學始終之要, 徹頭徹尾, 貫動靜, 兼體用也. 故曰, 修齊治平, 都少個敬不得 雖然, 古人云, ‘有死敬’, ‘有活敬’ 若只淵靜默息, 而遇事不濟之以義, 辨其是非可否, 權其輕重緩急, 則是枯木死灰, 而其敬死矣.”

122) 乙巳土禍 직후 고향에 돌아온 소재는 格物致知를 비판하는 3首의 시를 지었다. (卷1, 157, <思勁詩軸, 讀休菴所賜次韻, 慨然有感, 輒復和題> 外 2首)

123) 『象山先生集』 卷34, 「語錄」 上, “孩提知愛長知欽, 古聖相傳只此心, 大抵有基方築宰, 未聞無智忽成岑, 留情傳住齏糗塞, 着意精微轉陸沈” (박경환, 「工夫方法論으로서의 存德性和 道問學」, 『論爭으로 보는 中國哲學』, 1994, 242쪽.)

그러나 소재는 주자의 사상과 갈등적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주자 성리학에 견인된 절충적인 분위기를 『夙興夜寐箴解』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程朱의 '도문학' 공부방법이 중요하다는 인상으로 되어 있는 듯하지만, 心과 性을 하나로 보는 상산학과 양명학에 경도된 심성론 이론과 禪學에 경사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일 퇴계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저술로 讚賞하면서도 禪味한 일부분을 지적하자, 이를 수용하여 고치기도 했던 저술이다.¹²⁴⁾

그러나 그의 주자학과 상산학 및 양명학과의 학문적 소신과 갈등은 유배 13년째인 명종 14년(1559) 「人心道心辨」을 짓고, 이듬 해 「困知記跋」을 쓰게 되면서부터 학계에 큰 과문을 일게 하였다. 소재의 인심도심설의 핵심은 역시 도심과 인심을 이원적으로 나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道心은 本性이요 天理와 일치되어 있는 未發의 心體이며, 人心은 道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이론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소재가 자신의 대표 논문이라 할 수 있는 「人心道心辨」과 「執中說」을 저술하고 주희의 『人心道心說』에 異見을 세간에 내놓게 되자, 당시 性理學을 고수하고 程朱사상의 세계관만을 답습하는 여러 사류들로부터 “상산학과 선학에 물든 것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¹²⁵⁾. 소재는 「人心道心辨」을 저술한 40대 이후부터 수많은 天理詩를 지었고, 주자의 격물치지를 부정하며 『孟子』의 ‘求放心’과 『大學』의 ‘誠意’가 수양 공부의 요체임을 드러내는 내용의 詩作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과 문학관을 표출하기에 이른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시 두 편을 서술하기로 한다.

124) 『蘇齋集』, 「年譜」, 先生四十四歲, “斯道不亡於吾東, 則此解必傳於後世.”

125) 李滉, 『退溪集』(『韓國文集叢刊』 29, 민족문화추진회, 1988.) 卷23, 「重答奇明彥別紙」, “往者人言寡悔頗悅禪味, 中間又聞其尊信困知記, 滉猶不之信, 及見其所爲人心道心吟二絕句, 心甚疑之, 以爲寡悔不應至此, 恐或好事者假稱. 今得來示乃親與之款叩, 而其言論旨意如此令人掉心失圖, 奈何奈何.”; 李德洪, 『良齋集』(『韓國文集叢刊』 51, 민족문화추진회, 1990.), 「溪山記善錄」下, “問今世誰能學問, 先生曰 未見其人, 曰, 如奇峰李龜巖者, 何如. 曰此人厚重近仁, 而循塗守轍, 必終不回頭, 向別處去, 但所見猶未能透得大綱領, 這可惜耳. 大凡世無切已根本上做工夫邸人, 只有曹南明, 唱南華之學, 盧蘇齋守象山之見, 甚爲懼也.”

- ① 人物揚心誰得一 사람과 物이 마음을 흔드는데 누가 一을 얻겠는가?
吾儕賴有草堂誠 우리들은 초당의 誠에 의뢰하네.
立誠乃是大功程 誠을 세우는 것이 큰 功의 과정이니
然後規模始得成 그런 후에 규모가 비로소 이루어지네.¹²⁶⁾
- ② 動察靜存該體用 움직임을 살펴 고요히 있으면서 체용을 갖추고,
達行窮守一源流 하나의 원류를 궁구히 지켜 도를 달성시켜야 한다.
嗚呼千聖相傳法 오호라, 수많은 성인이 서로 법을 전하니,
下手何先卽放求 부족한 자가 어떻게 먼저 구방심을 찾겠는가?¹²⁷⁾

위 詩①은 초당 허엽에게 준 詩 중 頷聯과 頸聯 부분이다. 수양의 요체가 ‘誠意’에 있음을 말하면서 왕수인의 大學說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人心道心辨」에서 心과 性을 하나로 보고, 마음과 천리를 하나로 보는 심성론을 개진하고 있다.

②의 詩는 백광훈에게 준 求放心에 대한 頸聯과 尾聯 부분이다, 백광훈의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경구로 써준 天理詩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動靜을 살펴 體用을 갖추고 맹자의 求放心을 찾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소재는 바로 명나라의 整菴 羅欽順(1465-1547)의 『困知記』를 수용하여, 人心과 道心은 體用이라는 說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학설로 내놓기도 하였다¹²⁸⁾. 整菴의 說은 양명학과 선학을 비판하면서 性과 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주희의 格物致知說을 지지하는 대신, ‘理氣一物說’, ‘人心道心體用說’, ‘慾望의 肯定’ 등과 같은 명나라 당시의 유행하던 사조를 강조하는 이론들이라 할 수 있다. 소재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갈등 구조 속에서 새롭게 얻은 정암 나흠순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입론을 再變시키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

126) 『蘇齋集』 卷6, 278, <寄許草堂>.

127) 『蘇齋集』 卷4, 233, <復以求放心爲贈>.

128) 현상윤,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49, 201-210쪽.

다.129)

이어 소재는 48세 되던 1562년, 「執中說」을 제작하여 本性이자 天理인 도심을 잘 보존하여 人心으로 드러나게 하는 ‘戒愼’, ‘恐句’와 ‘愼獨’이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였다. 소재는 中의 실천 윤리를 體用 논리로 구명하고 있다¹³⁰). 그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體와 用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운동법칙이 곧 ‘動靜’이라는 논리로 ‘中’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書經』, 「大禹謨」의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에 관하여 당나라 孔穎達(BC574~648)은 “인심은 민심을 뜻하며 민심은 위태하다.[人心惟危] 이는 백성의 마음은 위험하여 안정시키기 어려우므로 위험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道에서 찾아 이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道의 핵심은 深遠하여 그것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알아 정성을 다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며 다스리는 자는 誠心을 다하고 中正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석하였다.¹³¹⁾

이와 같이 「人心道心說」은 舜임금이 禹임금에게 양위하면서 임금의 통치 방법을 당부한 것으로만 이해되어 程朱의 성리학 이전까지 크게 중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자에 이르러 心學의 주제로 새롭게 해석되었으며 주희는

129) 본 논문이 소재 노수신의 哲學思想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문학에 대한 일면을 고찰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바, 소재와 정암 나훬순의 사상적 동이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소재가 정암 나훬순의 사상에 경도되어 도심과 인심에 대한 학설을 수용하였다는 점만을 이곳에서 언급해 둔다. 소재가 나훬순의 사상을 수용하여 주기론과 人心道心 體用說을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그의 문집 『內集』 下篇, 「懼塞錄」를 참고하기 바란다. 소재는 정암의 학설을 지지하면서 「人心道心辯」에서 “인심이 인욕이 된다면 도심을 已發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인심이 선악을 겸하였다고 하면 도심을 未發이라 해야 옳다.”(『內集』 下篇, 「懼塞錄」 甲二, 「人心道心辯」, 4쪽, “人心爲人欲, 則道心爲已發, 可也. 人心爲善惡, 則道心爲未發, 可也.”)고 주장하고, 또 “인심은 선악을 겸한 것 이라 하는 說로서 본다면 道心은 반드시 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以人心兼善惡說觀之, 而知道心必爲體.]”고 강조하였다. 소재는 「困知記跋」(1560)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수신이 만년에 『困知記』를 얻어 그 말의 정대하고 정미한 것이 대부분 앞서 사람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하여 크게 程朱學에 공이 있음을 보았다.[「困知記跋」: 守愼晚得困知記, 見其言正大精微, 多發未發, 大有功於程朱之門.]”고 하였으니 羅整菴의 說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0) 『內集』 下篇, <答盧玉溪>, 板二十, “道心性也, 人心情也, 心一也, 而兩言之者 動靜之分 體用之別也.”

131) 『朝鮮 儒學의 概念들』, 韓國思想史 研究會, 예문서원, 2002, 261쪽.

“形氣에서 발한 위태로운 마음은 人心이고 性命에서 발한 선한 마음은 道心이라 규정하고 인심과 도심을 정밀하게 가려서 인심을 도심에 일치시키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희의 해석에 대하여도 소재는 ‘道問學’에 치중하는 ‘主知主義의 工夫論’임을 비판하면서 ‘本性을 함양하고 情을 성찰하는 공부를 통하여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는 中을, 마음이 움직일 때는 和를 이룬다는 그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의 이러한 해석은 心과 性을 엄격히 구별하는 심성론과 理에 직결되어 있는 主知主義의 工夫論을 부정하는 것에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퇴계는 노수신의 사상을 象山學이거나 혹은 禪學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재는 形氣와 性命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심도심을 의식상에서 분리되어있는 두 마음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道心은 본성이 未發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人心은 이 性이 形氣를 타고 情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¹³²⁾

퇴계의 「四端七情論」¹³³⁾은 인간의 본성에서 발한 순전한 도덕의식으로 위태로운 감정, 행위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론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소재가 활동하던 16세기의 상황은 士禍가 거듭되고 정치적 혼란과 격변되는 노정을

132) 주자는 인심과 도심을 已發의 상태로 보고 도심을 純善, 人心은 兼善惡으로 보았다. 소재가 제시한 「人心道心說」은 사실 주희의 「性情論」 일반을 적용하여 만든 이황의 「四端七情論」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였다.

133) ‘四端七情論爭’이란 조선 명종 때인 1559년부터 성리학자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8년간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四端七情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것. 원래 朱子는 理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로서 氣의 활동 근거가 되는 것이고, 氣란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사물을 낳는 도구라고 설명하였다. 四端七情 논쟁은 퇴계 이황이 정주만이 지은 <天命圖說>의 일부 구절을 수정하면서 ‘理氣互發說’을 주장하자, 고봉 기대승이 퇴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황은 “사단은 理가 발현한 것이고 칠정은 氣가 발현한 것이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라고 하여, 선악이 섞이지 않은 마음의 작용인 四端은 理가 발현한 것이고, 인간감정의 총칭인 七情은 氣가 발현한 것이라고 구분하고[理氣互發說], 理를 氣의 우위에 삼은 ‘理氣二元論’을 주장했다. 이에 기대승은 이황에게 편지를 보내 인간 감정인 四端과 七情은 七情이 四端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감정의 발현에 理와 氣를 구별할 수 없고, 理와 氣가 함께 작용하여 발현된다는 ‘理氣共發說’을 주장했다. 이 논쟁은 1559년부터 약 8년간이나 지속되었는데, 후에 퇴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우계 성혼과 그에 반대하는 율곡 이이 사이의 논변으로 전개되었으며, 급기야는 조선 성리학자 대부분이 이 논의에 참가함으로써 ‘理氣互發’을 주장하는 퇴계 계열의 ‘主理派’와 ‘氣發一途’를 주장하는 율곡 계열의 ‘주기파’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四端七情에 대한 논란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냈으며, 조선 시대 성리학에 있어서 심리적 인성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거치는 형국이었고, 이 와중에 소재는 陽明學의 유행이라는 사상적 혼란을 묵도하게 되었으며, 주희로부터 퇴계에 이르기까지 주자 성리학이 내놓은 이론과 학설들로써 더 이상 인간의 현실적 상황과 능동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는 주희의 천리 본성개념이 지니고 있는 사상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자학을 심화시키기 위한 그의 「四端七情論」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¹³⁴).

이상으로 살펴볼 때, 16세기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소재는 퇴계와 동질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자학 자체에 내재된 문제 뿐만아니라 羅整菴의 思想과 禪學, 그리고 陸王學 등을 두루 포용하여 당시의 주체 이론이었던 주희 철학을 극복하려했던 憂患과 念慮를 여러 편의 논문과 서간, 그리고 시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立論을 표출하려 했던 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재의 사상세계를 이루는 사상적 특징은 한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당시 세간에 유행되거나 혹은 잠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사유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면서 나름대로의 보편적 논리체계를 갖고 접근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主氣論을 주장하는 학자이면서도 主理論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논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과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학문에 대한 정의와 수양공부의 방법에 관해서는 相對主義的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도 평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재는 여러 학문을 섭렵하였으며 섭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佛家와 陸王學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열어두었으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일견 諸理論을 전개했던 인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134) 退溪와 高峰 奇大升은 다같이 困說을 취하지만 流行 과정에서 보는 것이 달랐다. 따라서 인성 및 四七의 감정을 분개할 때 퇴계는 '上下本末'로 보고 渾淪說을 말할 때는 七包四로 보았다.(유명중, 『한국사상사』, 「四七論辯」.)

2) 脫朱子學으로부터 佛·道·陸王學의 影響

소재의 시문학이 탄생되기까지 그의 사상적 변이의 요인은 탈주자학적 성향과 도불, 그리고 육왕학의 영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의 탈주자학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前節 ‘사상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의 道佛家的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소재의 유생시절은 독실한 程朱 학도로 점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佛家를 배척한 단서는 없다. 그러나 소재가 『夙興夜寐箴』을 탈고하고 퇴계와 하서에게 논평을 청한 바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그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소재의 지극한 好佛的 사상을 공격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¹³⁵⁾ 소재가 은연중 불가적 색채를 풍기는 언조가 많았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퇴계는 “光靈을 모으고 思念을 끊는다[聚其光靈, 絕其思念]”는 대목에서 소재가 禪學에 빠진 것으로 보고, 再考해 줄 것을 권고하였는데, 소재는 이를 수용하여 “妙用을 모아 안정시키고 쓸데없는 생각을 내버리고 물리친다[聚定妙用, 放退閑思]”로 정정하는 유연한 풍기를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한 노승이 주고 간 法語集 속에 있던 말이 신기하여 부지불식간에 쓴 것이나 지금 禪學을 배우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병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添記까지 하였다.¹³⁶⁾

그리고 소재는 禪思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근래 禪을 배우는 자는 없다. 무엇이 두려우랴, 그러나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배우고서 흘러감이 있으니 배우지 않는다면 또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대저 사람이 배우지 않는 것을 근심 할 것이요. 배운다면 반드시 程朱를 배워야 한다. 정주의 戒訓이 이미 분명하고 實하니 어찌 이것을 배우고

135) 퇴계와 하서가 소재의 「夙興夜寐箴解」를 보고 禪學的 색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당시의 학풍으로 보아 羅整菴說을 믿고 따르는 소재 학문의 근본적 경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당시 학문적 정서가 절대적 권위를 누리는 朱子學에 부합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6) 『內集』 下篇, 「草創錄」 二, <三子夙興夜寐箴解往復錄>, 27쪽, “昔遇一衲信宿.得所齋 三法語. 漫看數過. 乍喜之. 遂留在胸中. 不覺出筆下依條. 殊可笑也. 近世學禪者. 亦無 矣. 何懼焉. 然吾輩不可不戒.”

저것을 물리칠 줄 알지 못함이 있겠는가.”¹³⁷⁾ 하여 자기의 근원적 학문과 사상의 기저를 정주학에 두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다만 소재는 오랜 유배기간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실제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禪學에 대한 관심으로 극복하려 했을 것이라 이해된다. 그러나 유배기간 이전에 이미 불교에 대한 驚歎과 深醉가 어느 정도 있었음을 다음 시에서 살필 수 있다.

我非孔氏道	나는 공씨의 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인지
質質守陋巷	낙심한 채 누항에서 살고 있었네.
偶來招提遊	우연히 사찰에 놀러 갔다가
逢師心則降	스님을 만나 곧장 탄복 했었네
義動寒松青	뜻은 차가운 푸른 소나무를 움직일 듯
神騰旭日絳	신명은 밝고 붉은 해를 타고 넘을 듯
欣然說其法	흔연히 그 법을 설하는 데
蕩蕩橫流淥	넘실넘실 큰물이 흘러가듯

(中略)

中夜還自계	한 밤중에 돌아와서야 스스로를 비웃노니
夫誰砭我戇	대저 누가 나의 어리석음에 돌 침을 놓았는가. ¹³⁸⁾

위 시에서 보듯 소재는 이미 유배지에서의 고통과 현실을 超克하고자 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랫동안 친숙하게 잠재되었던 불교의식을 통하여 謫居의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고 안위를 취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소재는 『童蒙須知』에 소의를 붙여 그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하였는데

137) 『內集』 下篇, 「草創錄」 二, <三子夙興夜寐箴解往復祿 >, 27-28쪽, “近世學禪者, 亦無矣. 何懼焉. 然吾輩不可不戒 (中略) 學然後有流. 不學又何流. 大抵人患不學. 學之必學程朱. 程朱戒訓. 既明且實. 其有學此而不知關彼者乎.”

138) 『蘇齋集』 卷1, 157, <題清順軸>.

이것은 아동의 도덕교육의 중요성과 「治心養保腎之要」라는 위생에 관한 글에서 “太乙眞人이 七氣를 기르는 도리를 말했다”고 하여 道師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는 또 “精은 氣의 아들이고, 神은 精의 아들이며, 氣는 정신의 뿌리이다”¹³⁹⁾ 라고 하여 道敎의 사유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道敎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소재는 그의 사상적 노정 속에서 볼 때 자신만의 독특한 別派를 이룰 정도로 독창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그가 조선중기 중종~명종~선조조에 이르는 동안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정주학의 틈바구니에서 독특한 별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육왕학에 대한 접근이 이를 가능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사류가 육왕학을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선학이비어선’, 즉 선학과 유사한 듯 하지만 선학보다도 못한 학문이 양명학이라는 논조였다. 특히 사계의 학자들이 소재를 비판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소재의 정암 나흠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대한 엄격한 비판이었다는 점이다. 정암 나흠순은 주자와도 다르며, 그러나 양명학과는 전혀 다른 학설로 독창적인 학설들을 제시한 사상가라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소재가 정암을 따랐다는 이유로 선학적 경향으로 경도되었다는 것이 적합한 비판 내용이었는지는 더 밝혀보아야 할 철학적 고민이다.¹⁴⁰⁾

소재는 유배 이전부터 정암 사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의 문집 여러 곳에서 육왕학을 접했다는 흔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一例로 그의 시 “傳註留情負象山, 十年說話摠成閑”(육상산의 주석에 힘을 입으니, 십년의 설화가 모두 잠잠해지네)¹⁴¹⁾ 에서 육상산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39) 『內集』 下篇, 「庶幾錄」 丁, <治心養胃補腎之要>, 1쪽.; <太乙眞人言養七氣之道>, 3쪽, “精乃氣之子, 神乃精之子, 氣者精神之根蒂也.”

140) 본 논문이 정암과 소재의 사상 비교를 통한 주자학과 양명학의 경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철학적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141) 『蘇齋集』 卷1, 157, <思勁詩軸讀休菴所賜次韻慨然有感輒復和題>.

소재가 유배지 진도에서도 주희의 「心性論」과 「格物致知說」을 부정하는 새로운 학설을 시와 산문을 통하여 거듭 발표하자, 퇴계와 그의 사류들은象山學과 禪學에 몰든 것으로 규정하고 소재를 거세게 비판하였다.

특히 澤堂 李植(1584~1647)과 같은 사람은 “나정암의 설을 끌어다 인심도심의 주를 고치고 大學章句를 개정했는데 이 모두 陸象山의 뜻이며 그 원인은 유배지에서 시와 술로 회포를 달래며 학문의 먼 길을 견디지 못하고 빠르고 간편한 길을 택했기 때문”¹⁴²⁾이라고 인신공격과 함께 학문 성취과정 전반을 폄하하기도 하였음에서 당시의 유풍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재는 자신이 지지하는 양명학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철회하지 않고 해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시는 소재가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 許曄에게 주는 전별시이다.

朱陸曾聞異	주자와 육상산의 다름은 일찍이 들었고
羅王更見差	나정암과 왕양명은 다시 차이를 보았네
存心皆聖域	마음을 보존 하는 것 모두 성인의 영역
論學各賢科	학문을 논함에는 각기 현인의 과정
宇宙公言在	우주에는 공언이 있는 법
遼燕隱士多	요동과 연나라에는 은사들도 많다네
銘神力搜訪	정신을 새기고 힘써 찾아라
吾道竟如何	우리 도가 마침내 어찌해야 할지를. ¹⁴³⁾

소재는 전반부에서 인간이 본래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성인의 영역이라 하였고, 주자와 육상산, 나정암과 왕양명의 서로 다른 차이는 현인들

142) 『澤堂集』 卷15, 別集, 13쪽, “蘇齋自少厲志苦學, 祖述整菴, 聲名高於退溪, 及在海中, 誰不廢學, 憂愁之餘, 詩酒遺懷, 始讀羅整菴困知記, 以爲廣大精微, 不下程朱, 用其說, 改作人心道心傳註, 又改定大學章句其言皆陸王意也,,,,,想其爲學, 志近途遠, 又難中廢, 徑趨簡捷立幟而止, 其亦占便宜之道乎.”

143) 『蘇齋集』 卷6, 275, <送人赴京>.

의 학문하는 방법의 차이에 불과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存德性을 모든 공부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陸王의 心學을 지지하고 있음을 통해, 소재는 공부방법론에 관한 주자보다 육왕학의 이론에 무게를 더 실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재는 명나라에 가는 사신 許曄에게 명나라가 지향하는 儒家의 진리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보고 오라고까지 말했다.

북송과 남송을 거쳐 안착된 정주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사상에 있어서 핵심 축을 이루었고, 조선의 건국 못지않게 수성을 이루는 동안에도 통치이념으로서 손색이 없는 당대 최고의 학술이었으며 주류였다. 그러나 중국은 宋나라 이후 몽고족이 세운 元나라를 거쳐 명나라로 왕조가 교체되는 진통을 겪는 동안 주자학의 浮沈이 거듭되고 있었으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선의 정치적·학문적 역량은 이를 비판·수용과정 없이 주자학 一尊主義의 학풍으로 치닫는 시대사조를 형성하여, 주자학 일변도의 폐쇄적인 학문 유풍을 자아내게 되었다. 왕조교체기 속에서 성리학은 理學과 心學이라는 허울 아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조선의 건국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주자 성리학은 애석하게도 변치 않는 과거의 모습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이에 소재는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사신가는 신하로 하여금 명나라가 향후 지향하는 학문의 길이 중국적으로 어디에 귀결될 것인가를 보고 오라고 완곡히 표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의 시에 흐르는 완곡하고 유연한 이러한 의문과 표현력은 陸王의 心學이 명나라의 미래를 책임 지을 유가의 도통일 것이라는 확신에 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었다.

이는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한 초당 許曄에게 준 詩로서 소재는 해배 후에도 허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東人이라는 당색과 主氣論을 지지하는 면에서 학문적 경향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나중 소재가 撰한 허엽의 「神道碑銘」을 보면 정주학에 회의를 느꼈던 소재와 초당의 의식세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¹⁴⁴⁾ 허엽의 학문과 사상은 아들 허성,

허봉, 허균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허균은 후일 「성수시화」를 통하여 그의 날카로운 필치로 시평하면서도 소재의 시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은 이러한 학문적 연유가 아닌가라고 반문해 본다.

소재는 『論語』를 이천 번이나 읽었다고 전한다. 이 내용은 소재가 체험적으로 학문에 접근하는 그의 선협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어떤 학문이든 자신의 체험에 입각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탐구하였으며, 이를 체득한 바탕위에 전개한 그의 학문적 과업들은 다른 학자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소재는 비단 그의 학풍과 사상적 연원이 정주학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도교와 불교 뿐 아니라 육왕학에 이르기까지 사상계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들의 장점들을 두루 섭렵하여 당당히 본인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초기에 그를 이단으로 공격하고 폄하한 高峯과 栗谷 一齋 등도 일정부분의 정암 사상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하여 主氣論의 토대를 이루게 한 것이야말로 소재의 功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文學意識

1) 詩意識의 變遷과 思想과의 융화

16세기 기존 성리학계는 理氣二元論的 主理論인데 반하여 소재의 사상관은 理氣一元論的 主氣論을 취하고 있다.

理氣二元論的 主理論에서는 보편원리를 강조하는데 반하여 一元論的 主氣論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 발전을 중시한다. 詩作에 있어서 감정을 최대한 억제해야함에 비추어 일원론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정 분출을 용인한다.

그리고 理氣二元論的 主理論에서는 人慾을 부정하는 대신 一元論的 主氣

144) 『蘇齋集』 卷10, 279쪽, “有明朝鮮國 嘉善大夫 慶尙道觀察使 許公神道碑銘 一日喟然曰, 程朱未出, 學非不晦, 論人所到, 多有可觀, 程朱以後, 學非不明, 其所樹立, 反下漢唐, 豈自得與聞見有異也與”

論에서는 인욕을 긍정한다. 기존성리학계는 도심과 인심을 모두 이발로 파악한데 반해 소재는 道心은 未發로 인심은 已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논리는 인심은 兼善함으로 ‘存心養性’이나 ‘去人欲’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本然之性인 도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재는 道心은 아예 善惡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고 道心이 已發하여 인심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도심과 인심이 모두 用이라는 기존논리에 반대하고 도심은 體이고 인심은 用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심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中絶·不中絶에 따라 善이나 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심은 제거되어야만 될 대상이 아니며 긍정적인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는 기존 성리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소재의 ‘人慾의 肯定’은 모든 인욕을 긍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道心이 人心으로 발할 때 中絶인가 不中絶인가에 따라 善, 惡이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다. 인심이 발할 때는 善으로 발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詩作을 할 때에도 善을 추구할 것이므로 이는 橫發되어 악한 것까지 긍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橫發의 기준을 기존 사림파들은 ‘性情之情의 具現’으로 알아 그 기준을 삼았다. 인욕을 부정한 이원론적 주리론자인 퇴계의 詩와 일원론적 주기론자인 율곡의 시는 題材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성정지정의 범위가 확대된 율곡의 시는 華美한 부분까지 그 가치를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주제영역이 넓어지고 더 정감적이다.¹⁴⁵⁾

소재의 경우는 더 과감하게 서정의 폭이 확대되었다. 율곡과 소재는 다 같이 인욕을 긍정하면서도 철학적 입장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율곡은 道心과 人心을 모두 用이며 情으로 보았다. 율곡이 道心을 상정하고 있는데 반해 소재는 도심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율곡은 그의 문학론의 주제의식을 ‘道文一致’와 形象意識인 ‘不文而文’으로 요약시키고 있다. 율곡은 문학에 있

145) 李敏洪, 『朝鮮中期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93, 47쪽.

어서는 二元論的 입장을 전개하였으나 소재는 道心은 性이고 體이며 인심은 情이고 用이라는 설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따라서 도심은 性이니 선악을 논할 것도 없고 人心은 善도 惡도 될 수 있으니 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선의 기준에 있어서도 詩經에서 말한바와 같이 傷과 淫에 크게 빠지지 않을 정도만 善을 유지하면 된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소재시의 문학의식에 대하여 철학적 轉移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소재의 시는 크게 3번의 변모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강산 유람을 엮은 「遊山錄」을 지은 25세까지를 제1기, 을사사화 직후부터 37세 「夙興夜寐箴」을 저술한 유배 초기를 제2기, 37세부터 45세 「人心道心辨」, 「執中說」을 저술한 유배 중기가 제3기, 45세 이후 유배 후기와 노년기를 제4기로 구분한다.

제1기인 「유산록」의 시들은 노 선사들의 청정한 수도의 모습을 보면서 작가가 회구하는 聖人之情을 회구하고 있으며, 제2기는 유배에서 얻어지는 고통과 좌절의 자화상을 唐詩風으로 묘사하고 일편 진정한 성찰과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宋詩風의 고시로 묘사하고 있다. 제3기에는 話者和 작가가 분리되는 경향의 시들과 파격적인 句法和 字法을 동원하여 격식이 破脫되고 기괴하고 難澁한 장편고시들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제4기는 哲理詩들이 집중적으로 지어졌으며 당시풍이나 장편고시는 그의 보이지 않고 율시와 절구에 일부 송시풍의 시들이 창작되었다. 특히 재환기의 시들은 인생의 경륜에서 묻어난 수줍하고 평이한 내용을 시제로 삼아 贈別詩, 契모임, 宴會, 등의 시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士林政治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도 지친 소처럼 무기력한 현실과 자신을 보면서 자조와 자책의 시어를 댄내었다.

이러한 시풍의 흐름을 볼 때에 소재 시는 사상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숙흥야매잠」 창작 전후로부터 확연하게 시풍의 특징이 구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자학에 회의하고 있는 그는 ‘體用論理에 의한 人慾을 긍정한 詩’를 창작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穆陵盛世에서 사림파들의 美의식을 性情美學으로 표현한다. 성정미학의 지표로 퇴계의 溫柔敦厚와 율곡의 溫柔忠厚로 요약될 수 있는바 이는 소위 異稱同義語라 할 수 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소옹(1011~1077)의 외물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소옹은 『皇極經世書』에서 외물인식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른바 反觀이라 함은 나로써 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나로써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物로써 物을 보는 것을 이른다. 이미 물로써 물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이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我가 인이고, 인이 아이며 아와 인이 모두 물임을 알 수 있다. 물로써 물을 보는 것은 성이며 나로써 물을 보는 것은 정이다. 性是 공평되고 밝은 것이며, 情은 편벽되고 어두운 것이다.¹⁴⁶⁾

외물인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以我觀物이고 하나는 以物觀物이다. 이아관물은 자기의 주관적 정의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며 以物觀物은 객관적 자세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관 정의인 我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조의 성리학적 사유체계에서는 性是 天理이며 순전한 것이며 발하여 道心이 된다하였다. 반면 情은 人慾으로 선악이 섞여있어 인심이라 한다. 邵雍은 性是 ‘公而明’이라하고 공평하고 밝으며 정은 ‘偏而暗’이라하여 편벽되고 어둡다고 하여 16세기 사람들이 소옹의 이물관물인식을 문학에 적용시켰다. 다음은 소옹의 시 <淸夜吟>이다.

146) 昭雍, 『皇極經世書』, 「官物內篇之十二」, “所以謂之反觀者, 不以我觀物也. 不以我觀物者以物觀物之謂也. 既能以物觀物, 又安有我於其間哉. 是知我亦人也, 人亦我也, 我與人皆物也.”(裴宗鎬編, 『韓國儒學資料集成』, 延世大學校 出判部, 1980.)

月到天心處 밝은 달은 하늘 가운데 떠있고
 風來水面時 바람 수면 위로 불어 올 때에
 一般清意味 일체의 이 맑은 뜻을
 料得少人知 깨달아 아는 이 드물구나!¹⁴⁷⁾

그런데 문학은 인간의 情을 배제하고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宋詩가 理致로 글을 써서 비판되고 있음과 상통한다. 이에 반하여 蘇齋詩는 以我觀物的 形象意識을 갖추고 있다.

소재는 그의 인생역정에 따라 思想的 전이를 거치게 되는데 유배 전까지 견지했던 주자학에 대한 회의와 事物의 觀照를 氣 우선에 두고 理氣一元論的 思想觀을 견지하였다. 主知的이고 定型적인 宋詩의 굴레를 과감히 허물어버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의 시는 盛唐의 杜甫를 범하면서도 그가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시어들을 주저 없이 사용하고 典故들을 적절히 차용하여 배치하고 의경을 시상전개에 맞추어 안배함으로써 소재시의 독창성을 재고하고 있는 것이다.

신향림은 “소재의 사상과 문학을 논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상과 문학의 본질을 오해하였거나 불충분하게 연구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방법은 사상과 문학, 시의 형식적 특성과 주제의식을 분리하여 다루었고 사상과 문학의 시기별 변모양상을 주목하지 않았다”¹⁴⁸⁾고하였다.

소재 시는 크게 3차례의 변천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소재의 수학기는 俗學에 대한 혐오와 學問精進에 대한 일관된 자기성찰이었다. 13세에 지은 호당학사가 기생을 시켜 불렀으나 도도하게 詩를 적어 물리치는 모습에서 세속의 사류들과 비교되는 그의 청정한 자품을 확인할 수 있고 淸淸之路의 전도를 예측하게 만든다.¹⁴⁹⁾ 修學期의 소재 사상은 敬과 格物致知가 竝

147) 邵雍, 『古文眞寶』, <淸夜吟>.

148) 辛香林, 「盧守愼詩에 나타난 思想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2005, 8쪽.

149) 康復誠, 「年譜」, 293쪽, “六年丁亥, 先生十三歲, 自由聰穎絕倫, 至是能作詩賦, 有人心險於山川賦, 嘗與

進된 工夫論이 대세였다. 「己亥遊山錄」 소재시의 일부를 통하여 그의 소회를 적어 본다.

浮世朝鮮僻	부박한 세상 편벽된 조선국에 태어나
孤懷宇宙間	외로운 회포를 우주 사이에 펼쳐본다
塵埃十年跡	분진으로 얼룩진 십 년의 발자취
水石一朝閑	자연은 어느 하루 아침에 한가롭네.
羸馬望長坂	파리한 말은 비탈길 바라보며
病僮愁亂山	병든 시동은 칙첩의 산을 걱정한다.
將誰共安樂	장차 누구와 함께 안락을 함께 즐기리
爲客自艱關	객이 되어 어려움을 스스로 견딘다. ¹⁵⁰⁾

그의 이상은 淸烈한 삶과 聖人의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이러한 그의 염원을 응원해줄 知友가 없었고 가족들의 出仕에 대한 큰 기대로 항상 속박당하는 처지에서 그의 금강산 행은 세속의 티끌을 씻어버리고 浩然한 기운을 마음껏 호흡하며 소회로 읊을 기회였다. 그는 이때 노 선사들이 道를 얻기 위해 온 생을 바치며 욕망을 초탈하고 수행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이에 대한 여러 편의 시를 쓰고 있다. 이 당시 그의 사상은 俗學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淸淨之學’의 지향이었다. 71수에 달하는 「己亥 遊山錄」소재의 시는 젊은 청년기의 작품으로는 매우 老蒼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26세에 모재 김안국이 「時習箴에 대하여 시험을 본 후 “이 사람은 훗날 大儒가 되리라” 고 감탄하였는데 그 箴解는 청정한 자세로 학문에 임하는 의지를 언급한 내용인바 그의 학문의 자세 또한 항상 곧고 바름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聖人之學을 추고하는 그는 27세에 만난 회재의

二三 友人, 出遊東湖, 湖堂學士, 遣妓招之, 先生即操筆書一絕以謝之.”
150) 『蘇齋集』 卷1, 149, <次坂上韻>.

‘勿妄勿助’를 격언으로 삼고 처신하였다. 성균관 유생시절 김안국으로부터 찬사를 들었던「時習箴」과, 사환기인 仁宗의 동궁시절에 시강한 「晴窓手錄」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젊은 시절의 사상은 성인지학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34세에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진도에 유배되고 20여 년 동안 적거의辛苦를 거치는 동안 주자학에서의 변모를 살필 수가 있다. 그는 차츰 心과 性을 하나로 보는 心性論을 지지하고「執中說」을 지어 道心을 잘 보존하여 人心으로 들어나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공부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배기를 통하여 신봉하였던 주자학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일면서 나정암과 육상산의 사상을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45세 전후로 많은 양의 天理 詩를 창작하였는데 그의 시에서 왕수인의 초기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이는 40대를 전후하여 나흠순의『困知記』와 함께 1518년에 초간된『傳習錄』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反 朱子學的 사유는 퇴계 등 정통 성리학파들의 집중적 공격과 견제를 받았으나 이미 그가 정립한 사상적 토양을 허물 수가 없었다. 환로에 복귀 후 69세(1583)에는「改正大學」인「大學集錄」을 편찬하고 왕수인의「大學說」,「知行合一說」, 心과 性을 하나로 보는 心性論을 제창하고 환로 후반기에는 양명철학을 闡發하였던 것이다.¹⁵¹⁾

소재는 우주의 본체를 현상적이며 감각적인 氣를 주로 하여 파악하였다. 그는 理와 氣를 분리하여 파악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사물은 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氣는 動靜하며 그 條理가 理라는 것이었다. 퇴계는 도심과 인심의 설정으로 二元論的 구조로 도심은 已發로 인심은 氣發로 파악하여 理를 氣의 우위에 두어 理氣 二元論的 主理論을 설정하게 되지만 소재는 理는 아예 發할 수가 없으며 발하는 것은 오직 氣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理는 氣의 내적조리에 불과함으로 氣를 중시하는 理氣一元論의 主氣論에 철학적 배경을 두었다.

151) 李植, 『澤堂集』(『韓國文集叢刊』 98), 別集 卷15, 「示兒代筆」, “蘇齋自少厲志苦學, 祖述靜菴, 聲名高於退溪. 及在海中, 雖不廢學, 憂愁之餘, 詩酒遣懷. 始讀羅整庵困知記, 以爲廣大精微, 不下程朱, 用基說改作人心道心傳註. 又改正大學章句, 其言皆陸王意也.”

이로서 소재에게 중시되는 것은 氣質之性인 人心이며 이 인심의 중요성은 人慾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 곧 인욕은 하늘에서 내린 것으로 제거될 수 없으며 또한 자체적으로도 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자학적 이론으로는 人慾肯定論으로 당시 성리철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이론인 것이었다.

소재는 아울러 體用의 원리에 일관하여 道心은 本具한 天理이고 인심은 氣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體用의 논리를 動靜에 의하여 究明하려 하였고 理와 氣를 一物로 보아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밝히고자 하였다. 소재는 학문도 체용논리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학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체계가 動靜에 의해 해명해 준다면 다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의 사상은 일제 李恒의 학문체계와 같으며 「答玉溪盧禎書」에서 체용의 논리에 대하여 “天과 地에는 天과 地의 體用이 있으며, 物에는 物의 體用이 있으며, 心에는 心의 體用이 있다.”¹⁵²⁾고 답하였다.

결국 학문은 경험세계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현상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구명하려는 노력으로 실용주의적 세계관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소재는 시의 표현방식을 典範的이고 전통적인 방식에서 人慾을 긍정한 자유주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고, 正格보다는 破格을 추구하고 俚語나 俗語를 거리낌 없이 구사하여 ‘以俗爲雅’의 시형을 보여주었다.

그가 추구하는 體用論理는 시가 지녀야 할 격률이나 典範性 보다는 動靜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경험에 더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경물이나 풍물을 구사하기 쉬운 俗語, 俚語를 즐겨 사용하였고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시를 창작하게 된다.

152) 『內集』, 「懼塞錄」 甲二, 板十三, “天地有天地之體用 物有物之體用 心有心之體用”

2) 以我觀物的 形象意識

조선 시대는 穆陵盛世를 맞아 문운이 화려하게 피어나면서 사람들 간에 미의식인 “性情美學”을 구사하였고, 이 성정미학의 지표는 퇴계의 “溫柔敦厚”와 율곡의 “優柔忠厚”로 요약되는데 사실상 同意異稱이라 할 수 있다¹⁵³⁾.

한 시대를 풍미한 “성정미학”의 이론적 근거는 소옹(1011~1077)의 外物認識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소옹은 본성을 도의 형체요, 마음은 본성을 싸고 있는 바깥성곽이다 라고 정의하였다.¹⁵⁴⁾ 소옹은 그의 『皇極經世書』에서 관물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觀物이라 하는 것은 나로써 物을 보는 것이 아니다. 나로써 물을 보는 것이 아니면 物로써 物을 보는 것을 이른다. 이미 物로써 物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사이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我가 人이고 人이 我이며 我와 人이 모두 物임을 알 수 있다.¹⁵⁵⁾

결하여 性情論에서는 “物로써 物을 보는 것은 性이며, 나로써 物을 보는 것은 情이다. 性은 공평되고 밝은 것이며, 情은 편벽되고 어두운 것이다.¹⁵⁶⁾”라고 하였다.

소옹은 외물인식을 “以我觀物”과 “以物觀物”로 나누어 “以我觀物”의 자세를 중시하고 있다. “이아관물”은 자신의 주관적 정의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고 곧 我가 개입됨을 말한다. 반대로 “以物觀物”은 객관적 자세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관적인 我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곧 두 景物認識은 我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性理學的 사유체제하에서는 대체로 性은 天理이고 지순하며 性이 발하여 도심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153) 李敏弘, 『朝鮮中期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93, 47쪽, 329쪽.

154) 『朱子語類』 卷4, 性理1, 64쪽, “即夫子, 性者, 道之形體. 心者, 性之郭郭.”

155) 昭雍, 『皇極經世書』, 「觀物內篇之十二」, “所以謂之反觀者, 不以我觀物也. 不以我觀物者, 以物觀物之謂也. 既能以物觀物, 又安有我於其間哉. 是知我亦人也, 人亦我也, 我與人皆物也.”

156) 위척, 「觀物外」 篇下, “以物觀物性也, 以我觀物情也. 性公而明, 情偏而暗.”

비해 情은 선악이 섞여있어 인욕이라 생각했다.¹⁵⁷⁾ 그러므로 소옹은 性은 ‘公而明’ 이라하고 情은 ‘偏而暗’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以我觀物”은 주관 정의인 我가 개입하여 偏僻되고 어두워 道體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16세기 사람들은 ‘以物觀物的 外物認識’을 문학에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문학은 情이 배제된 理智的 정서로만 만들어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학의 장르는 情과의 교합에 있기 때문이다. 宋詩가 理致로 시를 썼기 때문에 이 비평을 면키 어려웠다는 말과 합치되는 지적이다. 주관정의인 我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어졌으므로 비록 감정이 시에 나타나더라도 극히 절제되어 거울이 사물에 비추고 종이 소리에 울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비단 我가 개입되지 않아 道體에는 해가 되지 않지만 情이 배제된 시는 性情美學의 정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소옹은 詩에는 情이 없을 수 없고 다만 公而明으로 수양하면 슬퍼하되 상함이 없고 즐거워하되 음탕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조선 사람들이 의식하여 소옹이 말하는 公而明하되 속되지 않는 詩意識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性情之情의 구현이다.

王國維는 『人間詞話』에서 無我和 有我的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아지경은 나로써 物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物我에 모든 나의 색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무아지경은 物로써 物을 보는 것이니 어떤 것이 내(我)가 되며 어떤 것이 物이 되는지 알 수 없다[無我之境, 以物觀物, 故不知何者爲我, 何者爲物]”¹⁵⁸⁾고 하며, 有我之境과 無我之境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① 淚眼問花花不語 눈물 머금은 눈으로 꽃에게 물어도 꽃은 말이 없고
亂紅飛過鞦韆去 어지러운 꽃잎만 그네 뛰듯 날아가네.

157) 宋彙七, 「羅整庵의 <困知記>와 李栗谷, 奇大升의<主氣論>」, 『韓國의 哲學』 21集, 慶北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3, 9쪽.

158) 王國維, 『人間詞話』, 『中國歷代文論選』, 第4冊, 371쪽, “有有雅之境 有無我之境. 無我之境, 以物觀物. 故不知何者爲我, 何者爲物.”

② 可堪孤館閉春寒 감당할 수 있으랴 외로운 역관은 봄추위에 닫혀있고
杜鵑聲裏斜陽暮 두견새 울음소리에 해는 비끼어 어두웁네.

위 시들은 我에 대한 정감이 배여 있고 주체의식이 뚜렷하다. 내(我)가 눈물을 흘리며 내(我)가 꽃에게 물어보는 我에 대한 주관정의가 뚜렷하다. 그러므로 위 2수는 有雅之境의 시이다.

采菊東籬下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고
悠然見南山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

寒波澹澹起 차가운 파도는 출렁출렁 일렁이는데
白鳥悠悠下 하이얀 새는 유유히 내려온다.

위 五言詩에서 보면 풍경만 제시되고 주관정의인 我가 개입되어있지 않아 我的 유무를 아우를 수가 없다. 왕국유의 有我와 無我的 경계는 주관정의인 我的 개입여부에 있지만 실제로는 모호하다. 위 두 개의 시에서 보듯이 我가 직시되지 않았지만 은연 중 我가 내제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원형패는 이에 대한 주광잠의 견해를 들어 유아지경은 사실은 무아지경이며 그의 무아지경은 유아지경이라는 것이다.¹⁵⁹⁾ 결국 소옹의 이론대로 “哀而不傷. 樂而不淫” 하여 개인의 주관이 극히 제한되고 거울에 사물이 비추듯 해야 한다는 것이 無我的 정설인 것이다.

이와 같이 “性情美學”의 이론적 근거는 율곡이 제시한 “溫柔敦厚”이다. 그러나 소재의 시는 “溫柔敦厚”와는 현격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자탄, 자조, 좌절 그리고 눈물이었음에 비추어 “溫柔敦厚”

159) 원형패, 『中國詩歌藝術研究』, 亞細亞文化社, 1990, 67쪽.에 의하면 이에 대한 주광잠의 견해를 예를 들고 있다. 왕국유의 有我之境은 사실 無我之境이며, 그의 無我之境은 有我之境이라는 것이다. 16세기 조선 사대부의 정서가 왕국유와 같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지향하는 “性情美學”으로 부터 이탈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재가 살고 있었던 삶의 軌跡으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지향하는 학문적 경향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李朝의 기존 철학은 理氣二元論的 주리론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재는 理氣一元論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二元論은 보편원리를 주장하여 보수적 견해가 있고 一元論은 상황 추이에 따라 변화 발전을 용인하고 있다. 詩作에 있어서 公而明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二元論的 主理論에서는 人慾이 부정되는 대신 一元論에서는 인욕이 許與되며 기존성리학에서는 도심과 인심을 모두 已發로 보았지만 소재는 도심은 未發로 인심은 已發로 파악했다. 기존 논리의 道心은 純善함으로 긍정적 존재이나 인심은 兼善하여 선과 악을 겸하였으므로 부정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氣質之性인 인심은 存養省察이나 去人慾의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재는 이미 道心은 善惡이 있을 수 없음으로 아예 善惡이라는 개념자체가 있을 수 없고 道心이 已發하여 인심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도심과 인심은 모두 用이라는 기존 논리에 반대하고 도심은 體이고 인심은 用이라는 것이다. 인심은 善할 수도 惡할 수도 있으나 中絶. 不中絶에 따라 선 또는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인심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며 性에서 나온 당연한 인간의 情感이므로 肯定的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히자 기존 성리학계에 세찬 반발을 초래하였다.¹⁶⁰⁾

소재는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두 가지는 본성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고 했던 중용의 사유를 계승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이 道이니 본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재 단하고 마름질해서(修道)에 맞추려 해서 안 된다고 말하였다.¹⁶¹⁾

160) 소재가 「困知記」를 통하여 整菴 이론을 수용하자 조선학계에 일대 논쟁이 일어 理氣二元論的 主理論은 그 체계가 해체되고 主氣論的 사상체계로 재편성되거나 主氣論的 사상체계에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결국 退溪의 理氣二元論的 主氣論은 栗谷, 奇大升의 一元論的 主氣論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161) 이는 朱熹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朱熹는 본성을 마름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본성을 마름질 하는 것은 짝을 뽑아 올린 것이라고 하였다.(中庸集註 首章의 細註 “朱子曰 性不容修, 修是

欲者人之性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라도
人皆不可無	사람들 모두 얻을 순 없다네.
何修以入道	어떻게 닦아 도에 들이려는가,
吾老竟歸愚	나 늙어서야 어리석음의 경지에 돌아왔다오.
病眼三年淚	삼년동안 병든 눈으로 눈물 흘렸건만
難懷八月湖	어지러운 회포는 팔월의 호수처럼 넘치고 있네.
幾人曾此論	몇 사람이나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今日更長吁	오늘 길게 탄식할 수밖에.162)

위 시는 修撰 柳成龍에게 준 시이다. 소재 시 중에서 욕망이 인간의 본성임을 확인하게 언급한 시이다. 그러나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수양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나 또한 늙어서야 그 이치를 알았노라고 말한다. 과연 조정에 몇 사람이나 이 이치를 논의 할 자가 있을까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서애는 일찍이 17세에 부친을 따라 의주에 갔다가 양명학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스승인 이황의 학설인 理氣論을 펼치고 양명학을 배척하였다. ‘理先氣後說’을 좇아 氣는 理가 生하지 못하다고 하여 氣보다 앞서있는 실체로서 理를 규정하였다. 격물치지를 知로 성의, 정심, 수신을 行으로 병립하는 존재로 파악 ‘知行 並進 說’을 주장하였다. 27년 아래인 서애에게 욕망을 긍정한 이 詩를 이황의 高弟인 서애에게 준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아마도 서애가 젊은 시절 양명학을 접하여 학문적 연원이 있음을 알고 위 시를 준 것으로 보인다. 서애는 훗날 영중추부사에서 파직되고 우사에서 死去한 소재를 호상한 몇 안 되는 인사였다.

욕망 자체를 수용하는 노수신의 사유는 李滉과 추종자들의 거센 반발을

掘苗)
162) 『蘇齋集』 卷6, 282, <贈柳修撰> 成龍.

일으키게 되며 기대승은 시에 和韻하면서 異端에 물들어 성인의 도를 더럽히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격렬히 성토했다¹⁶³).

욕망의 긍정이 노수신 사상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은 孤島 謫居에서 19년을 유리된 공간생활의 桎梏을 통하여 발출 근원으로부터 엄격하게 구별되고 생리적인 욕망. 감정과는 분리되어 도덕의식이 욕망과 감정을 억제하고 검열하게 되는 주희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도심과 인심이 한 마음 안에 대립되어 존재하는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었기에 人心道心을 未發已發 性情體用의 관계로 해석하는 整菴의 논의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소재는 애써 以物觀物的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人慾을 肯定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재는 인욕을 긍정하면서도 도심이 인심으로 발할 때 中絶인가 不中絶 인가에 따라 선과 악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여 人心의 극단을 통제하였다. 소재의 以我觀物的 자세의 원인은 그의 학문적 성향에서 찾을 수가 있다. 율곡은 경세제민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充溢한 반면 소재는 정치 환경이 개인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였으므로 經世濟民 할 겨를이 없었고 유배 초기에는 道體를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의 인생 역정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 문학적 지표가 완성해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⁶⁴ 결국 소재는 一元論的 사고로 詩的 理念 보다는 그 상황을 중시하였으며 인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情感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표출했다고 할 것이다. 소재사상은 강서시파의 人慾을 긍정하는 논리에 융합되어 해동강서시파의 한 축으로 남게 된 것이다.

163) 奇大升, 『高峰集』, 續集, 卷1, 「次蘇齋韻」, “慾者人知性, 人皆不可無, 斯言何所出, 剩語恐相愚, 有物當知則, 如魚必在湖, 同行情却異, 宗孽正堪吁”; “性惡荀卿說, 慾論何代無, 機鋒釋氏捷, 科級聖人愚, 盧世天垂日, 誣民地托湖, 能言吾豈敢, 獨立負長吁”; “陰陽豈是一, 理氣不容歧, 見一元乖實, 言歧却失辭, 幾人迷似悟, 今日合還離, 錯仰猶瞻忽, 前賢亦有疑”; “率性斯爲道, 亡羊問幾歧, 見差應害事, 心謬可微辭, 聖學精粗合, 禪家體用離, 百年須有志, 三日詎無疑”.

164) 金昌協, 『農巖集』 卷34, 「雜識」, “其沈鬱. 老健. 莽宕. 悲壯, 深得老杜氣力, 後來學社者莫能及. 蓋其功力深至, 得於憂患者爲多.” (『韓國詩話總編』, 東西文化社, 1989. 607쪽.)

IV. 詩世界

1. 蘇齋詩의 形式的 特徵

소재는 일생동안 詩作을 계속하여 1,500여수를 남기고 있다. 현전하는 시는 蘇齋集 1권으로부터 6권까지 1,501수와 종가 소장 필사 유고 중 겹치지 않는 78수를 합하여 1,579수이다. 그 가운데 오언율시를 가장 많이 지었으며, 특히 허균 등의 극찬을 받고 있다. 시기별 작품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¹⁶⁵⁾

卷	권별 作品 數	卷別 詩의 形 式							
		五言 絶句	五言 律詩	五言 排律	五言 古詩	七言 絶句	七言 律詩	七言 古詩	七言 排律
卷之1	237首	6	119	10	23	42	36	1	
卷之2	212首	20	75	14	21	34	33	15	
卷之3	259首	25	155	13	6	29	30	1	
卷之4	248首	15	146	12	7	49	18	1	
卷之5	369首	20	186	4	3	54	97	3	2
卷之6	173首	8	77	3	1	31	53	2	1
合計	1,501	94	758	56	61	239	267	23	3

시 형식을 보면 오언율시가 758수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칠언율시 267수, 칠언絶句가 239수의 순이다. 그의 시는 五言律詩를 가장 많이 지었으며, 뛰어난 작품이 많아 金萬重¹⁶⁶⁾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梁慶遇¹⁶⁷⁾는 소재의

165) 『蘇齋集』, <目錄>, 145-146쪽. 그 외에 賦 3首가 卷1에 포함되어 있다.

166) 金萬重, 『西浦漫筆』, 622쪽, “蘇齋自謂 七律不如湖陰 而五律勝之 此言甚公.”

167) 梁慶遇, 『霧湖詩話』, “蘇齋曰: 我與湖陰, 詩名相埒, 世不能辨其優劣, 余之長律, 不及湖陰, 湖陰短律, 不

말을 인용하여 오언이 호음 정사용보다 長處임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 분포를 보면 出仕 前 수학기의 작품이 71首이고, 유배 전 仕宦期에는 한 首도 없어 政事에 매달려 분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배기간의 작품이 1,023首이고 나머지는 방면 후 작품이다. 이로 미루어 시기별 분포는 수학기 유배기 사환기로 뚜렷이 구분된다.

수학기 작품은 금강산 紀行詩인 「己亥遊山錄」 71수가 남아 있다. 대다수가 自然景物을 노래하거나 山水에서 우리나라오는 감회를 읊은 내용들이다. 이 당시의 시들에 대해서 趙綱은 “관동지방을 거닐며 지은 시들은 士衡文賦를 남겼을 연세 때인 작품인데도 老蒼하고 奇健하여 만년 작품과 같다.”¹⁶⁸⁾는 평을 하였다.

다음은 31세의 파직 이후부터 54세로 방면되던 때까지를 유배기로 구분하여 崑崙의 澤畔吟과 비견되는 시들로 高독함, 憂분, 憂적함이 깃든 시들이었다. 이 시기의 詩들에 대해서 허균은 悽惋하고 沈鬱 悲壯¹⁶⁹⁾ 하다고 하였다. 이 당시의 시가 大體를 이루고 있어 유배기의 시들은 소재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동강서시파의 詩論인 ‘以俗爲雅’의 창작기법과 人欲을 긍정적인 體用原理를 중심으로 써 내린 여러 哲理 詩들 대부분이 유배기에 속해 있어 소재의 유배기 詩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仕宦期의 시들이다. 소재는 해배 후 政事에 복귀한 후로는 급속도로 작품의 畵수가 줄어든다. 挽詞, 사신가는 자들에게 주는 贈別詩, 宴會, 契모임 등과 하사품에 대한 謝恩의 詩 등 일반적인 시들로 力動性和 노창함과 거리가 있는 시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老猶한 인생수련을 통하여 가식이 없고 守拙하며 인생의 경륜이 묻어나는 시를 쓰고 있다. 그 밖에 감회에 젖어 인생무상을 노래하거나 스님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佛敎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는데 그가 이 당시 10여수의 시들을 스님들

及於余, 各有長處耳.”

168) 趙綱, 『蘇齋集』, 「蘇齋先生文集後序」, “遊關東之詩 童踰士衡文賦之年 其老蒼奇健奚謝晚年.”

169) 許筠, 「惺叟詩話」, “悽惋 沈鬱 悲壯.”

에게 준 사실을 통하여 그의 불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사명당은 소재를 통하여 7년여에 걸쳐 여러 유교서적과 老子, 列子, 莊子, 文字와 李杜의 詩法을 공부했음은 특이 할 일이다¹⁷⁰⁾.

2. 變俗作雅的 창작 방법

宋 일대에서 가장 큰 성세를 떨치고 원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은 江西 詩派이다. 강서시파는 王安石, 蘇軾에게서 극도로 발전했던 宋詩에서 문학의 예술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온 학문과 정력을 기울여 엄숙한 태도로 시의 표현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 강서시파의 창시자는 황정견으로 그는 여러 대가들을 본받으려 했으며 그중 두보시의 예술적 성취나 두보의 엄정한 詩律과 표현의 묘를 배우려 했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보가 지은 시와 한유가 지은 시는 한 글자라도 유래가 없는 것이 없다. 대체로 후인들은 책 읽는 것이 적기 때문에 두보와 한유가 그런 말을 만든 것으로 안다. 옛날의 문장을 잘 지은 사람들은 옛사람들의 낡은 일을 취하여 자기 글에 넣더라도, 마치 영단 한 알을 쇠에 묻히면 금이 되듯 했다.¹⁷¹⁾

황정견은 두보를 정점으로 하는 옛 시인들의 장점을 두루 섭렵하여 이를 응용하고 새로움을 창출하는 “以古爲新”, 즉 비속한 표현을 이용하여 우아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以俗爲雅” 혹은 “點綴成金”의 작법을 제창하였다.¹⁷²⁾

170)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韓國學中央研究院, 1995.; 조영록, 『四溟堂評傳』, 한길사, 2009.

171) 『答洪駒父書』, “老杜作詩, 退之作文, 無一字無來處, 蓋後人讀書少, 故謂韓杜作此語耳. 古之能爲文章者, 雖取古人之陳言入於翰筆, 如靈丹一粒, 點鐵成金也.”

172) 『黃山谷詩集注』, 「內集」卷12, <再次韻并引>. : 江西派 연구자 대부분이 이 두 가지를 黃庭堅 시의

이를 위해 두보의 후기 詩에 나타나는 拗體를 구사하여 생경한 율격을 구사하였고, 글자운용에는 까다롭고 잘 쓰지 않는 글자를 즐겨 쓰고, 운자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狹韻이나 窄韻을 즐겨 썼다. 용사에 있어서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窮僻한 것을 많이 활용하였고, 고문의 작법을 응용하여 산문처럼 시도 하나의 포석 하에 정연히 배열하였다.

황정견은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창작에 임하였고 陳師道는 황산곡 시론의 핵심을 계승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¹⁷³⁾ 후대 강서시파의 詩作 역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강서시파의 공통되는 특질은 시의 造句法으로 換骨脫胎 등의 논리로 모의를 좋아한 점, 拗體를 자주 추구한 점, 用辭가 잦다는 점, 기이함을 좋아한다는 점, 생경한 것을 숭상한다는 것, 律詩와 古詩를 모두 중시한 점, 형식과 내용을 모두 중시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시의 특질로는 詩法에서 두보를 모범으로 한다는 점, 主題에서는 정치적 풍자보다는 인생과 자아에 대한 성찰, 일상적인 삶을 노래한다는 것, 풍격에서는 ‘瘠硬’, ‘勁健’ 등을 공통으로 한다는 점¹⁷⁴⁾이 강서시파의 공통의 특질이지만 이 위에 독자적인 풍격을 쌓아 각자의 일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해동강서시파의 시세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동강서시파연구』는 이종묵에 의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⁷⁵⁾ 강서파의 시법을 수용하고 변용하여 나름의 시를 창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재는 강서시파의 시법을 수용하여 두보를 통한 唐詩를 접목시킨 과도기적 인물로 볼 수도 있다.

핵심으로 들고 있다. “以俗爲雅, 以故爲新, 百戰百勝, 如孫吳之兵, 棘端可以破鐵, 如甘蠅飛衛之射, 此詩人之奇也.”

173) 崔禁玉, 『陳師道詩研究』, 서울大 博士論文, 1993.

174) 『宋詩話의 언어 구조 비평에 대하여 논함 語言의張力 - 論宋詩話의語言結構批評』 陳莊, 周裕鍇, 金智英(Ji-young Kim) 원문.

175) 李鍾默, 『海東江西詩派 研究』, 1994, 서울大 博士論文. 이종묵은 海東江西詩派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는 江西詩派의 漢詩 作法의 수용과 변용에서 拗體를 비롯하여 시어, 구법, 전고, 의경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고 海東江西詩派 各人에 따라 개성과 성과를 추적하였다. 그는 노수신의 시에 대하여 “杜甫의 朝鮮的 體現과 雄渾의 美學”으로 정의하였다. 本稿에서 海東강서시파에 관련된 부분은 위 논문이 많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다음은 소재시의 특징인 시어의 확장, 구법의 파괴, 의경의 안배, 전고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詩語의 확장

주자학의 제도적 문학관을 가졌던 문인들은 用事를 존중하여 모방까지도 작시상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여 왔다. 고사에서 뜻을 따서 쓰는 用事라던가 또는 그 용사와 관련하여 고인의 시 또는 踏襲은 수사방법으로 자주 이용되어왔다.

柳村은 글자마다 출처가 있어야 훌륭한 작품이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였고 權應仁은 『松溪漫筆』에서 고서에 前例(典例)가 없는 畚자를 사용 한 것이 詩作에서 결점¹⁷⁶⁾이라 하였다. 이러다보니 한정된 시어 속에서는 사실적인 표현, 수사가 어려웠다. 또한 典例(前例)만을 좇다 보면 고인의 시대에 통용되던 어휘를 쓰게 되는데 자연히 해독하기 어려워진다는 견해인 것이다.

그동안 용사에 대해서는 고려의 李仁老와 崔滋가 용사의 이론을 정립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 서거정은 用事와 踏襲을 당연시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서거정은 용사가 精切한 시를 善評하고 용사의 한 방법으로 翻案法을 소개한 외에도 『東人詩話』에서 李混이 고인의 시를 도습했으면서도 그 修辭가 묘하고 격률이 삼엄하다고 함으로써 시에서의 踏襲을 관용하면서 도습을 하였으나 일단 훌륭한 표현을 이룬 詩에 오히려 好評¹⁷⁷⁾을 가했다. 그동안 상어나 속어가 금지되어 오직 출처가 명료한 典例(前例)만을 주장하는

176) 權應仁, 『松溪漫筆』 卷下, “世人謂妻之兄弟曰甥 謂石棧曰遷 謂之田曰沓 此等字東人之所創古書中所無者也 而世之爲文章者 或用於文字間 誤多 昔人有嘲延豐地狹者曰 牛臥難尋畚 鴻飛不見天 詞意俱新而以畚爲疵.”

177) 徐居正, 『東人詩話』, “故人作詩, 無一句無來處. 李政丞混浮碧樓詩, 永明寺中僧不見, 永明寺前江自流, 山空孤塔立庭際, 人斷小舟橫渡頭, 長天巨鳥欲何向, 大野東風吹不休, 往事微茫問無妻, 淡烟斜日使人愁, 一句二句本李白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四句本韋蘇州野渡無人舟自橫, 五六句本陳后山度鳥欲何向, 奔雲亦自閑, 七八句又本李白攄爲浮雲蔽白日, 長安不見使人愁之句, 句句皆有來處, 粧點自妙, 格律自然森嚴.”

당시의 사조에 대하여 許筠과 李晔光은 문학 작품은 해독하기 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典例(前例)에만 집착한 당시의 병패를 지적하면서 시와 문에 있어서는 고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¹⁷⁸⁾

소재는 이러한 시풍에 더 나아가 여러 전례와 강서시파의 이론을 수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어를 동원하여 생경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지명, 인명, 철학용어, 간지, 일시 등 당시 주자학 이론으로 금기시되던 시어를 구사하여 시풍변화를 도모하였다. 강서시파의 이론가운데 중심이론은 “以俗爲雅”이다. 황산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비속한 것을 이용하여 우아하게 하고 옛말을 이용하여 새롭게 하는 것은 손자와 오기의 병법처럼 백전백승의 비결이다. 가시 끝으로 화살촉을 부술 수 있어 마치 감승이 비위 화살의 겨냥을 피해 가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시의 기이함이다.¹⁷⁹⁾

황정건의 <獻呈孔懿父>에서 “管城子無食肉相, 孔方兄有絕交書”라는 표현 역시 비속한 표현의 좋은 예이다.¹⁸⁰⁾ 황정건과 이를 잇는 진사도는 소설 체의 용어나 잡극에서 볼 수 있는 용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성어나 속담, 민요의 말 등을 즐겨 썼는데 해동강서시파 역시 이를 수용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미학을 이루어 내었다.

다음은 地名의 詩語化를 살펴본다.

조선의 지명이 시어로 등장 된 것은 海東江西詩派들의 詩作에서부터이다. 이전에 간혹 사용의 흔적이 보이나 해동강서시파의 논리에 의하여 조선지명의 시어화가 확대되었는데 속어로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다.

178) 이수광, 上揭書, 卷9, 文章部 二 “詩: 詩文不必用古語”

179) 『黃山谷詩集注』, 「內卷」 卷12, <再次韻并引>, “以俗爲雅, 以故爲新, 百戰百勝, 如孫吳之兵, 棘端可以破鐵, 如甘蠅飛衛之射, 次詩之奇也.”

180) 吳台錫, 『黃庭堅 詩 研究』, 慶北大 出版部, 1991, 271-272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균과 이수광은 문학작품은 해독하기 쉬워야하고 前例가 없는 상어나 속어도 시어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지명사용을 긍정하고 있었다. 또한 홍만중은 조선 지명의 시어를 容齋와 蘇齋를 예로 들면서 이의 성공은 오직 단련의 묘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다. 세속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이행과 노수신 등이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던 조선의 지명을 시어로 구사하여 새로운 표현을 개척했음을 지적¹⁸¹⁾하였다. 허균도 趙持世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지명이 시어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지명은 시속에 들어와도 우아한 맛이 없다. 그러나 중국의 대기는 운몽택을 찌서 올리고, 파도는 악양성을 뒤흔든다네. 무릇 열자 중에서 여섯 글자가 지명이고 그 위에 네 글자를 보탠 것이요 그 힘쓴 곳은 다만 蒸자와 撼자 이 두 글자뿐이니 시를 짓기가 어찌 수월하지 않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¹⁸²⁾

이에 대해 허균은 노수신의 시를 예를 들며 조선의 지명 자체의 논의는 문제되지 않고 이를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소재의 시를 例示하였다. 이는 강서시파의 주장인 “點綴成金”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은 것이다.

路盡平丘驛 길은 평구역에서 다하고
江深判事亭 강은 판사정에서 깊어진다네.

181) 洪萬宗, 『小華詩評』 卷上, “世謂, “中國地名皆文字, 入詩便佳, 如<九江春草外, 三峽暮帆前> <氣蒸雲夢澤, 波撼岳陽城>等句 只加數字, 而能生色, 我東皆以方言成地名, 不合於詩” 云余以爲不然 李容齋<天磨錄>詩 ‘細雨靈通寺, 斜陽滿月臺’ 盧蘇齋<漢江>詩 ‘春深楮子島, 月出濟川亭’ 詩豈不佳? 唯在鑿錘之妙而已.”

182) 許筠, 「聖所詩話」, “趙持世: 我國地名入詩不雅 如氣蒸雲夢澤 波撼岳陽城 凡十字六字地名而上加四字 其用力只在蒸撼 二者爲功豈不省耶 此言亦似有理.”

柳暗青坡晚 버들잎 어두우니 청과역이 저물었고
天晴白巖春 하늘이 개었는데 백악은 봄날이다.

이 같은 구절은 대단히 훌륭하다 이것은 글귀 만드는 묘법에 있을 뿐이다. 쇠로서 금을 만드는데 무엇이 해로우리.¹⁸³⁾라고 평했다.

아래 ①, ②두 작품은 역대 시선 집에 골고루 뽑혀있고 『國朝詩刪』에도 황정건의 “以俗爲雅”와 동의어인 “變俗作雅”라는 말로 높게 평하였다.

① 一宿豊田驛 하룻밤은 풍전역에서 자고
已攀孤石亭 이미 고석정에 올랐다
崖傾探月窟 절벽 비스듬이 월굴을 찾고
冢盡踏天庭 절정 다한 곳에 천정을 밟는다.¹⁸⁴⁾

② 可愛我鄉里 정다운 내고향
尙州縣化寧 상주현 화령
黃山原膾膾 황산의 들은 기름지고 아름다운데
沙谷水冷冷 사곡의 물은 차고도 맑네.¹⁸⁵⁾

③ 昔道松都好 예전에 송도가 좋다고 말했는데
今知漢邑尊 지금은 한양이 좋은 줄 알겠네
一流前繞繞 물줄기 하나 굽이굽이 앞을 흐르고
三角後騰騫 삼각산은 뒤에서 뛰어 오르네
東振尙鐵嶺 동쪽으로 철령을 향해 뻗어있고

183) 許筠, 「惺所詩話」, “然盧相詩, 路盡平丘驛 江深判事亭 柳暗青坡晚 天晴白巖春 亦殊好 其在爐殊之 妙而已. 何害點鐵誠金乎.”

184) 『蘇齋集』 卷1, 149, <孤石亭>.

185) 『蘇齋集』, 卷1, 149, <鄉人乞詩> 癸亥.

右通還劔門 오른쪽엔 검문으로 통하는구나.¹⁸⁶⁾

①의 詩는 고석정에 올라 감회를 읊은 시다. 고석정과 평구역이 대를 이루고 있다. ②의 詩 역시 금강산 기행 중 9일째 되는 날 지은 시다. 네 개의句中 네 개의 지명을 쓰고 있다. 尙州와 化寧은 소재 시에서 자주 등장된다. 「己亥遊山錄」의 시는 소재 25세에 여행 시로 지은 것인데 그는 이 당시 강서시파 류의 地名 구사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작법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③의 詩는 전체를 지명으로 지은 느낌이다. 尾聯만 빼고는 모두 시어로 구사하였다. 首句는 松都와 漢邑으로 대를 이루고 경련에서는 鐵嶺과 劔門이 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장엄하면서도 어색한 느낌을 주지 않고 있다. 그의 지명 구사는 전 생애의 시에 나타나고 있음이 개인적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그의 초기작 「己亥遊山錄」에서 자주 보이는데 기행시가 가지는 특징도 있지만 고유명사를 적절히 용해하여 현장감과 감정의 밀도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楓嶽山 三十韻>에서는 毗盧峯을 盧로, 拜帖을 拜로, 石馬峯과 石鷹峯을 馬鷹으로, 日出峯과 月出峯을 日月로, 天燈峯을 燈으로, 香爐峯을 香으로 묘사하여 지형과 위치가 잘 포착될 수 있도록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¹⁸⁷⁾

다음은 人名을 詩語로 구사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① 吁汝盧寡悔	아! 너 노수신아
豈不愧疇昔	어찌 옛일이 부끄럽지 않는가?
使爾早知悟	그대가 일찍이 깨달음을 알았다면
不被才名誤	재주와 이름을 그르치지 않았을 텐데
寡悔俛首座	과회는 머리 숙이고 앉아서

186) 『蘇齋集』 卷5, 265, <望三角山>.

187) 『蘇齋集』 卷1, 152, <楓嶽山 三十韻>, “鎮武尊盧頂 / 紆庚抗拜顏 / 馬鷹騰遠近 / 日日出中間 / 燈影垂難滅 / 香煙衰莫攀.”

自訟向誰懣 자책할 뿐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
 良久忽大笑 한참 후에 홀연히 크게 웃고
 顛沛終何懊 었어지고 넘어지면서 끝내 무엇을 원망하리.¹⁸⁸⁾

② 其人立四歲 그 사람 사년을 살았으니
 號暗室病夫 호는 암실병부라
 守愼字寡悔 수신의 자는 과회요
 姓誰光山盧 성은 누군가 광산노라네.¹⁸⁹⁾

③ 仲由不死先師歎 仲由가 죽기 전에 스승은 탄식했고
 嵇紹爲孤老友慚 혜소가 고아가 되자 아버지 친구는 슬퍼했지.¹⁹⁰⁾

위 詩 ①은 소재 자신의 호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감탄사 ‘吁’를 사용하여 자조와 자책을 나타내고 있다. 술에 의지하여 번민을 벗어버리려는 몸부림을 엿볼 수 있다. ②의 詩 <沃州二千言>에서는 유배 4년에 접어 자조와 체념을 읊으면서 간지, 숫자, 호, 이름, 자, 성 까지를 모두 동원하여 좌절하고 있는 자신의 자화상을 읊고 있음을 본다. ③은 탄수 이연경을 애도하며 지은 시이다. 중유가 죽기 전에 공자는 수제자인 仲由(顔子)의 천재와 천성을 아까워하면서도 병약함을 걱정하였다. 이 詩를 제자이며 처조카인 康復誠에게 준 것이다. 강복성의 아버지 康惟善(1520~1549)은 소재의 막내 동서이며 탄수에게 함께 수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옥사에 관련하여 杖殺되었으며 각별한 우애가 있었던 동서 강유선이 죽자 그의 아들 강복성을 유배지로 불러 가르치고 그는 훗날 소재의 纂集에 대한 모든 일을 맡아 세상에 빛을 보게 만든 장본인이다. 아래는 혜소의 아버지가 모함으로 죽자 아

188) 『蘇齋集』 卷1, 169, <醉時率意放筆排悶>.

189) 『蘇齋集』 卷2, 184, <沃州二千言>.

190) 『蘇齋集』 卷6, 273, <贈康復誠>.

버지의 친구인 山濤가 슬퍼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주천 康惟善이 소재의 유배에 대해 장인 李延慶과 함께 부당함을 역모했다는 모함을 받았는데 이연경은 1년 전에 타계하고 강유선이 치죄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장살되자 주천에 대한 사무친 연민과 회한의 여러 詩를 남기고 있다.

④ 政逢蘧伯知非歲 거백옥 지난 삶이 잘못됐음 깨달은 해 바로 만났고
 空逼蘇卿返國春 소무가 고국으로 돌아왔던 봄이 부질없이 다가오네
 災疾難消老形具 늙은 몸에 함께한 재난과 질병 줄어들기 어려우니
 此生良覲更何因 이 생애에서 좋은 만남 다시 무엇으로 연유하리.¹⁹¹⁾

⑤ 一世有辭玉介甫 일세에 가르침 있으니 옥개보요
 九原含笑叔孫通 구원에서 미소 머금음은 손숙통이다
 只提大尉軍中令 다만 대위를 거느려 군중에 영을 내려
 驅入秦坑萬國空 진나라의 구덩이에 몰아 넣으니 만국의 근심이다.¹⁹²⁾

⑥ 奇字楊雲識 기이한 글자 양운은 알았고
 隣牀畢卓眠 옆 침상에선 필탁이 자고 있네
 出教隨放鍤 교령에 따라 삼 땅으로 추방을 당하여
 行任杖無錢 지팡이에 의지해 갈 뿐 노자돈은 없다.¹⁹³⁾

④ 詩는 소재의 流配期에서 좌절의 極을 보여주는 시이다. 이미 삶과 기다림의 의미가 상실된 상태의 소재는 불효에 대한 죄책감과 유리된 환경에서의 고독감으로 충만 된 상태이다. 頸聯에서 거백옥이 50세가 되어서야 49세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고사¹⁹⁴⁾와 蘇武가 북쪽 변방의 흉노에게 사신 갔다가

191) 『蘇齋集』 卷4, 240, <寄尹李二故人>.

192) 『蘇齋集』 卷1, 158, <賦蘇軾> 三首.

193) 『蘇齋集』 卷3, 207, <醉吟>.

인질로 붙잡혀 19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시를 쓰고 있는 지금의 나이가 50이며 귀양 온지 19년이 되었음을 축약하여 시어로 선택하였다.

⑤ 詩는 東坡의 시부에 대한 소회를 나타낸 3首중 1首이다.

동파의 문장이 氣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그의 명성이 四海에 찬란함을 讚하고 있다. 介甫는 王安石의 字다. 증공, 사마광과 함께 문장의 大家數요, 명가의 師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三文章을 함께 대비시킴으로서 동파를 우위에 두는 효과를 내고 있다.

순숙통은 生卒年이 不明한 자이나 西漢 初期 유학자로서 漢高祖의 宮中 禮儀를 제정하는데 협조하였고 선후로 太常과 太子太傅에 出任하였다. 동파의 이름위에 文章의 師法인 증자고와 西漢초기 유학자인 순숙통을 등장시켜 그의 탁월함을 각인시키고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善政者가 못되었음을 함께 질책하고 있다.

⑥ 詩는 유배기의 좌절과 혼돈에 빠져 술에 의지하여 방황하는 소재의 자화상을 나타내는 詩이다. 首聯에는 韓愈의 <進學解>에 나오는 楊雲과 진나라 이부상서 畢卓¹⁹⁵⁾을 등장시켜 소재의 처지에 비견시키고 있다. 楊雲은 莊子, 屈原, 司馬遷, 司馬相如와 더불어 당시 최고의 문장가이면서도 공자와 맹자처럼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행한 일생을 보냈는데 그의 삶이 소재의 현실과 닮아 있음에 그를 등장시켰고, 술을 너무 좋아하여 동료의 집 술독에서 술을 훔쳐 먹다가 포박당하여 나중 이부상서임을 알고 풀어주었다는 晉나라 裴奕의 고사를 술에 의지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기와 同人視하여 스스로의 처지를 비하하고 있다.

다음은 官職名, 職牒, 性理學이나 哲學用語, 歷史를 시어로 인용한 예이다.

194) 『淮南子』, 「原道訓」, “故籛伯玉, 年五十而有四十九年非.”

195) 『晉書 畢卓傳』, 畢卓: 진(晉) 나라 畢卓을 이른다. 그가 吏部郎으로 있을 때 동료의 집 독에 든 술을 훔쳐 마시다가 술 관리자에게 포박을 당했는데 이튿날 보니 이부랑이었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술 수백 섬을 배에 싣고 사시사철 뱃머리에서 오른손으로 술잔 잡고 왼손으로 게[蟹]를 쥐고 마시고 먹고 놀면 일생을 만족히 마치리라.”고 하였다.

① 方策森圭璧 규벽은 서책에 가득하고
 規箴揭砧鍼 돌침은 규잡에 세운다
 安窮臥袁雪 편안히 누어서는 눈 오는 것을 바라보고
 憂歲望殷霖 세월 근심하며 장맛비 바라본다.¹⁹⁶⁾

② 廟表全心德 묘호는 마음의 덕 전체를 나타내고
 陵加百行源 능호는 백행의 근원을 더했네
 春坊舊僚屬 춘방의 옛 신하 중에
 唯有右司存 오직 우사서만 남았구나.¹⁹⁷⁾

③ 萬事邯鄲枕 모든 일이 한단의 꿈이 되었고
 孤懷汗漫垠 외로운 회포는 한만의 끝이라네
 延平嗣龜緒 연평문답은 구서를 이었고
 河洛閉龍門 하도락수는 용문을 닫았다.¹⁹⁸⁾

①은 집을 새롭게 단장한 백광훈에게 경구로 준 詩다. 圭璧은 제사나 朝聘할 때 쓰던 일종의 玉器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德性을 가리킨다. 規箴은 잠규라고도 쓰며 바른말로 勸誡함을 말한다. 新居地에서는 더욱 덕성을 갖추고 항상 몸을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② 詩는 칠십 노 재상이 되어 효능 端午祭를 지내면서 옛 시절의 감회를 읊고 있다. 上句는 30년 전 世子侍講院에서 동궁(仁宗)을 모시고 시강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으며 下句는 사화를 겪어 모두 유배로 사라지고 자기 혼자만 살아 남아있음을 강개한 심정으로 추억하고 있다. ‘春坊’은 ‘세자시강

196) 『蘇齋集』 卷4, 233, <酬寄白生彰卿新居按白光勳字彰卿>.

197) 『蘇齋集』 卷6, 273, <孝陵端午祭> 首聯. 尾聯.

198) 『蘇齋集』 卷4, 231, <寄退溪先生>.

원'이며 '우사'는 '右司書'를 줄여 쓴 말이다.

③ 詩는 퇴계의 학덕을 흠모하면서 지은 시로 당시 주자 성리학의 대가인 퇴계에게 헌정한 시이다. 邯單枕은 沈既濟의 「沈中記」에서 나온 말로서 당나라 盧生이 呂翁의 베개를 빌려 잠을 자면서 80년의 榮華 속에 있다가 깨어나 보니 허망한 현실이었음을 이르는 말로 '南柯一夢'이라고도 한다. 인생이 결코 부질없음을 말하고 있으며 頸聯과 尾聯은 주자학의 근원과 퇴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延平은 주자의 스승인 文靖 李侗을 이르는 것이며 河洛은 '河圖洛書'에서 나온 말로서 주희가 그의 「周易本義」에서 하도낙서를 내세운 근거에서 연유한 것이다. '河洛精蘊'은 북송의 朱敦頤가 "성인의 情을 卦를 그려서 보였고 聖人の 蘊은 卦에 의하여 표현했다"는 언급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퇴계가 주자 철학의 대가로서 太極說을 주창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다음의 시들은 論語와 大學 등 經書를 읽고 시어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논어를 다독하여 天理를 얻었다고 소재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¹⁹⁹⁾ 그 외 그의 일상은 지독한 독서와 學問研鑽 및 著述이었다.

- ① 不作朝聞鬼 아침에 도를 듣고 귀신이 되지 못했는데
長爲暮出兒 영원히 저녁 길을 나선 아이가 되었구나
風塵逢弟日 먼지바람에 동생을 만나는 날이
江海別兄時 강과 바다에는 형과 이별한 때라네.²⁰⁰⁾

- ② 爲學規模盡此書 학문하는 규모가 이 책에 모두 들어있다고 하니
且寬期限緊工夫 시간을 넉넉히 두어 철저히 공부해야 되리

199) 『芝峯類說』卷14, "林梯入俗離山, 讀中庸八百遍. 得句曰, 道不遠人人遠道, 山非 離俗離山. 用中庸語也 盧蘇齋平生讀論語, 故其詩用論語全句處甚多, 嘗言, '我之詩文, 最於論語 中得力云.'"

200) 『蘇齋集』卷3, 203, <別無悔泣書> 首聯.

不應把作終身誦 그러나 잡고서 평생 외울 필요는 없나니
 認取周公以上無 주공 이전에는 대학이 없었음을 알기에

③ 所貴希年更達官 귀히 되어 일흔 살에 다시 달관한사람
 九人而已亦才難 아홉 사람 따름이니 인재 얻기 어렵구나
 金章鳩杖聯翩來 금 인장 차고 비둘기 지팡이 짚고 줄지어 들어오니
 入溪敝字華筵開 연못 안 정자에서 화려한 잔치가 시작되네.²⁰¹⁾

①은 동생 무회와 눈물로서 이별하고 적은 수련이다. 첫구 ‘朝聞鬼’는 “아침에 좋은 진리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는 것이다.”²⁰²⁾ 여기서 道는 올바른 도를 통하여 정치를 바르게 하여 태평시대를 구가함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이는 論語 「里仁」篇의 문구를 차용 시어화한 것이다.

②는 소재나이 46세에 창작한 시이다. 전체 규모를 알려주는 책일지라도 평생 외울 필요는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마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면 굳이 대학이나 경전에 엮매일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면서 주공 이전에는 경전이 없었다고 알려주고 있다.

③은 70세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耆老宴에서 지은 작품이다. 수련인 이 작품은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여 “많은 사람 중 아홉 명뿐이니 인재 얻기 어렵다.”고 하였다. 武王이 “나에게 난을 평정할 신하 10인이 있다.”고 하자 공자는 “인재 얻기가 어렵다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唐虞(요순)시대에만 周나라 보다 성하였다. 그런데도 부인이 한 명 있어 실제로는 아홉 명뿐이었다.”고 하였다.²⁰³⁾ 소재는 孔子의 말을 인용하여 연회에 참석한 원로가 9명임을 명시하고 주 시대처럼 얻기 어려운 인재들임

201) 『蘇齋集』 卷6, 201, <耆老宴作>.

202) 『論語』, 「里仁」, “子曰 朝聞道 夕死 可矣.”

203) 『論語』, 「泰伯」, “舜有臣五人而 天下治. 武王曰, ‘予有亂臣十人’ 孔子曰, ‘才難, 不其然乎? 唐虞之 際, 於斯 爲盛, 有婦人焉, 九人而已’ ”

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시에서 속담이나 해학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음은 소재시의 특징이다.²⁰⁴⁾

다음은 時間의 詩語化다.

소재의 시는 숫자어를 매우 많이 구사하고 있다. 적거 진도에서의 시들은 귀양 온 날자와 干支를 대우로 갖추고 있어 후대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배우체라는 非評을 받기도하였다²⁰⁵⁾ 소재는 유배의 혹독한 시련기의 상황을 詩句의 일부나 전체에 대하여 시간어사로 활용하여 기록하였다. 소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여 시의 始末에는 일자를 기록하고 일시, 날씨 등이 포함된 일기 식 표현을 한 것이 특이하다. 수학기의 작품인 「己亥 遊山錄」에서 부터 이러한 특징을 엿볼 수 있는바²⁰⁶⁾ 그의 철저한 시간의식을 알 수 있다.

天地之東國以南	천지간 동쪽나라 남쪽
沃州城外數間庵	옥주성 밖 수간의 암자에
有難救罪難醫病	용서받기 어려운 죄와 고치기 어려운 병 있고
爲不忠臣不孝男	불충한 신하 불효자가 되었고도다
客日三千四百幸	귀양살이 삼천사백일이 오히려 다행이요
生年乙亥丙辰慙	을해 생이 병진 년이 된 것 부끄럽구나
汝盧守慎將無醉	너 노수신아 취하지마라
補得公私底事堪	공사 간에 보답을 어찌 감내하려는고. ²⁰⁷⁾

위의 詩는 다분히 戲作이라 할 작품이다. 유배 온지 10년째 되던 해에 쓴 작품이다. 유배 생활이 삼천사백일임을 묘사하며 자신의 생년이 乙亥年에서

204) 『蘇齋集』, <神勒寺次覺長老軸韻>의 尾聯 參照. “孤懷感泡沫, 萬事付澆書”

205) 李晔光, 『芝峯類說』, 卷十三.

206) 『蘇齋集』, 卷 1의 첫 번째 詩인 <安奇驛> (按此下 71首 係己亥遊山錄, 四月丙辰)으로부터, <孤石亭> (丁巳), 循溪釣魚(己未), 次板上韻(辛酉), 鄉人傑詩(癸亥)등 詩作日을 日記 式으로 표기하였다.

207) 『蘇齋集』, 卷3, 226, <歲暮獻題>

시를 지을 당시가 丙辰年 임을 직시하며 진도 해변 가 두 세간의 초막에 병 들고 不忠 不孝한 자신의 존재를 자탄하고 있다. 芝峯은 이 시에 대하여 “한때 세상에서 칭송할 뿐 아니라 입에 오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우체를 면치 못했으니 시를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신랄히 혹평했는데 숫자로 대를 맞추고 인명을 시어화 했기 때문이다. 芝峯은 시에 숫자를 사용 하는 것을 變體중의 변체라고 극히 꺼려하였는데 소재의 개성인 虛辭와 俗語의 사용을 매우 싫어하였기 때문이다.²⁰⁸⁾

① 七月十九日鬱蒸 칠월 십구일 매우 무더웠던 날
奉審西山仁聖陵 서산의 인종대왕릉을 돌보러갔지.²⁰⁹⁾

② 投筆當涪灘 무신년에 붓을 던지니
晚春中旬哺 삼월 중순 신시라.²¹⁰⁾

③ 先達川邊是舊遊 선달 천가는 예전에 놀던 곳
回頭三十二年秋 돌아보니 삼십 이년 가을이라네.²¹¹⁾

①은 인종대왕 능을 돌보기 위하여 칠월 무더운 날 다녀온 기록을 숫자로 표현하고 鬱蒸이라는 폭서의 기상을 시어로 선택했다. ②는 <沃州二千言>의 長律 중 한구를 택하였다. 詩作年이 戊申年임을 알 수 있다 ③은 先達川에서 놀았던 추억과 유배전의 나이가 32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208) 李晔光, 『芝峯類說』 卷13, 「文章部」 六, “盧蘇齋 謫珍島時, 有詩曰: ‘天地之東國以南, 有難赦罪難醫病, 是不忠臣不孝男, 客日三千四百幸, 行年乙亥丙辰慚, 汝盧守慎將無醉, 補得公私底事堪’, 一時稱誦, 不啻膾炙, 而句語未免優體, 詩可易言哉. 按公乙亥生而丙辰時. 故云 ‘客日三千四百’ 蓋彥謫居歲爾.”

209) 『蘇齋集』 卷6, 280, <奉審孝陵呈權南曹>.

210) 『蘇齋集』 卷2, 184, <沃州二千言>.

211) 『蘇齋集』 卷5, 254, <次韻 吳克謙>.

2) 句法の 破格

구법의 破格이란 전통적이고 典範적인 詩양식에서 일탈한 詩句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인데, 기존의 慣習 틀인 규범적인 형식을 초탈하고 있음을 말한다.

명의 袁宏圖는 “문장이 참신 하다는 것은 정해진 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표현해 내지 못한 것을 표현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句法이나 字法이나 調法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의 가슴속에서 독창적으로 흘러나온 것이라면, 이것이 정녕 참신한 것이다.”²¹²⁾라고 하였다. 즉 문장은 스스로의 혼이 담긴 독창적 창작역량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중국의 강서시파는 韓愈를 통하여 산문화된 宋詩의 특징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강서시파를 이은 해동강서시파는 古詩에서나 볼 수 있는 散文的 句法을 근체시에 원용하여 강건함을 창출하였다. 近體詩는 五言에서 2-3, 七言에서는 2-2-3 혹은 4-3의 형식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임에도 강서시파는 이러한 형식 외에도 五言詩에서는 1-4를, 七言詩에서는 2-5의 특이한 句法을 구사하고 있다. 산문적 문체가 이러한 특이한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였다²¹³⁾. 또한 句式의 변화를 杜法에 응용하여 정상적인 어순을 택하지 않고 도치된 句文을 사용하여 어세를 강하게 만들었다. 句의 조직에서 강서시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實字와 虛字의 운용이다. 助字는 의미보다는 문법적 기능과 뉘앙스에 중점을 두지만 이에 대해 虛字는 實字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명사만이 實字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虛字가 된다.²¹⁴⁾ 또한 疊語 등을 사용하여 문장의 어세와 강약을 조절하기도 한다. 노수신 시는 평범하고 ‘구어적인 시어’ 또

212) 袁宏圖, <答李元善>, “文章新奇, 無定格式, 只要發人所不能發, 句法, 字法, 調法, 一一從自己胸中流出, 此真新奇也.”

213) 吳台錫, 『黃庭堅 詩研究』, 慶北大出判部, 1991, 253~256쪽.; 崔禁玉, 『陳師道詩研究』, 高麗大學校 博士論文, 191쪽.

214) 崔禁玉, 『陳師道詩研究』, 206-210쪽에서 『詩人玉屑』, 『瀛奎律髓』을 인용하여 虛字의 概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는 ‘散文的인 언어’를 가져와 강건한 맛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²¹⁵⁾ 특히 조선의 지명이나 인명을 구사하고 있는 율시의 首聯이나 尾聯이 대부분 강한 산문 투로 되어 있으며 다음시가 좋은 예이다.

① 嗟我避賊初 아!, 내가 처음 왜적을 피할 때는
五月單闕年 을묘년 오월이었네.²¹⁶⁾

② 恭惟貞敬大夫人 삼가 생각 하건대 정경 대부인은
天外難知世未聞 하늘 밖에도 알기 어렵고 세상에서 듣지 못한 분이라.²¹⁷⁾

① 詩는 왜구를 피하기 위하여 피난길에 오르면서 치자들의 무능과 초라함을 탓하고 있다. 시어로 잘 쓰지 않는 감탄사를 통하여 시적 긴장과 상황인식을 하게 만들며 산문에나 쓰는 虛字를 구사하고 있다.

②는 영중추부사 겸 領議政이었던 洪暹의 大夫人이 친정 부친과 남편 아들이 모두 영의정에 오르는 영광을 기리기 위한 작품이다. 허균이 『國朝詩刪』에서 奇事奇語가 相稱된 작품으로 평하고 있다. 上句에서 삼종의 도리가 재상의 문을 넘지 않았다고 평범하게 적고 있지만 모든 영예의 성취가 삼종의 도리를 다함에서 연유하였다는 三從을 주어로 선택하고 있음은 참으로 기발하다. 같은 시기 제작된 <洪政丞暹賜几杖宴>에서 수련의 “次事如今始有之”에서 ‘如今’이나 ‘有之’ 등은 시어로 쓰지 않는 散文에 쓰는 句法인 것이다.

노수신은 산문에서 볼 수 있는 助字를 시에 자주 구사하여 후대의 비평가들이 이 점을 노수신 시의 특징으로 부각 시킨 것이 많다. 노수신의 시는 박상이나 정사용의 그것과는 달리 述語를 억제하고 있으며 그의 定處인 오

215) 李鍾默, 『海東江西詩派研究』, 제3장 江西詩派 漢詩作法의 수용과 변용, 117쪽.

216) 『蘇齋集』 卷4, <寶訓軸中有河西韻次贈>.

217) 『蘇齋集』 卷6, 275, <洪領相母夫人挽>.

언올시에서는 술어가 詩眼²¹⁸⁾의 위치인 제3자에 놓일 때 강건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或敲急若鴛 혹은 딱따구리처럼 급하게 두드리고
 或搏戛若鶻 혹은 송골매처럼 날개를 치고
 酷若啄母梟 혹은 올빼미가 쪼는 듯
 或若噍颯鷹 혹은 물 여우처럼 그림자를 쏘고²¹⁹⁾
- ④ 山頽道喪矣 산이 무너지니 길을 잃었는데
 木老人歸我 나무가 노회하자 사람들 내게 돌아오네
 落景鳴寒瀨 해 질 무렵 찬 여울은 울어대고
 秋風立古臺 가을바람 부는데 낮은 다락에 서있네.²²⁰⁾
- ⑤ 嗚呼噫噫我知之 아! 나는 그것을 알고 있나니
 萬古悠悠我所思 만고에 아득히 내 생각한 바이로다
 簡策有言前輩遠 옛 경서 있으나 선배는 멀리에 있고
 淵源無授後生遲 연원을 전해 받지 못했으니 후생은 더디기만 하네.²²¹⁾
- ⑥ 露菊憑烏几 이슬 맞은 국화는 검은 궤석에 기대고
 秋蟲掩竹扉 가을벌레는 대나무 사립문에 닫혀있네.
 此時文白至 이때에 문군과 백군이 찾아와

218) 李炳漢 편저, 『中國 古典詩學의 理解』, 문학과 지성사, 2005, 268쪽, “詩眼”의 정의는 劉熙載(1813~1881)의 견해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에 의하면 시적 기교가 뛰어난 한 글자나 한 구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편의 사상 내용과 내재적 연계를 지닌 시의 생명력이 응집된 곳(神光所聚) 한 곳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詩眼이란 시작품 전체의 내용과 표현을 최대로 제고시킬 수 있는 관건적인 字句, 즉 시 전체를 빛나게 하는 活字, 活句를 말한다.

219) 『蘇齋集』 卷3, 213, <頭痛詩> 八十五韻.

220) 『蘇齋集』 卷4, 244, <記和 龍灘先生韻 贈 張克業>.

221) 『蘇齋集』 卷1, 149, <次板遣悶>.

三宿乃言歸 세 밤 머무르고 간다고 하네.222)

③ 詩는 39세(1553)에 지은 시로 독서 중에 발발한 두통으로 5일 동안 고생하면서 겪었던 과정을 서술한 장편 古詩이다. 인용부분은 전반 단락에 묘사된 부분으로써 반복적으로 ‘或’ 字의 첩어를 사용하여 빠르고 강렬한 호흡과 리듬을 느끼게 하여 병세의 증상과 환자의 고통에 동참시키고 있다.

④의 頷聯 에서도 ‘낙경’과 ‘추풍’이 각각 ‘鳴寒瀨’와 ‘立古臺’와의 통사구조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의 경물을 제시하면서도 두 글자의 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저물어가는 저녁 햇살을 배경으로 하여 찬 여울물이 소리를 내고 있고 가을바람을 배경으로 하여 낡은 누대 가에 서있는 작가를 연상하게 한다. 오언율시가 뛰어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압축적인 句法에서 생기는 강건한 語勢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⑤는 『기해유산록』의 일부 詩이다. 聖人之學의 이상을 안고 학문에 정진하고자하나 세류의 타락과 자기의 포부를 견인해줄 선배가 없음을 탄하며 읊은 시이다. ‘嗚呼噫噫 我知之’를 시의 첫머리에 배치하여 감탄사를 통하여 시의 긴장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⑥에서는 국화 편 가을저녁에 제자 문익세와 백광훈의 방문을 받고 지은 시이다. ‘露菊’는 統辭構造로 ‘憑’의 주어가 되지만 의미상 국화에 이슬이 내릴 때쯤으로 해석한다. 노국은 그 다음이 술어가 하나 더 필요하지만 과감히 생략하여 함축을 통한 강건한 맛을 풍기고 있다. “가을벌레가 울 때 대나무 사립문을 닫았다”는 뜻으로 풀이한 이 句節은 ‘秋蟲’의 술어가 생략되었다.

222) 『蘇齋集』 卷4, 232, <別文白二生>.

3) 典故의 效用

梁나라 유희는 『文心雕龍』에서 “事類란, 문장 외에 用事に 의거하여 그 뜻을 비슷하게 풀이하고 옛일을 빌려 지금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식을 모으는 데에는 광범하게 하고, 용사를 취함에는 간략하게 하고, 자구의 단련은 정밀히 해야 하며 이치를 가리는 데는 사실에 부합해야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표리가 조화를 이루고 발휘된다. 고로 옛것을 사용하여 기미에 맞게 되면 자신의 입에서 나온 표현보다 낫다. 만약 典故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면 비록 천년 뒤에라도 험이 된다.”²²³⁾ 고 하여 典故의 효용성과 책임에 대하여 함께 언급하였다.

典故란 기왕에 존재하는 文學的, 歷史的 전통을 詩作에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강서시파의 典故 활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그들은 독서를 특히 좋아하였는데 이것은 前代 詩의 장점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리라고 본다. 前代의 시구를 변형하여 자신의 의경이나 표현에 적용한다는 설은 황정견의 “환골탈태”의 이론이다. ‘換骨法’은 의경을 유사하게 쓰면서 어휘만 조금 바꾼 것으로 다른 말을 씀으로써 생각을 모방하는 것이고, ‘奪胎法’은 의경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소의 다른 생각을 씀으로써 말을 모방하는 것이다.²²⁴⁾ 그는 주로 두보와 도잠을 모방하였는데 솔직히 모방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시상은 무진한 것이나 사람의 재능은 한정되어있다. 한정된 재능으로 무진한 詩想을 좇는다는 것은 陶潛과 杜甫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²²⁵⁾

그러나 “환골탈태”는 표절과의 상관관계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를 안고

223) 劉勰, 『文心雕龍』, “事類者, 蓋文章之外, 據事以類義, 援古以證今也. (中略) 是以綜學在博, 取事貴約, 校練務精, 摺理須核, 衆美輻輳, 表裏發揮. 凡用舊合機, 不啻自其口出, 引事雖謬, 雖千載而爲瑕.”

224) 劉若愚, 『中國詩學』, 第3章 技巧的觀點, 111쪽.

225) 惠洪, 『冷齋夜話』, “山谷云: 誠意無窮, 而人之才有限, 以有限之才, 推無窮之意, 雖淵明, 少陵, 不得工也. 然不易其意而造其語, 謂之換骨法, 窺入其意而形容之, 謂之奪胎法.”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황정견의 “換骨奪胎” 개념을 <가장 잘된 표절>로 파악되었는데 이것은 평자들의 공박의 요소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 원리는 옹호되기 어려우나 가끔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 모방이 예술의 지위에까지 올려졌다.

반면, 模倣에 관하여 詩形과 詩作法의 중요성을 강조한 明代의 비평가인 李東陽(1447~1516)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詩作에 있어서 작자는 완전한 눈과 완전한 귀를 가져야한다. 이 눈은 詩形에 관련되고, 이 귀는 소리(律)에 관련된다.²²⁶⁾

이는 시형과 운율은 시에 있어서 존재 이유가 되는 것으로 “시와 산문이 구별 되는 것은 그것이 조절된 소리를 갖고 있고 낭매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그는 “두보와 같은 시인들에게 놀라는 것은 그들의 시상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음조와 休止의 정교한 처리, 品詞나 動詞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하였다. 그는 모방론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시인은 넓게 읽고 그의 지식을 조화되고 節奏있는 말이 되게 써야 된다고 하였다.²²⁷⁾

이로 볼 때 성공적인 모방이란 타의 문장을 자기의 정서나 정취에 맞추고 形과 律을 교합시켜 새로운 의경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매개체가 典故의 효용적 활용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본래 전고의 사용은 강서시파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나 다만 강서시파에 의하여 그 빈도가 많다는 것이며 활용 빈도를 높이는 것이 강서시파의 이론인 것이다. 동시에 이들이 쓰는 전고는 窮僻한 내용의 전고를 작가의 상상력에 투과하고 있어 難澁함에 이르는 예가 있음도 사실이다.

226) 『懷麓堂詩話』(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2版, 下冊, 1948), “詩必有具眼, 亦必有具耳, 眼主格, 耳主聲.”

227) 劉若愚, 위 책, 111-112쪽.

소재는 그의 말과 같이 두보를 2천여 회에 걸쳐 다독함으로써 이미 두시의 신운을 자기의 시세계에 융화시키고 다재다능한 천부적 創作力은 타와의 비교를 불허하였다. 그는 전고를 가장 잘 활용한 시인이었으며 이를 적절히 鎔解함으로써 전고가 도끼질의 흔적이 들어나지 않았다. 그는 典故를 통하여 새로운 의경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1)다른 문맥에 쓰인 두보의 시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미감을 형성하는 방법과 (2)두보의 시구를 차용하면서 그 뜻을 보충하여 새로운 의경을 구성하는 것과 (3)부분 적으로 타문장의 글자를 바꾸거나 보충하여 새로운 미감과 의경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맥에 쓰인 두보의 시를 조합하여 새로운 의경을 만드는 예를 살펴본다.

① 莽蕩乾坤阻 아득히 천지는 막혀있으니
蕭條性命微 쓸쓸히 성명은 미약하다.228)

② 名利身猶縛 명리에 몸은 오직 묶여있는데
山林迹若疎 산림에서 그대의 행실은 소탈한 것 같구나.229)

① 詩는 제자 백광훈과 문익세를 떠나 보내며 지은 시이다. 上句는 杜甫의 <奉寄河南韋尹丈人> “牢落乾坤大, 周流道術空”과 <有懷台州鄭 十八司戶>의 “相望無所成, 乾坤莽回互” <宿清溪驛奉懷張員外十五兄之緒>의 “月明遊子靜, 畏虎不得語, 中夜懷友朋, 乾坤次深阻.” 등에서 시어와 의경을 빌려왔다. 下句 “此時文白至, 三宿乃言歸”는 盧守愼이 上句와 어울리는 새로운 의경을 만든 것이다.

228) 『蘇齋集』 卷4, 232, <別文白二生>의 首聯.

229) 『蘇齋集』 卷5, 256, <神勒寺覺長老軸中次韻>의 頸聯.

② 詩는 杜甫 시 <夜聽許十一誦詩愛而有作>의 “余亦師粲可,身猶縛禪寂”과 <贈李白>의 “苦乏大藥資,山林跡若掃”를 上句와 下句에 두어 새로운 의경을 창출 하였다.

다음은 서로 다른 聯句를 연결하여 새로운 의경을 만드는 방법이다.

③ 近侍舊臣還浪跡 가까이 모시던 옛 신하는 떠도는 신세인지라
白頭南望思無窮 흰머리로 남쪽 바라보니 생각은 끝이 없네.²³⁰⁾

③ 詩는 杜甫 시 <曲江陪鄭八丈南史飲> “近侍郎今難浪跡,此身那得更無家”의 上句와 <秋興> “綵筆昔遊干氣象,白頭吟望高低垂”의 下句를 연결하여 한 聯을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문맥에서 구사되었던 의경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의경을 창출한 예이다.

④ 有客有客號暗室 손이 있고 손이 있어 호는 암실 인데
海上隨身但兩膝 바다 위에서 다만 양 무릎으로 몸을 따를 뿐이라네
平生枉挾箕斗名 평생 동안 기두의 이름을 끼고
胡爲自割無用膝 어찌하여 쓸모없는 무릎만 나누려하였는가?²³¹⁾

④ 詩는 두보가 중국 서북쪽 변방 한척한 同谷에서 겨울을 지내며 지은 <乾元中寓居同谷縣作歌七首>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한 시이다. 독서 중에 홀연히 죽음과 늙음이 엄습해 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가난과 척박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 發露 되면서 虛名만을 안고 살아온 자신에 대한 자책의 詩다. 적거지 해변 가에 거하고 있는 소재의 위상은 同谷의 두보보다 더 나은 처지가 아니었으나 좌절을 초극해가는 단계에서 썼던 것으로 마음 안에 있는 天

230) 『蘇齋集』 卷6, 282, <親祭康陵 扈駕感吟>의 尾聯.

231) 『蘇齋集』 卷2, 179, <一日, 讀書忽念死迫親老, 爲之慙然, 情發不中, 遂倣工部同谷歌, 作八首> 中 1首.

理를 보존하고 시련에 맞서려는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古籍이나 타문장의 語義를 전고로 취하여 새로운 의경을 이루는 경우이다.

- ⑤ 肯把中興歸擇木 중흥을 즐겨 돌아와 나무를 가리고
休將聯句鬪軒轅 聯句를 일으켜 현원에 다투리
明朝汗漫還千里 명조 한만은 천리밖에 돌아가고
黃鵠由來一再騫 황색 고니는 돌아오고자 한번, 두번 재차 난다.²³²⁾

⑤ 詩 중 擇木'은 '良禽擇木'을 의미하며 어진 사람은 임금을 잘 가려서 섬긴다는 말이다. 『春秋左傳』에 “새가 나무를 가려 앉는 법이니 나무가 어찌 새를 가리랴.[鳥則擇木 木豈能擇鳥]”라는 말이 있으며 軒轅은 중국 고대 황제의 이름이다. 현원이라는 언덕에 살았는데, 그것을 이름으로 하였다. 漫還은 세상 밖의 遊覽을 말한다. 『淮南子』(道鷹訓)에 若士가 盧敖에게 이르기를, “나는 汗漫과 함께 九垓 밖에서 노닌 사람이다.”는 구절이 있는데, 한만은 天遊를 즐기는 자를 의미한다.

- ⑥ 驚人擬聽三年鳥 삼 년 동안 새가 울면 사람이 놀라 유심히 듣는데
體物那看十月花 체물이 어디서 시월의 꽃을 볼 수 있을까?
白髮詞臣嫌授簡 백발의 사신은 수간을 싫어하니
未須尋向玉皇家 옥황상제의 집을 찾아 향할 것 없지.²³³⁾

⑥ 詩는 天理 詩를 쓰고 있을 당시에 지은 詩 중 한수이다. 수련의 體物은 만물의 조화는 體用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백호전서 제36권

232) 『蘇齋集』 卷5, 262, <鄙人獲忝陪侍日觀清陋得御之喜所難喻也歸牽催脂不勝黯然敢掇近體二首 錄呈敬堂大人斤正>.

233) 『蘇齋集』 卷5, 246, <松面途中賦雪>.

讀書記 (中庸)]

授簡은 서간을 준다는 뜻으로, 시를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漢나라 때 梁孝王이 庭園에서 노닐면서 司馬相如 에게 서간을 보내[授簡] 자신을 위해서 눈에 대한 시를 짓도록 부탁한 고사가 있다.

- ⑦ 帶葉崖風起 낭떠러지에 바람이 일어 낙엽을 흩날리고
- 凝膚野露殘 들판의 남은 이슬에 소름이 돌아난다.
- 平生陸郎涕 평생을 육랑의 눈물로 보내고
- 日月道途艱 날과 달로 걷는 길마다 한스럽다.²³⁴⁾

⑦ 詩는 어린유자를 심어 세 그루가 무성하게 잘 자라 유자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옛날 육적의 굴을 典故로 택하여 그의 효행을 생각하면서 읊은 시이다. 凝膚는 소름이 돌아나다는 뜻이다. <鶴峯逸稿> 제1권의 <招涼珠>란 작품에는 “겨드랑이 바람 일어 소름이 돌아나니[兩腋習習霜凝膚]”라는 구절이 있다.

陸郎은 삼국 시대 吳나라의 陸績을 말한다. 『三國志 吳志 陸績傳』에는 그가 여섯 살 되던 해에 袁術을 만나 감귤 대접을 받고는 모친에게 드리려고 몰래 감귤을 가슴속에 품고 나왔던 고사가 있다. 소재는 효의 본을 노래자와 육적을 들어 그들의 효행을 찬상하면서 본인의 불효를 늘 한스러워했다.

- ⑧ 浮世雙蓬鬢 뜬구름 같은 세상 두 귀밑머리 흐트러지고
- 殘年半席門 남은 인생 반쯤 남은 석문
- 醒來好氣像 술이 호기로운 상 돌아오니
- 靜讀聖賢言 고요히 앉아 성현의 말씀 읽는다.²³⁵⁾

233) 『蘇齋集』 卷3, 212, <池進孫送柚子 池有三樹甚盛> 頸聯과 尾聯.

235) 『蘇齋集』 卷3, 211, <仲秋飲酒 >.

⑧ 詩에 나오는 席門 은 거적을 매달아 놓은 문으로 청빈한 집이나 隱者의 거처를 뜻하는데, 『史記』, <陳丞相世家>에 “다 떨어진 거적으로 문을 매달아 놓은 집에 장자의 수레가 많이도 찾아왔다[以弊席爲門 然門外多有長者車轍].”고 하였다.

⑨ 陰火中春日 봄날 음화에
 文明萬國禮 문을 밝혀 온 나라가 제사를 지낸다
 齋居得賢長 집에 거하며 어진 어른을 얻었으니
 戒宿盡嘉賓 가빈에 계속의 예를 다한다.²³⁵⁾

⑨ 詩는 초가을 祭禮에 대하여 논한 詩이다. 전고로 陰火와 戒宿, 嘉賓을 시어로 취하였다. 陰火에 대하여 <성호사설> 제6권 <人事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雙山五行이란 乾·甲·丁으로 陽木을, 亥·卯·未로 陰木을, 艮·丙·辛으로 陽火를, 寅·午·戌로 陰火를, 巽·庚·癸로 陽金을, 巳·酉·丑으로 陰金을, 坤·壬·乙로 陽水를, 申·子·辰으로 陰水를 삼는다.”고 하였으며, 또한 韓方 醫學的으로 음화란 飲食勞倦이나 喜怒憂思로 인해 발생한 心火라고 하며 원나라 李杲의 「脾胃論」, <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에 “心火는 陰火이니 下焦에서 일어나며 (中略) 脾胃의 氣가 虛하면 (中略) 陰火가 그 土位를 乘하여[心火者, 陰火也, 起于下焦, (中略) 脾胃氣虛, 則 (中略) 陰火乘其土位.]”라고 하였다.

戒宿은 冠禮시에 행하던 일종의 예를 지칭하고 있다. 『寒水齋先生文集』 제33卷에 “진평의 冠禮를 치를 적에는 내가 또한 선생의 명을 받들어 외람되이 戒宿을 담당했었는데, 그때에 절하고 揖하는 것이 절도에 맞고 훌륭한 범절이 질서 정연한 것을 보고서 더욱 공의 家法이 유래가 있다는 것을 알

235) 『蘇齋集』 卷3, 207, <釋奠前一日有感 書寄崔廣文 兼示同齋數子>.

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嘉賓은『詩經』「小雅」의 <鹿鳴과 南有嘉魚>에 보이는데, 여기서는 사신을 가리킨다. ‘좋은 손님’이라는 뜻으로 쓰인 예도 있다.

- ⑩ 不遇黃裳元吉士 황상 차림의 길한 선비 만나지 못하였고
難爲靑眼半生人 반평생 청안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十分蕩滌涼肝肺 넉넉히 차가운 간과 폐 쓸어내고 닦아내어
返得眞元未始貧 돌아와 진원을 얻으니 바야흐로 아직 부족함 없도다.²³⁷⁾

⑩ 詩는 阮嗣宗의 靑眼을 전고로 택하였다. 阮嗣宗은 자기 눈을 靑眼과 白眼으로 곧잘 만들면서 禮俗에 물든 인사를 보면 번번이 白眼으로 대했다”고 하였다. 완사중은 三國時代 魏 나라의 阮籍인데 그가 사람에게 따라서 반갑게도 대하고 냉담하게도 대했다는 故事이다. 본문의 문자는 『晉書』, 「玩籍傳」에서 典故로 인용한 것이다. 한편 「名義考人部」, <靑白眼>에는 “완적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혜희가 와서 조문을 하자 완적이 눈의 흰 부분을 드러내고 그의 동생 혜강이 술과 거문고를 가지고 오자 크게 기뻐하여 푸른 눈동자를 보였다.”고 하였다.

4) 意境의 안배

강서시파의 작법 중 變容의 원칙보다 더욱 중요시 하는 것이 “意境의 按排”이다. 강서시파의 鼻祖인 황정견의 시는 장, 단편을 떠나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주희는 황정견 시의 이러한 특징을 간과하여 소식은 재주가 뛰어나 거대한 물이 흘러가듯 남은 뜻이 없도록 써내려갔지만, 황정견은 안배에 주력했다고 비교한 바 있다.²³⁸⁾

237) 『蘇齋集』 卷2, 177, <食柑次東坡韻>.

238) 莫礪鋒, 『江西詩派研究』, 齊魯書社, 1986, 49쪽.

意境은 예술형상과 관련된 이론으로 境界라고도하는데 佛經에서 나온 말이다. 『俱舍頌疏』에는 “色等 五境은 境性을 지니니 이것은 境界이기 때문이며 눈 등 五根은 거울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은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²³⁹⁾고 하였다. 意境說은 唐代에 이르러 불교의 도입과 함께 창작의 변영등과 관련되어 본격적으로 발전되었으며 司空圖와 嚴羽등이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왕창령은 다음과 같이 詩의 三境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시에는 세 가지 경지로, 事物의 경지, 情緒의 경지, 意識의 경지가 있다. 첫째로 物境이다. 산수시를 지으려면 물 솟는 바위와 구름 낀 산봉우리 광경을 펼치는데 가장 아름답고 아주 뛰어난 곳(것)을 마음에 신성하게 새기고(여기고) 자신을 그 경지에 두고서 자신이 그 경지에 있음을 마음에 두고서 그 경지를 바라보면 내 손바닥 속에 있는 듯이 분명해진다. 그렇게 한 뒤에 상상력을 사용하면 그 경지의 이미지가 뚜렷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사한 이미지를 묘사하게 된다. 둘째로 情境이다. 재미로움, 즐거워함, 근심함, 원망함을 모두 생각에 펼치어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러한 뒤에 상상력을 집중시키면 마음으로 그 정감을 얻게 된다. 셋째로 意境이다. 이것도 또한 생각에 펼치어 마음에서 상상하면 그 참된 것을 얻게 된다.²⁴⁰⁾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意境이란 형상화된 情景交融의 예술묘사를 통하여 독자들을 상상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예술경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文言으로 공부한 우리나라 江西派들은 의경의 조직에 대하여 많은 공을 들였었다. 노수신 시 중에서 많은 부분이 贈別詩이다 이것은 그가 살았던

239) 『俱舍頌疏』, “日色等五境, 爲境性, 是境界故, 眼等五根, 各爲鏡性, 有境界故.”

240) 王昌齡, <詩有三境>, “詩有三境 一曰物境 欲爲山水詩 則張泉石雲峰之境 極麗絕秀者 神之於心 處身於境 視境於心 瑩然掌中 然後用思 了然境象 故得形似 二曰情境 娛樂愁怨 張於意而處於心 然後馳思 心得其情 三曰意境 亦張之於意而思之於心 則得其真矣 然後馳思.”

상황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謫居기간 그를 찾는 동생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석별을 아쉬워하는 많은 詩作을 하였다. 또 유배지의 상황 변화에 따른 관련 시들과 40대에 들어 많은 哲理 詩들이 창작되었다.

二儀清濁元分一	건곤의 청탁은 원래 하나에서 나누어졌고
百代興亡競合三	백대의 흥망이 셋을 합했네.
大丈夫身生老病	대장부 몸으로 태어나 늙고 병들어
倚雲長嘯不生慚	구름에 기대고 긴 휘파람 불며 삶을 부끄러워 않노라 ²⁴¹⁾

노수신은 위 詩에서 乾坤과 백년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광대한 對偶로 구성하여 방대한 규모를 그리고 있다.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 삼국이 정립된 이후 요충지인 탄금대를 갖기 위한 각축의 역사를 연상하게 하고 결국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을 이루었음을 상기하게 한다. 허균은 『國朝詩刪』에서 “우주를 지탱 할 만큼 웅장한 기세를 과시한 구절이다.”고 평하였다. 또 위 詩를 통하여 노수신은 철학적 용어를 구사하여 上句는 원리를 말하고 下句는 현상을 對偶로 並置시킴으로써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고 있다.

노수신은 고시에서 속담이나 해학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神勒寺次覺長老軸韻> 尾聯의 시구가 좋은 예이다.

名利身猶縛	명리는 오히려 몸을 속박했고
山林迹若跡	산림은 우랄한 흔적과 같았다.
孤懷感泡沫	외로운 회포는 포말에 젖어들고
萬事付潦淥	만사는 새벽 술에 부쳤다. ²⁴²⁾

240) 『蘇齋集』 卷5, 247, <彈琴臺用 訥齋韻一首>.

242) 『蘇齋集』 卷5, 256, <神勒寺次覺長老軸韻>.

선비가 새벽에 책을 보는 것을 술에 比擬하였으며 이는 속어를 구사하고 있음과 더불어 시화 류 에서 용사한 것들이 해동강서시파의 면모라 할 수 있다.

上句의 泡沫도 인생무상을 의미하지만 오히려 신록사 앞에 흐르는 驪江의 파도와 호응하여 기묘한 효과를 거두며 술어 “感”의 단련을 통하여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였으므로 “以俗爲雅”라 할 수 있다.

林開二水會	강물 만나는 곳에 수풀열리고
天遠數峯尖	하늘멀리 뽕쪽한 봉우리 몇 개.
古迹神龍去	신령스런 용이 가버린 옛 자취.
幽期道士潛	숨은 도사가 비밀스런 약속을 가졌던 곳
黃精日中飫	낮에는 황정 ²⁴³⁾ 으로 배 채우고
白石夜來添	밤에는 백석으로 안주했다네.
擬逐桃花浪	복사꽃 흐르는 물을 쫓아가려했는데
人心到底嫌	가는 곳마다 웃음거리 될까봐 걱정이네. ²⁴⁴⁾

이 시는 1547년 忠州에서 순천 이배 길에 化山을 보고 읊은듯하다. 首聯은 먼 수풀사이에 전개되는 강의 풍정과 그 사이에 보이는 뽕쪽한 몇 개의 봉우리를 보면서 시상을 열고 있다. 頷聯에서는 화산의 신령함속에 자신의 처지도 잇고 있다. 봄에 꽃이 핀 山水주위의 경물과 그윽한 분위기에 걸맞게 옛날 神龍이나 道士들의 傳說스런 이야기로 시상이 변한다. 神龍과 道士를 對로 처리하였으며 頸聯에서는 백석도사가 낮에는 황정이라는 풀로 배를 채우고 밤에는 백석을 먹었다고 하였다. 백석을 먹는다는 것은 과장법의 표현일수 있지만 劉向의 『列山傳』²⁴⁵⁾에 보면 당시 도사들은 백석을 먹었다는

243) 『博物志』, “太陽之草名黃精 食之可以長生.”

244) 『蘇齋集』 卷1, 41, <道望火山>.

245) 劉向, 『烈山傳』, “白石先生者中黃道人弟子也. 常者白石爲糧, 因就白石山居 亦食脯飲酒食穀, 日行四百

기록이 있다.

偶作山陰興	우연히 산음의 흥이 일어
迂尋谷口廬	먼 길을 돌아 곡구의 여막을 찾노라.
輕寒松自秀	추위가 와도 소나무는 스스로 빼어난데
帶腦柳微舒	선달을 끼고 버들은 가늘게 퍼지네.
元祐完人老	원우에 사는 완인은 늙어가고
周南滯客餘	주남에 객은 매여있구나.
何須載酒問	어찌 굳이 술을 싣고 물으리오
已勝十年書	이미 십년간 책 읽는 즐거움을 알았는데. ²⁴⁶⁾

성운은 1497 (연산군3년) 에 나고 1579년 (선조12년) 에卒한 선비였다. 자는 健叔, 호는 大谷, 副正 世俊의 아들이다. 중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을사사화 때 兄이 화를 입자 벼슬을 버리고 보은 속리산에 은거하였다. 시와 거문고로 소일하면서 曹植, 徐敬德, 李之菡등과 교우한 명사이다. 참봉, 도사에 임명하였으나 곧 사퇴하였으며 시문은 불교적 취향의 시를 썼다.

소재는 괴산으로 이배되어 다소간 행동이 자유로워지자 당시 학덕이 고명한 성운을 찾게 된다. 大谷은 소재보다 무려 18년 연장자였지만 선비의 지조를 지키며 속리산에 은거한 그의 학문과 인품을 사모하여 報恩에 있는 그를 찾았고 그 후에도 오래도록 교우하였다. 蘇齋集에도 4편²⁴⁷⁾의 詩가 보인다. 환로에 복귀한 후에도 그와의 교우가 있었고 선조12년(1579년) 7월에는 경연에서 曹植, 李恒과 함께 제선생의 특장을 들어 褒典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²⁴⁸⁾

里 容貌不衰。”

246) 『蘇齋集』 卷5, 247, <贈大谷處士>.

247) 『蘇齋集』 卷5, 247, <贈大谷處士>; 卷5, 250, <復次大谷車韻> 二首.; 卷5, 255, <訪大谷飲>; 卷5, 255, <次大谷韻醉草>.

248) 「行狀」, “時禮官議成運贈爵 先生曰 曹植成運李恒 同是賢者 而人品則不同 曹植 志氣凌厲 識見超邁 雖

수련은 山陰에 살고 있던 王羲之가 우연히 흥이 일어 곡구에 살고 있었던 대안도가 보고 싶어 찾아갔다는 「世說新語」의 기사에서 용사하였다.

성운이 대안도와 같은 은자임을 알고 그를 찾아가 歲寒에도 청정한 完人の 모습을 보면서 선비의 기개를 그리고 있다. 경련에서는 원우의 늙은이를 대곡에 비유하고 주남의 객을 자기에게 비유하여 아직 해배되지 않는 처지를 묘사하였다. 미련에서는 학문연찬과 유유자적이 술보다 좋다고 大谷의 선비로서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

두보의 <多病執熱奉懷李尙書>, “不足尙書期不顧, 山陰夜雪興難乘”과 <陪鄭廣文遊何將軍山林十首>, “谷口舊相得, 濠梁同見招” 등의 작품에서 典故를 취한 것 같으며 首聯과 尾聯이 대우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매 연이 한 구는 자신의 일을, 다른 한 구는 상대의 일을 구사하고 口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意境의 按排가 조직적이다.

3. 詩世界의 特徵

소재의 시세계는 주제적인 분류를 통해서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의 생 전반에서 그를 대변할 수 있는 詩作은 해배 후에 창작한 詩 396首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는 유배시기에 지어진 시 1,023首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가 館閣文人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편수에 상관없이 작품 전반에서 드러나는 소재 시 특징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소재의 생애는 시기별로 修學期 流配期 仕宦期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작품 분석에 있어서도 대략 시기별로 그 과정을 추적·분류하여 특징을 고찰하기로 한다. 出仕 前 修學期에 지었던 「己亥遊山錄」에서부터 유배기를 거쳐 해배 후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 전 과정의 시들을 1) 勝景自適과

聖賢之書 亦不屑意故微有病處 成運 溫雅簡默 超然不嬰世故 常謙讓自守 爲一世完人. (後略)”

脫俗 指向, 2) 思親과 戀君에의 衷情, 3) 挫折과 超克의 情懷, 4) 學問의 沈潛과 成就, 5) 寫實的 自然景物 描寫로 나누어서 探討할 것이다.

1) 勝景自適과 脫俗 指向

그는 소년기부터 영민함과 더불어 성인지학의 추구를 학문의 지향으로 삼았고 성균관에 들어가 추구하는 현실적 학문과 세간의 俗學사이에서 고뇌하는 여러 시를 살필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번뇌를 잊고 더 큰 이상을 향하기 위한 유장한 호흡이 필요 하였다. 그의 문집 序文에 “박사의 업에만 급급하지 않고 풍악에 올라서야 천하가 작게 보인다는 뜻을 품었다”²⁴⁹⁾ 라고 한 것 같이, 그의 己亥年 풍악기행은 그의 인생 성장에 많은 깨달음과 포부를 새겨서 차후 인생역정에 참고가 되고 있다.

이러한 金剛山 紀行詩인 「己亥遊山錄」은 71首가 남아 있는데 대다수가 自然景物을 노래하거나 山水에서 우리나라오는 감회를 읊은 내용들이다. 이 詩들에 대해서 趙綱은 “관동지방을 거닐며 지은 시들은 士衡(陸機)文賦를 남겼을 나이 때인 작품인데도 老蒼하고 奇健하여 만년작품과 같다.”²⁵⁰⁾는 평을 하고 있다.

소재는 25세인 1539년 성균관 시절에 4월18일부터 6월11일까지 금강산 유람에 나선다. 그의 여정은 安奇驛과 孤石亭을 거쳐 丁卯일이 되어 비로소 금강산 관문인 天馬山의 斷髮嶺에 이르게 된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속인이 이 재에 올라 금강산을 본 자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단발령이라고 이름 하였다 한다. 세조가 만년에 금강산을 찾다가 단발령에 이르러 그 경관에 취하여 스스로 중이 되고자하나 임금으로 차마 머리를 자를 수 없어 몇 자락 머리털만을 잘라 걸어두었다는 절경이기도하다.

249) 『蘇齋集』, 「蘇齋先生集後敘」 己巳年, 趙綱 撰..

250) 趙綱, 『蘇齋集』, 「蘇齋先生文集後序」, “遊關東之詩 童踰士衡文賦之年 其老蒼奇健奚謝晚年.”

소재도 이 고개에 올라 깊은 감회에 젖는다.

第一峯頭慰飢渴	첫 번째 산봉에서 기갈을 풀고나니
人間信有別乾坤	인간세상 참으로 별천지가 있구나
玉山頽去雲根動	구름 기둥 움직이니 玉山이 기우는 듯
雪嶺寒來鶴翼飜	학 날개 번득이니 눈 덮힌 산 얼어 붙네
崔嵬孤掌爲長老	우뚝한 외론 산봉 최고 어른이라면
巉峿羅立似兒孫	뽕뽕하게 늘어선 산 아들 손자 같구나
貪癡却笑何人意	탐진치 비웃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遐舉先須作晚髡	속세를 등지려면 머리 먼저 깎아야지. ²⁵¹⁾

이 시는 斷髮嶺에 올라 눈앞에 펼쳐지는 別天地에 대한 동경과 감회를 읊고 있다. 먼저 외형상으로는 七言律詩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눈앞에 펼쳐지는 별천지를 묘사하면서 의경을 안배하고 있다. 頷聯과 頸聯에서 눈에 보여지는 경관을 서술하면서 속세와는 다른 별천지임을 玉山과 구름, 雪嶺과 학의 깨끗한 이미지에 비유하면서 한편으론 動과 飜의 동사를 통해 역동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尾聯에서는 首聯에서의 別天地라는 의도에 맞게 단발령이라는 지명의 의미를 통해 재치 있게 자신의 속세를 떠나고 싶은 바람을 표명하고 있다.

소재는 이어서 금강산 萬物相의 윤곽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白也南分迤	백두산 남쪽으로 치달아 나뉘어
環然左聚環	옥 모양으로 왼쪽에 등글게 모여
俯臨暘谷海	굽어보니 해 돋는 바다 맞닿아 있고
平睨鐵門關	바로 보니 철문관이 마주 보인다

251) 『蘇齋集』 卷1, 149, <登斷髮嶺>.

鎮武尊廬頂	북쪽에는 비로봉이 우뚝 솟았고
紆庚抗拜顏	서쪽 길엔 배점이 높이 뻗쳐있구나
馬鷹騰遠近	石馬峯과 石鷹峯이 원근에서 날아오르고
日月出中間	일출봉과 월출봉이 그 사이에 솟아올랐다
燈影垂難滅	천등봉 등잔 모습 드리워져 꺼지지 않고
香湮裊莫攀	향로봉 연기 간들거려 오를 수 없네
創奇疑假郢	기이한 형상 郢人 솜씨 빌려 왔는가
輸巧恐勞般	공교함은 아마 魯般 수고였겠지 ²⁵²⁾

(後略)

이 시는 金剛山의 여러 봉우리들과 고개 城 등의 지명을 시에서 교묘하게 융해시켜 重義의 뜻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법은 소재의 강서시파에 경도된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시에 등장되는 대상들은 금강산의 대표적인 상징물들로 온갖 모양을 다 꾸미면서 모여 있어 만물상이라 이름한 것이다. 북쪽에 가파르게 우뚝 솟은 비로봉과 고개를 넘을 때 절을 하고 간다는 배점고개, 원근에 石馬峯과 石鷹峯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일출봉과 월출봉이 서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천등봉과 향로봉까지 등장시킨 이 詩는 萬物像을 그대로 투영한 듯한 폭의 眞景山水를 그려놓은 듯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構圓, 遠近, 明暗을 느낄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는 점이 뛰어나다 하겠다. 그래서 이 만물상의 모습이 아마도 郢땅의 名工인 匠石의 재주이거나 春秋시대에 千古에 傳頌되는 장인 魯班의 솜씨라고 찬탄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시적 재능도 동일시 하고자하는 자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一宿豊田驛 하룻밤 풍전 역에서 자고

252) 『蘇齋集』 卷1, 151, <楓嶽 三十韻>.

已攀孤石亭	이윽고 고석정에 올라 보았다
崖傾探月窟	절벽에서 비스듬히 月窟을 찾고
冢盡踏天庭	꼭대기는 天庭을 밟는 듯하다
曲港龍遺迹	구불구불 물굽이는 용의 자취요
盤渦鶴墜翎	소용돌이 여울물은 떨어진 학의 깃 같다.
無端發清嘯	무단히 맑은 소리 휘파람 부니
應動嶽仙靈	응당 산악 仙靈을 움직이겠지. ²⁵³⁾

전반부에서는 孤石亭의 풍광을 묘사하였고 후반부에선 天庭같은 孤石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감회를 읊었다. 수련에서부터 풍전역과 고석정이라는 지명을 對偶로 처리하여 처음부터 수사적 기법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함련에서도 月窟과 天庭이라는 對偶를 써서 고석 꼭대기가 어찌나 높은지 하늘 세계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脫俗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對偶의 奇妙함은 ‘龍遺迹’과 ‘鶴墜翎’에서 극치를 이루어 외형상의 美를 동반하는 한편, 情과 景의 어우러짐을 통해 시각과 청각이 교차하면서 무한한 상승작용을 일으켜 결국 尾聯에서 산신령을 감동시킬 만큼의 脫俗의 詩境을 이루어 내고 있다.

大小松蘿近	大小의 송라암이 가까이 있어
東西鐘磬清	여기저기 경쇠 소리 맑게 울린다
月來千壁動	달 떠올라 벽에 비쳐 움직거리니
魂起五更驚	정신 놀라 새벽녘에 잠이 깨었다
麋鹿有物性	사슴들에게 물의 물성 마땅히 있고
靑黃非木情	靑과 黃이 나무의 情 아니건마는
惟人也最秀	오직 사람만이 가장 뛰어나니

253) 『蘇齋集』 卷1, 149, <孤石亭>.

沒世守天明 죽을 때까지 하늘 맑음 지켜가야지.²⁵⁴⁾

詩人は 대 송라암과 소 송라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맑고 淸雅한 경쇠소리를 듣고 잠을 청한다. 그러다가 달이 떠올라 온 벽에 달이 비쳐 어른거리는 바람에 놀라 五更 무렵 잠에서 깨어난다. 환한 달빛에 비쳐지는 物像을 보며 사슴 같은 동물에도 물성이 있고, 나무들의 본성이 푸른 것도 누렇게 마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므로 밝게 비추는 달빛에도 마음을 수양하고 다스려 밝은 天命을 지켜나가겠노라 다짐하고 있다. 소나무 넝쿨로 둘러싸인 속세와 단절된 암자에서 시를 읊으면서 시인은 자신의 탈속을 지향하는 의식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仙境에서의 遊仙을 꿈꾸고 있는 모습이다.

暮入摩訶衍	저물녘 마하연에 들어와서
尋登七寶臺	칠보대를 찾아서 올라간다
山連鍾欲動	연이은 산 종소리에 움직이는 듯
松老鶴初回	늙은 솔엔 학이 처음 돌아오네
雪衲看僧掛	눈꽃 옷은 스님 보라 걸려 있고
雲窓待客開	구름 창은 손님 오라 열려 있네
誰激王母下	어느 누가 西王母 오심 맞아서
細酌紫霞杯	천천히 자하 술을 함께 마실까 ²⁵⁵⁾

마하연은 내금강에 있는 楡岾寺의 末寺로 新羅 때의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절인데, 만폭동의 가장 깊은 곳이며 大乘佛敎를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하다.

254) 『蘇齋集』 卷1, 152, <宿大松蘿庵>.

255) 『蘇齋集』 卷1, 151, <暮入摩訶衍>.

首聯에서는 마하연으로 들어가서 칠보대를 찾아가는 저물녘의 시간과 絶俗의 공간을 그려서 미련에 나올 선경을 예비하고 있다. 이어서 함련과 경련에서는 절속의 공간의 경관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山連·松老’, ‘雪納·雲窓’, ‘動·回’, ‘掛·開’의 遠近法과 動과 靜의 적절한 交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절속의 공간은 바로 신선 세계이므로 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인 西王母를 맞아서 신선의 술인 紫霞 술을 함께 마실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이러한 신선의 경지를 찾아왔으니 신선의 경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임을 자부하면서 세속을 벗어난 자유로운 遊仙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소재는 금강산 기행을 통하여 자연의 조화와 신비를 확인하게 되고 절속의 공간에서 仙界에의 지향을 꿈꾸게 된다. 자신을 버리고 정진하는 선사들의 구도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유장한 호흡을 통하여 호연한 기상을 함께 간직하게 된다. 그의 超世의 삶의 지향은 流配期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시기의 소재는 疏外와 울분, 좌절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초세지향으로 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十六夜 喚仙亭>을 들 수 있다.

2) 思親과 戀君에의 表情

(1) 家族間의 情懷

소재의 시는 忠과 孝, 그리고 가족 간의 질은 가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의 부모에 대한 효는 天稟의 정성과 至極이었다. 유배 중에는 定省하지 못한 불효를 원망하면서 노래자의 효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그의 悔恨 중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생이별이었다. 자식을 갖지 못한 병든 아내를 두고 22년간 떨어져 살아야했던 고통과 회한을 戀婦의 情으로 묘사 하였다. 또한 아우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살필 수 있으니 특히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고마움 때문에 더했던 것 같다.

蘇齋家の 이력은 寒微한 편이다. 소재의 조부 珩은 銀鷄察訪, 豐儲倉守, 杆城·郡守, 僉正 등을 지내고 의정부 左贊成에 증직 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과거 낙방으로 응시를 포기하고 한미한 지방관직을 맡았으며 기대했던 아들 鴻 또한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출사에 뜻을 접고 병약한 몸으로 은거하였다. 父親 鴻은 후에 아들 소재의 후광으로 活人署 別提를 지냈다.

자신과 아들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 찬 조부 珩에게 영특한 손자 소재의 출생은 집안의 희망이었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는 조부의 간절한 염원으로 모든 기대를 쏟아 소재의 어린 시절 부터 학문에 정진하게 하였고, 강보에 싸서 기르면서 종묘의 제사와 명예를 주지시키고 있다. 소재의 행장에 보면 공부를 위하여 이침 문후하는 시간까지 아껴 쓰도록 하였고, 그가 성년이 되어 어느 날 술이 과하자 이를 나무라는 말씀을 듣고 이후 금주하였는데 환갑잔치에서 금주하고 있는 손자에게 解酒하게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²⁵⁶⁾ 이러한 내용들에서 소재의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 조부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결국 소재는 조부의 바람에 부응하여 三壯元으로 가문을 빛내고 환로의 청 요직에 진출하였으나 을사변란으로 파직되고, 그 이듬해에 조부 珩가 별세한다.

다음 詩는 유배지에서 조부의 祥日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조부를 추억하는 장문의 敘事詩이다.

我思我家君	우리 집 어르신 생각을 하면
是日祥而縞	이 날 상례에 상복 입으셨겠지
故主有誰題	옛 조상께 누가 글을 받치시려나
新龕有誰掃	새 감실 ²⁵⁷⁾ 은 누가 청소 맡아서 하나
斬爾杖忍斷	상복에 지팡이 차마 버리지 못하니

256) 『蘇齋集』, 「行狀逸事」, 405, “先生少時 飲隣友家微醉 贊成公戒之 自是作止酒文 絕不把盃者累年 後值贊成公 初度日 公見其不飲 仍命還飲.”

257) 塔下室: 神佛을 安置하는 곳.

廓然容且老	쓸쓸하게 모습 또한 늙어셨겠지
有子不在側	자식으로 곁에 함께 있지 못하고
自令放絕島	스스로 절도에 내쫓겨 있다
朝見在林鶴	아침에 숲속 학을 바라보았고
暮見止桑鴉	저녁에는 뽕나무 발 너새를 본다
我生既不辰	내가 시절 타고나지 못하였으나
曷敢問穹昊	어찌 감히 하늘을 탓하겠는가?
昊穹罔極恩	하늘의 은혜는 망극한 것을
未報尙可攷	오히려 살펴서 보답할 수 없노라
父母盡劬勞	부모는 낱아 기름 수고하셨고,
祖考取襁褓	조부께선 강보 싸서 길러주셨네
謂我宗祀重	내게 종묘 제사 중함 말씀하셨고,
謂我資稟好	타고난 성품 좋다 하셨었는데
孩提憫其長	어린아이 자라남을 염려하시며
名譽樂其早	명예가 이르리라 좋아하셨지
惟業精于專	오직 학업 정밀하고 전일하라고
勿予侯寒燠	내게 차고 더움 살피지 말라하셨네
我能敏記誦	외우고 기억하기 민첩하였고
又能富文藻	또한 문장 풍부하게 지을 수 있어
偶然擢二試	우연히 양시에 합격을 하니
有如日出杲	해가 마치 높이 솟는 것과 같았다
此時厭俗學	이 때 속된 학문을 싫어하여서
聞見異懷抱	보고 듣기 품은 뜻과 다르기만 해
齋中習遂乖	學솨에서 익힌 것 다 어그러지니
堂上髮漸皓	부모님 머리 점점 하얗게 됐네.
(後略)	

상례를 치르는 당시의 상황을 보는 듯이 그리면서 제복과 제물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다. 또한 늙은 부친이 아들도 없이 치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곁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섬에 내쳐진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감개를 묘사하고 있다. 아침에는 宋나라의 林逋가 서호에서 梅花와 鶴을 사랑하며 세속을 떠나 사는 삶을 유배된 자기의 삶과 대비하며 위안을 삼다가 저녁이 되자 뽕나무 밭의 너새를 생각하며 봉양치 못하는 부모생각으로 鵲羽之嘆²⁵⁸)에 빠진다. 시절을 잘못 만나서 죄를 입었으나 하늘의 망극한 은혜와 부모의 낳고 길러주신 은혜, 조부께서 강보에 쌓인 때부터 길러주신 은혜를 망각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조부께서는 종묘와 명예의 소중함을 이르셨으며, 효행을 행하기보다는 학업에 전념하여 정밀하고 전일하게 할 것을 당부하셔서 소재 자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던가를 상기하고 있다. 다행히 자신이 文藻의 재능이 있어 兩試에 합격하고 願望에 부응하여서 그 기쁨과 광영이 해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재의 학문적 지향이 聖人之學이었기에 당시의 속된 학문과 世俗에서 느껴지는 俗風과는 달라서 결국에는 유배를 오기까지에 이르게 되니 자신의 입신양명을 기대하던 조부와 부모님의 머리는 더욱 희어만 간다고 하였다. 소재는 영민한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학문에 정진하게 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였던 조부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장편의 고시에 절절하게 서술해 내고 있다. 더불어 조부가 준 교훈과 당시의 상황을 적절히 묘사하면서 조부 祥日을 맞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소재의 가족에 대한 각별한 정은 그의 가계를 통하여 오롯한 감정을 확인할 수가 있다. 소재는 조부와 양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未冠의 남동생과 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소재의 유배는 자신은 물론

258) 鵲羽之嘆 : 너새 깃의 탄식이란 뜻. 鵲羽는『詩經』「唐風」의 篇名.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시대를 풍자한 詩. 진도에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음.

가정사 전반의 비극이었다. 남달리孝心과 형제애가 깊었던 그의 가족애에 대한 시상을 다음 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吾父年丙辰	아버님 연세는 병진생
羸瘁自青春	파리하심 젊은 시절부터 이신데
憂居不薑桂	강건하지 못하신 중 상을 당하고
皇望濕脚仁	다리 습진 낫기를 크게 바랄뿐
吾母年丁巳	어머님 연세는 정사생
勞心疾未已	애태워서 병이 아직 가지지 않네
不得顧私親	부모님은 돌아볼 겨를도 없고
萬事懷孔悝	온갖 일을 공회 ²⁵⁹⁾ 위한 子路 맘이네
外祖母誰依	외조모는 누구를 의지 할 것인가
三歲添者稀	삼년동안 찾아움이 드물었네
有弟學未就	동생은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有妹粗得歸	누이는 이제 막 시집갔다네
質直憐病妻	바탕 곧은 병든 아내 가엾기만 해
貧貧無孩提	가난하고 아이마저 없어서라네
上訣父母恩	위로는 부모님 은혜 이별을 하고
下與三者睽	아래로는 세 사람이 뻘히 본다네
我非木石姿	내 마음 목석 같이 무디지 않으니
性情安能怡	이 마음 어떻게 편안하리오.
爰暇爲身慮	어느 겨를에 내 몸을 생각 하겠나
哭之慟所宜	소리 내어 우는 것이 마땅할 뿐
吾非惜一死	내 한번 죽는 것 아깝지 않으나

259) 『論語』, 「先進」, “子路剛強, 有不得其死之理, 故因以戒之. 其後子路卒死於衛孔悝之難.” 공자 제자 子路가 위나라 대부 孔悝의 邑宰가 되었는데 생전에 孔子가 그의 용맹을 걱정하여 집에서 죽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언과 같이 무모하게 싸우다가 죽었다.

恐重不孝累 쌓인 불효 무거워짐 두렵기만 해

(中略)

吾死亦非殤 나의 죽음 요절함이 절대 아니니

賈傳今年亡 賈誼도 금년까지 살았던 것을.²⁶⁰⁾

위 詩는 부모님을 필두로 하여 전 가족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 때문에 전 가족의 상황이 처연하게 된 현실적 모습을 관조적으로 그려놓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 절실하게 드러난다. 제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번민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醉中에 읊은 가족을 그리는 시이다. 부친鴻은 본래 纖弱한 체질로 風濕에 걸려 50세가 넘어 親喪 시에는 상주노릇을 못할 지경이었고 병이 깊어지자 명종17년(1562)에는 서울을 떠나 상주에 내려와 노년을 보내게 되어 상주가 실질적 고향이 되었다. 모친도 자주 배앓이를 하여 정기산을 끊어 복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래 세 사람은 아내와 두 동생이다. 실질적 가장을 잃어버린 그들의 생활상은 절망과 어두움 뿐인 것이다. 尾聯에서 내 몸 돌볼 생각조차 없을 만큼 가족이 그림고 염려되니 소리 내어 우는 것밖에는 없다고 자조하고 있다. 내 몸 죽어 아깝지 않으나 거듭되는 불효가 두려워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漢代의 충신 賈誼²⁶¹⁾의 33세 요절을 자기 삶과 동일한 시각으로 배치하여 차라리 젊어 죽음만 못한 삶을 한탄하고 있다.

이 시는 수사적인 측면에서 앞장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평범한 시어를 과격적으로 구사하여 ‘吾父’, ‘吾母’, ‘有第’, ‘有妹’와 같이 ‘吾’나 ‘有’字와 같

260) 『蘇齋集』 卷1, 169, <醉時率意放筆排悶>.

261) 賈誼(기원전 201~기원전168) : 중국 전한 초기 사람. 洛陽 출신으로서 18세에 이미 수재라는 평판이 높았고, 22세 때에 博士官에 임명, 다시 太中大夫에 발탁됨. 漢의 제도와 역법을 개정할 것을 文帝에게 진언, 周勃 등의 수구파 대신의 반대로 25세에 長沙王의 太傅로 진출. 1년여 후 중앙에 소환되고, 문제의 아들 梁王의 태부가 되어 국사에 관해 상주. 얼마 후 양왕의 낙마로 인한 죽음을 슬퍼하여 병들어 이듬해 33 세로 죽음.

은 술어를 머리에 배열하고 있으며, 부모의 年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써서 소재 시의 특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봉 이수광은 그의 파격을 優體라고 비평하였다.²⁶²⁾

詩의 발상은 어떠한 외물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재된 自我와 융합하여 시가 창조된다. 특히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구속되어 제한된 환경에서 산생되는 심리상태가 좌절과 갈등으로 점철되면서 그 절실함이 시로 표상되고 있다. 소재는 타고난 효자로서 그의 행장을 통하여 볼 때 시종일관 부모에 대한 각별한 情과 凡節을 지켜 효행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가 막 20여년의 유배를 마치고 관직에 복귀 될 때도 부모의 노환을 걱정하여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상소하여 부모 곁에서 모시기를 바라고 있다. 유배의 긴 시간 부모를 섬기지 못한 물리적 상황 말고는 해배 후 각별한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고 효를 다하여 선조 임금까지 감동시키는 모습을 행장에서 살필 수가 있다. 우선 그의 효에 대한 최초 모습은 그가 25세에 금강산 여행을 떠나 여행 중에 받아든 家信을 접하고 지은 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京洛千重路	서울 길은 천겹만겹 멀기만 한데
雲山萬點天	구름 산은 하늘 가득 펼쳐져 있네
淸朝烏鵲喜	맑은 아침 까치소리 기뻐했는데
簿暮雁魚傳	황혼녘에 가족 소식 전하여 왔다
弟妹今無恙	아우 누이 지금 집에 걱정 없다고
晨昏永不愆	혼전성신 허물됨 없다 지마는
一兒遊一月	이제 한 달이나 유람 했으니
(羸)馬也能旋	야윈 말 타고서 돌아갈 때네. ²⁶³⁾

262) 李晬光, 『芝峯類說』 卷13, 文章部 6, “盧蘇齋, 謫珍島時, 有詩曰: ‘天地之東國以南 / 沃州城外數間庵 / 有難赦罪難醫病 / 是不忠臣不孝男 / 客日三千四百幸 / 行年乙亥丙辰慚 / 汝盧守慎將無醉 / 補得公私底事堪’. 一時稱誦, 不啻膾炙, 而句未免優體, 詩可易言哉. 按公乙亥生而丙辰年作此詩. 故云 ‘客日三千四百’ 盖言謫居歲月爾.” (韓國古典批評論資料集, 425-426쪽.)

263) 『蘇齋集』 卷1, 154, <得家信>.

소재 문집에 수록된 시는 「기해유산록」에서 출발한다. 젊은 시절 금강산을 유람하며 쓴 작품에서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효성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듣고 반가운 소식을 예견하였는데 저녁에 짐 소식을 접하게 되어 반가우면서도 가족을 그리는 애틋한 정이 잔잔하게 드러난다. 아우와 누이는 집안에 아무 일이 없고 장남인 소재를 대신하여 昏定晨省을 잘하고 있어 효에 허물됨이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할 것을 알려오는 동생들의 기특한 소식에 한편 다행스러우면서도 오랜 기간 집을 떠나 있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송함과 함께 그리움이 밀려오고 있는 정회를 차분한 어조로 그려냄으로써 내밀한 정회를 살필 수 있게 한다. 결국 말머리를 돌려 집에 돌아갈 결심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효심과 더불어 진한 가족애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효심은 그가 유배되기 직전 丙午年에 지은 아우에게 준 詩에서 살필 수가 있다. 이 詩는 소재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것 같이 부모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 “昏定晨省은 그대가 잘 할 터이니, 내 죽은들 무엇이 슬프리오.[晨昏君善事, 我死復何悲]”라고 쓰고 있다.²⁶⁴⁾ 소재의 시에서 혼정신성이 자주 나타나는바 이것이 소재가 바라는 효의 실천 덕목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해배가 되어 복직의 영예를 찾았으나 그는 20여 년 동안 부모를 지근에서 모시지 못한 불효를 통감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부모님의 여생을 가까이에서 모시기를 진정으로 회구하였다. 그의 효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평생 동안 사모하는 타고난 효심이었다.

소재의 유배 시절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지극한 사모의 정과 죄책감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丁未年(1547) 순천 유배기에 시이다.

已誤乾坤愛 이미 천지에 대한 사랑 그르쳤고

264) 『蘇齋集』 卷1, 158, <又贈無悔>.

難爲父母情	부모의 정도 보답하기 어렵게 됐다
滄茫看我弟	창망히 동생을 바라다보니
莽走送君兄	분주하게 형을 전송 하고 있구나
泉下逢顏面	황천 아래 다시 얼굴 대하게 되면
人間決死生	그 땐 인간 생사는 결정됐겠지
遡歸侍二老	어서 가서 두 노인네 곁에 모시고
明報子心平	자식의 평안한 맘 밝혀 드리렴. ²⁶⁵⁾

이 詩는 유배지로 떠날 때 동생의 전송을 받으면서 ‘乾坤’의 시어를 통하여 임금과 가문,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직과 유배로 결국 불효와 불충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소재가 평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孝와 忠을 다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처참한 현실 앞에 헤어지면 다시 황천에서나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 두려움은 부모를 두고 떠나는 것이기에 동생과 이별을 하면서는 차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자기를 대신하여 부모 봉양을 당부하고 있다. 아마도 당시 소재 스스로 유배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유배 길 黑石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오래오래 부모님 생각하 자니, 형제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찌 홀로 멀리 떠나와 있나, 화령 땅이 바로 우리 선영이로다.[永懷我父母 兄弟居王京 胡爲獨遠遊 化寧吾世塋.]”²⁶⁶⁾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혼자 멀리 유배 가는 신세가 되자 부모에 대한 사모의 심정과 형제를 한양에 두고 홀로 떠나는 심사가 더욱 애달프게 드러나게 된다. 화령 땅이 조상을 모신 선영임을 상기하는 구절이 가족애가 더욱 간절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265) 『蘇齋集』 卷1, 163, <道中別舍弟>.

266) 『蘇齋集』 卷1, 155, <黑石吟>.

다음은 부친의 생신을 맞아 지은 시다.

年年十二月	해마다 십이월이 찾아오면
和氣滿中堂	화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고
棣萼欣無故	형제간에 무고함을 기뻐하고
鷄鳴慶有康	혼정신성 건강하심 경축하였지
國憂還自棘	나라는 어지럽고 몸은 형극에 있으니
家報又誰將	집안소식 또 누가 전해주려나
獨坐千山裏	깊고 깊은 산속에 홀로 앉아서
空懷獻北岡	빈 마음만 북쪽 향해 부모님께 드리네. ²⁶⁷⁾

위의 시는 31세 되던 해에 을사사화로 충주로 귀양 가면서 읊은 시이다. 부친의 생신을 맞아 혼정신성을 못하게 된 자기의 처지를 괴로워하면서 부모님의 건강하심과 형제간의 무고함을 빌고 있는 소재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산속에 혼자앉아 쓸쓸히 북녘을 향하여 축하드리고 있는 처절한 심상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다.

그의 부모에 대한 思親의 정은 적거지의 환경이 고독과 회환에 젖어있을 때 불현듯 부모에 대한 걱정과 사모의 정회를 시로 읊었다. 유배 온 후에 두견새 소리를 듣고는 그 애처로운 시상을 “애처롭게 병들어 계신 부모님 만 리 멀어 소식 부칠 수 없네.[哀病雙親在 音書萬里稀]”라고 읊고 있다.²⁶⁸⁾

어느 날 모임에서 현관에 있는 韻으로 戀君과 思親을 시로 읊고 있다. 소재는 “임금님 은덕 장막 안서 나오는데, 부모 근심 편지 속에 드러나 있네. [君恩出內幄 親病進中書]”²⁶⁹⁾라고 하고, 頸聯에서는 老萊子の 옷이 헤질까 봐 걱정된다면서 해배되어 못다 한 효도를 바치기도 전에 자신의 유고나 부

267) 『蘇齋集』 卷1, 157, <家君生辰在觀音寺, 十二月>.

268) 『蘇齋集』 卷1, 163, <杜鵑>.

269) 『蘇齋集』 卷5, 255, <次西原板上韻. 奉呈牧伯欽哉>.

모님이 별세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노래자의 헤진 옷을 자신의 처지로 묘사 하였다. 그의 老萊子에 대한 시어 선택은 훗날 槐山으로 이배되어서도 엿보인다. “내일 아침 노래자가 되어, 응당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야지[明朝老萊子 應悅二人心]”²⁷⁰⁾라고 읊고 있다.

소재의 뇌리에 잠재되어 있는 사친의 정서는 꿈속에서도 형상되어 나타나고 있다.

雙親分席寢樓中	양친께서 자리 나눠 누워 계신 침실 안에
一稚隨身臥檻東	한 아이가 난간 동쪽 따라 누워 함께 있네
辛酉中冬廿夜夢	신유년 겨울 스무 날 밤 꿈을 꾸니
記來非吉亦非凶	길흉을 알 수 없어 기억해서 적어둔다. ²⁷¹⁾

그러나 소재가 갈망한 解配의 조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길이 없고 부모님의 年齒는 높아만 가는 현실을 자탄하면서 부자지정의 天倫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자학과 원망으로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다음 시는 소재가 귀양 온지 15년이 되는 해 47세(1561)에 지은 시이다.

自我入此島	내가 이 섬에 들어온 뒤로
幾番書此書	몇 번이나 이 글을 썼었던가
一書斷百魂	한 장 글 쓸 때마다 온 넋 끊어지니
有魂能幾歟	남은 넋은 얼마나 되겠는가
今既十五年	이제 이미 십 오년을 지나니
尙能書何歟	편지를 써본들 어찌 할 건가
豈天獨不忍	하늘은 어찌하여 차마 내게만

270) 『蘇齋集』 卷5, 255, <次懷仁板上韻>.

271) 『蘇齋集』 卷4, 235, <夢覺泣書>.

以慰父母且	부모님 위로하게 못하는가
顧父母得書	생각건대 부모님 이 글 받으시면
見之必沾袂	웁으시고 또 옷깃 적실 것이라
袂沾何時休	옷깃 적시실 날 언제 그치려나
我願天喪予	하늘이 나를 버리기 바라노라
(中略)	
溫清不可親	아침저녁 부모님 봉양 못해도
甘旨不可虛	맛있는 음식 비게 할 수는 없지
(中略)	
今昕遇人行	오늘 아침 인편을 만나서
盡發所貯儲	모아둔 것 모두를 보내려 한다
(中略)	
小鰻十介熟	작은 전복 열 개나 익혀 두었고
大鯰三尾脍	큰 송어 세 마리 포 떠 두었다
濟柑兩八果	제주 귤 여덟 개 썬 두 꾸러미
海苔九束蔬	바다 김 나물은 아홉 묶음
求寧一朝驟	어떻게 하루아침 급히 구할까
積以累月餘	여러 달 조금씩 구한 거라네. ²⁷²⁾

이 시는 귀양 온지 15년이 되던 1561년 12월경에 쓴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회한을 비탄해 하면서 그동안 서신을 보낼 때마다 미어지는 통한의 슬픔이 이제 解配의 희망을 상실하자 좌절을 넘어서서 하늘을 원망하고 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녀이 나갈 정도로 애달파서 “남은 녀이 이제 얼마나 되는가, 하늘이 유독 나에게만 천륜을 거역하는 시련을 주는가” 하고 울부짖으며 차라리 하늘이 자신을 버려주기를 바란다고 절규

272) 『蘇齋集』卷4, 135, <家書書訖泣書三十韻>.

를 토하고 있다. 부모께 불효하는 것도 가슴 아프고 보고 싶은데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시어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15년의 유배생활의 아픔이 어떠한가를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다. 그래도 그 슬픔 속에 빠져 있을 수만 없어서 매일매일 부모님 생각 날 때마다 조금씩 모아둔 것들을 챙겨 인편에 보내면서 자신의 아픔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다행히 고향 가는 인편이 있어 그동안 모아둔 해산물과 제주 꿀, 나물 묶음을 모아 꾸리는 모습을 남의 일을 바라보며 객체화해서 표현함으로써 감회를 평정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몸은 멀리 있어도 부모를 섬기고자하는 지극한 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재의 부모 섬김은 훗날 해배 후에 그의 바램대로 實踐躬行하였다.

소재가 부모를 봉양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면 극진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퇴근하고 돌아와 짧은 옷을 입고서는 부엌에 들어가 몸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바쳤으며 벼슬이 현달한 뒤에도 일찍이 폐하는 일이 없었다.²⁷³⁾

소재의 효행은 해배 후 관직에 복귀한 뒤에도 부모봉양을 위하여 수차례 사직을 청하여 20여 년 동안 지근에 모시지 못한 효를 다하려 하였다. 그의 효행은 여러 행록에서 살필 수 있는바 해배 후 그가 부모에 대하여 행한 각별한 정성은 실록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소재는 17세(1531) 되던 해에 스승인 탄수 이연경(1484~1584)의 만사위가 되었다. 부인 강릉 이씨와는 乙亥 同年으로 60여년을 살면서 기쁨보다는 애환의 연속이었다. 다음 시에는 혼인한 지 16년 만에 後嗣도 없이 생사를 기약조차 할 수 없는 別離를 당하여 생이별 하게 되는 부인의 애절함을 묘사하고 있다.

273) 李肯翊, 『燃藜室記述』卷18, “宣祖朝記事本末: 蘇齋色養悅親無不用極 仕退還家 着短衣 廚舍 躬執爨具 甘滑以進 雖至達官未嘗廢也.”

結髮爲夫婦	머리 얹고 부부가 되었건마는
吞聲永訣離	소리 삼켜 길이 서로 이별하였네
他生猶未卜	다음 생은 아직도 점칠 수 없고
同穴已難期	동혈 기약 이미 지킴 어렵겠구려
黑髮霑殘淚	눈물로 편지 젖어 먹이 퍼졌고
行斜亂筆辭	줄 비뚤고 사연들이 어지러웁다
執書憐爾寡	편지 받고 혼자 있음 가련해하니
無子可從之	따를 만한 자식 하나 없어서라네. ²⁷⁴⁾

장인 편지에 동봉된 아내의 편지는 눈물로 얼룩져 먹물이 퍼져 있는 짙 짙한 사연이었다. 유배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부부간 함께 묻히기 조차 어려우리라는 처연함을 알기에 더욱 괴롭기만 한 자신의 운명을 자탄하고 있다. 이럴 때 남편 없이 홀로 있는 아내에게 아이라도 있으면 위안이 되련만 그마저도 없으니 더욱 가련할 뿐이다.

다음 시에서도 소재는 아이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부인의 애달픔이 가련해서 그 안타까움을 시어에 직접적으로 토로해 놓고 있다.

婉婉門闌弊	고운 모습 문턱 안에서 피폐해지고
龍鍾狂獄陵	못생긴 이 몸 감옥 속에서 쇠잔해진다
卿卿念誰復	경을 경이라 누가 다시 생각하겠나
婦婦記吾曾	부인을 부인이라 나는 기억한다오
義已殘生墜	의는 이미 저무는 생에서 사라져가도
情靡九死懲	정은 여러 번 죽어도 억누를 길 없네
無兒可從老	늙은 몸 따라나설 아이조차 없으니
人世住難能	세상살이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²⁷⁵⁾

274) 『蘇齋集』 卷1, <得聘君書及妻信>.

17세에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었건만 天理를 역행하여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희망을 앗긴 채 문지방 안에서 청춘을 보내야만 하고, 남편은 죄인의 몸으로 척박한 귀양지에서 쇠잔해가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자식조차 없이 홀로 살아가는 아내의 한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도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사랑에는 여러 번 죽는다하더라도 변함이 없음을 읊고 있다.

義已如端木	의는 이미 단목하고 똑같으며
恩何啻直卿	은혜가 어찌 직경 뿐이겠나
頑甥辱教訓	못난 사위 가르침을 욕되게 하고
順婦誤平生	순종하는 부인 평생 그르쳤구나
薄命紅顏落	박명한 홍안은 시들어가나
深情白骨明	깊은 정 백골 돼도 분명하리라.
三從已無計	삼종지도 이미 생각 할 수 없으니
死別莫吞聲	죽어 이별해도 울음 삼키지 못하리. ²⁷⁶⁾

이 詩는 밤에 자리에 앉아 장인이자 師父인 탄수 선생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고 지순한 아내의 평생을 그르친 자책을 회한의 눈물로 써내려가고 있다.

首聯에서 端木을 등장시킨 것은 공자의 제자인 端木賜(子夏)와 스승 간 나이차가 31세였고 孔子의 총애가 각별하였음을 생각하고 탄수와의 나이차가 31세임을 묘사하여 사제 간의 情과 義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朱子의 사위인 直卿이 장인에게 한 도리를 떠올리며 은혜를 감사하면서 공자와 단목, 주자와 직경과의 관계에 자신과 스승 탄수와의 관계를 동일시하는 자부를

275) 『蘇齋集』 卷4, 225, <荊妻>.

276) 『蘇齋集』 卷1, 166, <夜坐泣書三律>.

은근하게 내비치고 있다. 頡聯은 그러나 스승의 큰 사랑과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고 유배 죄인이 된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 또한 마음 고운 부인은 자신을 만나 일생을 그르쳤다는 자책으로 아내의 비애를 대신 아파해 주고 있다. 顛聯은 비단 흉안이 시들고 죽어 백골이 되더라도 아내와의 사랑은 변함없으리라고 부부의 정을 애뜻하게 형상화하였다. 尾聯은 아들이 없어 三從의 도리를 다 할 수 없음과 죽어 同穴에 묻힐 수조차 기약할 수없는 사별의 아픔을 예견하고 부인에 대한 憐憫의 괴로운 심회를 형상화하고 있다.

소재는 아내와 22년의 이별을 겪었으나 해배 후 해로하고 宦路의 정상에 있다가 76세 되던 3월12일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뜨자 그해 4월7일 부인 죽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운명하니 천상의 배필이었다. 위 시에서 각별히 두터운 戀婦의 지고한 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러한 진실한 감정의 시적 형상화는 오랜 세월 두보를 읽어 두보의 인생 역정과 두보의 시적 감성이 소재의 정신세계에 融解되어 드러난 것으로 보여진다.

소재 가족의 정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아우에 대한 각별한 정이다. 동생 無悔 盧克愼은 소재가 유배되자 형을 대신하여 가정을 추수리고 유배지로 형을 수차례 찾아와 가정의 근황을 전하고 위로하며 실질적인 가장의 일을 맡아왔다. 소재에게는 남동생인 극신과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극신은 형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아들 노릇을 하였다. 소재는 결혼 후 후사가 없자 아우 극신의 둘째아들 大海를 양자로 입적시키고 代를 잇게 했다.

三夜魂交涉	깊은 밤 정신 서로 통하였는지
今晨鵲報新	오늘 새벽 까치가 새 소식 전하네
悲歡千里面	천리 먼 길 얼굴 반겨 더욱 슬프고
驚訝九原身	구천의 몸이라 놀라 탄식 나온다
坐久方成問	오래 앉아 있다 겨우 질문 터지니
情多每失陳	정이 넘쳐 매번 할 말 잃게 되는데

翻思在別日 이별 하던 날들 생각 복잡하더니
 消息苦難眞 소식으론 실제 모습 헤아리기 어려워라 277)

깊은 밤 잠 속에서도 서로 보고픈 맘이 통했는지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마침 까치우는 소리와 더불어 동생이 찾아왔다. 서울로부터 천리 먼 길을 달려온 아우를 대하니 반갑기도 하면서 반가움 때문에 더욱 슬픔이 크고, 어쩌면 죽어서야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기에 자신을 구천의 몸이라 묘사하면서 서로의 모습에 놀라 탄식하는 상황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다. 막상 만났으나 너무 반갑고 막막해서 수없이 되 뇌이던 많은 말들이 하나도 말로 되어 나오지 않는 기막힌 정황을 절실하고도 실감나게 묘사한다. 미련에서는 유배 온지 얼마 되지 않는 때라서 이별할 때의 심란했던 장면들이 그대로 생각나면서도 또 그동안 헤어져 있어서 변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유배객의 다양한 심상을 읊고 있다. 먼 길 찾아온 동생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유배객으로 아직 익숙해지기 직전의 심상이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서 소재의 시적 표현의 뛰어난 확인하게 한다.

啄剝二人至 문 두드려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我目如離婁 내 눈이 마치 이루 눈인 듯
 相對豈夢寐 마주하니 이게 바로 꿈 속이던가
 不語各沾襦 말없이 서로 옷깃만 적시네
 兄曰親苴衰 문기를, “부모님 여위고 쇠약하시나”
 弟曰妹布嚮 동생 답이, “누이는 배를 짹니다.”
 兄曰爾衣舊 이르기를, “너는 여전하구나.”
 弟曰容未枯 동생 답이, “얼굴은 마르지 않으셨소.”278)

277) 『蘇齋集』 卷1, 156, <舍弟自京來會>.

위 시는 『沃州二千言』 중 일부분이다. 일행과 같이 들어온 동생이 어찌나 반가운지 눈 밝기로 유명한 『孟子』에서 離婁의 눈처럼 눈이 번쩍 빛났다는 의미를 담아내면서 시적 감정과 의미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 반가움의 정회를 부모님과 가족의 안부 묻기를 대화체의 시형을 빌려 풀어감으로써 생생하면서도 시적 긴장감을 형성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묻고 답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걱정하는 형의 마음과 형을 위로하는 형제의 정이 오롯이 배어 나오도록 시적 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

소재의 동생에 대한 우애와 기대가 유별 한 것은 천성적인 것 외에도 동생이 자신을 대신하여 가정을 돌보고 있고, 孤島 적거지에서 유일하게 가정사를 전해주는 가장 기다려지는 사람이었고 의지처였다.

兄曰嗟予季去鄉	형이 말하길 아 내 동생아! 고향 가는 길이구나
白雲飛處是高堂	흰 눈 날리는 그 곳 바로 부모님 계시는 곳이네.
酒寬詩遣都虛語	술과 시로 마음 푸다는 말 모두 공허할 뿐
醉裏孤吟更熱腸	취해 홀로 읊조리니 더욱 애간장 타네. ²⁷⁹⁾

이러한 동생이기에 떠날 때는 더욱 아쉬워서 헤어짐의 안타까움을 술로 달래보려고 한다. 그러나 술로 달래고 시로 맘을 다스린다는 말이 다 허망한 말일 뿐임을 절감한다. 도리어 혼자서 술 취해 시 읊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간장이 다 타는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쩌면 만나는 반가움보다 다시 헤어지는 외로움이 더 큰 것을 절감하면서 그 정회를 시어에 다 풀어놓고 있다.

278) 『蘇齋集』 卷2, 184, <沃州二千言>.

279) 『蘇齋集』 卷1, 159, <別無悔 醉後作>.

癸丑春三月	계축년 봄 3월에,
吾王躬籍田	임금께서 적전에서 활을 쏘셨다.
奉先誠是本	제일 먼저 정성 다함 근본이 되고
示下食爲天	백성을 먹이심은 하늘이라서네
萬物欣欣觀	만물이 기뻐하며 지켜보고 있고
千官肅肅聯	모든 관원 엄숙하게 나란히 섰다
羈臣立孤嶼	타관살이 신하는 외딴 섬에 있어
長祝億斯年	이 해를 기리면서 길이 경축하노라
白日憶舍弟	밝은 태양 아래 아우를 생각하고
靑雲觀國賓	푸른 구름 아래 높은 이들 바라본다
應須稱得士	모름지기 선비 등용 칭송 받으면
亦足見榮親	또한 부모 영화로움 족하게 된다
朝報稀千里	조정 은혜 천리 밖엔 드물겠지만
家書靜數旬	집안 책은 여러 날 고요하겠다.
長歌望北斗	북두를 바라보며 길게 노래 부르니
江海有通津	강과 바다 모두 나루로 통하고 있네. ²⁸⁰⁾

癸丑년 3월에 無冠이었던 동생 무회가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달려가 축하해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생각이 있어서 시를 쓰고 있다. 임금이 籍田에서 활을 쏘아 하늘과 선왕에 대한 정성을 알리는 의식을 통하여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관직에 임하는 아우에게 환로의 새 출발을 일깨워주고 있다. 임금이 활을 쏘아 사냥을 하신다는 것은 백성에게는 애민이었다. 이러한 왕실의 위엄으로 아우의 관직생활의 시작을 축하해 주고, 이제 관직에 임하는 아우에게 환로의 새 출발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외딴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갈수 없지만 당당히 급

280) 『蘇齋集』卷3, 207, <憶弟有感>.

제하여 관직에 오르는 동생과 조정의 객들을 연상하면서 이 해를 기리어 축하하고 있다. 멀리 해도에 있는 자기에게는 해배의 은총이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께는 훌륭한 선비의 등용이요 집안에는 부모께 영화로움을 드리는 일이라고 하면서 강과 바다 모두로 나루가 통한다고 하여 세상사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祝辭를 맺고 있다.

해배 후에는 동생과 관계된 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천리 해도를 찾아와 고생했던 동생에 대한 지극한 정은 그의 청을 물리치지 못하여 훗날 청렴하지 못하다는 구설을 당한 바도 있었다.²⁸¹⁾

(2) 戀君之情

소재의 仁宗에 대한 戀君의 정은 각별한 것이었다. 三場 壯元의 자부심은 한껏 의욕에 불타 성심을 다하여 조정을 섬기고 盡忠報國의 포부를 펼쳐보고자 함이었다. 독서당을 거치고 동궁의 侍講院 司書에 임명되자, 『書傳』, 『資治通鑑綱目』, 『史記』, 『近思錄』 등을 시강했다. 孝悌에 진력 할 것과 賢邪를 分辨하는 이치와 精一의 功을 다하여 항상 道心을 중심으로 人心을 경계하도록 반복하여 들려주었다. 205일간의 侍講기간은 동궁의 聖君으로의 자품을 확인하고 동궁의 학문 진작과 임금으로의 덕망을 갖추는데 필요한 학문 전수에 성심을 다하였다. 그러나 등극 후 8개월 만에 닦친 인종의 昇遐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뒤를 이은 어린 明宗은 문정왕후의 섭정을 받았는데 小尹 일파의 모함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나 많은 인사가 희생되었고 소재도 같은 운명이었다. 소재의 仁宗에 대한 戀君의 정은 각별하여 진도 謫居시나 해배 후 조정 대신으로 활동 할 때도 인종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간직하고 시로 슬회하였다. 인종의 승하 시에 挽詞를 지어 哀哭하였고²⁸²⁾, 인종의 禫日²⁸³⁾이나, 練日²⁸⁴⁾, 諱日²⁸⁵⁾에 연군의 정을 소회로 남겼다. 그의 인종에 대

281) 『宣祖實錄』 卷8, 七年 甲戌條, “右相盧守愼 自爲吏曹判書 因厥弟克愼之請 多不廉之名.”

282) 『蘇齋集』 卷1, 155 <仁宗大王挽詞 二首>.

283) 『蘇齋集』 卷2, 171, <仁宗大王禫日>.

한 忠心은 해배 후에도 한결 같았다²⁸⁶). 또한 인종 妃인 仁聖王后가 위독하
자 소재는 侍藥廳의 都提調가 되어 병을 간호하기도 하였다.²⁸⁷)

春宮三十載	동궁 30년 동안
一德久彌潛	그 덕이 오랫동안 두루 미쳐서
孝友心常歎	효와 우애의 마음 늘 부족함을 느끼셨고
聰明學不厭	충명하여 배움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萬幾初整理	정사를 처음부터 간추리시어
期月已磨漸	달이 지나 이미 진전된 바 있으셨다.
欲識仁聲遠	仁의 소리가 먼 데까지 이르하고자 하시어
絲綸發舊籤	詔書로써 오랜 예언기를 내셨다.
宅要三年默	집에서 3년간 묵고 하고자 하였으나
居猶五月嚴	오히려 5월의 서리처럼 지엄하셨습니다.
遽然憑玉几	갑자기 옥좌에 기대신 채
不復挽龍髯	다시는 용의 수염을 만지지 못하셨습니다.
窮谷悲號合	궁벽한 골짜기 애통함 가득하고
因山儉禮兼	인산에는 검소한 예를 겸하셨습니다.
丁寧有遺教	정녕 가르침을 남기셨으니
盛德益謙謙	덕의 성함이 더욱 겸손하고 공경하도다. ²⁸⁸)

동궁으로 30년을 지내다가 부왕 中宗의 뒤를 이어 寶位에 오르고 8개월
만에 승하하자 그 애통함이란 모든 이가 한결같았다. 소재는 동궁과 1515년

284) 練日에 지은 詩는 中宗, 仁宗에 관한 2首가 있다. 卷1, 156, <中宗大王練日 在水落庵 11월15일>; 卷1, 160, <仁宗大王 練日隨家君在遠川廬 按 7月 1日>.

285) 『蘇齋集』 卷2, 188, <仁宗大王諱日>.

286) 『蘇齋集』 卷6, 280, <赴孝陵途中 二絶, 戊寅二月十四日>; 卷6, 280, <奉審孝陵呈權 南曹>.

287) 「年譜」, “先生六十三歲, 仁聖王后昇遐.”(宣祖10 丁丑)

288) 『蘇齋集』 卷1, 155, <仁宗大王 挽詞 二首>.

생 동갑의 나이로 侍講을 통하여 깊은 인연이 축적되었다. 소재는 이 詩를 통하여 동궁시절 仁宗이 부왕과 문정왕후에게 효성을 다하였고 이복동생(明宗)에게 각별한 우애를 보이고 있음을 칭송하고 있다. 또한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배움을 싫어하지 않았으며 등극 후에도 政務를 채잡아 얼마 후에는 조정의 권위를 관장할 수 있었다고 술회하고 仁의 소리가 자자로 왔을 때 寶位 8개월 만에 逝去하였음을 애통해 하고 있다.

因山 시에는 검소하게 장례를 마치어 서거 후에도 겸손함과 공경함을 본 보이시며 德의 盛함을 남기셨다고 적고 있다. 당시 조정은 중종 승하 후 1년도 못되어 서거한 仁宗에 대해 문정왕후와 小尹派의 견제에 의하여 장례가 지극히 검소하게 치러졌었다.

涪灘七月朔	군탄 칠월 초하룻날,
孝陵初諱辰	효릉의 처음 휘는 진이셨지.
空流沒世澤	헛되이도 죽을 때까지의 은택은
不降在天神	천신에게서 내려오지 않는구나
曉樹生風切	새벽 숲에 바람일어 애절한데
幽庭滴露頻	깊은 뜰 이슬방울 뚝뚝 떨어진다.
懷沙忍無賦	충의로 죽을 맘에 차마 시 짓지 못하고
憔悴舊微臣	초췌하게 옛 신하만 앓아 있구나. ²⁸⁹⁾

이 시는 戊辰年(1548년) 칠월 초하룻날 지은 시이다. 仁宗에 대한 회한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屈原처럼 忠義의 마음으로 물에 빠져 죽지 못하는 못난 신하의 심상을 애절하게 읊어 놓고 있다. 하늘이 소재에게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은총을 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초췌한 신하만이 남아있음을 굴원의 마지막 작품 <懷沙>篇을 들어서 묘사하고

289) 『蘇齋集』 卷1, 160, <仁宗大王練日 隨家君在遠天廬>.

있다. 임금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못남이 너무 맘 아파서 詩조차 지을 수 없는 자기 모습을 한탄하고 있다.

仁宗을 모시고 펼치고자했던 꿈은 귀양지에 묻혀 버려서 현실에서의 희망을 접고 있다.

十載拘孤島	십 년간 살아온 외로운 섬,
重雲閣二陵	이릉에 꼭 끼어있는 무거운 구름.
恩波諒及遠	은혜 물결 먼 데까지 미친다는데
哀涕只如曾	슬피 읊이 다만 일찍이 이와 같았다.
耳任楊狂熱	귀는 사나운 버들 열기 그냥 두지만
心須柳咎懲	맘은 바로 버들 허물 미워하리라.
太平萬歲祝	만세에 태평하길 기원하지만
臣實懦猶能	실상 나약한 신하가 있을 뿐이다. ²⁹⁰⁾

이 시는 소재가 귀양간지 十년이 되어가던 13일 밤에 책을 읽다가 만감이 일어 감회를 시로 적고 있다. 소재가 환로에 있을 때 세종과 효종을 모신 二陵을 찾아갔던 감회를 읊고 있다. 이미 그 때 이릉 위로 무거운 구름 잔뜩 끼어 있었는데 은혜의 물결 널리 펼쳐져 나라가 잘 되리라 여기다가 슬프게 울 일이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탄식이 행간에 비치고 있다. 옹지 못한 상황에 귀는 그냥 듣고 있을지라도 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忠義가 드러나지만 멀리 섬에 갇힌 유배객 신세라서 자신을 나약한 존재라고 한탄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廟表全心德	묘호는 마음의 덕 전체를 나타내고
陵加百行源	능호는 백행의 근원을 더했네.

290) 『蘇齋集』 卷4, 224, <十三夜 高坐觀書 百慮紛然 信筆書之> 凡七首.

衣裳圖不見 의상은 그림에도 볼 수 없고
 社稷欲無言 사직은 말을 하려 하지 않는다.
 天斲逾年壽 원망스러운 하늘은 한해도 못 넘기고
 人含萬古冤 사람들은 만고의 원한만 머금었네.
 春坊舊僚獨 춘방의 옛 신하 중에
 唯有右司存 오직 우사서만 남았구나.²⁹¹⁾

이 시는 소재 만년에 지은 老臣의 忠心이 스며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首聯은 仁宗과 孝陵에 대한 설명이다. 마음의 덕과 百行의 根本은 능호인 孝를 의미한다. 위 詩는 해배 후 무한한 세월이 지나 동궁 侍講 시절 함께한 유희춘 등 옛 신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아 노구를 이끌고 옛날을 회상하고 있다. 이 老臣의 애절한 추억을 교산은 “쇠와 같이 굳세고 옥처럼 강하다”²⁹²⁾고 평하였고 이수광은 “글자 하나에 눈물하나”²⁹³⁾라고 처연한 시상을 설명하고 있다. 율곡이 『石潭日記』에서 소재의 유배기의 시는 忠君과 愛親의 지극한 정감에서 우러나왔다고 평했듯이²⁹⁴⁾ 그의 시는 부모, 아내, 형제 그리고 仁宗에 대한 戀君의 情에서 발로되었다함은 적의한 평이라고 본다.

계미년 모친상을 마치자 선조는 그 이튿날로 좌의정에 제수하여 소재를 호출하였다. 그러나 11월부터 해를 넘겨 4월까지 무려 11회나 사직을 청하여 나아가지 않자 5월에는 승지를 보내어 “신하가 임금에 대한 도리는 죽는 뒤에나 그친다.”고 간곡히 회유하자²⁹⁵⁾ 할 수 없이 서울을 향해 올라오게 되

291) 『蘇齋集』卷6, 273, <孝陵端午祭>.

292) 許筠, 『惺所復頤藁』, “金悍玉剛”

293) 李晔光, 『芝峰類說』, “盧蘇齋於仁廟在東宮時, 爲右司書. 晚年祭孝陵詩曰: 廟表全心德/陵名百行源/衣裳圖不見/社稷欲無言/天斲逾年壽/人含萬古冤/春坊舊僚屬/唯有右司存 可謂一字一淚矣.”

294) 李珥, 『石潭日記』, 丁卯年 10月 丙戌日. “守愼敵中學問益精. 有時吟詠, 多發於忠君愛親之至情.”

295) 『蘇齋先生年譜』, “先生七十歲 備忘記曰: 予不圖左相辭職, 至於如此, 予心惘然若自失. (中略) 古之大臣, 以天下爲己任. 故其言曰 死而後已. 是豈不知止足之道, 而乃如此耶. 蓋其義理當然也.”

었다. 이때 나이 70세였다.

一宿嶺下縣	하룻밤 고개 밑 현에 자는데
縣樓微雨來	현의 누각엔 가랑비 내리네.
山容主屹角	산 모습은 주흘산 봉에 모아졌고
水氣龍湫哀	물 기운은 용추의 슬픔이네.
亂世郡王聖	어지러운 세상 군왕은 성군인데
迷途老病催	아득히 먼 길로 병든 몸 재촉하네.
去留均失意	가고 머무름에 다 뜻을 잃어
沾酒重徘徊	취한 듯 또다시 서성거리고 있다. ²⁹⁶⁾

이 시는 그의 나이 70세 되던 5월에(1584) 모친상을 마치고 선조가 좌의정으로 부르자 명을 따라 서울을 향하면서 지은 시이다.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가되지 못하자 결국 상경하면서 노구를 이끌고 龍湫縣에서 하룻밤을 유하며 지은 시이다. 起句에서는 현의 누각에 가랑비내리네'라 하여 淸潤함과 쓸쓸함을 나타내고 있다. 頷聯에는 용추에 들어 주흘산의 기상을 읊고 있다. 용추폭포와 주흘산을 대구로 처리하여 배경의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다. 頸聯에는 난세에서 임금을 보필하지 못하는 老臣으로의 나라 걱정과 時俗의 상심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은 성군인데 시대는 난세라고 평했다. 70노구를 이끌고 정사를 살피기가 결코 쉽지 않고, 병든 노구는 가늘 힘조차 벽참을 알 수 있다. 結句에는 인간의 삶이 다 가고 오는 중에 초심이 꺾이고 뜻을 잃었음을 말하며 앞으로 헤쳐 갈 정사와 난국에 대한 번민을 괴롭게 읊고 있다. 전체의 시편이 가식 없이 수졸하며 충후한 노신의 충정어린 심회를 묘사하고 있다. 李敬儒는 『滄海詩眼』에서 이 詩를 두보의 경지에 들 어선 것이라 평하였다

296) 『蘇齋集』 卷6, 278, <龍湫院樓>.

3) 挫折과 超克의 情懷

靑雲의 이상은 政治的 外變으로 실각되고 현실은 격리된 유배생활에서 오는 疎外感과 孤獨感, 내적 갈등에서 야기되는 고난과 역경이 소재의 유배생활 전반의 삶에서 흐르고 있다. 유배생활에서 겪어야했던 호구의 기본적 곤궁함으로부터 환경적 제약에서 오는 울분은 그의 처절한 좌절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차츰 順命意識으로 변환되면서 체념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의 체념은 불현듯 일어나는 학문과 창작 욕구에 비장한 불길로 변지고 고스란히 유배기의 학문과 詩作으로 승화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운명을 극복하고 초탈하여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소재의 流配文學을 탄생시킨다.

魁科로 출발한 소재의 관직생활은 仁宗의 갑작스런 서거로 좌절당하고 만다. 李芑를 파직시켰던 일은 반대파의 보복으로 이어져 도리어 부정하고 사의를 일으키기를 좋아 한다는 이유로 파직당하고 만다. 이로 인하여 자기내부에서 일어나는 모순에 의한 심한 갈등으로부터 이를 극복해 내려는 몸부림을 문학으로 표출해내고 있다. 흔히 비극적 충신이었던 굴원의 택반음의 시를 소재와 비견시키고 있다. 소재 문학은 현실의 모순에서 오는 갈등으로부터의 분노로 출발한다. 그의 분노는 술과 시문에 의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 할 길이 없었고 결국 20여년이라는 긴 旅程의 적거는 그의 분노를 순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삶을 긍정하게 만들고 모순을 학문연찬의 기회로 승화시킨다.

소재시의 변화를 살펴보면 순천으로부터 진도로 이배된 유배 3년째부터 침울하고 좌절에 빠진 그의 시상을 볼 수 있다. 순천 당시만 하더라도 解配의 희망을 잃지 않았으나 진도 이배 후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처절하고 침울한 것이었다. 진도이배 2개월만인 丁未(1547) 11월에는 친구 유희춘이 양재역벽서사건으로 濟州道에 절도 안치되었다가 부모가 곁에 산다는 이유

로 종성으로 이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이듬해에는 스승이며 장인인 탄수선생의 부음을 듣게 되고 동서이며 동문수학한 강주선의 杖殺소식은 소재를 그의 절망 상태로 빠지게 하였다.

소재는 유배 온지 다음해에 장인이며 스승인 이연경의 부음을 접하게 되는데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아들이 없이 딸만 셋인 이연경의 죽음은 소재에게 충격이었으니 만사위가 되어 유배지에서 임종은 커녕 상례조차 치루지 못한 회한으로 자책에 빠져든 것이다.

痛哭寒宵不肯噉	찬 밤에 통곡하니 날은 밝지 않고
大風洪水倚崑崙	큰 바람 큰 물결은 곤륜산에 의지하네.
須臾頃忍生留世	잠시인들 어찌 세상에 살아남으랴
十六年沾教在門	16년 동안이나 가르침 받았는데. ²⁹⁷⁾

소재가 순천에 유배되어 있을 때 장인의 서신과 동봉된 아내의 편지를 대하고 그 悲感을 시로 적고 있다 다시 진도로 이배된 후에 받은 장인의 부음은 스스로의 한계를 확인 한 것이다. 밤새워 통곡해도 날은 밝지 않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함에 그가 받는 정신적 좌절은 큰 것이었다.

소재의 비극은 乙巳土禍를 기점으로 하여 연이어 촉발 되었다. 조부는 소재의 파직소식을 접하고 그 이듬해에 그 충격으로 별세하고 장인 이연경은 만사위가 유배된 상태에서 후사도 없이 下世하자, 셋째사위 강유선만이 喪事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강유선마저 모함에 연류 되어 장살되는 사태는 인간의 한계로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비극이었다. 극도의 슬픔과 좌절에 빠진 소재는 <舟川之死籲天無從夢見覺泣遂用桓韻>²⁹⁸⁾ 시를 지어 운명을 탄식하였다.

297) 『蘇齋集』, <得聘君書及妻信>.

298) 『蘇齋集』卷3, 195, <復數日舟川之死籲天無從夢見覺泣遂用桓韻>

嗚呼已矣天時懟 오호 끝이구나, 천시가 어긋났구나.
何事孤臣一死難 무슨 일로 외로운 신하만 한번 죽기가 어려운가!

소재의 유배생활은 학문과 음주에 의하여 견디어진 긴 세월 이었다. 시로써 자신의 쇠락해진 모습이나 親屬과 師友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표출한 澤畔吟 이었다. 그의 좌절은 “술에 의지해 남은 혼백을 흩어버린 채 ,하루살이같이 인간 세상에 붙어산다.[醉任殘魂散, 蜉蝣寄世間]”고 자학하고 있다²⁹⁹⁾. 소재는 연이은 지친의 죽음과 유자로서의 자아상실로 인하여 시간의 감각마저 상실해버리고 당당함과 기개는 점점 꺾이게 되고, 술과 시로 위안을 삼아 하루하루를 소일하게 된다. 시가 아니면 울분과 고민을 해소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 위에 최소한의 생존 적 여건마저 갖추어지지 않는 유배지의 궁벽한 생활환경이었다.

盧子晨讀書 노자가 새벽에 책을 읽는데
婢以慍言儻 여종이 옆에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檢得百升合 백이십 홉을 얻어 두었는데
後數日馨甌 며칠 후 쌀독이 비었습니다.

(中略)

嘗聞天地大 일찍이 천지의 웅장함을 들었음에도
人猶有所憾 사람은 오히려 유감스럽게 느끼는 법
況我一窮囚 하물며 나는 한 궁벽한 죄수의 몸인데
已幸不絕噉 먹는 것 끊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네.
多財祇益罪 재물 많으면 더욱 죄 되리니
有罪焉用賧 죄 있다면 어찌 면 할 수 있겠는가.³⁰⁰⁾

299) 『蘇齋集』 卷2, 173, <示朴贊鶴>.

유배생활에서 소재가 겪고 있는 처절한 생존 적 극한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귀양지인 진도의 군수가 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갖가지 이유로 곤욕을 주고 죄인이 쌀밥을 먹을 수 없다고 산간 마을에서 좁쌀과 바꾸어 주었고 하루는 아이종에게 피리를 불게 했는데 군수가 말하기를 “죄인이 안락할 수 있겠는가”하고 종을 가두었다.³⁰¹⁾

소재가 배소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억압을 받았던 것은 집권층의 주목을 받아 지방수령들이 수모와 억압을 주었기 때문이었다.³⁰²⁾

塵世紛紛成古今	분분한 塵世에 옛 오늘이 다른데
齊名李杜亦奇男	李杜와 이름을 같이 하니 또한 기이한 남자로다.
其冠浼我望望去	벼슬길은 나를 더럽히고 망망히 떠났고
所事逢人歷歷談	지난일 만나는 사람마다 역력히 말하였다.
一臥海中神自守	한번 바다 섬에 누어 정신을 스스로 지켰고
獨行天外影無慚	홀로 하늘밖에 행하니 그림자 부끄럽지 않네.
賈生能哭吾能笑	가생은 능히 곡하고 나는 능히 웃었으나
俱享行年三十三	다 함께 삼십삼 년을 누리었구나. ³⁰³⁾

유배기간 동안 소재는 3번의 <自挽>시를 쓰고 있다.³⁰⁴⁾ 위 시는 그의 첫 번째 시이다. 그는 당시를 塵世로 보고 있으며 스스로 이백과 두보의 시권을 익혔음을 자부하면서도 塵世에서의 벼슬은 자기의 이름만 더럽히고 말았

300) 『蘇齋集』 卷4, 228, <無題>.

301) 金時讓, 『涪溪記聞』, “盧蘇齋守愼謫珍島 守臣希時宰風旨 困辱百端曰 罪人安得玉食 至貿梁米 于 山郡 以給之 一夜月明 蘇齋 使童奴吹笛 守曰罪人安得燕樂囚其奴.”

302) 尹春獻, 『長貧居士胡撰』, 洪仁錄이 이때 진도 군수로 있으면서 그의 박대가 심 했는데 선조 초에 蘇齋가 석방 되고 난 후 당시 의론이 洪仁錄을 공박하여 여러 해 동안 벼슬을 못하게 하였는데 소재가 힘을 다해 그를 풍천부사에 임명하게 하였다. 인록이 매우 감탄하였다.

303) 『蘇齋集』 卷2, 173, <自挽>.

304) 소재의 <自挽>詩는 『蘇齋集』 卷2, 173.; 卷3, 200.; 卷4, 229에 수록되어 있다.

다고 自愧하고 있다. 그러나 귀양지에서의 자신의 삶은 스스로 본분을 지켰음을 상기시키며 떳떳함과 부끄럼 없는 자아를 형상화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33세에 죽은 漢代의 충신 賈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동갑의 자기는 떳떳하게 죽음을 맞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自挽> 시는 극도의 비극적인 자기인식에 빠졌음을 의미하며 44세에 지은 <自挽>시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졌다.

奇字楊雲識	기이한 글자 양운은 알았고,
隣牀畢卓眠	옆 침상에선 필탁이 자고 있네.
出教隨放鍾	교령에 따라 삼땅으로 추방을 당하여
行任杖無錢	지팡이에 의지해 갈 뿐 노자는 없다.
不對賢人酒	현인의 술을 만나지 못하여,
能回混沌天	능히 혼돈의 하늘로 돌아오리.
先生在何許	선생께서 어찌 허락 있으랴
槁木只頹然	고목은 다만 기울어 질 뿐이다. ³⁰⁵⁾

이 詩는 유배기의 좌절과 혼돈에 빠져 술에 의지하여 방황하는 소재의 자화상을 나타내는 시 이다. 首聯에는 韓愈의<進學解>에 나오는 楊雲과 진나라 이부상서 畢卓³⁰⁶⁾을 등장시켜 소재의 처지에 비견시키고 있다. 양운은 莊子, 屈原, 司馬遷, 司馬相如와 더불어 당시 최고의 문장가이면서도 공자와 맹자처럼 세상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아 불행한 일생을 보냈는데 그의 삶이 소재의 현실과 닮아 있음에 그를 등장시켰고, 술을 너무 좋아하여 동료의 집 술독에서 술을 훔쳐 먹다가 포박당하여 나중 이부상서임을 알고 풀어주었다는 晉나라 필탁의 고사를 술에 의지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기와 同人視

305) 『蘇齋集』, <醉吟>.

306) 『晉書 畢卓傳』, 畢卓: 진(晉) 나라 畢卓을 이른다. 그가 吏部郎으로 있을 때 동료의 집 독에 든 술을 훔쳐 마시다가 술 관리자에게 포박을 당했는데 이튿날 보니 이부랑 이었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술 수백 섬을 배에 싣고 사시사철 뱃머리에서 오른손으로 술잔 잡고 왼손으로 게[蟹]를 쥐고 마시고 먹고 놀면 일생을 만족히 마치리라.”고 하였다.

하여 스스로의 처지를 비하하고 있다 . 頷聯에는 교령에 따라 삼 땅으로 방출되는 모습을 진도에 쫓겨 온 소재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현인이 조정에 없어 혼돈된 시국을 초래하고 있음과 尾聯에서는 이미 방황하는 자기모습을 선생께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인바 그대로 술 취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는 좌절과 체념의 내용을 담고 있다.

病眼多新涕	눈이 괴로워 새롭게 눈물이 많아지고
羈襟更舊遊	타관살이는 더욱 옛 일이 되었네.
何年璧歸趙	어느 해에 별이 조 나라로 돌아갈까
萬里樂觀周	만리 주나라를 즐거이 바라보네.
雨驛濃花晚	비 오는 역참에는 철 지난 꽃이 지고,
風亭落木秋	바람 부는 정자에는 가을 잎 떨어지네..
江山足扶護	강산은 서로 의지하기에 족한데
珍重與神謀	더욱 보배로움은 신과 더불어 꾀하는 일일 터. ³⁰⁷⁾

이 시는 가을에 들어 꽃은 시들고 낙엽이 지는 만추에 지인과 헤어지며 지은 시이다. 이미 유배는 기약이 없는 긴 여정이 되어 버리고 해배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宦路의 추억과 귀향에 대한 간절함을 詩想化하고 있다.

당시 소재는 좌절에서 오는 절망감을 승화하여 順命으로 농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首聯은 이미 유배기간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현실을 말하고 있으며 頷聯에서는 해배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趙나라는 소재가 가고자하는 한양이나 부모가 계신 고향 商州를 이르는 것이요 周나라는 謫居地 진도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유배처는 이미 그가 순명으로 승화한 안식처로 인식되어 平靜心으로 사물을 觀照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頸

307) 『蘇齋集』, <別離一作浮生>, <十三夜 高坐觀書 百慮紛然 信筆書之> 凡七首..

聯은 만추가 되어 꽃이 지고 낙엽이 지는 쓸쓸한 계절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尾聯은 자신의 미력한 힘이라도 報國하고자 하나 聖恩과 조상의 陰德으로 만이 풀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春寒風雨海上村	봄바람 몰아치는 싸늘한 바닷가 마을에
千朵萬朵游芳魂	천송이 만송이 꽃의 영혼 흩어지고
氤氳浮動染四隣	자욱한 향기 떠돌아 사방을 물들이니
人間幾度愁黃昏	인간세상 몇 번이나 황혼 길 근심했던가.
相思昨夜入我夢	서로 그려 어제 밤엔 나의 꿈에 들어와
共作蝴蝶窺幽園	함께 호랑나비 되어 깊은 정원 엿보았네.
憶在江潭獨醒時	강담에서 홀로 깨어 있던 때를 생각해보면
枯槁憔悴無餘溫	메마르고 초췌하여 온기라곤 없었지만
氤佩每憐秋汀蘭	패물로는 가을 물 가 난초만을 좋아하였고
照檻祇愛東方暎	난간을 비추는 동방의 아침햇살을 사랑했었지
至今風騷有遺恨	지금까지 국풍과 이소의 한이 남아있는데
忍復娉婷踵其門	어찌 다시 강박하고 오만하게 그 문을 밟으랴.
起拈一杯對一朵	일어서서 한잔 술을 들고 한 송이 꽃을 마주하여
爲喚長鬚笑而言	늙은 종을 불러놓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明朝風雨應更急	내일 아침에는 비바람 더욱 세차게 불면
苟可酌之同一樽	같은 잔에 祭酒나 부어줄 수 있겠나. ³⁰⁸⁾

어떤 이가 매화를 꺾어 보내오자 그 감흥을 서술하고 있다. 싸늘한 바닷가 봄날에 흩날리는 무수한 꽃잎 들을 보면서 그동안 무수하게 희생되었던 억울한 영혼들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들은 고결한 영혼을 가진 자들로 향기를 흩뿌리고 황혼 길을 걸었다고 비감해하고 있다. 그는 호랑나비가 되어

308) 『蘇齋集』 卷2, 178, <再用前韻>. 앞 詩의 제목은 <人有折梅相贈, 對之興感, 次東坡惠州村字韻>이다.

함께 매화 받을 노닐고 있다. 그의 혼은 강담에서 홀로 깨어있을 굴원을 생각하며 古人들의 비극적 삶을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은 국풍과 이소의 한이 남아있어 매화가 바람에 꺾이듯 자신의 운명도 얼마 후에는 함께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초연한 모습으로 꽃에 다가와 꽃과 마주하면서 늙은 종에게 자신이 꺾이면 祭酒나 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소재는 그가 처한 현실을 받아드리며 실의와 좌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현듯 일어나 學問的 성취와 詩作으로 새로운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이 소재가 후일 역사적인 대시인이요 사상가로 기림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좌절을 초극하여 오히려 윤희된 공간을 선용했던 이 旅程은 소재의 일생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인 것이다.

手拈藤理補蟬餘	손으로 종이 잡고 좀 먹는 것을 기우고
四壁縱橫次第糊	온 벽을 이리저리 차례로 발랐다.
試拂塵埃更快活	먼지를 털고 나니 더욱 쾌활해지고
方知不枉號齋蘇	방 이름 소재라 한 말 잘못 아님을 알겠네. ³⁰⁹⁾

이 시는 섬에 온지 5년째 되는 해에 지은 시이다. 이 시에서 소재는 좌절을 극복하고 유배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快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삶을 희망과 긍정으로 보고 있다. 초가을에 집을 짓고 방을 바르고 청소하여 새로운 기운을 돋우고 있다. 이무렵 소재는 주자의 말을 따서 蘇齋라 편액 하였다.“ 초가 3칸을 만들고 그 중 하나를 취하여 齋를 삼고서 문득 蘇라고 걸었다. 대개 朱夫子가 말씀 하신 바 “나는 나의 책을 읽으니 병이 낫는 듯하네.”³¹⁰⁾에서 따왔음을 밝히고 있다.

309) 『蘇齋集』 卷2, 227, <蘇齋淨詒>.

310) 『蘇齋集』, 年譜(38歲), 明宗 7년(1552) 12월에 집을 짓고 蘇齋라 편액 했다. “營茅三間 取一爲齋 輒扁曰 蘇 蓋本朱夫子所謂 我讀我書 如病得蘇云爾.”

仲尼畏匡人	중니는 광인을 두려워했고
文王囚羑里	문왕도 강리에 갇혔었지.
死生在前了	생사가 눈앞에 달려있어도
處之活然耳	편안히 처해있을 뿐
識此爲何人	이를 아는 이는 누구이던가
千載子朱子	천년 뒤의 주부자라
畢竟揭一言	필경 말 한마디 걸어놓고
分明見道理	도리를 분명히 나타내리라. ³¹¹⁾

성인 孔子도 광 땅에서 고난을 겪었으며 문왕도 강리에 갇혀 생사를 넘나드는 시련을 겪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유배의 몸이지만 마음을 편안히 하고 주부자의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의 시이다. 이 당시의 시들은 盡忠의 의지나 백성들의 교화와 개인의 진취적 희구의 열망은 그의 작품에 그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유배지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소재가 좌절에 빠져 방황하며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적거 10년에 들어 체득한 네 가지 흥취를 노래한 <謫居四味 四首>를 살펴본다.

靜夜深深意	고요한 밤 깊은 생각에 잠기니
十年今始諳	십년세월 이제야 비로소 알겠네.
更無時俗語	다시 시속의 말을 하지 않고
聊與聖賢談	애오라지 성현과 더불어 말하려하네. ³¹²⁾

소재는 애환을 초극하고 비애의 공간을 이제는 일부의 생활공간으로 인식

311) 『蘇齋集』 卷1, 164, <讀書>

312) 『蘇齋集』 卷2, 183, <謫居四味四首>中 明燈讀書.

하여 學問研鑽의 기회로 인식하게 하였다. 소재가 <謫居四味>로 생각 한 것은 ①清晨梳髮 ②晏飯徐步 ③晴窓曠日 ④明燈讀書였다. 그동안 애환과 좌절 속에서 보낸 세월을 뛰어넘을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맑은 이침에 머리를 씻고 가지런히 빗으며,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천천히 산보하며, 개인하늘에 떠있는 맑은 햇빛을 들이마시며, 맑은 등잔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은 謫居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묘미로 터득하여 마음에 화평을 찾게 되고 학문에 침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杜詩, 論語 등 다량의 책을 읽어 소재 문학과 소재 철학의 소양을 蘊蓄하는 기회로 삼게 된다.

고요한 밤에 골똘히 생각하니 지난·10년 세월의 회한이 부질없는 것이고 이제 時俗과는 인연하지 않고 성인의 학문에 정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吁汝盧寡悔	아! 너 노수신아
豈不媿疇昔	어찌 옛날 일 부끄럽지 않으나.
使爾早知悟	그대가 미리 깨달을 줄 알았다면
不被才名誤	재명을 그르치지 않았을 텐데
寡悔俛首坐	과회는 머리 숙이고 앉아
自訟向誰愬	스스로 꾸짖을 뿐 누구 향해 하소연하랴.
良久忽大笑	한참 후 문득 크게 웃으니
顛沛終何懊	전패를 끝내 어찌 한탄하리오.
死生既在天	삶과 죽음 다 하늘에 달려있으니
不求從吾好	내 좋아하는 바를 구할 수 없네.
一室謝相與	일실에서 서로 함께 물러나와
靜研宋儒語	송유의 말씀을 조용히 연구하네.
尙友黃卷中	황권 속에서 벗을 찾으니
沛然誰能禦	꽤연히 누가 능히 금할 것인가? ³¹³⁾

위 시는 28韻의 장편으로 음주 후 煩悶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지은 시이다. 전반부에는 자신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才名을 그르쳤음을 자책하고 있다. 그러나 운명으로 다가온 현실을 누가 막아낼 수 있겠는가? 순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자위하고 있다. 다만 송나라 朱夫子의 학문을 닦겠다고 하여 그의 사상적 기초가 주자학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소재의 이러한 학문으로의 침잠은 좌절을 초극하여 번뇌를 극복하였음을 의미한다. 후반부의 '尙友'는 孟子的 '讀書尙友'에서 취한 시어이다. 맹자만장에게 “옛사람이 지은 시를 읽고 그 사람을 읽으면서도 옛사람을 알지 못하겠는가? 이로써 옛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위로 옛사람을 벗하는 것이다.”³¹⁴⁾ 라고 했던 고사를 취하여 시어로 채택 하였고 옛 성현의 글을 읽고 그들과 벗을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적거기간 내내 이를 실현하고 완성해 내었던 것이다.

何書不可讀	어느 책이든 못 읽을 것이 있으랴,
有酒自能斟	술이 있으니 스스로 따를 뿐이다.
炯炯求前志	밝고 밝은 앞날의 뜻을 구하고,
悠悠散旅襟	유유히 나그네 옷깃을 훌어버린다.
擲風喬木折	모진 바람에 큰 나무 꺾이고,
寒汐小窓侵	차가운 조수는 작은 창문에 엄습한다.
霜冷鴛鴦警	서리와 추위에 원앙은 경계하고,
燈殘客子吟	등잔불 잦을 때까지 나그네는 읊조리네. ³¹⁵⁾

소재의 비애와 좌절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함양하여 비극적

313) 『蘇齋集』 卷1, 169, <醉時率意放筆排悶>.

314) 『孟子』, 「만장편」,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論其世也 是尙友也”.

315) 『蘇齋集』 卷3, 214, <夜中讀書> 飲酒口號

상황인식을 낱게 하여 왕성한 창작의 불길을 당기게 된다. 그는 유배기간동안 다량의 독서를 하였으며 읽지 않는 책이 없을 정도였다. 起句에서는 그의 정서가 이제 독서와 술을 벗 삼을 수 있음으로 앞날의 밝은 뜻을 구할 수 있다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頷聯 에서는 모든 삶을 밝고 밝게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모진 바람이 불고 차가운 조수가 엄습해 오고 있다. 尾聯에서는 원앙이 추위에 몸을 사리고 있을 때에도 소재는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책을 읽는다고 삶을 긍정하였다.

소재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30대 초반부터 20여년을 유배의 질곡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좌절과 허탈, 고독, 울분을 겪어야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얻어낸 결론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배를 숙명으로 받아드리고 오히려 스스로를 성찰하고 학문과 詩作에 활용하여 많은 사료들이 개인의 영달에 함몰되어 학문이 停滯되고 환로에서 파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이를 선용함으로써 후일 해배후의 족적은 타인과는 크게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의 현달한 삶의 모습은 자기를 다스리는 치열한 노력과 준엄한 생활태도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다. 그의 해박한 학식은 好學家인 선조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재상이 되어서도 조정에서 크게 역할을 자처하지 않는 것은 유배를 통한 심신의 수양과 처세관이었으리라 보지만 조정원로의 역할은 혈기방장 한 젊은 신료들의 銳氣를 중재하고 임금을 편안하게 보필한 것이었다. 조정은 李珣의 지적과 같이 소재의 존재감 하나로도 충분한 버팀목과 中和的 역할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것은 선조의 절대적 신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또한 당시의 정치풍토가 동, 서로 갈라진 黨爭의 극점에서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 소재의 한계였는지도 모른다.

소재의 시는 유배기에 창작된 1,023수를 끝으로 극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政事의 다망함 때문일 수도 있으나 시의 창작이란 詩心을 자극하는 환

경이 절대적이라고 볼 때 재사환기의 여건은 그를 격동시키거나 詩作에 침윤하여 창작할 여건이 못 되었다. 이 시기의 시들은 주로 輓詞, 贈別詩, 契모임,³¹⁶⁾ 應製詩³¹⁷⁾ 등이 주류였으나 경지에 이른 다수의 秀作들이 이 시기에 제작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생의 모든 역정을 거친 후에 창작되는 시들은 극심한 감성을 자제하면서 수졸하고 平易하면서도 인생의 경륜이 詩心에 스며들고 인생 후반기에서 느끼는 우수와 고독을 토로하면서 전 생애를 되돌아 살피고 있다. 그의 후반기 작품들은 天命을 겸허히 소용하고 이를 따르는 내용이었다. 재상의 지위에 오른 후에도 그는 깊은 고뇌와 무상, 중책의 무거움을 벗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회귀를 바라고 있음이 여러 시에서 살펴지고 있다.

寄也歸而勉	더부살이하는 인생 죽어야 면하는데
居然到者稀	아무 일 없이 고희에 이르게 되었도다.
雖從聖人欲	비록 성인의 욕망을 따르려고 했지만
未覺大夫非	잘못 반성 못했던 대부 경지 못 깨달아 ³¹⁸⁾
一理君臣契	한 의리로 군신관계를 맺었지만
深衷老病違	깊은 衷情 늙고 병들어 이지러졌다.
未應梅柳色	매화와 대나무는 서로 호응하지 않으니
依舊入沾衣	예전처럼 들어와 옷 적시지 않으리라. ³¹⁹⁾

소재의 시 중에는 죽음을 초연히 받아드리려는 의식을 여러 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역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 죽

316) 『蘇齋集』 卷6, 286, <乙亥同甲契會圖>, “竝生王國復相親, 眼裏輪囷廿二人, 契屬?蒙淵獻甲, 圖成萬曆建元春, 清時勝會頻聯席, 白首同歸永卜 隣, 不知難遇是年均, 却笑耆英知自號.”

317) 『蘇齋集』 卷6, 275, <射以觀德>, “應製詩, 龍樓曲沼綠陰濃, 鳳幄初開兩鵠同, 直體先須知志正, 求身何必怨人功, 較來只是循公制, 推去終能禦侮通, 長祝觀遊止於此, 聖心如始日生東”

318) 『論語』, 「憲問」, “籛伯玉使人於孔子, 孔子與之坐而問焉, 曰, ‘夫子何爲?’ 對曰, ‘夫子欲寡其過而未能也’ 使者出, 子曰, 使乎! 使乎!”

319) 『蘇齋集』 卷6, 277, <偶吟>.

음은 갑자기 다가오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古稀에 이르게 되었으며 76세라는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를 하였기에 젊은 시절의 辛難을 보상받아 영상의 지위에까지 오른 것이었다.

반면 그의 환로는 영광에 비례하여 많은 회한을 갖고 있다. 소재는 聖人 학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尾聯의 매화와 대나무는 중의적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철학적 의미의 신념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신하로서 충정심에 대한 신념의 의미이기도 하다.

可愛迎恩日	임금의 은혜 맞이한 이 날이 사랑스러우니
須開奉禮廳	예를 받들고 대청을 개방해야 하리.
尊崇一太師	높고 높은 한명의 태사와
齒德盡孤卿	나이와 덕이 있는 공경들이 다 모였네.
雪竹侵高話	고상한 대화에 들어오는 눈 쌓인 대나무
風松倚半醒	반쯤 술이 깬 사람들이 기대선 소나무
明朝門復掩	아침이 되면 다시 문을 닫고
伏枕笑平生	베개에 엎드려 평생을 웃으리라. ³²⁰⁾

이 시는 71세가 되어 임금으로부터 綬장을 하사받고 이를 경하하기 위하여 연석을 베풀고 있는 광경이다. 고명한 태사, 공경들이 모여들고 서로 고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님들의 지조와 절개는 대나무에 비견되고 風松은 소재 삶의 의지이다. 인생의 끝점에 서서 비단 영욕의 부침을 겪었으나 임금의 신임과 중망으로 재상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큰 영광이다. 더불어 70장수를 하여 임금으로부터 綬장을 하사받았으니 더없는 성은이었다.

壽到稀年且達官 나이가 70세에 이르고 또 달관한 사람

320) 『蘇齋集』 卷6, 276, <賜几杖宴席>.

九人而已亦才難	아홉 명 뿐이니 인재 얻기 어렵구나.
金章鳩杖聯翩來	금인장 차고 비둘기 지팡이 짚고 줄지어 들어오니
入溪敞宇華筵開	연못 안 정자에서 화려한 잔치 벌어지네.
小至霜風振駝駱	조금 지나면 서리바람이 타락 산을 떨칠 것인데
今者不樂餘幾日	며칠이나 남았다고 지금 즐기지 않으리.
我如老牛鞭不動	내 늙은 소와 같아 채찍에도 움직이지 않는데
未罷歡娛更蕭瑟	즐거운 잔치 과하기도 전에 마음이 다시 쓸쓸하네. ³²¹⁾

이 시는 영의정으로 있을 때 나이 70이 된 원로대신을 모아 연회를 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달관한 사람이 아홉 명 뿐이라는 것은 연회에 참석한 원로들이 9명이라는 것이며 論語에서 차용한 시어다.³²²⁾ 周武王이 대업에 참여한 사람이 부인을 제하고 아홉 명뿐이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나라에 인재 얻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금 인장을 차고 비둘기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 원로들의 잔치도 얼마 후에 닥쳐올 서리바람이 불어오리니 즐기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움직여지지 않는 늙은 소와 같아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나라 안 밖의 여러 사정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을 예감하며 자신의 미래를 예지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기도 하다.

4) 學問의 沈潛과 成就

소재의 생애 전반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몰두하여 부단하게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하는 好學的 삶이었다. 그의 年譜에 보며는 6세에 입학하고 지은 詩賦가 때때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 17세에 이연경 문하에 들어가 사위가 되고 날마다 『小學』을 외우며 行하는 자료로 삼았

321) 『蘇齋集』 卷6, 281, <耆老宴作>.

322) 『論語』, “太白, 舜有臣五人而天下治, 武王曰, 予有亂臣十人 孔子曰, 才難, 不其然乎? 唐虞之際, 於斯爲盛, 有婦人焉, 九人而已.”

다. 그의 이러한 淵源은 외조부 이자화, 음애 이자, 회재 李彦迪, 모재 金安國 등 巨儒의 학문적 조력을 거치고 더욱 성장하여 29세에 삼과에 壯元及第하고 동궁을 侍講 할 즈음에는 학문이 退溪를 앞섰다는 평을 듣기도하였다. 그러나 乙巳士禍로 진도에 내침되고 난후 그의 20여년에 걸친 긴 유배의 역정은 극심한 좌절과 혼란을 거친 후 사상적, 학문적인 변화를 거치게 하였다. 유배 초기 그는 유배에 대한 절망감에 젖어 긴 방황을 하고 있었으며 그러면서 해배의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해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비극적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서 방면에 대한 희망을 접게 된다. 이때 『困知記』를 얻어 읽게 되고 象山哲學을 접하면서 조선사회를 지배해온 教條적인 주자학을 배격하고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인 상산학이 자신의 定向이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척박한 현실을 비극적 상황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學問研鑽에 침윤하여 정진하게 된다. 그는 이 당시 <九魚歌>나 <頭痛>, <菊花五百言> 등 詩人과 話者가 분리되는 장문의 古詩들을 짓고 話者로 하여금 현실을 극복해내는 지혜의 답을 구하도록하고 이에 同調하면서 詩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현실 인식은 자신이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스스로 토로한 答案이었다. 그는 38세에 三間茅屋을 짓고 주자의 “독서를 하면 마치 병석에 있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을 취하여 소재라 편액하고 이후의 시간들을 詩作과 수많은 독서를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하며 학문적 내공을 蘊蓄시켰다. 37세에 지은 『夙興夜寐箴解』을 비롯하여 41세에는 『字訓』과 『童蒙須知』를 註解하였고, 45세에는 『人心道心辨』을, 48세에는 『執中說』을 저술하게 된다.

謫居時의 행적에서 學者와 教育者로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바 流配前에 추종한 性理學은 물론이고 『論』·『孟』을 비롯한 儒學을 섭렵하여 大儒를 성취하였고 珍島의 학풍에도 크게 기여하여 내륙에서 유학 온 심희수, 강복성, 노대하, 나사을, 백광훈 등과, 박빈학, 소오 등 지방의 제자들을 國家 棟梁之

材로 성장시켰다. 또한 진도의 민속을 쇄신하여 바른 婚禮儀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先儒의 禮設을 수집하고 古今에 맞추어 韓권의 『家禮』를 만들었으나 逝去 후 화재로 소실되었다.

해배 후에 그의 학식과 인격은 더욱 무뎠게 되고 主要 인물들의 행적을 撰하였던 바, 『皇華集』과 『晦齋先生集』을 序하였으며 63세에는 일재 이항의 <墓碣文>을, 64세 1월에는 조광조의 <神道碑銘>을, 65세 2월에는 이연경의 <誌銘>을 撰하였다. 67세에는 東阜 李俊慶의 <신도비명>을 짓고 71세 7월에는 宋의 충신 天祥, 明의 충신 方正學, 고려충신 鄭夢周의 文集序銘을 왕명으로 쓰게 되었고, 그 해에 허엽의 <神道碑銘>을 撰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碑碣> 및 <文集序銘> 등의 격조와 조리가 充溢한 문장들은 그의 높은 학식과 文才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가 학문에 침잠되어 성취하는 과정에서 읊었던 哲理詩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人心道心辨」을 저술한 이후부터 다량의 哲理詩가 창작되는데 『대학』의 ‘성역’와 『맹자』의 ‘구방심’이 공부의 중심임을 주장하고 있다.

朱子生知亞	주자는 생이지지에 가까워도
區區自嗜書	부지런히 글 읽기를 좋아 했네
老生天稟下	노생은 천품이 아래여서
兀兀儘還珠	울울이 꺾데기만 더했네
妄欲窺孤駕	망령되게 외로운 명예 엿보려고
誰能盡五車	누가 능히 다섯 수레의 책을 다 읽으랴
遊焉志不捨	놀아도 그 뜻 버리지 않으리니
幸耳病如蘇	행여 병이 나을 수 있으려나. ³²³⁾

위 詩는 주자의 <至樂齋銘>의 “我讀我書如病得蘇”의 구절에서 ‘蘇’자를

323) 『蘇齋集』 卷3, <讀我書如病得蘇云爾>.

취하여 ‘蘇齋’라 현판하고 그 안에서 해배 직전까지 학문연찬의 도량으로 삼고 독서에 침잠하였다. 이 詩를 지을 즈음에는 『夙興夜寐箴』, 『子訓』과 『童蒙須知』를 註解할 즈음이었다. 시의 주제는 天稟이 아래인 자신은 껌데기만 갖추고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 명예를 얻본다고 하였다.

天縱徽公大	하늘에 큰 공을 아름답게 수놓으려
深探孔氏微	깊은 곳 공씨를 찾는다
四書分解盡	사서를 나누어 깊이 이해하여
一字減添非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어야만
文守昌黎軌	창려[韓愈]의 법도로 文을 지키고
騷窺屈宋扉	굴원과 송나라의 문작에서 騷(時體의 종류)를 엿볼 수 있다
且須勤讀玩	또 마땅히 부지런히 읽고 익혀
終自得要歸	일생 마칠 때 반드시 얻어 돌아가리. ³²⁴⁾

이 詩는 물에서 유학 온 제자 蘇澳에게 白光勳과 文益世의 운을 빌려 學問의 바른 要諦를 일러준 贈別詩이다. “하늘의 공을 이루려면 論語를 중심으로 하여 四書を 깊이 이해해야 하며 文의 法度는 韓愈를 법하고 굴원과 宋文을 통하여 騷를 엿본다.”라고 하였다. 소재나이 46세 되던 때에 「人心道心辨」을 저술하게 되는데 <題大學書後贈蘇生>에서 “대학이 학문방법의 요체를 밝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잡고서 평생 외울 필요가 없나니 周公 이전에는 대학이 없었음을 알았노라”³²⁵⁾라고 말하여 평생 암송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훗날 해배 후에도 경연장에 나아가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안연의 ‘安貧樂道’의 경지에 대한 소재의 소회이다.

324) 『蘇齋集』 卷4, 233, <送蘇生>.

325) 『蘇齋集』 卷4, <題大學書後贈蘇生>, “不應把作終身誦 忍取周公以上無”

高天玄默亦何語	높은 하늘 고요한데 또한 무슨 말을 하리오
一氣流行還此心	한 기운이 유행하여 이 마음이 되었네
惟有程公眞好學	오직 明道公만이 진정 학문하기 좋아하여
只將顏樂細參尋	다만 안연의 즐거움을 자세하게 찾아보았다네. ³²⁶⁾

소재는 순선한 性이 발하여 情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인간 본래의 모습은 선하다고 보았다. 소재의 心性論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한 肯定이었다. 그리하여 엄숙주의보다는 孔子나 안연의 즐거움을 찾는 工夫論을 지향하였다. 소재는 하늘의 존재를 초월적 절대자적 개념이 아닌 자연의 섭리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자연과의 조합과 교유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퇴계는 하늘이 敬畏의 대상이지만 感性을 수용할 수 있어 공자와 같은 성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경지라고 규정하여 그사이에도 즐거움이 있어 노래할만 하다고 하였다.³²⁷⁾ 二程의 스승인 周敦頤는 그들을 가르칠 때 顏淵이 행한 즐거움의 경지를 늘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안연의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자신을 극복하는 극기복례를 통하여 공부에 힘써야한다고 하였다.

自放其心當自求	스스로 그 마음을 놓아 마땅히 스스로 구하라.
才求便復入身收	재주를 구하면 입신을 얻어 쉬이 돌아오리.
方能問學明夫道	이제 지아비의 밝은 도리를 묻고 배울 수 있으니,
然後修爲正所由	그러한 연후에 바르게 말미암는 바를 닦아야 한다.
動察靜存該體用	움직임을 살펴 고요히 있으면서 체용을 갖추어야하고,
達行窮守一源流	하나의 원류를 궁구히 지켜 도를 달성시켜야 한다.

326) 『蘇齋集』卷5, 251, <復題二首> 一首.

327) 李滉, 『退溪集』, <樂天>, “聞道樂天斯聖域 惟顏去此不爭多 我今唯覺天堪畏 樂在中間可詠歌.”

嗚呼千聖相傳法 오히려, 수많은 성인이 서로 법을 전하니,
 下手何先卽放求 부족한 자가 어떻게 먼저 구방심을 찾겠는가?³²⁸⁾

진도 적거지를 방문하여 학문의 요체를 묻자 물음에 답하지 않고 대신 日用의 경구로 준 『孟子』의 ‘求放心’에 관한 詩이다.³²⁹⁾ 이 詩에서 動靜에는 體用을 갖추어야하고 ‘求放心’에 힘써야함을 강조한 哲學詩이기도 하다. 源流를 궁구히 지켜 道를 달성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朱陸曾聞異 주자와 육상산의 다름은 일찍이 들었고
 羅王更見差 나정암과 왕양명은 다시 견해 차이를 보이네.
 存心皆聖域 마음을 보존 하는 것 모두 성인의 영역
 論學各賢科 학문을 논함에는 각기 현인의 과정
 宇宙公言在 우주에는 공언이 있는 법
 遼燕隱士多 요동과 연나라는 은사들도 많다네.
 銘神力搜訪 정신을 새기고 힘써 찾으라.
 吾道竟如何 우리 도가 마침내 어찌해야 할지를³³⁰⁾
 朱陸曾聞異 주자와 육상산의 다름은 일찍이 들었고

위 詩는 明으로 使臣 가는 許燁에게 준 시이다.³³¹⁾ 주희암과 육상산, 나정암과 양명학의 설이 서로 다름을 언급한 것이며 학문의 論者는 네 사람의 몫이라고 했는데 당시 明은 네 개의 사상이 병존하고 있었고 송의 주자학이 쇠락한 대신 양명학이 크게 흥기하고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은 사상적 轉變은 조선 주자학자들의 큰 염려와 관심사항이었다. 이미 明의 사상적 변화를

328) 『蘇齋集』 卷4, 233, <復以求放心爲贈>.

329) 『蘇齋集』 卷4, “白生有問 不能答 書與文公日用自警詩 仍敢次韻書其下”

330) 『蘇齋集』 卷6, 275, <送人赴京>.

331) 李時發, 『碧梧遺稿』(『韓國文集叢刊』 74, 民族文化推進會, 1988.) 卷7, 「謾記」, “許美叔赴京師, 蘇齋贈別詩曰 朱陸曾聞異, 羅王更見差.”

알고 있었던 소재는 조선사회의 장차 중심사상이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전환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당시 절친한 친구이며 主氣論者였던 허엽에게 중국사상의 흐름을 확인하여 과연 우리의 道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아보고 당부하는 것이다. 그 당시 소재는 明으로의 왕조개편과 宋儒의 쇠락을 알고 있었으므로 얼마 후에는 조선의 사상 根幹이 양명학으로 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하였기에 退溪派를 중심으로 주자학에 대한 뿌리를 도저히 허물 수 없는 환경임에도 그는 양명학의 근간인 『大學章句』를 지어 그의 사상적 지론을 끝내 관철하였던 것이다.

5) 寫實的 自然景物 描寫

소재는 그의 시에 투영되는 사물들을 충실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자 성리학의 차별화된 이론은 理氣一元論으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이었다. 이 이론은 우주론에서 理의 보편성을 부정하면서 사물의 생성이 氣로 되어 있고 氣는 항상 動靜하므로 動靜은 眞實되고 충실하게 묘사되어 실상이 加減없이 표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욕망의 긍정은 모든 사물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고 대상물에 대하여 진솔한 모습을 담아내는데 주안을 두었다. 宋詩의 절제되고 정제된 시풍에서 진일보한 시풍이 강서시파 이론이었다. 소재는 그 위에 두보를 모범으로 하면서 나름의 시풍을 창작하여 모든 사물에 대한 면밀한 통찰과 이를 자세히 묘사하는 시법을 창출하였다.

소재의 사물에 대한 묘사는 모든 대상을 가식 없이 수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의 이러한 물상 표현에 대한 이론은 모든 사물을 생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시에 투영시키고 있어 신선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그의 시의 소재로 등장한 대상들은 단순한 동식물과 사물들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적이며 동태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매화와 국화를 특히 사랑하여 그들에 대한 物像을 구상화를 보는 것과 같은 필치로 묘사해 내고 있다. 여러 詠物詩들이 섬세하게 묘사되고 그 영혼과 정신까지를 담아

내려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의 詩들은 실제 하는 모습 그대로를 묘사 하여 현장 속에서 물상과 함께 호흡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의 시는 유배도중에 겪었던 험난한 행적을 사실감 있게 표현 하고 있다.

我行當初冬	내가 떠날 때는 초겨울이었는데
是日大風雪	이날에는 큰 눈바람 불어 왔다네.
小店依高崗	작은 주막은 높은 산을 의지하고
牖壁太半缺	창문과 벽은 태반이 깨어졌다.
二更奴已鼾	이경이라 노비는 이미 코를 골고 있고
三更馬空齧	삼경이 되니 말은 빈 재갈을 굴리는 구나.
漫漫苦夜遙	만만히도 괴로운 밤은 길기만 한데
月星但明滅	달과 별은 다만 밝았다 사라진다.
縮爲凍龜形	움츠린 몸은 얼어붙은 거북의 모습이요
衣裳冷勝鐵	걸친 옷 차기가 쇠보다 더하네.
我鼻洩長垂	내 코에서는 콧물 길게 늘어져있고
我肌膜盡裂	살은 모두 얼어 터졌네.
不憂我血壅	내 혈옹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乍嫌我骨折	잠깐 동안 내 골절됨을 염려한다.
奈何活底物	어떻게 살아있는 물체라 할 수 있나 ³³²⁾
不火愈自熱	불붙어서 절로 더 뜨거워지지 않겠지 ³³³⁾

이 詩는 고향 沙谷에서 귀양지 순천을 향하여 가는 도중 옹점에서 하루 밤을 유하며 지은 시이다. 유배를 떠난 날은 초겨울의 엄동이었는데 모든

332) 『周易』, 「太極과 無極 81問答」, “育天士地道人序述, 問; 皆指極處爲言, 而又謂之道, 此說非是耶, 何相反之若此也? 答; 流行處, 固是道而不得爲太極云, 則是太極非活底物.”

333) 『蘇齋集』 卷1, 161, 「甕店」 其四.

것이 최악의 여건임이 이 시를 통하여 노출되고 있다. 당시 소재는 조부의 탈상에 맞추어 유배가 지연되어 있었는데 유배 출발은 가장 견디기 힘든 겨울이었다. 앞으로 닥쳐올 유배에 대한 심신의 압박으로 지쳐있었고 날씨가 겨 초겨울 엄동으로 溫氣없는 겨울밤은 견디기가 너무나 혹독했다. 유배도 중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유하면서 겪는 고통을 가장 섬세하면서도 체험적으로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수련은 유배를 떠나는 시제와 초겨울 눈보라가 치고 있는 흑한을 묘사하여 前途의 險亂을 예고하고 있다.

산에 의지한 주막은 창문의 태반이 무너져 내려 바람이 들어오고 寒氣를 피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다. 이경이 되어 노복은 코골고 자고 있고, 삼경이 되자 말도 빈 재갈을 굴리고 있다는 묘사는 만상으로 가득 찬 소재만이 현장에 버려져있는 고독한 존재가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겨울 길을 오면서 얼어붙은 옷들은 눈보라에 젖어 말릴 틈도 없이 거북등과 같이 얼어붙었다고 酷寒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 소재는 긴 겨울밤을 견디며 별과 달의 明滅을 보면서 무한한 자연 속에 병들고 지친 초라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그 위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콧물이 줄줄 흐르며 온 몸은 얼어 터져 혈옹이 생긴 것이다 血壅은 온몸에서 갑자기 송곳 같이 생긴 살이 나와서[肉出如錐] 가렵고 아프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진물이 나면서 고름이 나온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다리에 생긴 骨折로 귀양 천리 길을 찾아갈 일이다. 당시의 여건은 인간의 고행에서 겪는 가장 혹독한 환경이 모두 동원되어 있다.

그러나 소재의 의지는 이처럼의 혹독한 시련도 더 이상 자기의 의지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모든 病들은 스스로 나올 것 이라는 희망을 표하면서 끝맺고 있다.

小者如針大如筆 작은 것은 바늘만하고 큰 것은 붓만 한데

信知有罟如許密
 交頭駢首慈儔匹
 响濕濡沫保弟姪
 有時戢什器猶怵
 半生半死誰相糝
 試注小盆聽汨汨
 顧視牛蹄亦已佚
 童來亂投遭驚叱
 姑待圉圉母遽黜
 倒者側者命云畢
 或有生意那可必
 指點其長數滿七
 二兒逐隊如相率
 濟濟或恐失其弼
 眷眷不忍離其膝
 丁寧附耳語昵昵
 汝惟少寬無戰慄
 江湖滿地勢蕩瀟
 螻蛄詎肯饒蝦蛭
 不見廚前委比櫛
 可憐割鬢而去乙
 區區一勺尙寧謐
 豈不可冀延數日
 顯然出聽若愧慝
 鼓腮吹浪請自述
 造化羣形至纖悉

참으로 그물이 촘촘함을 알 수 있네.
 머리를 부비고 나란히 하며 짝지어 노니는 것이
 거품 품으며 조카 동생을 보호하듯이
 때로는 꿈적꿈적 두려운 기운이라
 반은 죽고 반만 살아있는 것을 누가 서로 진흙할까?
 시험 삼아 소분에 넣고 잔잔한 물소리 듣는데
 돌아보니 소의 발굽 같은데도 너무 편안해하네.
 아이들 와서 어지럽게 흔들기에 놀라 꾸중하며
 저절로 해엄쳐 놀게 하고 갑자기 좇지 말도록 했네.
 뒤집어진 것 옆으로 누운 것은 이미 명이 다했고
 혹 생기가 있는 것도 어찌 반드시 산다고 하랴.
 세어보니 큰놈들 그 숫자 일곱 마리이고
 두 마리 작은 것은 대오를 지어 서로 따르네.
 나란히 가면서 혹 짝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사모하여 차마 그 슬하를 떠나지 않는다.
 정녕 귀에 대고 다정하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오직 작은 관대함으로 두려워 말아라.
 강호가 땅에 가득하여 그 세가 넘쳐나고
 수달이 새우와 거머리를 버려두겠는가.
 부엌 앞에 즐비하게 늘어선 것 보지 못했나
 가련히도 지느러미 잘리고 비늘 굵혔다.
 구구이 한 국자라도 오히려 편할 수 있는데
 “어찌 수 일이나마 연명을 바라지 않으랴”라고
 물고기들 숨 쉬며 부끄러운 기색으로
 아가미 들고 물살을 마시며 스스로 말하기를
 “조화는 극히 작은 것에도 미치지 않음이 없고

禍倚於福凶藏吉	화는 복에 의지하고 흉은 길함 속에 숨겨져 있어
合散消息莫可秩	합하고 흩어지고 생겨나고 소멸함에 질서 없어서
登龍飼犬還一律	하늘에 오르는 용 집에서 기르는 개 다 마찬가지로
彼生無得此豈失	저 삶 득이 아닌데 이 삶 어찌 잃었다 하나
夕死非緩朝何卒	저녁 죽음 늦은 것 아니니 아침 죽음 어찌 늦다 하리
天地誰爲百歲質	천지간에 누가 백년 살 자질 타고 났는가
惡不須殃善不隲	악하다고 재앙 받고 선하다고 복 받는 것 아니에요“
於焉不嘖且大啞	이에 쟁그리지 않고 또한 크게 웃으며
相看自卯將至戌	유시에서 술시까지 그런대로 바라보네
汝今榮辱自不卹	그대 지금 영욕에서 스스로 구휼치 못한다면
人若暴殄亦奚嫉	사람들이 잔인하게 해치더라도 또한 어찌 미워하리
有忿必懲慾必窒	분함은 꼭 억제하고 욕망 반드시 막는다면
一理如燭坐暗室	한 이치는 어두운 방에 앉았어도 촛불처럼 빛나리라 ³³⁴⁾

위 詩는 순천 유배 시에 지은 305자로 된 七言古詩로 아홉 마리 물고기와 의 대화체 시다. 바늘과 붓으로 크기를 비유하고 물고기를 擬人化하여 그들과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사람에게 잡혀 생사여탈권을 빼앗긴 물고기에게 말을 건네고 오히려 그들에게 심오한 생의 철리를 얻어듣고 문득 자신의 처지가 결코 나락에 떨어져버린 絶望之處가 아님을 깨닫고 天命에 순응하는 길이 진정 자신의 지향 할 바이며 이를 통하여 잠재된 번뇌를 떨쳐버리게 됨을 시사하는 詩이다.

충직한 종이 病이 오래어 입맛이 없다고 하자 불어난 강가에 촘촘한 그물을 던져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왔다. 바늘만한 물고기까지 잡아 온 것을 보아 그물의 촘촘함을 알 수 있다. 어린 물고기를 불쌍히 여겨 소분에 담아놓고 그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큰 것 일곱 마리이고 작은 것 두 마리

334) 『蘇齋集』 卷1, 169, <九魚歌>.

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대오를 지어 흩어지지 않으려는 안쓰러운 모습에서 애잔한 惻隱之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향하여 말을 건넨다. “수달의 먹이가 되거나, 도마에 올라 사람에게 잘림되는 것보다 며칠이라도 이 동이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묻는다. 물고기가 수줍게 말하기를 이 세상의 禍福과 吉凶, 合散과 生滅은 정해진 질서가 아니라서 어느 때고 닥쳐올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운명을 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명을 좇고 순명을 따른다고 하고 있다. 묘사에서 자시에 이르기까지 이를 바라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긴 詩人은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물고기들의 삶의 지혜를 깨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분함과 욕망의 역제를 다짐하게 된다.

특히 이 詩는 시인이 단어의 사실적 묘사에 충실하여 물고기들의 動態性을 세밀하고 실감나게 표현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물고기에게 말을 던지고 받아낸 답은 소재가 기나긴 유배의 역경을 헤쳐 나가는 지혜이며 다짐의 말이기도 하다.

嘉靖癸丑歲	가정 계축년
既望建亥月	시월 기망 이라
盧子方讀書	노자 바야흐로 글을 읽는데
偏頭疼暴發	편두통이 폭발하였다
是何發之暴	이 어찌 통증이 심한가
痼疾罔時歇	고질이 되어 멈추지도 않네
前年劇唸呶	전년에 심하게 신음했는데
今年更恍惚	올해 다시 머릿속이 흐릿해지네
當其初發時	처음 두통이 발할 때는
惟欲速僵蹶	오직 급하게 쓰러질듯하고
少焉及痛定	잠시 후 통증이 가라앉으면

方覺在我顛	내 아픔이 있었음을 아네
老婢索酒煨	노비는 술을 찾아 데우고
長鬚亟煖埃	하인은 구들방을 따뜻하게 하네
厚被竟莫汗	두터운 이불로도 마침내 땀내지 못하여
起而復帶襪	일어나 다시 띠 메고 버선을 신네
涔涔後頂右	고통은 다시 우측 정수리로 옮겨지는데
何其興也勃	어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가
搯入切切肉	때려서 살점이 끊어지고
鑷出種種髮	머리털을 족집게로 뽑아낸 듯하네
(中略)	
豎也短我愆	병이 나의 강박함을 싫어해서
上訴頗相訐	자못 잘못을 들추어 상소했네.
上帝鑑我心	상제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憐我魂隕越	나의 혼이 떨어진 것을 불쌍히 여기어
急遣巫陽下	급히 무양을 아래에 보내시고
以招不以罰	초혼으로써 벌하지 않으시며
可明語其人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 하셨다.
少寬無太扞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동요하지마라.
已囚豎莫逃	이미 병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어
使莫肆暴猝	마음대로 포악치 못하게 하였다.
爾意予自恕	너의 뜻 절로 이해하니
予命爾罔忽	나의 명령을 너는 잊어버리지 마라.
夭者未必瘦	요절하는 자 반드시 수척하지만은 않으며
壽者未必膺	장수한자 반드시 살진 것만이 아니다.
瘡痍或久生	혹 나고 상처난자 혹 오래살기도하고
康強或先歿	강건한 자 먼저 죽기도 한다.

韓彭醢侯王	한신과 팽월은 후왕 되기를 바라 소금에 절임 되고
夷齊餓薇蕨	백이와 숙제는 고사리 캐먹으며 굶어 죽었지
(中略)	
魯叟不欺汝	노나라 늙은이는 너를 속이지 않았으니
忠信死蠻貊	변방에서 죽더라도 忠信 하라 하였지
且禦海魑魅	또한 바다의 도깨비를 막고
可懼楚檣杙	초나라의 도울을 두려워하리라 ³³⁵⁾
疾或憂父母	병이 혹 부모를 걱정하게 할 수 있으나
行豈玷門閥	행실이 어찌 문벌을 더럽히리
再拜謝子陽	재배하고 자양에게 감사하며
謹以書諸笏	삼가 제물에 써놓았네
睡起頭容直	아침에 일어나 머리와 얼굴을 바르게 드니
杲杲東方暉	환한 동방의 해가 떠오르네. ³³⁶⁾

위 詩는 소재가 39세(1553)에 지은 長篇古詩다. 지난해 초옥삼간을 짓고 蘇齋라 편액을 달아 학문과 독서에 침잠하고 있을 때이다. 계축년 시월 기망에 책을 읽다가 평소 고질병인 偏頭痛이 일어 고통을 이기는 과정을 섬세하게 서술한 시이다. 전반부는 독서 중에 발작되는 과정을 서술하였고 중간 부분은 병세의 진행과정을 온갖 비유를 동원하여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그리고 끝 단락에서는 꿈속에서 病으로부터 상소를 당하여 상제에게 끌려갔지만 상제는 측은히 여겨 벌하지 않고 天下理致를 들어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법을 알려주게 되자 환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아침을 맞이한다는 즐거리다.

이 시기에 소재는 시인과 화자가 분리되고 있는 여러 시를 쓰고 있으며,

335) 『孟子』, 「離婁下」, 第21章, “王者之迹熄, 晉之乘, 楚之檣杙, 魯之春秋, 一也.”

336) 『蘇齋集』 卷3, 213, <頭疼詩>, “八十五韻 備述疼狀以自遣.”

시의 특징은 여러 화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펴다가 마지막 화자에 의하여 도덕에의 귀납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전반부는 독서 중에 발작된 두통으로 하인들이 동원되고 치료에 임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고질화된 병이 낫지 않고 우측 정수리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의 중간 단락은 5일이나 지속된 통증의 양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病은 환자에게 “무슨 연유로 이러한 병에 걸렸느냐”고 묻는다. 이에 환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中宗조에 乙巳土禍를 당하여 내침되고 갖은 霜風과 재앙을 만나 순천을 거쳐 진도에 유배되면서 장기에 물이 들고 갖은 飢餓에 시달리며 간혹 술이라도 있으면 취하여 쓰러져 문지방을 매고 잠들었다고 말한다.³³⁷⁾ 이에 병은 환자의 강박함을 싫어해서 상제에게 참소를 하게 된다. 그러나 황제는 환자의 혼이 상할까봐 무양을 보내어 별하지 않게 하고 세상의 이치를 들려주면서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만약 바름을 좇다가 죽음에 이른다하더라도 죽음 앞에 편안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되고 이제 맑은 마음으로 동방의 밝은 해를 맞이하면서 육신과 정신의 병을 치유 받고 있음을 읊은 시이다.

惡陣成鬱結	오래되어 큰 포기로 무성해진 것 싫어하며
喜燥向東南	마른 것 좋아하여 동남을 향하네.
膏潤深深掘	양분은 깊이깊이 파묻어 주어야하며
瓊瑤箇箇擣	모두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네.
(中略)	
接幹盡物變	줄기를 접하면 물의 변화를 다하고
折條關化覃	가지 꺾어주면 새가지 퍼지는 것 볼 수 있네

337) 『蘇齋集』卷3, 213, <頭疼詩>, “八十五韻, 備述疼狀以自遣: 昔在吾中宗 大漸勢艱危 時予謬通籍 長違違 矻矻 寢食廢數旬 冒霜雪颼颼 大岫疊遭遇 傷寒復中喝 俄遷順移珍 瘴癘染神闕 傲備嘗炎涼 餽厭苦糠粃 杯觴或逢場 醉臥常依櫬 雖其勢然耳 畢竟自貽厥”

封須飾沃壤	묵은 좋은 흙은 채로 쳐야하고
澆必澆肥泔	물은 반드시 기름기를 걸러야하네
久霑愁鬢腐	오래주면 검게 썩을까 걱정하고
恒暘恐赤燼	늘 햇볕 들면 붉게 탈까 두렵다네.
毀絲捕螭蝮	줄기를 상하게 하는 갈거미는 잡아야하고
除蝕呪螟蠶	값아먹는 마디벌레는 저주하리라.
挿葦筠旁侍	갈대나 대나무를 꽃아 지탱해주고
栽松柏下龕	소나무나 잣나무 아래에 심어 덮어주어야 하네

(中略)

氣盛行當九	기운이성한 9월이 되어
華生數借三	꽃 몇 개의 봉오리가 피어났도다
圓模天與准	둥근모양은 하늘과 같고
純色土相參	순수한 색은 흙빛과 같네
水月精神迥	수월정신이 뛰어나고
冰霜格力譚	빙상 같은 격력이 뛰어났도다

(中略)

淡泊彌尊重	담박함이 두루 존중스럽고
沖和自泳涵	충화함은 스스로 길렀던 것이네

(中略)

嚼破平無毒	씹으니 맛은 덤덤하여 독이 없고
明殘正得甘	뒷맛이 달기만 하구나
定爲仙子餌	정녕 신선이나 먹는 것
寧許俗人媿	어찌 속인 즐기기 허락하리오. ³³⁸⁾

노수신의 유배기에 제작된 작품 중에는 동식물을 주제로 한 작품이 상당

338) 『蘇齋集』 卷3, 198, <菊詩五百言>.

수가 된다. 소재는 동물에 관한 詠物詩³³⁹를 통하여 자신의 고단한 여정에 대한 표현으로 동물 이미지를 택한 것 같다. 해배후의 작품에서는 그의 등장하고 있지 않는다.

다음으로 식물에 대한 애정 이었다. 소재는 매화와 국화를 사랑하였고 그의 蘭, 荷, 蒲, 竹, 茶, 橘, 松 등을 소재로 하여 시를 지었다.

위 詩는 1550년 36세 되던 9월에 乙卯倭變을 겪고 지은 <菊花五百言> 중 전반부의 시이다. 국화의 생태와 꽃의 모양이나 향기 재배법에 이르기까지 체험에 의한 사실적 묘사를 통하여 소재의 국화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름을 주는 施肥法을 비롯하여 묵은 포기가 썩기 때문에 새 포기로 갈아 심어야한다는 것과 강렬한 햇볕을 피하기 위하여 소나무나 잣나무 아래의 그늘에 심어야하고, 가지가 퍼져나가도록 순을 따 주어야하며, 쓰러짐을 막기 위하여 갈대나 대나무를 지지대로 삽입하여 묶어주어야 한다는 전문적 용어를 동원하여 재배의 전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의 중반부에 나타나는 갈거미의 충해와 마디벌레는 시에서 작가가 의도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다. 을사사화의 변란을 겪고 느껴지는 소재의 만상은 조정을 전횡하고 있는 윤원형 일당에 대한 무언의 반발이었다. 유배초기 좌절을 겪고 썼던 율분의 시들은 현실의 횡포에 대한 몸부림이었다. 국화 詩에 등장한 벌레들은 정도를 일탈한 자들을 지칭한 간접적 묘사였다. 시에서 보편적으로 금기시되었던 ‘捕’나 ‘呪’를 사용하여 격렬하고 강한 응징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후반부의 내용은 잘 자란 국화가 봉오리를 이루고 향기를 토하며 淡泊함과 沖和한 군자적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씹힌 줄기에서 우러나는 향훈은 신선이나 맛볼 수 있다고 그 담박한 맛을 찬사하고 있다.

소재의 국화에 대한 感愛는 이 時期에 수편의 시가 보이며, 解配 후의 시

339) 소재가 동물들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는 <寒鳧>, <有鼠>, <乳燕> 卷4의 <觀應有感>, <和柳承霽官池鍛翻雁五十韻觀駒戲泳>, <喪鷹>, 卷5의 <夢驥>, <失鷹>, <葬驪>가 그 범주에 속한다.

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 국화는 소재의 시련기의 동반자로
 뜰에 심어져 있었고 시제에 올려져 詠物詩의 대상이 된 것이다.

- ① 坐上春風面粹然 자리 위 봄바람이 醇厚하게 불어오니
 栗溫佳氣出藍田 울온의 아름다운 기운 남전에서 나왔다
 詩人相愛多相褻 시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까이 지내니
 不作妍妃卽瘦仙 어여쁜 王妃되지 않고 瘦仙이 되리
- ② 色精內白有悲歌 색은 정미하고 안은 희며 슬픈 노래 있다네
 認取江南樹獨嘉 강남의 나무 중에 홀로 아름다움 취했구나
 自是偏從忠愛發 이로부터 편벽되이 忠愛를 발하여 따르니
 箇中遺了一團和 개중에는 일단의 화기가 유전되었도다.
- ③ 侵凌霜露看黃英 서리와 이슬이 侵凌할 때 국화를 보았는데
 殘後交承便到兄 꽃이 지자 교차하여 다시 매화가 피도다
 歲暮黃昏能幾度 세모와 황혼을 얼마나 지났던가
 只拚三逕了淵明 다만 삼경이 깨끗하니 淵明 떠났네.
- ④ 清香瘦影本來奇 맑은 향기 여윈 그림자 본래 기이하니
 天遣精神在此時 하늘이 정신을 보낸 것이 이때에 있었다
 得雪有詩增勝概 눈을 얻고 시가 있어 勝概를 더하니
 覺將期待着人爲 기대를 가지고 인위를 보는 것을 깨닫겠구나.
- ⑤ 苦節寒心是自家 곧은 절개 차가운 맘 절로 일가 이루니
 天機動處有英華 천기가 일어난 곳에 영화로움 있도다
 莫嫌籬外紛紛過 울타리 밖 부산하게 지나감을 혐의마라

- 未必看花便識花 꽃 보는 것 꽃 안다고는 말할 수 없지.
- ⑥ 深衣整肅欲無言 심의를 정숙히 하고 말하지 않고자하니
玉色平和稍可親 옥 색깔 화한 평화 점점 친해진다
階下雪中終日立 계단아래 눈 속에서 온종일 서 있으니
里閭爭指喪魂人 마을 사람 다투어 녀 잃은 사람이라 하네.
- ⑦ 尊前高詠發天真 술 앞에서 천진을 발하여 높이 읊조리니
方與梅花一樣春 바야흐로 매화 함께 한 가지 봄이로다
更好醉中看不細 취중이라 자세히 보지 못함도 다시 좋구나
風飄一點轉愁人 바람 한 점 부니 사람 수심 더욱 일어난다
- ⑧ 花正開時春正宜 꽃 피는 것은 봄 시절이 마땅한 것이니
千紅萬紫總低眉 千紅과 萬紫가 모두 눈썹을 낮추었다
懸知他日繁華地 다른 날 변화한 곳에 드리남을 알겠으니
故遣嬌鶯詆玉姿 이에 교태로운 앵무를 보내어 玉姿를 힐뜯는다.
- ⑨ 雪膚何所着纖埃 눈 같은 피부 어떤 곳에서 티끌이 붙었는가
便近衙蜂不拒來 문득 벌통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莫把素心傾底蘊 素心을 깊이 기울여 잡지마라
恐因漏洩蝶聞猜 누설하여 나비가 듣고 시기할까 두렵구나.
- ⑩ 知心只許竹和松 마음을 아는 것은 다만 대나무와 소나무뿐
吐露何嫌雪月中 토로함에 어찌 눈 속의 달을 혐의하는가
還有苦吟多病客 다시 괴롭게 읊으니 병 많은 객이로다
一生懷抱偶然同 일생의 회포가 우연히도 같구나.

⑪ 耿耿巡簷對舊知 경경히 처마를 돌아 옛 친구를 대하니
 百年開破我心期 나의마음 기대같이 백 년 동안 피었네
 本來不擬花能答 본래 꽃이 답하지 못한 것 헤아리지 못하고
 不語花前更語誰 꽃 앞에서 말하지 않으니 다시 누가 말하리오.

⑫ 疏影橫斜水清淺 성긴 그림자 가로 빛기어 물은 맑고 얇은데
 暗香浮動月黃昏 그윽한 향기 떠돌아 움직이니 달은 황혼에 있네
 邇來詩思人間盡 근래의 詩思가 인간사에 다했으니
 空向西湖怨少恩 공연히 西湖를 향해 작은 은혜를 원망한다.³⁴⁰⁾

詠物詩는 작가 자신의 내제된 자아의 표상으로 주관적 정의가 表出된 것이다. 매화는 옛날부터 시인들의 소재로 가장 많이 쓰였으며 중국의 梅花詩 역사는 『詩經』의 <標有梅>로부터 시작되어 시대적 변천을 거쳐 吟遊되어왔다. 『詩經』의 <標有梅>는 소박한 사실적 묘사에 거친 반면 唐宋을 거치면서 자태, 품성, 색채가 가미되고 美化되어 왔다. 특히 宋代에 들어 성리철학과 결부되면서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매화시의 시원은 고려중기 李奎報로부터 출발한다. 그 뒤 李穡, 車天錫, 韓脩, 鄭夢周, 鄭道傳 등으로 이어져왔으며 조선조에는 매화의 美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고 성삼문(梅竹軒), 김시습(梅月堂) 등은 자신들의 영상(雅號)으로 삼았으며 徐巨正은 특히 매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省察로 예술적 梅花詩를 여러 편 남기고 있다. 소재와 同時代의 퇴계는 人生觀과 自然觀이 부합된 精彩로운 여러 매화시를 남기고 있다.³⁴¹⁾ 퇴계의 매화 시는 평생에 걸쳐 고르게 나타난 반면 소재의 梅花詩는 유배기간에 집중되고 있음이 차이점이다.

340) 『蘇齋集』 卷1, 159, <詠梅十二絕>.

341) 洪瑀欽, 『漢詩論』, 嶺南大 出版部, 1991, 132-133쪽.

위 詩는 유배초기 12절로 만들어진 詠物詩로서 매 詩마다 여러 모습으로 매화를 완상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제①의 詩는 “봄바람에 매화를 완상하니 그 기운이 남전으로부터 왔다”고 傳來의 始原을 밝히고 있다. 藍田은 중국 협서성 남전현의 동남에 있는 산이며 옛부터 아름다운 옥의 산출지로 유명하였다. 최고의 玉이 남전에서 나왔듯이 옥과 매화를 동일체로 하여 출처의 시원으로 하였다. 이어서 제②의 시는 색의 정미함과 홀로 아름다움을 간직하여 화기가 유전되었다고 純白의 색상을 찬상하고 있다. 제③의 시는 서리 이슬로 시들어버린 국화에 이어 새봄과 함께 매화가 다시 피고 있는 自然 現象界를 묘사하고 있다.

제④의 시는 매화에서 우리나라오는 맑은 향기와 달빛에 비친 그림자를 통하여 純美한 정신을 확인하고 있다. 이어 제⑤의 시는 “울타리 밖에서 훔갈리는 매화를 보는 것으로 꽃의 진심을 안다고 하지 말고 내면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⑥의 시에서 시인은 深衣를 정숙히 갖추고 玉 색깔의 和氣로운 꽃을 완상하면서 온종일 서있다. 이에 못 사람들은 혼이나간 사람이라 부르고 있다.

제⑦의 시에서 시인은 봄을 노래하면서 술에 취하여 대충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제⑧의 시에서는 옥색으로 피어난 순백의 꽃속 몇 그루의 나무에서 피어난 紅色과 紫色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앵무를 보내어 옥색의 자태를 질투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 시 제⑨는 백색의 꽃무리 속에 갑자기 꿀을 찾는 벌들을 보고 나비가 질투할까 저어된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제⑩의 시는 마음을 아는 것은 변치 않는 대와 소나무 뿐이라고 말하며 눈 속에 비친 달에 투영된 자신의 굳은 심상과 대비시키고 있다. 제⑪의 시에서 시인은 백 년 동안 피고 지는 매화를 보면서 말없는 그를 대신하여 그의 영혼과 자태를 시로서 찬상한다. 제⑫의 시에서 시인은 얼은 물이 흐르는 맑은 梅園에서 이제 으스스럼 달이 지려할 때 자신이 문득 유배객

임을 깨닫는다.

시인은 매화의 이미지를 玉에 비유하여 맑고 투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눈의 깨끗하고 淡泊함과 그 아래를 비추는 달밤을 배경하여 매화를 자신이 지향하는 청정함과 인고의 상징으로 설정하여 자신을 대입시키고 있다.

V. 文學史的 意義

1. 諸家の 評

문학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 환경과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재는 己卯士禍의 여진이 잔재된 불안한 시기에 道
學政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혁신적인 士林派 일원이었다. 그는 자신
의 사상을 피력하는 적의한 典故등을 시어로 동원하여 주로 40대 이후에 많
은 양의 哲理詩를 창작함으로써 퇴계와 함께 士林系列의 시인으로 분류되기
도 하였다.³⁴²⁾

그의 학문과 사상적 토양은 주자학의 敬의 함양과 格物致知에 두고 있었
으나 유배 후 상황적 변화는 그를 朱子學과 배치된 象山學과 陽明學을 수용
하게 하였으며 그가 해배되어 조정에 들어온 후에도 이의 지지를 공식적으
로 표명하여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관점을 철회하지 않
아 주자시대에 홀연히 나타난 陸象山과 비교되었다.

소재 문학은 朱子學에 학문적 기저를 갖춘 流配前과 象山學을 수용한 그
이후로 차별된다. 유배기의 그의 시풍은 나흠순의 사상을 수용하여 主氣論
과 人心道心體用說, 옥망의 긍정에 대하여 그의 논문인 「人心道心辨」과 「執
中說」을 지어 그의 사상적 특징을 究明하였다. 그런 후에 그는 格을 과감히
파하고 人欲을 긍정적인 자유분방한 江西詩風을 받아들이고 그가 法했던 두보
의 시풍을 자기의 현실 감각에 용해하여 나름의 시세계를 열고 있다.

그동안 소재 시에 대한 평가는 그의 詩風, 格律, 時代的 位相에 집중되어
조명되고 있다. 그의 시풍에 대하여 權應仁은 “소재 상국의 시는 杜詩를 오
로지 학습하여 순정하고 노아하다.”³⁴³⁾라고 평하고 있으며, 梁慶遇는 “노소

342) 현상윤,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49, 201-210쪽.

343) 權應仁, 『松溪漫錄』 下, “蘇齋相國之詩 專學老杜 純正老雅.”

재의 오언율시는 杜法에 충실하여 一字一言이 모두 두보로부터 나왔다.”³⁴⁴⁾ 고 하였다. 허균은 “소재의 ‘해월에 별레 소리 거치고 산바람에 이슬기운 거 두네’의 구절은 少陵(杜甫)의 시권에서 구하더라도 많이 얻지 못한다.”³⁴⁵⁾고 하였다. 또한 김창협은 “시의 노건하고 넓고 비장 한 것은 깊이 두보의 격력을 얻은 것이니 후에 두보를 배운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³⁴⁶⁾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그의 시풍은 인육을 시의 정서에 교감시켜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면서 두보의 시풍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투영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은 소재의 格律에 대한 평가다.

소재의 시는 대부분이 유배기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소재에 대한 詩評도 流配 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申欽은 『象村集』에서 “소재가 진도에 있을 때에 지은 시는 警絶한 것이 많아서 人口에 膾炙되었다.”³⁴⁷⁾고 하였으며, 眉叟 許穆은 「蘇齋 先生神道碑銘」에서 “선생의 운문은 海島 19년의 澤畔吟으로, 바로 초나라 屈原이 우울한 심정을 읊은 것과 같다.”고 하면서 谿谷이 “소재의 시는 기격이 웅발하다.”³⁴⁸⁾고 한 말을 인용하여 시의 내면적 정서를 정의하였다.

홍만중은 『小華詩評』에서 “과회의 <寄尹李詩>는, ‘저문 날에 숲속 까마귀 피를 토하도록 울고, 추운 날 모래엔 기러기 그림자 짝이 없구나’라는 구절은 일찍이 그 悽婉함을 탄식하지 않음이 없다.”³⁴⁹⁾고 평하였다. 유배기의 아픔과 고뇌를 학문탐구로 극복한 소재의 시는 “얇은 재주로 공교롭게 써서 잠깐 동안 흥을 돋우는 정도를 벗어나 洪鐘이 울리는 듯한 굳세고 힘찬 경지를 이룬 것이다.”라는 평가다.

344) 梁慶遇, 『霽湖詩話』, “盧蘇齋五言律 酷愛杜法 一字一言皆從杜出.”

345) 許筠, 『惺叟詩話』, “蘇齋海月蟲音盡 山風露氣收之句 求之於少陵卷中 亦不可多得.”

346) 金昌協, 『農巖集』 34, 「雜識」, “其浸鬱老健莽宕悲壯 深得老杜格力 後來學杜者莫能及.”

347) 申欽, 『象村集』, 「晴窓軟談」, 224쪽, “其在海島所作詩 多警絶 膾炙人口.”

348) 許穆, 「蘇齋先生神道碑銘」, “其有韻之文 海島十九年澤畔吟也 正與屈左徒窄愁幽思之同致. 溪谷有言 蘇之氣格 雄拔.”

349) 洪滿宗, 『小華詩評』, “寡悔之寄尹李詩 暮日林鳥啼有血 天寒沙雁影無隣 未嘗不歎其悽惋.”

반면 李晔光은 『芝峯類說』에서 “한때 세상에서 칭송할 뿐 아니라 입에 올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구어가 優體를 면치 못하였으니 詩를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³⁵⁰⁾라고 하였고, 李瀾은 『星湖僮說』의 <詩文門>에서 “소재의 시는 俚語가 많이 섞여서 사람들이 그 雅하지 못함을 흠으로 여기고 있지만 근량이 심히 무거워서 마치 열석 무게의 활을 당기는 것처럼 활시위에 걸때부터 관솔에 이르기까지 털 끝 만큼이라도 그 힘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과 같아 이른바 공중을 가로질러 억센 말이 서리었으니 어찌 標題의 힘을 막겠는가?”³⁵¹⁾라고 하여 典雅하지 못한 부분과 억세고 힘찬 경지를 함께 비교 평가 하고 있다.

다음은 시인의 풍모에 대한 평가이다.

柳夢寅은 『於于野談』에서 “소재 노수신은 진도에 19년간 유배 갔다. (中略) 책은 읽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論語와 杜詩에 치우쳐 이천 회에 이르렀다.”³⁵²⁾고 하였다. 소재 자신도 無所不讀의 왕성한 독서 중에서도 論語와 杜詩에 치중하여 “我之詩文 最於論語中得力”이라고 自評하고 있다. 이렇듯 기나긴 유배생활을 통하여 굳세고 힘차며 무게가 있는 시가 창작 되었다는 評을 듣고 있다.

梁慶遇는 「霽湖詩話」에서 옛날 己酉年(1609)에 詔使가 배를 띄웠는데 당시 이름난 사람이 製述官으로 그를 따랐다. 노수신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자 한사람이 말하기를 “대가의 솜씨이니 어찌 가볍게 의논하리요?”라고 하자 좌중의 두세 사람이 유독 말하기를 “短律은 비단 좋지만 長律은 사나워 취할 것이 못 되오.”라고 했다. 典籍 車雲老가 팔을 걷고 크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小家の 작품은 비록 한 篇 한 句는 읊을 만한 것이 있지만 여기저기서 주어모아 연약하고 조잡하며 삭막하여 기력이 없다. 蘇齋의 작품에 이르

350) 李晔光, 『芝峯類說』, “一時稱誦 不啻膾炙 而句語未免優體 詩可易言哉.”

351) 李瀾, 『星湖僮說』, <詩文門>, “蘇齋之詩 多雜俚言 人謙不雅 然斤兩甚重 如挽十石弓 自始 鉤鉉 至澁率 毫髮不可怠其力 所爲 橫空盤硬語 妥帖力排.”

352) 柳夢寅, 「於于野談」 卷上, 26쪽.

면 萬鈞이나 되는 勢가 있으니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풀 사이의 귀뚜라미들이 울다가 큰 종소리를 듣고 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遊金剛山>이라는 장편율시 한 수를 들어 외우다가 그 중에 ‘구름 낀 늙은 소나무 서있는 어둑어둑한 골짜기요, 지는 해에 얇은 물가의 위태로운 다리로다.[屯雲古檜陰陰洞, 落日危橋淺淺灣]’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세 번이나 영탄하였다. 내가 보기에 위의 구는 渾厚하고 아래의 句는 古雅하면서도 맑아, 경중이 고르지 않은 것 같다.³⁵³⁾라고 하였다.

다음은 解配 후의 소재에 대한 評을 살펴본다.

中宗時부터 宣祖時까지 뛰어난 시인으로 湖蘇芝를 꼽는다. 이는 湖陰 鄭士龍, 蘇齋 盧守愼, 芝川 黃庭彧을 말한다. 그들은 모두 大提學의 반열에 올랐으며 권신들 간의 다툼에서 더러 패배를 맛보기는 했지만 물려받은 전통과 자기능력으로 조선중기 官人文學을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써 館閣三傑로 칭송 되었다³⁵⁴⁾.

南容翼은 『壺谷詩話』에서 “내가 사건으로 망령되어 高麗와 朝鮮의 시를 論 할진데 鄭湖陰 士龍은 鍊悍하고, 盧蘇齋 守愼은 淵宏하며, 黃芝川 廷彧은 典特하다.”³⁵⁵⁾고 하였다. 洪萬宗도 “세인들이 근대 명가를 칭함에 반드시 湖蘇芝를 말한다. 湖陰은 組織精緻하고, 蘇齋는 雄拔富贍하며, 芝川은 橫逸奇偉하니 참으로 가히 相角한다.”³⁵⁶⁾고 말하였다. 이로 미루어 湖蘇芝는 당시의 시문학에서 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소재의 시는 ‘淵

353) 梁慶遇, 「霧湖詩話」, 『詩話叢林』(6), “昔在己酉, 詔使之遊漢江也, 一時名於詩者, 皆以 製述官 隨之, 乘船在後, 相與評論古今詩, 滿船喧然. 語及蘇齋, 一口言曰: 大家手也, 安敢輕議? 座有二三, 獨曰: “短律雖佳, 長律則麤厲不足取. 車典籍雲輅, 攘臂大呼曰, 小家之作, 雖一篇一句可吟, 掇拾纖碎 索無氣力, 至於蘇齋之作, 有萬鈞之勢, 安敢與之爭衡也. 無異草間蟋蟀, 遇洪種而止 因學 遊金剛山長律一首, 而誦之. 其屯雲古檜陰陰洞落日危橋淺淺灣之句 三復咏嘆以余觀之, 上句渾厚, 下句雅亮, 輕重似不均稱矣.”

354) 南龍翼, 『壺谷詩話』, “評者謂 鄭湖陰 盧蘇齋 黃芝川 館閣三傑.”

355) 南容翼, 『壺谷詩話』, 387쪽, “余以臆見 忘論勝國與本朝之詩曰. 鄭湖陰 士龍之鍊悍, 盧蘇齋 守愼之淵宏, 黃芝川 廷彧之典特.”

356) 洪萬宗, 「小華詩評」, 792쪽, “世稱近代名家 必曰 湖蘇芝 湖之組織精緻 蘇之雄拔富贍 芝之橫逸 奇偉 眞可相角.”

宏', '雄拔'하다는 평이 두드러진다. 農巖 金昌協은 그 중에서 소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노소재의 시는 宣祖 初에 가장 뛰어났으니 무게 있고 함축적이며 노련하고 힘이 있으며 드높고 비장한 것이 두보의 풍격을 깊이 터득 하였다. 그 뒤에 두보를 배우는 이들 중, 세상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으니, 그는 공력을 들인 끝에 우화 속에서 터득 한 것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노인은 19년 동안 섬에서 오직 「夙興夜寐箴解」만 지었으면서도 그 의리를 그다지 받아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나왔을 때에는 기개와 절조가 태반은 사그라졌지만 다만 두보의 시를 배운 것만이 이처럼 좋았던 것이다. 세상에는 湖蘇芝라고 말하지만 세 분의 시는 실로 같지 않다. 湖陰의 組織 鍛鍊한 것은 西崑體와 비슷하나, 풍격은 蘇齋만 못하고 芝川은 힘차고 기발한 것이 황정견, 진사도에게서 나왔으나 활달함이 소재만 못하니 소재가 가장 낫다고 할 것이다.³⁵⁷⁾

이처럼 湖蘇芝를 상호 비교하면서 소재의 시풍이 가장 낫다고 평하고 있다.

金萬重은 『西浦漫筆』에서 “소재가 스스로 말하기를 七律은 湖陰만 못하나 五律은 낫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심히 옳다.”³⁵⁸⁾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호음은 “그대의 여러 體가 어찌 나의 一律을 당하리.”³⁵⁹⁾라고 응수하여 스스로 詩의 자부심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칠언이 호음 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해될 수 있거니와 칠언에 대한 그의 긍지는 대단한 것이었다. 또 칠언이 應制의 형식으로 알맞은 시형이기 때문

357) 金昌協, 『農巖集』 34章, 378, 「雜識」外, “盧蘇齋詩 在宣廟初 最爲傑然 其沈鬱老健 莽宕悲壯 深得老杜格力 後來學杜者莫能及 蓋其功力深至 得於憂患者爲多 余謂此老十九年在海中只做得夙興 夜寐箴解 而亦未甚受用 後日出來 氣節太半消沮 獨學得杜詩如此好耳. 世稱湖蘇芝 然三家詩實不同 湖陰 組織鍛鍊 頗似西崑 而風格不如蘇 芝川 矯健奇崛 出自黃陳 而宏放 不及蘇 蘇齋其最優乎.”

358) 金萬重, 『西浦漫筆』, 622쪽, “蘇齋自謂七律不如湖陰 而五律勝之 此言甚公.”; 梁慶遇, 『霽湖詩話』, “蘇齋曰我與湖陰 詩名相埒 世不能辨其優劣 僕之長律 不及湖陰 湖陰短律 不及於僕各有長 處耳.”

359) 許筠, 「惺叟詩話」, “湖陰曰: 渠之衆體 安敢當吾一律乎 其自重如此”

이며 應制詩는 임금이 운을 내릴 때 즉각 화답해야 하는 것임에 ‘應口輒對’의 숙련을 거쳐야 되는 바 館閣文人으로서 수많은 단련을 거치고 타고난 문학성을 갖추고 있는 湖陰의 당당함이었으리라고 본다.

또 “蘇之五律, 湖之七律”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 바, 대부분 소재의 五律은 문자의 推敲와 문자의 婉絶하기가 老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견해이다. 이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재의 시는 ‘沈鬱’, ‘悽惋’하다는 시평이 있기는 하나 유배기의 시에 대한 부분적 평가로 보이며 전체적인 시풍은 ‘雄拔’, ‘淵宏’, ‘富贍’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배기 동안 학문에 精研하여 得力한 것이 왕성한 詩作을 통하여 그의 詩世界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산이 “소재는 杜甫를 체득하였고 삼당과는 法唐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재의 이력은 法杜를 했더라도 그가 강서시파의 종주인 황정건, 진사도를 섭렵했던 송풍을 지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재의 문학은 강서시파를 섭렵하고 나중 두보의 신운을 얻은 후 자신만의 독특한 文體를 만들어 일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³⁶⁰⁾

2. 文學史的 意義

朝鮮中期는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외적으로는 明나라의 復古主義 문학사조가 일어났고 내적으로는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唐詩風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蘇齋의 역할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唐詩風이 수용되는 경로를 살펴본다. 黃玹은 「讀國朝諸家詩」에서 “占畢終爲學杜人”³⁶¹⁾이라고 하여 金宗直을 조선전기 전형적인 學杜家로 보고 있다. 또한 허균은 「孫谷集舊書」에서 忘軒 李胄(?~1504)로부터 시작된

360) 李鍾默은 그의 논문 「海東江西詩派研究」, 298쪽.에서 소재의 海東江西詩派의 작법이 黃陳을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고 杜甫를 통하여 습득하였다고 말하면서 이 점이 용재나 호음 등 다른 海東江西詩派와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다.

361) 黃玹, 『梅泉野錄』卷四.

學唐의 경로를 밝히고 있다.

지나간 弘治, 正德 年間(1488~1521)에 忘軒 李胄가 처음으로 당시를 배우기 시작하여 沈著, 奇麗하였고 沖菴 金淨(1486~1520)이 이어서 韋應物, 錢起의音を 지었으니 두 사람이 一斑이라고 할 만하나 애석하게도 그들의 나이가 한스럽다.³⁶²⁾

윗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學唐은 金宗直을 필두로 하고, 이후 성종 때의 李胄로부터 시작되어 金淨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허균은 또한 선조 때의 詩壇에서 그 중심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는 선조 때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다. 노소재가 두보의 법을 얻었고 黃芝川 이 代를 이어 일어났다, 崔孤竹과 白玉峯이 唐詩를 배우고 李益之가 그 흐름을 밝혔다.³⁶³⁾

詩史的 의미로 볼 때 詩의 원리가 宋代에 이르러 망했다는 주장은 宋代 嚴羽의 「詩辯」³⁶⁴⁾에서 확인할 수 있다. 許筠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詩는 宋에 이르러 亡했다 할 수 있다. 망했다는 것은 詩語가 아니라 원리가 망했다는 것이다. 시의 원리는 상세함을 다하고 곡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다해도 뜻은 계속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지시하는 바는 가까워도 意趣는 멀며 理致의 길에 빠지지 않으며 말의 통발

362) 許筠, 『孫谷集』, 「孫谷集舊書」, “往往弘正間 忘軒李胄之 始學唐詩 沈著奇麗 而沖菴金文簡公 繼起韋錢之音 二公足稱一斑 而惜也年命恨之.”

363) 許筠, 『許筠全書』, 「惺叟詩話」, 233-234쪽, “大同文化研究院, :我朝詩至宣廟大備 盧蘇齋得杜法 而黃芝川代興 崔白法唐而李益之闡其流.”

364) 嚴羽, 「滄浪詩話詩辨」, 郭紹虞編著 中國歷代文學論著精選(臺灣: 華正書局, 1980.) 170쪽.

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삼는데, 唐人의 시는 흔히 이에 가깝다. 宋人의 작자들이 적지는 않지만 모두 뜻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典故를 끌어들이는데 힘 썼고 또 험박한 운율과 균색한 押韻으로 스스로 그 格을 상하면서 단절됨을 알지 못했다.³⁶⁵⁾

이와 같이 宋詩가 시의 의미를 노출 시켜야하기 때문에 理格, 즉 觀念的, 理念的인 데에 빠져 일상적 삶의 정감으로부터 멀어지고 典故나 故事의 인 용에 치우쳐 난해하며 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구속함에 이르고, 마침 조 선건국에 따른 崇儒斥佛로 성리학의 정간인 朱熹의 尙杜와 중국시단에 불어 닦친 右杜風 그리고 鑄子の 발달에 따른 『纂註分類杜詩』 등 杜甫 문집의 간 행으로 선조 때에 이르러 學唐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³⁶⁶⁾ 이에 대하여 蘇齋는 두보의 법을 얻어 당풍을 열었고 芝川 黃正彥 또한 이에 가세하였으 며, 三唐詩人이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湖蘇芝의 湖陰 鄭士龍도 일찍이 孫谷 李達에게 杜法을 가르쳐 주었다. 湖陰도 학당의 시풍을 이루고 있었으 므로 湖蘇芝는 모두 唐詩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湖蘇芝 세 사람은 學唐派였다.

허균은 蘇齋와 湖陰, 芝川을 일러 湖蘇芝라 하여 唐風을 진작시킨 공을 치하하고 있다. 또 그들은 비교적 관직에 영달하여 소재는 비단 20년 풍상 의 유배를 거쳤으나 해배 후 수상의 지위에 오르고 湖陰은 동지사가 되어 明의 사신으로 가서 酬唱을 통해 館閣文人으로서의 지위를 내외에 공고히 하였고 浮沈이 심한 환로를 잘 헤쳐 갔으며 비단 한차례의 과거시험 문제 누출로 파직당하고 수차례의 탄핵이 있었으나 그의 남다른 처신과 文才로 대제학에 올라 文衡을 담당하고 비교적 장수하여 80까지 수를 누렸다. 그의

365) 許筠, 『惺所覆瓿藁』 卷4, 「宋五家詩鈔序」, 74쪽, “詩至於宋, 可謂亡矣. 所謂亡者, 非其言之亡也, 其理之亡也. 詩之理, 不在於詳盡婉曲, 而在於辭絕意續. 指近趣遠, 不涉理露, 不落言筌, 爲最上乘. 唐人之詩, 往往近之矣. 宋代作者, 不爲不少. 俱好盡意, 而務引事 且以險韻窘押, 自傷其格殊不知.”

366) 李丙疇, 「韓國漢文學上の 杜詩研究」, 『漢文學研究』, 正音社, 1981.

長律은 소재의 短律과 대비시켜 최고봉의 대우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선조조의 國亂 시련기인 壬辰亂 이전 문단의 중심인물이었으며 소재보다 17년 아래인 지천 황정욱은 1558년 식년 문과에 급제한 후 예문관 검열 등을 출발점으로 光國功臣 1등으로 長溪府院君에 봉해지고 예조판서, 병조판서에 이르게 되었으며 소재의 陰澤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1592년 壬辰亂의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號召使가 되어 臨海君, 順和君을 배종하다가 鞠景仁의 배신으로 왕자와 함께 붙잡혀 적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로부터 항복문서를 강요받자 이를 거부했으나 손자와 두 왕자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그 아들이 대신 썼는데 이것이 후일 문제가 되어 동인 세력에 의하여 吉州에 유배당하고 1597년에 풀려났으며 그의 재능은 詩, 文, 書에 두루 능하였다. 상대적으로 그의 자료가 일천하여 館閣三傑로 칭함 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자료와 삼인을 함께 대비하여 연구한 실적이 미약한 형편이나 이 문제는 차후의 연구과제가 될 사안이다.

다만 소재를 시인의 위치를 가름 하는 말인 湖蘇芝의 별칭인 館閣三傑로 부른 것은 梅月糖, 秋江, 龜峯의 '山林三傑'과 대칭되는 이름임에 비추어 소재문학을 두루 관조하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소재의 詩 전반은 그의 20여년에 걸친 謫居期間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시와 철학이 소재연구의 중심 사료임에 비추어 宦路期의 다소 微量의 시문으로 관각 시인의 한 사람으로 구분된다면 소재의 시가 환로기의 시에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唐風을 크게 떨친 三唐派 詩人은 모두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은바 크다. 특히 白光勳은 22세 때부터 蘇齋와 사제관계를 맺었으며 36세에는 소재에게 천거되어 白衣 製述官이 되기도 하였다. 최경창 또한 수차 유배지를 방문하였으며 음양으로 소재의 영향을 받은바 크다. 三唐派들은 그들의 詩社 조직을 통하여 交通하였으므로 백광훈을 중심으로 소재이론이 전이되었으리라고 본다. 이로 미루어 소재는 白光勳과 崔慶昌에게 그들의 杜詩 문학

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인 것이다.

金萬重은 조선 전기의 시풍 변화를 논하면서 소동파를 大成한 李荇과 황정건을 參考한 박은을 선두로, 이후 강서파의 종주인 황정건, 진사도를 전공한 정사룡, 노수신, 황정욱을 하나의 변화로, 그리고 위의 宋詩風 특히 江西詩派와 구분되는 시인으로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을 새로운 전환의 선두인 唐詩로 反正한 자로 거론하였다.³⁶⁷⁾

결국 학당의 경로는 李胄를 거쳐 沖菴 金淨, 湖蘇芝, 三唐詩人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소재의 위상은 高踏的인 당시의 宋詩風 일변도에서 그가 整菴說을 수용하여 얻은 욕망의 긍정인 以我觀物的 詩作을 통하여 강서시풍을 수렴하고 그 위에 두보의 신운을 얻어 격조를 갖춘 詩를 창작하였다. 이는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천 수희의 다독과 영감으로 터득한 文才는 江西詩를 格調있게 구사하는 데 거침이 없었으며 나름의 품격을 갖추게 되니 이는 소재 別派를 만든 것이나 같았다. 전후 세간의 好惡간 평이 있었으나 대다수가 그의 시도에 우호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詩法과 시의 陰影을 삼당파에게 넘긴다. 그는 16세기 문단에 새 바람을 일으켰으며 강서시파의 이론을 토대로 나름의 두보에 침잠되어 唐詩文學를 정착시킨 三唐詩人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이로 미루어 소재는 해동 강서시파 일군으로의 지위와 唐詩風을 정착시킨 삼당파의 견인자적 위치에 서 그의 위상은 漢文學 史上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367) 金萬重, 『西浦集』(通文館, 1971.), 「西浦漫筆」下, 619쪽, “本朝詩體, 不啻四五變, 國初乘勝國之緒, 純學東波, 以迄於宣靖, 維容齋稱大成焉. 中間參以豫章, 則翠軒之才, 實三百年一人. 又變而專攻黃陳. 則湖蘇芝鼎足雄峙. 又變而反正於唐, 則崔白李. 其粹然者也.”

VI. 結論

본 논문은 소재의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구명하기 위하여 집필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 I 장에서는 研究의 目的과 기존연구의 현황 연구방법에 대해서 論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소재시의 형성배경을 알기 위하여 생애와 교유관계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연보, 행장, 신도비, 광주노씨 족보 등과 『蘇齋集』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그의 생애는 외적으로는 출생으로부터 28세까지 출사전을 修學期로, 문과 3장원을 했던 29세부터 乙巳士禍로 파직된 32세까지를 前 仕宦期로, 33세부터 53세까지의 고난극복과 학문을 연찬 했던 기간을 流配期로, 해배된 54세부터 解職되고 卒한 76세까지를 再 仕宦期로 구분한다. 문학작품 면에서는 「己亥 遊山錄」을 집필한 유배 전의 修學期, 22년의 유배 기간에 창작된 流配 文學期, 그리고 유배가 풀려 재 사환 된 이후 제작된 仕宦期로 구분된다.

소재 생애에서 그에게 학문과 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은 탄수 이연경과 회재 이언적이었다. 그 외 퇴계, 하서, 일재, 옥계, 율곡, 초당, 미암 등과는 잦은 서신교환 및 학문적 질정을 교환했던 사이였으며, 그의 弟子 群에는 甥姪들인 康復誠, 沈喜壽, 盧大河는 적거지로 불러 가르쳤으며 소오, 백광훈, 김천일, 나사을, 박빈학 등은 통래하며 수학하였고 해배 후에는 四耐 安慶昌, 사명당 惟政 등이 문하를 출입하였다.

소재문학의 형성배경을 살피기 위하여 시대배경과 정치 사회적 상황, 문학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을사사화의 외변으로 20여년을 유배객이 된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문학적으로는 강서시파의 출현과 宋詩에서 唐詩로 변천되는 문학사 적 흐름을 湖蘇芝와 三唐派를 연결하여 소재시를 조명하여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소재문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思想的 연원과 문학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당시의 시대적 지배사상인 朝鮮의 氣哲學을 개관하고 심성론에 대해서는 나정암설인 人心道心說을 중심으로 體用說에 의하여 풀이하였고, 그 수용양상과 修養論에 있어서는 執中說인 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재는 그의 宇宙觀이 氣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氣는 항상 動靜하고 그 조리가 理라고 보았다. 한편 소재의 도교, 불교, 양명학을 수용한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소재의 사상체계는 주자학의 보편적 논리체계에서 그 이론을 수용하였으며 그가 主氣論者이면서도 主理論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리의 정당성에 따라 이를 인정하였다. 論語를 중심으로 經書를 섭렵하여 얻은 해박한 학문은 당시 절대적 중심 사상이었던 주자 성리학에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었고, 유배 중에 「困知記拔」과 「夙興夜寐箴」, 「執中說」, 「大學章句」 등을 발표하게 된다. 소재는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했는데 그가 제시한 「人心道心說」은 조선의 氣哲學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기일원론에 대한 하나의 학설을 정립하는 성과를 거두고 양명학의 지평을 열게 하였다. 그의 문학의식은 理와 氣를 하나로 보는 理氣一元論에서 출발한다. 一元論은 以我觀物的 思考로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이다. 宋의 중심사상인 주자학의 高踏的이고 禁欲的 사고와는 다소 대비되는 학설이다. 그의 修學期는 주자학이 소재의 學問觀이었다. 그러나 그의 謫居는 환경과 사상의 轉變을 가져와 주자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羅整菴 학설이 소재가 처한 현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適宜한 사상관이었던 확신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詩文은 전래의 정형을 거침없이 허물고 파격적 시어구사를 통하여 朱子派 一群에게는 이탈자로 질타되면서도 새 물결을 추구하는 다른 부류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준 작품을 창작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인 IV장의 詩世界에서는 소재시의 형식과 특성을 살피고 소재시의 형상기법에 대해서는 강서시파의 특징인 시어의 확장, 구법의

과격, 전고의 효용, 의경의 안배로 세분하였다. 또한 시세계를 내용에 따라서 勝景自適과 脫俗 指向, 思親과 戀君에의 表情, 挫折과 超克의 情懷, 學問의 沈潛과 成就, 寫實的 自然景物 描寫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朝鮮의 시는 明宗朝까지 高麗詩風의 연장기로서 宋詩文學을 따랐다. 中宗 즉위 후 문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海東강서시파의 활동이 크게 진작되고 선조 때에 이르러 시풍의 변화가 두드러져 宋詩風이 唐詩風으로 전환되었으며 湖蘇芝와 三唐詩人이 출현하였다. 유배기에 杜詩에 침잠된 소재는 두보의 시법을 얻었고 白光勳, 崔慶昌 등과 사우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시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궁벽한 流配人이면서도 절망적 환경을 超克하고 학문에 침잠하여 이천여 회에 달하는 두보 시와 논어를 읽어³⁶⁸⁾ 어느 누구도 범접 할 수 없는 두보의 내면세계에 흐르는 神韻과 영감을 얻었고, 두시를 섭렵하여 시의 작법과 두보의 정신세계를 함께 융섭하여 강서시파의 이론인 以俗爲雅와 換骨奪胎의 이론을 바탕으로 당시 금기시 했던 비속어와 지명, 관직, 간지, 일자들의 시어구사를 과감하게 수용하였고 또 철학적 개념어를 시어로 구사하고 사물의 원리와 형상을 對偶로 並置하여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였다.

특히 소재는 조선 지명이 방언으로 되어있어 시어 선택으로 부적절하다고 금기시 됐던 것을 시어로 적극 구사하였고, 허균은 소재의 지명 구사가 강서시파인 點綴成金の 이론에 부족함이 없다고 “變俗作雅”라는 말로 높게 평가하였다.³⁶⁹⁾ 홍만중 또한 소재의 지명 구사가 격이 높은 수준임을 찬사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재가 지명의 시어사용에 대한 선구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시에는 散文에서나 볼 수 있는 助字를 자주 구사하여 후대의 비평가들이 노수신 시의 특징으로 부각시키고 있다.³⁷⁰⁾ 또한 소재는

368) 『終南叢志』, 386쪽.

369) 註 35) 참조.

370) 『芝峯類說』 卷12, “東坡贈人詩云: 聖善方當而立歲, 頑尊已及古稀年, 以其父年七十, 而其母方三十歲, 故獻之 盧守愼詩云: ; 寄也歸而免, 居然到者稀亦此也.”; 『清江詩話』, 194쪽, “盧公守愼, 謫居珍島. 有詩云云. 此詩蓋於壬辰歲作, 其謫必三千五百日時也. 又有送第詩云: 自此吾兄弟至於斯, 十年來五見之”

典故를 적극 활용하여 換骨奪胎를 실현하였다.

노수신은 당시 강서시파가 추구하는 性情美學의 경지를 넘어서 두보도 아니고 황정견도 아닌 ‘두보의 조선적 再現’을 이룩한 것이다. 이는 노수신이 두보를 배웠지만 두보의 시가 노수신의 정신 속에 용해되어 詩學에서 최고의 경지를 가리키는 融化自然에 이르렀다는 표현일 것이다.³⁷¹⁾

제 V 장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허균, 이수광, 김창협 등의 시평을 통하여 功過와 諸家들의 好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소재는 당시 經典의 권위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학문의 뿌리를 ‘心’을 강조하는 데에 두었다. 그는 이에 따라 ‘存心’을 강조하고 판단의 척도를 良識에 두겠다는 ‘唯心主義’적인 경향을 피력하였다. 이는 經典이나 傳註라 할 지라도 의심이 나면 자신의 양식에 의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퇴계등 주자학과로부터 ‘神味’나 ‘神學’이니 하는 비판을 받았으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소재 詩의 淵源은 강서시파로부터 출발한다. 노수신 시는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아 기이하면서도 웅장한 미감을 주는 작품과, 唐詩의 맑고 호장한 풍격이 드러나는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諸家の 평을 보건대 소재의 시풍을 대체로 ‘萬鈞之勢’와 같다고 하면서 유배기의 시는 ‘沈鬱’, ‘悽婉’하다고 하였고 전체적인 시풍은 ‘雄拔’, ‘淵宏’, ‘富贍’으로 評하고 있다.

소재문학의 文學史的 意義는 16세기 시풍의 轉換을 先導하였고 朝鮮 官人文學을 頂上으로 올려놓은 공로 외에도 갖은 풍진을 超克하여 후반기의 영광을 성취시켜 宦路의 정상에 올랐고 그는 유배기에 朱子學과는 이질적인 새로운 心性論과 修養論을 주장하여 조선 기철학과 陽明學의 지평을 열었으며 그가 살았던 桎梏의 삶속에서도 忠君 愛民의 좌표가 흔들림이 없이 지조를 지켰다. 그러하기에 그는 宣祖 등극 후 다시 조정의 부름과 선조의 極待를 받을 수 있었으며 後學들의 존숭의 대상이 된 것이다.

371) 吳台錫은 위 책 174-181쪽에서 黃庭堅 詩論의 最終的 指向이 “融化自然”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그의 生 전반은 그의 학자와 문인으로서의 先覺的 모습과 辛難을 초극하고 정상에 우뚝 선 승리자로서 모습을 同察하게 함으로서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소재의 詩作이 두보를 통하여 신운을 얻은 배경으로, 해동강서시과의 중심 이론인 “以俗爲雅”에 의하여 시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를 토대로 이룩한 그의 내면 시세계를 고찰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學唐의 앞뒤를 잇고 三唐詩人에게 큰 영향을 준 소재의 詩 研究는 조선조 16세기의 시풍변화를 살피는 好資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과제는 湖蘇芝 文學과 三唐派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선 초 중기 문학을 상호 비교 입체적으로 구명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1. 資料

- 盧守愼,『蘇齋集』, 天. 地. 人. 內集. 附錄.
- 權 近,『入學圖說』, 경문사, 1982.
- 奇大升,『高峰集』, 『韓國文集總刊』 40, 民族文化推進會, 1989.
- 金萬重,『西浦漫筆』, 『韓國詩畫叢書』 4, 東西文化社, 1989.
- 金麟厚,『河西集』, 京仁文化社, 1987.
- 金昌協,『農巖全集』, 景文社, 1980.
- 金千鎰,『健齋集』
- 盧守新,『蘇齋集』, 『韓國文集叢刊』 35, 民族文化推進會, 1990.
- 盧 禎,『玉溪集』, 『韓國文集叢刊』 37, 民族文化推進會, 1989.
- 柳成龍,『困知記』, 禮文印書館, 1965.
- 柳希春,『眉巖日記』,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3.
- 徐居正,『東人詩話』, 昨盛社, 1980.
- 申 欽,『象村集』, 「晴窓軟談」, 景文社, 1982.
- 李晬光,『芝峯集』,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4.
- 李德弘,『良齋集』, 『韓國文集叢刊』 51, 民族文化推進會, 1990.
- 李 珥,『石潭日記』, 『國譯大東野乘』 4, 民族文化推進會, 1982.
- 李 植,『澤堂集』, 『韓國文集叢刊』 88, 民族文化推進會, 1992.
- 李 俊,『蒼石集』, 『韓國文集叢刊』 88, 民族文化推進會, 1991.
- 李德懋,『國譯青莊館全書』, 民族文化推進會, 1983.
- 李晬光,『文章部』, 『韓國文集叢刊』 36, 民族文化推進會, 1989.
- 李 瀾,『星湖僊說』, 民族文化推進會, 1982.
- 陸九淵,『陸象山全集』, 世界書局, 民國 60.

- 鄭經世, 『愚伏集』, 『韓國文集叢刊』 68, 民族文化推進會, 1991.
- 許 筠, 『許筠全書』,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 , 『惺所覆瓿藁』, 『韓國文集叢刊』 74, 民族文化推進會, 1991.
- 許 穆, 『國譯 眉叟日記』, 民族文化推進會, 1982.
- 許 曄, 『草堂集』, 『韓國文集叢刊』 36, 民族文化推進會, 1989.
- 洪萬宗, 『詩話叢林』, 『洪萬宗全集』, 太學社, 1980.
- 『朝鮮王朝實錄(中宗, 明宗, 宣祖)』, 1986.
- 『大東野乘』, 民族文化推進會, 1970.
- 王守仁, 『陽明全書』, 中華書局, 1970.
- 朱 熹, 『朱子大全』.
- , 『朱子語類』.
- , 『孟子集註』.
- , 『大學集註』.
- , 『大學或問』.
- , 『中庸集註』.
- , 『中庸或問』.
- 黃 震, 『黃氏日抄』, 常務印書館, 1971.

2. 著書

- 고영진,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 吉川行次郎 著, 鄭清茂譯, 『宋詩概說』, 聯經出版事業公私, 民國 66.
- 김길락, 『韓國의 象山學과 陽明學』, 淸溪, 2004.
- 金相洪, 『韓國漢詩論과 實學派文學』, 啓明出版社, 1989.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太學社, 1994.

- 김풍기, 『朝鮮前期文學論研究』, 太學社, 1996.
- 金學主, 『中國文學史論』, 서울대 출판부, 2001.
- 文璇奎, 『韓國漢文學』, 정음사, 1961.
- 朴守川, 『芝峰類說 文章部の 批評樣相研究』, 太學社, 1995.
- 宋俊鎬, 『韓國名家漢詩選』, 文獻과 解釋社, 1999.
- 심경호, 『韓國漢詩의 理解』, 태학사, 2000.
- 王力著, 洪瑀欽 編譯, 『漢詩韻律論』, 경남대학교 출판부, 1987.
-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학림서점, 1983.
- 劉明鐘, 『韓國思想史』, 이문출판사, 1981.
- 이가원, 『朝鮮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문학』, 보고사, 2004.
- 李敏弘, 『朝鮮後期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成均館大學校 出判部, 1993.
- 李丙疇, 『韓國漢文學上的 杜詩研究』, 1981.
- _____, 『杜甫- 詩와 삶』, 아시아문화사, 1989.
- _____, 『書藝를 위한 盛唐詩選譯注』, 이화문화출판사, 1999.
- _____, 『書藝를 위한 韓國 漢詩의 譯解』, 이화문화출판사, 2000.
- 李炳漢, 『增補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通文館, 1985.
- _____, 『中國古典詩學의 理解』, 文學과 知識社, 1993.
- 이상은, 『退溪의 生涯와 學問』, 서문문고, 1973.
- 李鐘默,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 이혜순 외, 『우리 漢文學史의 새로운 照明』, 집문당, 1999.
- 林熒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84.
- 全鎔大, 『韓國古典詩學史』, 麒麟院, 1988.
- 정 민, 『穆陵文壇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 趙東一, 『韓國文學通史』 2, 知識産業社, 1983.
- _____, 『韓國의 文學史와 哲學史』, 지식산업사, 1996.

- _____, 『韓國文學 思想史 詩論』 제2판, 2009.
- 趙潤濟, 『韓國文學史』 10版, 탐구당, 2005.
- 陳允吉, 『中國文學과 禪』, 民族社, 1992.
- 車柱環, 『中國詩論』 增補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崔珍源, 『韓國 古典詩歌의 形象性』,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6.
- 玄相允, 『朝鮮儒學史』, 민중서관, 1949.
- 洪寅杓, 『洪萬宗 詩論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洪贊裕 譯註, 『詩話叢林』, 통문관, 1993.
- 黃涓江, 『韓國文學作家論』, 형설출판사, 1985.
- 칸딘스키, 『藝術에 있어서 精神的인 것에 대하여』(권형필역), 悅話堂, 1985.
- 韓國漢詩學會, 『韓國漢詩作家研究』, 太學社.

3. 論文

- 강명관, 「許筠과 明代文學」, 『民族文化史研究』 13호, 민족문화사학회, 1998.
- 권태을 외, 「蘇齋 盧守愼의 學問과 思想」, 韓國文化院研合會 慶尙北道支會, 2010.
- 김장태, 「夙興夜寐箴圖와 退溪의 修養論의 實踐課題」, 『退溪學報』 109집, 退溪學 研究院, 2001.
- _____, 「退溪門下의 陽明學 理解와 批判」, 『陽明學』 2호, 韓國陽明學會, 1998.
- 金光淳·文暉鉉·崔丞灝, 「蘇齋 盧守愼研究」, 『韓國의 哲學』 第17集, 慶北大 退溪學研究所, 1989.
- 김교빈, 「晦齋 哲學史上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김기현, 「蘇齋 盧守愼의 人心道心說에 대한 研究」, 『全羅文化論叢』 2集, 全

- 北大, 1988.
- 김미영, 「朱熹의 佛敎 批判과 工夫論 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 김성언, 「蘇齋 盧守愼의 流配期 漢詩에 나타난 動植物 象徴에 대하여」, 『韓國 漢詩作家研究』 5, 漢詩學會, 太學社, 2000.
- 김용재, 「退溪의 陽明學 批判에 대한 考察」, 『陽明學』 3, 韓國陽明學會, 1999.
- 김창호, 「朝鮮中期 西人系 詩人の 詩世界 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4.
- 김혜숙, 「栗谷詩의 道吟詠 方式과 心狀·美德」, 『古典文學研究』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 盧武植, 「鳳山書院誌」, 2009.
- 閔丙秀,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第1集, 1986.
- , 「朝鮮前期 漢詩의 展開樣相」, 『韓國文學史의 爭點』, 城山 張德順先生 停年退任 紀念論叢 刊行 委員會, 집문당, 1986.
- 박경환, 「工夫 方法論으로서의 存德性과 道門學」, 『論爭으로 보는 中國哲學』, 예문서원, 1994.
- 朴守川, 「國朝詩刪의 選試觀 研究」, 서울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 徐守鏞, 「蘇齋 盧守愼 詩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송하경, 「陽明學이 佛學이라는 비판에 대한 陽明學的 解明」, 『陽明學』 5, 韓國陽明學會, 2001.
- 송휘칠, 「羅整庵의 困知記와 奇高峯, 李栗谷의 主氣論」, 『韓國의 哲學』 21호, 慶北大 退溪學研究所.
- 申太永, 「盧守愼의 詩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 辛香林, 「盧守愼의 人心道心說에 내포된 陸王學의 心性修養論」, 『韓國漢文學研究』 34集, 韓國漢文學會, 2004.

- _____, 「盧守愼 詩에 나타난 思想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5.
- 安炳學, 「三唐派 詩世界の 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 _____, 「朝鮮中期 唐詩風과 詩論의 展開樣相」, 『韓國文學研究』 2호,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2000.
- 劉明鐘, 「羅整庵의 氣哲學과 李朝儒學」, 『人文科學』 第3·4集, 成均館大人文學研究所, 1973.
- _____, 「蘇齋 盧守愼」, 『韓國人物儒學史』 2, 한길사, 1996.
- _____, 「耻齋 洪仁祐論」, 『現代와 宗教』 12, 현대종교문제 연구소, 1989.
- 李承和, 「蘇齋 盧守愼의 漢詩研究」, 檀國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 이영주, 「杜詩의 句法과 字法 研究」, 『中國文學』, 한국중국어문학회, 2003.
- 이재숙, 「용재 이행의 시문학 연구」,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 李鐘默, 「朝鮮前期 漢詩의 唐風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18集, 韓國漢文學研究會, 1995.
- 李鍾虎, 「蓀谷 李達과 三唐派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 李惠榮, 「湖陰 鄭士龍의 詩研究」, 忠南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 鄭亢教, 「栗谷 李珣의 詩文學 研究」, 暎園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조남호, 「羅欽順 철학과 朝鮮學者들의 論辯」, 서울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9.
- 趙誠乙, 「蘇齋 盧守愼의 學問과 政治活動」, 『南明學研究』 3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 蔡龍福, 「蘇齋 盧守愼 詩의 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 홍학희, 「栗谷 李珣의 詩文學 研究」, 梨花女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 黃球夏, 「蘇齋 盧守愼의 心學」, 嶺南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 황준연, 「朝鮮 性理學의 人心道心說에 대한 分析」, 『論文集』 15, 圓光大學校, 1981.

ABSTRACT

A Study on Sojae Noh Su-shin's Poetry Literature

Cho Hea-chang
Dept of Chi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jae(蘇齋) Noh Su-shin(盧守愼;1515-1590) is a figure who had lived in Mokreungseongse(穆陵盛世) in the 16th century whose writing style had been brilliant. He was respected as a poet and philosopher, and reached up Yeonguijeong(領議政:High State Councillor) even in a government post. However, looking in even his life carefully that is seen to have had high reputation and the striking fortune of starting his official career, he can be known to have had considerably a life full of ups and downs. He is a figure who did set out banishment in his early 30s when is the most golden age in life, who suffered pain in a place of exile of Jindo for 22 years, and who entered upon substantially the government post with being released just when becoming the mid 50s. As for what he could go up the highest position in a short time in the face of the government-post life that was begun belatedly, the special trust of king Seonjo(宣祖) might be the primary factor, of course. However, even the experienced conduct, which was obtained through the life of exile, is thought to have been likely a major cause.

To understand Sojae,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stature as a scholar

of Yangmyeonghak(陽明學:teachings of Wang Yang-ming) together with his poetry literature. Sojae strived to accept it as a mandate from Heaven with conquering frustration and resentment in the exile period, and was absorbed in learning for lots of time in its process. As a result, own theory was established. This originated from skepticism for Zhu Xi's philosophy that he had believed in the meantime. He proceeded with fixing its framework with accepting the thought of Nah Heum-sun(羅欽順) in Ming Dynasty. His philosophy confronted objection of Saryu(士類)s with the center on Toegye who have Zhu Xi's scholastic mantle, which is the mainstream at that time, and of Gi Dae-seung(奇大升) · Lee Hang(李恒). However, his faith got firmer, thereby coming to establish theory of Igiilwonlon(理氣一元論) that can be said to be new coordinate in Gi philosophy(氣哲學) of Joseon. This had great influence upon Gi philosophy(氣哲學) in Joseon, was systematized by many scholars, and came to coexist in philosophical history of Joseon together with Igiilwonlon(理氣二元論), and can be guessed that Sojae's role was great in its process.

Sojae also asserted that a desire is essence of being possessed by a person, thereby having no need to be in line with tao(道) by being recklessly cut. Positivity on a desire was literally accepted by his literature, caused a change in moderate Songsipung(宋詩風), which had been popular at that time, and allowed the poetic theory of Haedonggangseosipa(海東江西詩派) to advance one step further, thereby having created big sensation in the literary world at that time. As Sojae is a worker for Haedonggangseosipa(海東江西詩派), he was a figure who widely experienced Hwang Jeong-gyeon and Jinsado, and simultaneously

was a figure who admired Dubo(杜甫). He is said to have studied Dubo in Jeokgeoji(place of exile) and did read voraciously his poetry about 2,000 times enough. As a result, he came to be admired as saying of being Joseon-based revival of Dubo from Heo Gyun. He comes to play a role of bridge in appearance of Samdangpa(三唐派) through Saugwangye(師友關係) that he made with Baek Gwang-hun(白光勳) · Choe Gyeong-chang(崔慶昌). Through this, Sojae can be known to be a figure who posed a role of bridge in the process of reading voraciously Dangsi(唐詩) with accepting Songsi(宋詩).

Characteristic in Sojae's poem is what properly uses Junguibep(重義法), repetition method(反復法), conversational tone(對話體) in rhetorical device and expression technique. Proper nouns such as land name · person's name · government post name · philosophical terminology · Ganji were utilized positively as poetic diction. Even Lio(俚語) and conjunction were properly distributed. Thus, excellent poetic effect is being achieved. His progressive extremity in this way also receives positive evaluation. Analyzing poetry by content, it is summarized as Seunggyeongjajeok(勝景自適) and Talsokjihyang(脫俗 指向), loyalty to Sachin(思親) and Yeongun(戀君), Jeonghoe(情懷) in frustration and Chogeuk, Chimjam(沈潛) and achievement in learning, and realistic depiction of natural landscape. Sojae's poetry is receiving evaluation as saying of 'having Mangyunjise(萬鈞之勢)' mostly in his poetic style. It can be said to be evaluation of integrating grand and deep taste in poem.

Sojae left immortal achievement of establishing literature and philosophy by subliming barren and poor environment rather into new life with suffering pain for 22 years in Jeokgeoji(place of exile). He achieved the

refined work world with energetic creativity and resolute determination by accepting reality as destiny and subliming this with conquering frustration in exile. Through the delicate consideration on his work world, it will be able to be known to be never vain reputation in which he was ranked as Hosoji(湖蘇芝) together with Jeong Sa-ryong(鄭士龍)·Hwang Jeong-uk(黃廷彧) and was admired as 'Gwangaksamjeol(館閣三傑).' Even the evaluation as saying that he allowed Gwaninmunhak(官人文學) in the mid Joseon to go up the top will come to be recognized not to be excessive.

Keywords: Sojae(蘇齋) Noh Su-shin(盧守愼), Songsi(宋詩), Gangseosipa(江西詩派), Gwangakmunin(館閣文人), Haedonggangseosipa(海東江西詩派), Dangsi(唐詩), Yangmyeonghak(陽明學:teachings of Wang Yang-ming).